沙下誌

沙下誌發刊推進委員會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 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최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중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궁지를 지난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洛東江河口 철새 到來地〉



〈乙淑島 갈대밭〉



〈下端 浦口 옛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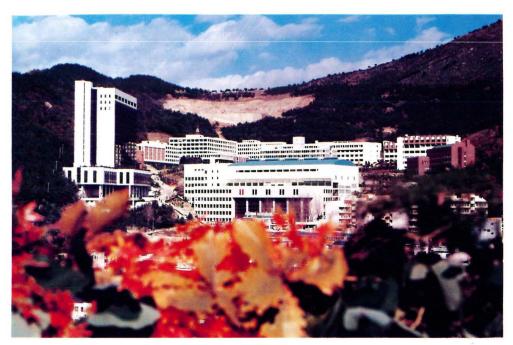
〈洛東江 河口号工事〉



〈沙下區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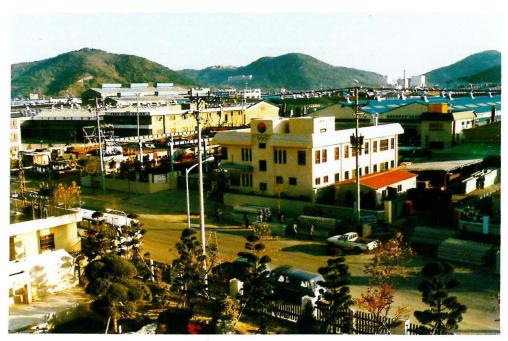
〈沙下 圖書舘〉



〈東亞大學校〉



〈東州女子專門大學〉



〈新平, 長林工團〉



〈 당리동 새마을 幼兒園 〉



〈花壇造成〉



〈洛東路 街路整備〉



〈區民의 和合〉



〈모내기일손 돕기〉



〈多大浦 客舎〉



〈에덴公園 市民憲章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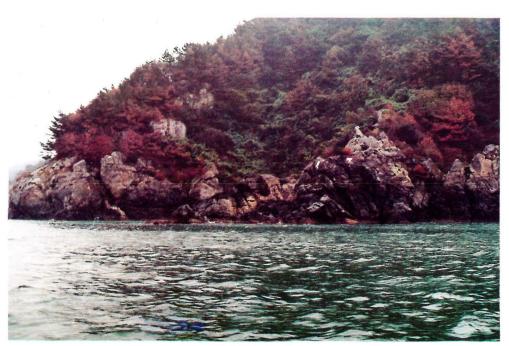
〈多大海水浴場〉



〈多 大 港〉



〈에덴公園〉



〈没雲臺 絶景〉

人

사하전경	
화 보	9
휘 호	. 19
발 간 사	
축 사	. 29
제 1 장 사하의 개관 ······	31
1. 자연환경	33
2. 사하의 산	38
3. 사하의 도서	39
4. 사하의 위치	39
5. 사하의 연혁	40
제 2 장 사하의 약사	41
1. 선사시대	43
1) 시대개관	43
2) 신석기시대 ·····	43
(1) 다대포 패총	
3) 청동기시대	48
(1) 시대개관 (2) 괴정동 무문토기	
(3) 감천동 지석묘	
4) 철기시대	53
(1) 시대대관 (2) 괴정동 패총	
(3) 하단동 패총 (4) 신평동 패총	
(5) 괴정동 고분군	
2. 삼국시대 ·····	63
1) 사하와 가야문화	63

2) 신라시대		67
3. 고려시대		70
1) 시대개관		70
2) 지방 호족의 대두와 지방제도의	확립	71
3) 고려시대의 사하		72
4) 몽고 침입과 삼별초 난		75
5) 왜구의 잦은 침입		77
4. 조선시대		81
1) 조선 전기		81
(1) 시대개관	(2) 조선 전기의 사하	
(3) 조선 전기의 국방과 부산	(4) 교통과 통신체제	
(5) 산업공부와 조운	(6) 삼포의 왜란	
(7) 임진왜란		
2) 조선후기	1	116
(1) 시대개관	(2) 국방과 경비	
(3) 조세 부담	(4) 장시와 상업	
(5) 개항기의 사하	(6) 대티촌과 일본인	
5. 개항 이후의 사하		125
1) 강요당한 부산 개항	······]	125
2) 일제시대	······ 1	27
3) 해방의 기쁨	······1	31
4) 6.25동란······		.32
5) 환도이후	1	.33
6) 신흥중심가로 변모		36
제3장 사하의 구정과 동	1	.39
1. 사하의 어제와 오늘	I	41
	1	
	······1	
(1) 사업의 동기 및 필요성		
(1) - 1 1 - 1 0 - 1 \ 2 2 2 0		

3) 공유수면 매립
4) 다대 택지조성
5) 감천항 개발148
6) 신평·장림 공업단지 조성 ······150
7) 하천 유지관리152
8) 장림 하수처리장 건설153
9) 낙동강 하구둑 건설154
(1) 하구둑 공사개요 (2) 하구둑 건설의 문제점 제기
(3) 하구둑 건설과 개발론의 주장(4) 대책방향
(5) 낙동강 하구둑 건설의 효과
2. 동의 유래165
1) 괴 정 동165
2) 당리동174
3) 하 단 동176
4) 신 평 동183
5) 장림동187
6) 다 대 동 ······ 192
7) 구 평 동204
8) 감 천 동208
제 4 장 사하의 유적 및 명소
1. 유적 및 유물 217
1) 다대포 객사
2) 다대포 성지 ···································
3) 윤 공 단
4) 정운공 순의비
5) 몰 운 대 ······233
6) 다대 첨사·갑주 ···································
7) 응봉 봉수대
8) 목장성지239

9) 제석곶 성지			241	
10) 윤공 제영			242	,
(1) 제영 개요	(2) 제	ं		
2. 천연기념물			247	7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247	7
(1) 겨울 새	(2) 여름	새		
(3) 나그네 새	(4) 텃새			
2) 괴정동 회화나무			253	}
3. 전 설			254	ļ
1) 신평동 망후촌			254	
2) 신 선 암			255	;
4. 특산 및 명물			257	
1) 하단 재첩			257	
2) 장림의 김			258	}
3) 다대포 멸치젗			159)
5. 역대 다대포 첨사 인명록			261	
6. 기 타			276	;
1) 에덴공원			276	;
제 5 장 사하구 유관기관 및 봉사단	<u> </u> 단체 ·······		279	9
1. 유관기관			28]	1
1) 사하구청			281	
(1) 지 세	(2) 지역/	성격		
(3) 지역여건	(4) 특수 여	여건		
(5) 기 구	(6) 역대	출장소장		
(7) 역대 구청장			a E	
2) 서부경찰서			286	5
3) 서부교육구청			289)
4) 사하소방서				
5) 사하구 보건소			296	i

6	5) 서부산세무서	299	
7	7) 부산 사하우체국	301	
8	3) 한국전력공사 부산화력발전소	302	
ç)) 아미전신전화국 괴정분국	304	
1	0) 부산직할시 시립사하도서관	306	
	1) 동아대학교		
13	2) 동주여자전문대학	312	
2.	봉사단체	320	
1	[) 한국반공연맹 부산직할시 사하구지부	320	
2	2) 재향군인회 사하구 연합분회	321	
3	3) 대한민국 부산 사하팔각회	322	
4	!) 부산 사하라이온스클럽	325	
	5) 부산 사하청년회의소		
6	5) 사단법인 B.B.S부산시연맹 서부지구회 ·····	528	
7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사하구지부	330	
저	∥6장 각급위원회 ⋯⋯⋯⋯⋯⋯⋯⋯⋯⋯⋯⋯⋯⋯⋯⋯⋯⋯	333	
	퍼런트 이 카페리 및 이 이	335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사하구 정화추진협의회		
	• 사하구 새마을조직회장단		
	• 새마을운동 서훈자		
	• 사하구 방위협의회		
	• 사하구 체육회 이사		
	• 동개발위원 ····································		
	• 사하구 역대 국회위원 ····································		
	• 사하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351	
	• 신평 · 장림공업지역 관리협의회 ·····		
	• 사하구 각 기업체 ···································		
	• 범민족 올림픽추진 사하구협의회 대의원		
	• 사하지 발가추지위원		

發 刊 辭



우리 沙下는 天惠를 입에 높고 푸른 하늘과 칠백 리洛東江 물이 도도히 흘러내려 비옥한 땅을 이루어 놓은, 그리고, 太白山脈 끝자락이 多大浦에 이르러 没雲臺의 奇景을 이루고, 沙下를 병풍처럼 포근히 감싸주고, 바람 따스한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이래로 가는 곳마다 祖上의 얼이스며 있는 고장입니다.

祖上이 남긴 遺蹟에서 따뜻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外敵의 侵入이 있을 때마다 祖上들이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敵과 싸운 격전지에서 그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마을의 地名에서, 傳說에서 祖上의 따뜻한 人情美를 맛볼 수 있읍니다.

지금까지 機械文明의 發達과 都市文化의 소용돌이 속에서 社會構造가 複雜해지면서 우리의 傳統이 담긴 내 고장의 뿌리도 돌아볼 겨를도 없었읍니다.

先史時代부터 祖上이 살아 오면서 남긴 遺物・遺蹟 등 歷史的 事實과 오늘의 沙下에 대하 記録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禁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던 중 우리 고장을 빛내려는 뜻있는 人士들이 모여 여기에 沙下의 歷史와 오늘이 담긴 「沙下誌」를 編纂, 發刊하게 되었읍니다.

내 고장의 뿌리를 찾고, 郷土愛를 鼓吹시켜 和合과 團結로써 沙下의 地域發展에 너 나 할 것 없이 참여할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沙下는 没雲臺를 비롯하여 多大八景의 아름다운 絶景, 그리고 洛東江 河口에 펼쳐진 갈대밭의 世界的인 철새 渡來地는 浪漫이 어우러진 觀光地이기도 합니다.

우리 沙下는 지금 先進祖國 創造를 위해 힘찬 建設의 메아리가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읍니다. 甘川港 建設工事를 비롯하여 新平·長林工業團地 造成, 洛東江 河口 둑 建設 등은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福된 땅으로 가꿀 것입니다.

沙下誌 發刊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物心兩面으로 도움을 주신 丁徹鎮 區廳長 님, 그리고 推進委員 여러분과 各界 各層에서 협조해 주신 고마운 정성에 대하

여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沙下區廳 總務課 企劃指導係 裵相浩 係長은 資料蒐集과 原稿整理, 寫 眞 촬영 및 수집, 出版에 이르기까지 1年餘 동안 不徹晝夜 心血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沙下의 發展을 위해 獻身한 분들의 資料를 充分히 蒐集치 못하여 收録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繼續 資料를 發掘 增補할 것을 約束드립니다.

郷土 沙下誌가 未治함을 널리 諒解하여 주시고 이를 契機로 先祖들의 國難克服과 억척같이 生을 이어 내려온 슬기를 거울삼아 無窮한 沙下의 發展을 위하여 우리 모두 榮光된 새 歷史를 創造하는 主役이 될 것을 다짐하며 發刊辭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年 12月 日

沙下誌發刊推進委員長 董 泰 烈

积解



아득히 먼 옛날 福된 땅을 찾아 우리 先祖들이 南으로 南으로 내려와 洛東江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沙下에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文明의 싹을 움트게 하여 꽃을 피웠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貴한 生命까지도 기꺼이 바친 沙下 先人들의 눈물겨운 抗戰이 어리어 있으며,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祖上의 얼이 스며있는 곳이 바로 우 리 고장 沙下입니다.

우리의 傳統이 담긴 고장을 사랑하고 繁榮과 發展, 榮光스런 來日을 爲해 이번에 뜻있는 沙下의 人士들께서 沙下誌 發刊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沙下誌를 發刊하게 된 것을 28萬 區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이번 沙下誌의 發刊은 現代物質 文明의 거센 跳戰 속에 잃었던 우리의 傳統 인 故郷의 뿌리를 찾는 것이요, 郷土愛의 根源이 되는 것이며, 祖上의 얼을 되 새기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沙下區民의 자랑스런 自我發見의 礎石이 된다고 確信합니다.

우리 沙下地域은 어느 곳보다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됩니다. 洛東江이 도도히 흘러내려 만든 肥沃한 沃土, 秀麗한 山川, 그리고 푸르른 바다는 우리에게 꿈과 勇氣를 주었고, 삶의 安息處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世界的으로 이름난 乙淑島 갈대밭과 철새는 浪漫을 심어 주었고 삶의 叡智를 주었읍니다.

祖上들이 沙下의 곳곳에 남겨놓은 遺物에서 그분들의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多大浦에 있는 遺蹟에서 壬辰倭亂의 戰禍속에서도 슬기와 團合으로 國亂을 克服한 民族 自主 精神의 郷土愛를 찾을 수 있으며 오늘의 發展된 沙下에서 우리 區民의 底力을 엿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祖上의 얼과 民族魂을 일깨우고 現實을 再照明해 보기 爲해 沙下의 뿌

리를 찾고 整理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 금할길 없읍니다.

親愛하는 28萬 區民 여러분!

이제 우리는 祖上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졌고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진, 祖上의뼈가 묻혀있고, 우리가 살다가 後孫에게 물려줄 우리의 沙下를 區民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고장 沙下는 解放前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落後된 地域이었으나 새마을 運動의 메아리와 함께 넓고 탄탄한 길이 뚫리었고, 新平, 長林에 48 萬坪 規摸의 工團이 造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工場이 들어섰고, 快適한 住 宅地가 形成되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되었읍니다.

더구나 洛東江은 우리 釜山, 아니 우리 나라의 젖줄이며 釜山發展의 原動力이라할 수 있는 하구둑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고장 沙下는 名實共히 交通, 工業, 觀光地로써 앞으로 西釜山 中心圏으로 크게 發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이번 沙下誌 發刊을 계기로 郷土愛는 물론 郷土文化의 育成 發展과 함께 힘찬 跳躍의 우렁찬 喊聲이 승학산 기슭을 通하여 全區에 메아리지고 區民 여러분들 의 간단없는 聲援속에 沙下는 永遠히 뻗어나갈 것을 確信하며 다시 한번 沙下誌 發刊을 祝賀해 마지 않읍니다.

그동안 沙下誌 發刊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리며 區民 여러분 들의 家庭에 幸運과 繁榮이 함께 하시길 充心으로 祈願합니다.

1986年 12月 日

釜山直轄市 沙下區廳長 丁 徹 鎭

第一章 沙下의 概觀

- 1. 自然環境
- 2. 沙下의 山
- 3. 沙下의 島嶼
- 4. 沙下의 位置
- 5. 沙下의 沿革

1. 자연 환경(自然環境)

사하(沙下)는 부산시의 서남단(西南端)에 자리잡고 있다. 장군봉(將軍峰), 천 마산(天馬山), 아미산(峨嵋山), 시약산(蒔藥山)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 서구를 두 었고, 구덕산(九德山) 서쪽 능선과 승학산(乘鶴山) 줄기를 경계로 한 북쪽과 낙 동강(洛東江)을 경계로 한 서쪽에 북구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감천만, 다대만이 바다와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낙동강 하류와 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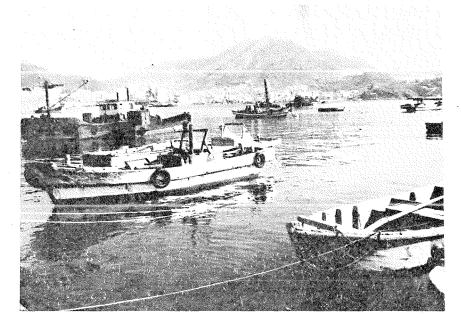
부산 지형(地形)의 골격을 형성하는 태백 산맥이 다대포(多大浦)에서 일어나 응봉(鷹峰), 봉화산(峰火山), 동뫼의 산이 우뚝 솟아 그 줄기가 시약산(蒔藥山) 으로 이어지고, 낙동강 강가에 솟은 승학산의 줄기가 구덕산의 서쪽 능선과 이어져 사하의 등뒤로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서쪽으로는 장장 700 리를 도도히 흘러내려온 낙동강 물이 비옥한 삼각주(三角洲)를 형성, 을숙도등 여러 섬을 만들었고, 남쪽은 심한 지형의 굴곡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지형(地形)은 대체적으로 단층지형(斷層地形)으로 단층산지(斷層山地), 단층곡지(斷層谷地), 단층해안지형(斷層海岸地形)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히 급경사를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의 줄기인 시약산에서 발원(發源)한 괴정천(槐亭川)이직선적으로 안산암층을 관류(貫流)하여 하단으로 흘러 낙동강에 들어간다. 이하천은 속칭「세리골」을 급하게 내려와 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며, 반월형으로 괴정동을 감싸고 흘러 괴정 침식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괴정천 하류를 정비하기전에는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 범람했었다. 그리고, 승학산에서 흘러내린 당리천(堂里川: 제석골렁)과 함께 괴정동에서 하단까지 계속되는 좁다란 하곡평지(河谷平地)의 농사에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가정과 공장에서 버린 폐수로 쓸모없는 냇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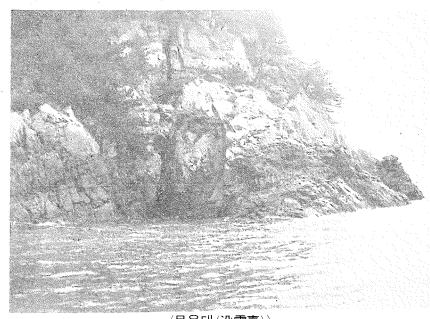
천마산이 뻗은 산줄기, 즉 장군반도가 감천만을 감싸고 있으며, 이 반도 끝두도(頭島) 서쪽에 있는 감천만의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이며, 해식애(海蝕崖)로 급한 경사이다. 두송(頭松)산과 두도 사이에 방파제를 막으면, 남풍이 불때

큰 파도를 막아 항구로 이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감 천 항 구〉

서쪽 낙동강변의 산줄기는 두송반도(頭松半島)를 형성하여 다대포 몰운대(没雲臺)와 함께 다대만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림지역(長林地域)은 장림천(長林川)의 침식으로 좁은 하곡평지(河谷平地)를 이루며 신평동과의 사이에 낙동강의 토사유입(土砂流入)으로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1939년 낙동강가에 제방을 쌓아서 간척지(干拓地)를 만들었다. 두송반도 서쪽에서 몰운대까지가 다대항(多大港)인데 수심(水深)이 5~7m의 좁은 해역으로 어항(漁港)으로 쓰이나, 항역(港域)이 좁다. 서쪽에 약 500m의 사빈(砂濱)이 있어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만, 수심이 아주 얕으며, 역석(礫石)이 섞여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 서쪽 낙동강변에는 넓은 사장(砂場)이 계속되어 해수욕장으로 쓰이고 있으나, 낙동강수위(水位)의 변화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물 밑바닥의 깊이가일정하지를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강물의 유입으로 홍수가 나면 해수욕장 구실을 못한다.



〈몰운대(沒雲臺)〉

그 남쪽에 있는 쥐섬(鼠島: 芝森島)은 몰운대와 함께 급한 암석해안(岩石海岸)이며, 이 일대는 임진왜란때의 격전지로 섬에는 동백나무가 자생(自生)한다.

낙동강은 많은 지류(支流)를 합하여 700 리를 흘러내려 북구 명지동과 경계를 이룬다. 낙동강 하구지역은 삼각주(三角洲)의 발달과 함께 토사유입((土砂流入)으로 사빈(砂濱)을 이루고 있다. 하구의 하폭(河幅)은 약 2~3km이고, 수심이 1~2m로 얕아 작은 배는 통행할 수 있으나, 대형선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낙동강 유역인 하단, 신평지역은 사질퇴적평야(砂質堆積平野)를 이룬다. 특히 일웅도(日雄島), 을숙도(乙叔島)등은 채소 경작에 적당하다.

부산직할시의 지질은 백악기(白堊紀)를 통하여 형성된 경상계(慶尚系) 신라통 (新羅統) 퇴적암층(堆積岩層)과 중성화산암류(中性火山岩類)로 구성되어 있다.이퇴적암의 하부에서는 역암(礫岩), 자색(赭色)세일, 자색이암(赭色泥岩), 녹회색(緑灰色)세일이 우세하며, 이를 송도층(松島層)이라 부르고 있다. 하부 송도층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석층(礫石層)은 자색이암·담록색 세일 사이에 끼여져있다.

송도층의 분포는 감천만 앞 장군반도의 해안, 다대포 일원, 그리고 장림동 서

편 해안에 있으며, 주향(走向)은 N40-70°W로서 동북 20° 경사이다. 이 곳의 역 암은 동일층준(同一層準)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하부는 바다 혹은 안산암질암(安山岩質岩)과 집하며, 상부에 엷은 암회색석회암(暗灰色石灰岩)이 보인다.

다대포에서는 두꼐 6 m 이하인 여러 개의 역암층은 윗부분일수록 세증(細層)으로 되며, 그 사이에 자색 이암·녹색 세일이 끼여져 있다. 역경(礫徑)은 평균 2~4 cm이고 최대경(最大徑)은 10 cm이다. 역종(礫種)은 쳐어트(chert). ·화산암역(火山岩礫) · 견질적갈색 이암(堅質赤褐色泥岩)과 극소량의 석회암역(石灰岩)에다.

낙동강이 흘러 삼각주를 이루고, 바닷물이 접하고 있어 해상(海床)을 이루어물가에 갈대밭이 끝없이 이어져 생물의 서식과 자생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식물군(植物群)도 풍부하며, 특히 을숙도에는 12 과(科) 21 종(種)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고, 몰운대와 두송반도 해안에는 주로 난대적성식물(暖帶適性植物)이 자생하고 있다.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하고 있는 낙동강에는 유명한 재첩과 고시라기, 어패류 (魚貝類)가 풍부하여, 수 많은 철새들의 도래지(渡來地)로서 유명하여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철따라 날아온 철새들은 부유생물(浮遊生物)이 많은 이곳에 삶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웅비하는 장관을 이루며, 부산의 명물이며, 세계에 둘도 없는 광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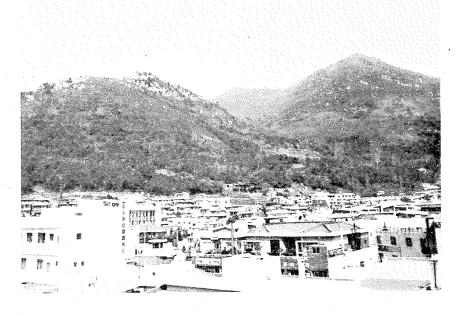
사하의 자연은 실로 아름답다.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을숙도. 몰운대, 에 덴공원 등에는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사하구민의 꿈과 낭만이 어리어 있다.



〈낙동강(洛東江) 철새〉

2. 사하(沙下)의 산(山)

[]	Ц	名	洞		名	<u>Ļ</u> <u>ū</u>	o (m)
시	약	산(蒔樂山)	迎	정	<u>F</u>	500	
승	, चे-	산(乘鶴山)	탕	리	동	496	
동		뫼 (동매산)	신	সূর	다.	210	
봉	화	산(峰火山)	7.	ট্র	동	149	
응		봉(鷹 峰)	다	대	ド	234	
몰	순	대(没雲臺)	다	대	동	78	
두	李	산(頭松山)	7	평	도	95	
천	નિ	산(天馬山)	감	천	도	324	
금티	산(金峰	制1: 운수산)	감	천	도	187	· .



〈승학산(乘鶴山)〉

3. 사하(沙下)의 도서(島嶼)

島嶼名	ſĚ.	所	地目	面 積 (m²)	備考
팔 봉 섬	다대동 1491		임야	508	
동 호 섬	″ 1492		<i>"</i>	2,024	
동 섬	" 1493		. "	2,206	
모 자 섬	″ 1494		"	3,322	
오리섬	" · 1495		" ,	326	
금 문 도	″ 1496		"	494	}
자 섬	″ 1497		"	208	
목 섬	″ 산148		<i>"</i>	4,760	
남형제섬	" 149		″	10,382	
북형제섬	″ 산 150		″	11,352	
솔 섬	" 371-6 및 "	7	전 및 임야	4,476	
쥐 섬	″ 산 146		임 야	53,455	
을 숙 도	하단동 1149번지 외	의 6 필	잡 종	2,422,965	有人島
일 웅 도	〃 902번지 외	246	"	1,797,601	"

4. 사하(沙下)의 위치(位置)

-1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지 점	동 경	북 위.	(km)	
동단	감천동 산99−1	129° 00′ 48.9″	35° 05′ 16.5″	동서간	
서단	하 단 동1155	128°56′03.0″	35°06′31.6″	7.6	
남단	다대동산 144	128°58′00.0″	35°01′48.6″	남북간	
북단.	하 단 동 902	128°57′34.5″	35° 08′ 05.0″	11.6	

5. 사하(沙下)의 연혁(沿革)

연 대	변 천 내 용	시 대	참 고
先 史 時 代 三 韓	多大、槐亭、下端、甘川、新坪 등 居住 弁韓	三 韓	貝塚,古墳 古墳
伽《鄉	金官伽倻 ➡ 居漆山國	가 야	"
三 國	居漆山郡	신 라	法興王 19年
757	東萊榔	신 라	景德王 16年
1018	東萊縣으로 蔚州郡의 영현	고 려	顯宗 9年
1397	「鎭」設置로 兵馬使를 둠	조 선	太祖 6年
1420	釜山浦에 左道水軍都按撫處의 本營設置	"	世宗 2年
•	多大浦 萬戸營設置	"	
1530	鷹峰烽燧臺 設置	"	中宗 25年
1547	東萊都護府로 昇格	"	明宗 2年
1903	東萊郡 沙下面	"	光武 7年
1910. 10. 1	釜山府가 設置되고 沙下面 一部 편입	日 帝	부령 7호
1942. 10. 1	〃 沙下出張所 設置:沙下管轄	"	부령 242호
1949, 8.15	釜山市	大韓民國	地方自治法
1957. 1. 1	〃 西區	"	法律 제407호
1959. 1. 1	甘川洞이 甘川 1洞, 2洞으로 나뉨	"	시조례 156호
1963. 1. 1	政府直轄市 呈昇格	"	法律 제1173호
1966. 1. 1	槐亭洞이 槐亭 1 洞, 2洞으로 나뉨	"	시조례 제176호
1975. 10. 1	沙下出張所 設置(市直轄)	大韓民國	시조례 제870호
1979. 8. 8	槐亭 1 洞이 槐亭 1 洞과 4 洞으로 나뉨	"	시조례 제1360호
1983. 10. 8	長林洞이 長林 1洞, 2洞으로 나뉨.	"	시조례 제1864호
1983. 12. 15	沙下區 昇格,開廳		대통령령 제11248호

第二章 沙下의 略史

- 1. 先 史 時 代
- 2. 三 國 時 代
- 3. 高麗 時代
- 4. 朝 鮮 時 代
- 5. 開港以后의 沙下

1. 선사시대(先史時代)

1) 시대개관(時代概觀)

원시 시대(原始時代)란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문헌적(文獻的) 자료가전혀 없는 역사 이전의 시대로서 흔히는 선사 시대라고 말한다. 그리하여,우리 인류의 역사를 문자(文字)로 기록한 역사 시대와, 문자가 없고 다만 그유물에 의하여 그 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선사 시대(先史時代)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선사 시대는 고고학(考古學)에서의 석기 시대(石器時代)와 청동기 시대(青銅器時代)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 자료로서는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이며 고고학(考古學)과 인류학(人類學), 민속학(民俗學), 사회학(社會學)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선사 시대(先史時代)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기물(器物→器具)에 의하여 시대적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시대라 하면 곧 삼국 시대(三國時代)부터를 말하며 그 이전의 시대는 통털어 선사 시대(先史時代)로 여기고 있으며,우리 역사의 여명기(黎明期)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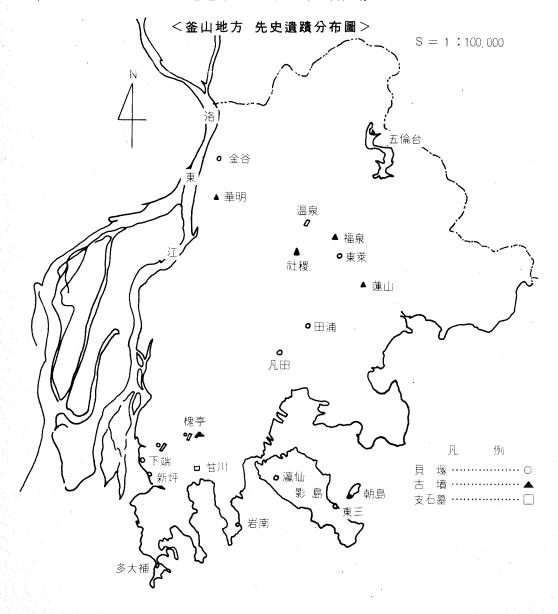
2)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사하(沙下)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다대포(多大浦), 괴정(槐亭)등 선사 시대(先史時代)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을 통해서 신석기 이후부터 살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구석기 시대(舊石器時代)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하(沙下)지역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은 많다. 다만 사하에서 알려진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패총(貝塚)뿐이다.

패총(貝塚)은 「조개무지」,「조개무덤」을 말하며 그 때의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쌓여 생긴 것이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의 유물이 썩지 않고 잘 남아 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의 생활연구에 길잡이가 되고 있다.

낙동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사하(沙下)는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의 패총(貝塚)이 다대포(多大浦)에서 해방전부터 발굴되었으나 도시 개 발과 낙동강 하류의 자연현상으로 없어져 버렸다.



(1) 다대포(多大浦) 패총(貝塚)

다대동 몰운대(沒雲台) 북쪽 기슭에 위치한 이 패총은 해방전부터 알 려져 왔으나, 1966년 부산대박물관팀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 조사되었다.

몰운대 입구의 낙동강구쪽에 자리한 이 패총은 지금은 육지와 이어졌으나 신라 이전에는 몰운대가 작은 섬 즉,나전소도(羅前小島)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원래는 작은 섬이었다. 이 곳은 낙동강 물과 바닷물이 합치는 곳으로 그 파도에 의해 패총이 많이 침식(浸蝕)되어 없어져 버렸고, 서쪽면 높이 3 m 정도의 단애(斷崖)가 남아 있었는데,여기에 4층의 문화층위가 뚜렷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제 1 층은 표토층(表土層)으로 북쪽의 두께가 1 m 15 cm이며,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점점 얇게 되어 있었다.

제 2 층은 조개껍질이 섞여 있는 부식토층(腐蝕土層)으로 북쪽의 두께는 67 cm이나, 중앙에서 약간 두터워졌다가 남쪽으로 가면서 차차 얇아졌다.

제 3 층은 흑색 부식토층(黑色腐蝕土層)으로 북쪽의 두께가 1 m 정도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두꺼워지고 있다.

제 4 층은 자갈이 박힌 역석층(礫石層)으로 두께가 50 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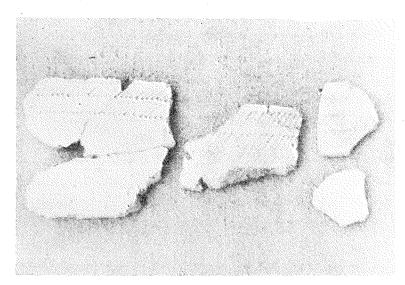
제 1 층에서는 아무런 유물(遺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 2 층에는 조 개껍질이 25% 정도 섞인 속에서 회청색(灰靑色) 경질토기편(硬質土 器片)과 적갈색(赤褐色) 연질토기편(軟質土器片)이 출토되고 그 밑 에 빗살무늬(櫛文)토기편이 섞여 있었다. 또한 제 3 층의 검정색 부식토 층에서 본격적인 빗살무늬 토기편과 붉은 산화철(酸化鐵)을 칠한 단도 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편이 섞여 나오고 있다.



<다대포패총발굴>

이상에서 볼 때 다대포(多大浦) 패총(貝塚)의 문화층 위는 대체로 위층(제2층)과 아래층(제3층)의 두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위층의 토 기편은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에서 청동기 시대(靑銅器時代)를 거친 다음에 나타나는 이른바 김해문화기(金海文化期)의 유물(遺物)인 것이 며, 아래층의 토기편(土器片)은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후기의 것으 로 이 토기를 사용한 시기가 사하(沙下)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 작한 시대이다.

부산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대략 지금부터 5~6000년 전에 시작되어 3000년을 전후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에 부산 지방에서는 영도 동삼동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게 되었고, 뒤이어 이웃의 아치섬(朝島), 영선동(瀛仙洞), 다대동(多大洞)등에서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가장 늦게 암남동(岩南洞)과 금곡동에서 살게 되었다.



<多大浦貝塚出土幾何文土器 >

따라서, 유적 (遺蹟)의 분포 상태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사하 지방에는 영도에 살던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 낙동강 하류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동일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자자 성격이 다른 새로운 집단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생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대동 패총에서 층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았던 흔적을 발굴된 유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대포 패총은 두 문화층(文化層)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양분하여 본다면, 아랫문화층에서는 기하문계(幾何文系) 토기(土器)와 무문토기(無文土器)가 발견되었고, 윗문화층에서 회색(灰色) 경질토기계통(硬質土器系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와같은 유물을 비교하여 보면 이 두문화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아랫층문화의 주민이 살다가 버리고 간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윗층 문화의 주민이 다대포에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석기 문화인들이 살다가 떠

난 뒤 어느 시기에 김해기 문화인들이 또 **그** 위에 자리잡고 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3)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

(1) 시대개관(時代概觀)

지금으로 부터 3000 년경을 전후하여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 말기(末期)에 이르러 새로운 사람들이 농경문화를 가지고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계통의 청동기 문화(靑銅器文化)를 바탕으로 중국 화북(華北)의 농경문화(農耕文化)를 받아들인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선주민(先住民)이었던 신석기 시대인(新石器時代人)들을 정복, 동화시켜 지금의 한민족(韓民族)의 주류를 이루었다.

청동기 시대인 (青銅器時代人) 들은 표면에 아무 무늬도 없는 무문토기 (無文土器)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따로 각문(刻文), 융기문(隆起文), 채문(彩文)을 가진 유문토기(有文土器)와 그릇표면에 산화철(酸化鐵)을 바르고 마연(磨研)한 홍도(紅陶)등 여러 종류의 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주민(先住民)을 동화흡수(同化吸收)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며 지석묘(支石墓), 석상분(石箱墳), 패충(貝塚) 등의 여러 유적을 남기고 한편 세형동검(細形銅劍), 마제석검(磨製石劍)및 농경기구(農耕器具)로서의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와 유구석부(有溝石斧)등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청동단검(青銅短劍)이나 청동촉(青銅鏃)같은 새로운 무기(武器)를 써서 정복사업을 벌리기도 하였는데, 사하지역은 반도의 가장 남단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청동기 문화는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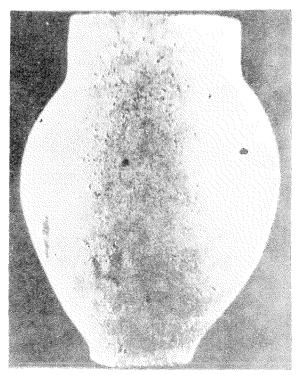
청동기 시대의 유적(遺蹟)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 비하여 그 수가 훨

센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위치도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內陸) 구 릉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사하지방의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로는 괴정동과 감천동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신석기 시대에 비해 인구도 증가되고 경제형태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괴정동(槐亭洞) 무문토기(無文土器)

괴정동 무문토기 유적(遺蹟)은 지금 장평(長平) 중 학교 교문옆의 큰 길가와 대티(大峙)로 올라 가는 옛 길 입구인 현 신동교역 회사의 공장 뒤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현재 괴정 국민 학교 남쪽 길 건너 냇가 일대가 청동기(靑銅器) 시대인 무문토기(無文土器)의 유적(遺蹟)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 곳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가 청동기 시대이지만 실지로 청동기 유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시대에 함께 사용된 무문토기류와 단도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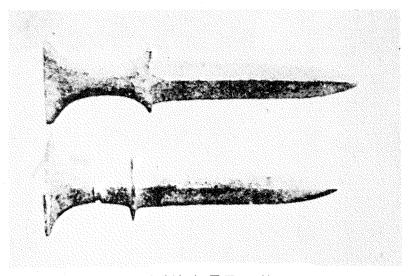


< 괴정동 출토 무문토기 >

토기(丹途磨研土器), 석검(石劍:돌칼), 석촉(石鏃:돌화살촉),반월 형 석도(半月形石刀) 등의 마제석기(磨製石器)들이 발견되어, 이 곳에 사람들이 살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무문토기는 지금 감천동으로 너머 가는 괴정고개 큰 길 옆에서 도로확장 공사 중 우선히 발견되었고, 같이 나온 유물은 없었다. 이 유물들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는 국립 경주 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에 진열하고 있다.

그리고, 대티(大峙) 고개밑에서 나온 석관묘(石棺墓)로 보이는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에 단(丹:붉은)을 칠하고, 광택을 낸 단도마연토기 한점과 마제석검 한점,마석촉 세점, 미완성 석촉 두점이 출토되어 무문토기와 함께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무문토기에 단(丹:붉은 색)을 칠한 완형토기(完形土器)가 우리 나라에서 출토되는 예는 별로 없었으며,이 토기는 이른바 일본의 야요이식(關生) 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선사인(先史人)과 섬나라 일본과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더욱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제석검 무문토기>

(3) 감천동 지석묘(甘川洞支石墓)

감천동(甘川洞)에서 발견된 지석묘(支石墓)는 6기가 있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이곳에 사람이 살았었고, 부족사회의 어떤 권력자가이곳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감천동 지석묘(支石墓)도 도시의 팽창과 토목사업으로 현재 그 형태나마 남아있는 것이 감천 해변의 버드나무식당 들에 있는 남방식 지석묘(南方式支石墓) 하나 뿐이다.

제 1 호 지석묘는 넓적한 개석(蓋石) 밑에 할석(割石)을 많이 깔고 그하부에 석실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일단유병식 석검(一段有柄式石劍)이라 불리는 돌칼이 출토되었다. 이 지석묘는 주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뜨려서 분뇨통을 쌓고 그 자리에 농로(農路)를 내서 없어져 버렸다.

제 2 호, 제 3 호 지석묘는 구조가 제 1 호와 같은 것으로 부산 화력발전소 건설을 할 때에 없어졌으며, 제 4 호 지석묘(支石墓)도 집터로 매립되어 버렸다.

제 5 호 지석묘는 집터 토목공사로 파괴되어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단병 식 석검(二段柄式石劍)이 발견되었다. 제 6 호 지석묘는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이곳에 현존하는 유일한 지석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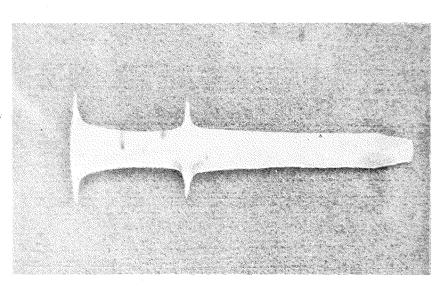


<甘川洞 第4號 支石墓>

을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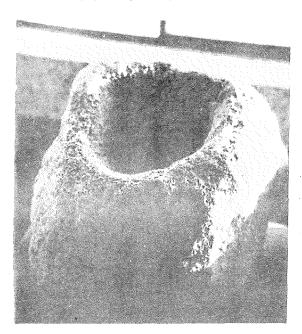
고인돌(dolmen)이라고 불리는 지석묘(支石墓)는 열종의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로서 매장지(埋葬址)인 것이며,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그 축조형식(築造形式)에 따라 탁자형인 북방식 지석묘(北方式支石墓)와 바둑판 모양인 남방식 지석묘(南方式支石墓), 그리고 지석(支石)이 없는 변형적 지석묘로 구분된다.

남방식 지석묘는 기반식(碁盤式)이라고도 하는데 석관(石棺)을 매장하고 그 위에 5~6개의 괴상석(塊狀石) 또는, 작은 판석(板石)으로써 부정형(不定形)의 괴석, 혹은 판석으로 된 개석(蓋石)을 괴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괴어놓은 축석(側石)으로 묘실(墓室)을 만든 것도 있다. 남방식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지 묘실이 지하(地下)에 묻혀있는 점이다. 감천동에는 변형적(變形的) 지석묘와 남방식 지석묘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동기시대인(靑銅器時代人)의 생활이그만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었음



<甘川洞 第1號 支石墓出土 磨石劍>

이 유적(遺蹟) 주변에서 돌절구, 돌도끼, 돌대패날, 돌끌, 땅을 파는데 사용하는 흠이 팬 돌도끼(有構石斧) 등의 마제석기와 무문토기편과함께 나오는 쇠뿔 모양의 우각형(牛角形) 손잡이가 출토 되었는데 이런유물(遺物)은 우리나라에서 농경생활(農耕生活)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 석구 (石臼) >

4) 철기시대 (鐵器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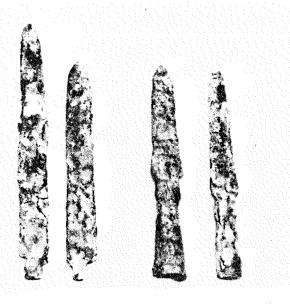
(1) 시대개관(時代概觀)

철기 시대는 1세기에서 3세기까지 대략 300년간을 말하며, 삼한(三韓) 또는 삼국 시대(三國時代)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이 성립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왕국이 생기지 못하고 있었고, 고고학상(古考學上)으로는 신석기가 소멸되고 청동기 다음으로 철기 사용이본격화된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특히, 부산 지방에 철기 문화가 유입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4~3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의 초기는 청동기 문화와 혼합되어 존재된 시기이다. 그렇지만,

최남단의 사하 지역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남부 지방은 철기 문화의 유입 은 훨씬 늦어져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지역에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패총과 고분(古墳)이 있다. 사하 지방의 패총은 다대동 윗층 문화와 괴정동, 하단동, 신평동 등이 있 었으나, 도시 개발(都市開發)과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오래 전에 없어 저 버렸다. 그리고, 고분은 괴정동의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분은 앞 시 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으며, 또한 한 곳에 큰 무리를 이루어 설 치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철기시대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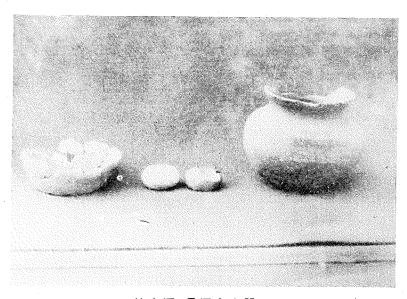
(2) 괴정동 패총 (槐亭洞貝塚)

괴정동(槐亭洞)에 남아있는 큰 괴목(槐木) 두 그루 중 산록에 있는 고목(古木)을 중심한 주변 일대가 괴정동 패총(貝塚)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서 없어져 버렸으므로 부산직할시. 지정 문화재이던 것을 1978년에 해제했다.

이 패총(貝塚)은 1929년 11월 24일 일본인 좌산우좌길(佐山右左吉)이 발견하여 대곡미태랑(大曲美太郎)과 함께 표면 조사된 곳으로 당시에 채집된 유물인 토기편(土器片)들을 일본인의 손에서 해방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입수하여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다

괴정동 패총은 한번도 학술적인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78년 도로확장 공사를 계기로 부산대학교 박물관 팀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밀집된 주택사이에 남아있는 공지를 조사하였지만 별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출토유물은 김해식(金海式) 토기편(土器片)과 회청색 토기편(灰青色土器片), 적갈색 토제방추차(土製紡錘車) 2개, 완형(完形)접시 1점, 마제석부(磨製石斧), 무문토기편 등이 있다.



<槐亭洞 具塚出土器>

(3) 하단동 패총(下端洞貝塚)

하단(下端)과 신평(新平)의 중간지점인 바로 강가에 위치한 하단동 패총(貝塚)은 김해문화기(金海文化期)의 것으로 현재 거의 유실, 파괴 되어 버렸다.

패총(貝塚)이 자리잡은 곳은 속칭 「모래구찌」라고 불리는 U차 형의 아늑한 산곡(山谷)으로 산이 평화스런 경사를 이루며 3 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면만 강을 향해 열려 있다. 하단동 패총(貝塚)에서 출토된 유물(遺物)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패총밑의 갈밭이 있는 늪지대에서도 김해기(金海期)의 토기편(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되는 조개껍질 속에 담수패(淡水貝)가 없는 것이 주목된다.

(4) 신평동 패총(新平洞貝塚)

신평동(新平洞) 패총(貝塚)은 신평동 앞의 간사지를 통해 솟아 나온 작은 언덕위에 있었는데 토목공사로 없어져 버렸다.

채집된 유물(遺物)로 확인된 연대는 김해문화기(金海文化期)인 기원 1세기경으로 신평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패총(貝塚)을 남기 김해문화기인(金海文化期人)으로 생각된다.

패총(貝塚) 주변에는 예부터 「조개모래」라 불리는 땅이 있었는데 이 것은 조개껍질이 쌓여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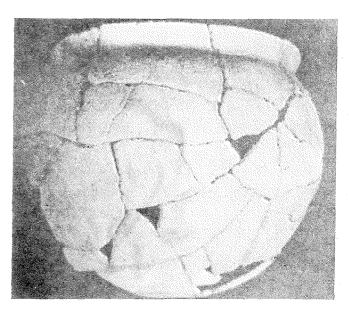
(5) 괴정동 고분군(古墳群)

○ 위치와 현상

이 고분군은 사하구 괴정 1동 1026-32 번지의 일대에 있었다. 이 곳은 구덕산(九德山) 서남단 능선을 따라 시약산 줄기를 타고 내려와 해발80 ~ 90 m 정도의 낮으막한 구릉(丘陵)의 윗부분에 해당된 곳이다. 구릉의 아랫쪽은 경사가 심한 편이지만,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는 윗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평탄한 곳이다. 원래 이 곳은 해방전에는 과수원(果樹園)이었으나, 발굴 당시에는 오성 고등공민 학교(五星高等公民學校) 구내였지만, 지금은 화신 아파트가 들어서 주택지로 바뀌였다. 따라서,원 래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분군의 남쪽에는 감천만이 저 멀리 내려다 보이고, 서쪽 산 모퉁이 하나만 돌면 바로 낙동강 하구에 갈 수 있는 곳이다. 고훈군을 만드는 위치로서는 매우 좋은 편이며, 처음에는 제법 큰 무덤들이 있었는 것 같았다. 실제 발굴 그 당시만 하여도 주위에 남아 있던 과수원이 전체 고분분포지 (古墳分布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굴은 학교 운동장 예정 지역인 동서폭(東西幅) 45 m, 남북폭(南北幅) 25 m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 졌고, 유구(遺構)는 대략 땅속 30 cm ~ 1 m에서 나타났으나, 일부 낮은 곳은 유구 윗부분이 땅위에 이미 드러나 있어 파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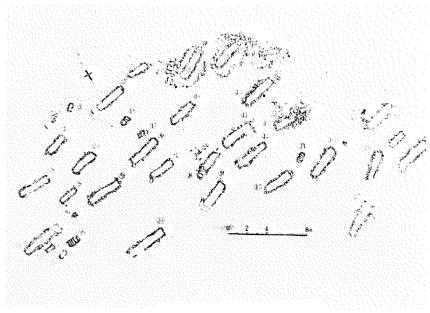


<槐亭洞出土赤色軟質土器壺>

ㅇ 고분의 구조

발굴한 결과 모두 39기(基)의 무덤이 있었다. 무덤의 거리는 평균 2 ~ 3 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고, 장축방향(長軸方向)도 모두 동내지 서쪽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여러 무덤간의 거리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가과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현대의 사상과 일치됨을 엿볼 수 있다.

이 곳의 무덤은 수혈식(竪穴式) 장방형(長方形) 석곽묘(石槨墓)와 옹곽묘(甕槨墓) 등 두 종류이었다. 전체 설흔 아홉 기의 무덤 중 수혈식 장방형 석곽묘가 스물 아홉 기이고, 옹관묘가 열 기로써 옹관묘가 전체 무 덤수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한 고분군에서 발견된 고분 기 옹관묘로써는 꽤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또한 이 괴정동 고분군의 한 특색이다.



<괴정동 고분군 배치>

ㅇ 수혈식 장방형 석관묘

수혈식 석관묘는 장방형의 묘광(墓壙)을 파고 그 안에 할석(割石)과 판석(板石)을 이용하여 네 측벽(側壁)을 쌓아 올리고 위에는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몇몇의 무덤 중에 뚜껑이 덮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는 것은 석관들은 돌이 아닌 나무같은 것으로 뚜껑을 덮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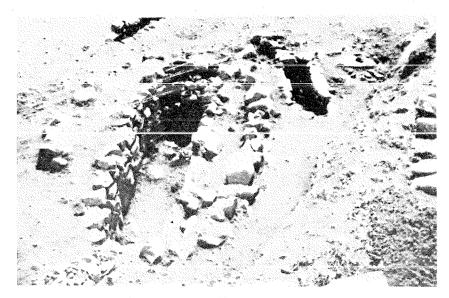
양쪽의 축조방법은 중·대형 석관인 경우는 대개 비교적 고른 할석(割石)에 부분적으로 작은 할석을 보강하거나 또는, 밑부분은 큰 할석으로, 윗부분은 작은 할석을 쌓았고, 적은 석곽은 판석에 할석을 부분적으로 보강하여 쌓았다. 양쪽 벽의 축조방법은 석곽의 폭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 한장의 판석을 세우거나, 혹은 그 위에 작은 할석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보강한 것이고, 크고 작은 할석을 혼합하여 여러 단 쌓은 것은 약간이었다.

이 괴정동 고분군은 주유물군(主遺物群)이 배치되는 서쪽에 호상(弧狀) 또는, 말각(抹角)의 현상이 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가 2 m이내, 너비 40 cm 이내의 적은 석곽이 4기(基), 길이 2~3 m 이내, 너비 60 cm 내외의 중형석곽이 10기, 길이 3 m 이상, 너비 70 cm 내외의 대형석곽이 15기로 나누어 지는데 길이 3 m 이내인 중·소형석곽과 길이 3 m 이상인 대형석곽의 비율이 비슷하다.

석곽묘의 바닥은 11호분(號墳) 1기만 자갈돌이 깔려 있고,나머지 28 기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生土)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봉토(封土)는 실제 남아 있는 것이 없었지만 30호분과 31호분에 타원형(橢圓形)의 호석(護石)이 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있었는 것이 확실하다.



<槐亭洞29·30號墳露出狀態>

○ 옹관묘

용관묘(甕棺墓)의 형태는 소형석곽내(小形石槨內)에 시체가 담긴 항이리 즉 옹관(甕棺)을 몇 개의 토기등 부장품과 함께 넣어서 묻은 석곽 옹관묘(石槨甕棺墓)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묘제(墓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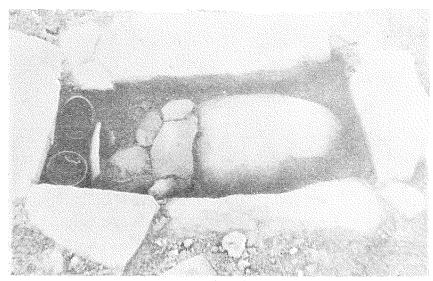
석곽의 크기는 주로 길이가 $68 \sim 78 \, cm$, 너비 $25 \sim 35 \, cm$, 높이 $25 \sim 35 \, cm$ 내외이나 가장 큰 $36 \, \bar{\rm z}$ 옹관묘는 길이 $116 \, cm$, 너비 $39 \, cm$, 높이 $39 \, cm$ 나 된다.

적은 형태의 석곽 안에는 두 개의 토기를 옆으로 눕혀 합구식(合口式) 또는 합개식(合蓋式)으로 배치하였다.

용관용 토기는 고운 석립(石粒)이 섞인 점토(粘土)로 만들었으며, 소성(燒成)은 좋은 편이고, 적갈색(赤褐色), 황갈색(黄褐色),회황색 (灰黄色)을 띠는 연질토기(軟質土器)이다.

이러한 옹관장은 삼국시대까지 계속되며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 까지의 것은 대체로 작아서 길이가 80 cm 정도이며 옹관으로 쓰인 토기도 단단하지 못한 연질토기이며 적갈색이 많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옹관은 규 모가 커지고 경질(硬質)의 토기를 사용하였다.

철기시대까지의 작은 규모의 옹관은 어린이들의 매장하는 무덤이라는 설도 있고, 시체를 풍장(風葬)한 뒤 살이 썩으면 남은 뼈만을 모아 묻는이차장(二次葬)의 풍습에서 온 것이라는 설도 있다. 옹관은 그것이 단독으로 매장된 경우와 석실묘 옆에 배장(陪葬)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괴정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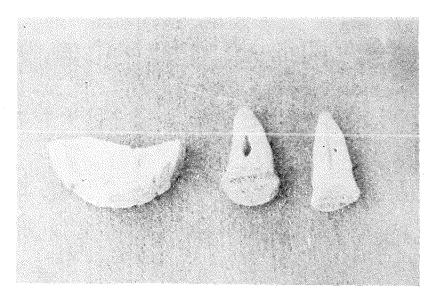
<옹 관 묘>

○ 출토유물(出土遺物)

설흔 아홉 기(基)의 분묘(墳墓)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土器類)가 270 여점, 철기류(鐵器類)가 300 여점, 장신구류(裝身具類)가 30여점 등 약 600여점에 이른다. 전체 무덤의 2/3정도가 심하게 도굴(盜掘)되었고, 파괴되었으므로 원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토기 종류는 도질토기(陶質土器)에는 고배류(高杯類)가 136 점으로가장 많고,대호(大壺)를 포함한 원저단경호류(圓底短頸壺類) 33 점,과수부완(把手附鈕) 16점,원저장경호(圓底長頸壺) 12점,대부장경호(台附長頸壺) 7점,대부완(台附鈕) 5점 등이다. 그리고,연질토기

(軟質土器)는 주로 적갈색 또는 황갈색을 떠고, 여기에는 회색(灰色)을 떠는 와질계토기(瓦質系土器)도 일부 포함된다. 평저심발형토기(平底深鉢形土器)가 43점으로 가장 많고,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20점, 파수완(把手盌) 3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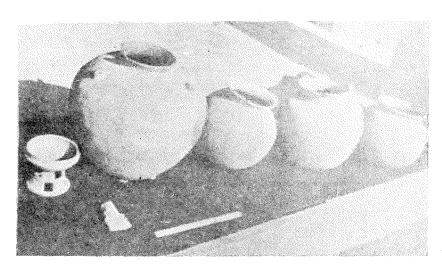


<괴정동出土 土器片>

철기(鐵器)는 철부(鐵斧) 52점, 철점(鐵鐮) 30점, 철도자(鐵刀子) 27점, 철착(鐵鑿) 1점, 철모(鐵鉾) 14점, 철족(鐵鏃) 136점, 삼엽형환두대도(三葉形環頭大刀) 3점, 철제경판(鐵製鏡板) 4점, 철제교구(鐵製鉸具) 8점, 철정(鐵鋌) 27점 등이 출토되었다.

장신구(裝身具)는 귀절이와 목걸이로 사용한 옥류(玉類)가 2종류였고, 그 양도 극히 적었다. 귀걸이는 4기의 수혈식 석곽묘에서 7점만 출 토되었다.

이와같이 고분군의 규모에 비해 장신구의 종류는 그 양이 빈약하다. 무 덤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괴정동 지역은 동래나 연산동 지역처럼 강력한 권력 집단이 존재하던 정치적 중심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석곽옹관묘와 곽외부장품을 매납(埋納)하는 풍습 등이 다른 곳에서 발굴된 것과 달리 괴정동 지역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점은 괴정의 지역적인 특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槐亭洞 古墳出土 土器와 鐵斧>

2. 삼국시대 (三國時代)

1) 사하와 가야문화 (伽倻文化)

삼국시대(三國時代)이전의 사하 지방은 가야(伽倻) 영역으로 가야문화권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하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는 무늬없는 토기(土器)나 그 파편들, 여러 종류의 유물(遺物), 유적(遺蹟)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사하는 낙동강(洛東江)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김해(金海)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김해문화(金海文化) 즉 가야문화권(伽倻文化圈)에속하였다.

3 세기경 중국에서 편찬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한전(韓傳)에 의하면, 변한(弁韓) 12 국은 아래와 같다.

爾離賴凍國 接塗國 古資獺凍國 古淳是國 半路國 樂奴國 班島邪馬國 甘路國 狗邪國 走漕馬國 安邪國 瀆盧國

이 중에서 현재까지 그 소재지가 확실한 곳이 네 곳으로 고자미동국(古 資關凍國)은 지금의 고성(固城)지방이고, 구야국(狗邪國)은 김해지방 이며, 안야국(安邪國)은 함안(咸安)지방, 독로국(瀆盧國)은 동래(東 萊)지방이다.

구야국(狗邪國)은 동(同)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에는 구야한국 (狗邪韓國)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狗」는 3세기경 중국음(中國音) 「가」에 가까운 음이고, 「邪」는 위지에서는 「야」음의 한자표기이다. 이에 3세기경의 김해지방에 읍락국가(邑落國家)를 狗邪 즉 「가야」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독로국(瀆盧國)은 동(同) 한전변진조(韓傳弁辰條)에 「그 독로국은 왜와 더불어 경계를 접하였다(其瀆盧國與倭接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변한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擅」은 독」이고、「盧」는 고지명(古地名)에「내」 音을 표기하였다. 예컨대 동 한전의 진한(辰韓) 12 국 중에 사로국(斯盧國)이 있는데,이 「斯」는 「새」音의 표기이고,「盧」는 「내」音의 표기이다. 즉 斯盧國은 「새내벌」 즉 「徐那伐」、「徐羅伐」이다. 「徐」「斯」「新」은 다 「새」音의 한자 이사(異寫)이고、「盧」「羅」「那」는 「내」의 한자 이사이다. 「내」는 고어(古語)로서 「나라」、즉 평야(平野)의 뜻이다.

그러므로, 「讀盧」는 「독내」의 音을 표기한 것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대에 한자로 고칠 때에 비슷한 중국지명 「동래(東萊)」로 표기하였다. 「독내」는 우리말의 음운법칙에 따라 「동내」로 발음되기 때문에 「동래(東萊)」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誌)에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국(居 漆山國)이었는데, 경덕왕이 동래로 개명하였다고 하였다. 거칠산국은 지 금의 동래에 황산(荒山:거칠산)이라는 산을 칭하는 것으로 보아 동래에 거칠산이란 고지명(古地名)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3세기경에 동래지역(부산)에 독로국이란 읍락국가(邑落國家)가 존재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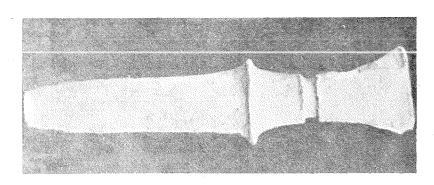
독로국의 기원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으며, 대체로 기원 1세기경 부터 3세기이며, 가야시대로 본다. 이 시대 사하의 유적으로는 괴정동 고분군 (古墳群)을 비롯 하단, 신평, 다대포 등 강류를 따라 패총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완전히 철기문화단계(鐵器文化段階)에 들어 갔고, 청동기나 석기(石器)는 볼 수 없다. 특히 위지한전(魏志韓傳)에 따르면 변한(弁韓:伽倻)에 철(鐵)이 많이 나서마한(馬韓), 왜(倭), 낙랑(樂浪) 등에서 철을 무역해 갔다는 기록이전한다.

이때의 무역선을 비롯한 선박들은 아마도 낙동강구(洛東江口)를 통하여 왕래하였으며, 다대포나 웅천(熊川), 김해(金海), 양산(梁山) 지방으로 항행하는 낙동강 주류를 따른 항로를 이용했다. 일본 서기(書記)에 가야지역의 항구는 위의 낙동강 지역외에 섬진강구(蟾津江口)까지보인다. 이 무렵 다대포의 위치를 지금의 장림동과 신평동 사이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장림과 신평 사이에 있는 패총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또, 일본 서기의 도비진은 지금의 다대포만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의 대저 (大猪)를 포함하는 낙동강구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사하구 괴정동에는 제법 큰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다대포와 신평동, 하단동의 속칭 모래구찌에도 취락이 있었다. 이 것은 그들이 남겨 놓은 패총이나, 무덤 등의 유적을 토대로 알수 있는 것이다. 위의 패총에서 출토된 것은 이른바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에 속하는 적색연질(赤色軟質)토기와 회청색연질(灰靑色軟質)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거기에 회청색경질 토기도 있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철제 이기와 토제 방추차(紡錘車)등과 함께 장신구의 출토도 보인다.

감천동(甘川洞) 고분군(古墳群)은 부산화력발전소(釜山火力發展所)

사택 건설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출토 유물만 약간 보았을 뿐 약 20 여기를 헤아리는 고분은 조사할 길이 없다.



<甘川洞第5 號支石墓出土 마제석검 >

괴정동 고분군은 현재 화신 아파트 일대를 말하며, 옛날에는 과수원이 있었다. 이곳에는 3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고분이 형성되었고,더러는 고려시대 고분까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가야후기의 고분으로 보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무덤에서 매우 발달된 가야토기, 철제환도,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고, 일제시대 부터 많이 도굴 당했었다. 이 고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3세기경의 축조라고 보이는 석곽옹관묘(石槨甕棺墓)이다. 이 고분들은 괴정패총인(槐亭貝塚人)의 분묘임이 틀림 없다.

이 석곽옹관묘란 돌을 장방형으로 쌓은 묘실(墓室) 즉 석곽 안에 다시 옹관장(甕棺葬)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까지 전해 오던 석곽묘와 옹관 묘의 두 가지를 한 곳에 합하여서 하나의 무덤을 이룬 특수한 형태로서,괴 정동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가야 전기에는 김해 지방에 구야국, 동래 지방에 독로국이 있었는데, 가야 후기에는 구야국이 독로국을 합병(合併)하여, 대가야(大伽倻)를 형성하였다. 이 때의 가야를 본가야(本伽倻)라고 불렀고, 그냥 가야(伽倻)가락(駕洛) 등으로 불리웠다. 금관가야(金官伽倻)란 이름을 법흥왕(法與王) 19년(532)에 김해가야가 신라에 병합(併合)됨으로서, 그곳을

신라의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았다가 김해군(金海郡)으로 개명하였다.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이 가야를 대가락(大駕洛:伽倻) 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김해 가야가 번창할 때 가야연맹(伽倻聯盟)의 맹주(盟主) 로서 대가야 또는 임나가야(任那伽倻)라고 불렀다.

김해 지방과 부산, 동래, 양산 지방 등을 합병하여 대가야를 이루었을 때에는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와 남해안의 양항(良港)을 가지고 있어서 국력과 문화의 발전에 유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금의 다대포와 같은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았다.

2) 신라시대 (新羅時代)

신라(新羅)는 내물이사금(奈勿尼師今) 즉 내물왕(奈勿王)때에 이르러 읍락국가(邑落國家)에서 왕권국가(王權國家)로 바뀌고,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를 상대로 끊임없이 싸움을 치르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 지증왕(智證王),법흥왕(法與王),진흥왕(眞與王)에 이르는사이에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신라가 부족(部族) 세력이었던 거칠산국(居漆山國)을 병합한 것은 기록상 고대국가(古代國家)가 되기 이전의 일이다. 6세기경 가야의 금관국(金官國)이 멸망할 때까지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보인다. 이후 거칠산국이 있던 곳에 거칠산군을 두었다고 하는데, 언제 설치하였는 지 그 연대는 알 수 없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34권째 인 지리지(地理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동래군(東萊郡)은 본래 거칠산군(居漆山郡)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쳐 지금도 이를 따르고 있다. 영현(領懸)은 둘이다. 동평현(東平懸)은 본래 대증현(大甑懸)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도 이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제 35대 경덕왕 16년에지

금까지 사용해 오던 토속적(土俗的)인 땅 이름을 중국식(中國式)으로 고치고,주(州),군(郡),현(懸)의 지방제도를 정비한 사실을 말한다. 거칠산국의 이름은 「거친 뫼」에서 따온 것이며,지금 양정동(楊亭桐) 뒷산인 황령산(荒嶺山)의 옛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이가 많다. 또한 부산(釜山)이라 이름의 유래를 대증현(大甑懸)의 대증(큰시루)에서 역유하였다고 한다.

군현제도(郡懸制度)는 중국(中國)의 지방제도로서 신라에서 이를 본따서 지방에 주, 군, 현을 둔 것은 지증왕(智證王) 6년(505)의 일로써, 왕이 실직주(悉直州)를 두어 이사부(異斯夫)로서 군주(郡主)를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마루어 보면 거칠산군은 지증왕 6년 또는 그 이후에 설치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주(州)에는 도독(都督), 군(郡)에는 태수(太守), 현(縣)에는 현 령(懸令), 5경에는 사신(仕臣) 등이 중앙으로 부터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맡아 보았다. 거칠산군에서 개칭(改稱)된 동래군은 양주(梁州)에속한 12군 중 하나로 동평(東平)현과 기장(機張)현의 두 속현(屬縣)을 두고 있었다.

지금의 당감, 동평동 일대를 치소(治所)로 현재까지도 그 성지(城址)의 일부를 남기고 있는 동평현의 관할구역에는 사하구 일대가 포함되며, 그 중 남단이 다대포였다.

군(郡), 현(懸) 밑에는 촌이 있었다. 촌(村)은 신라 행정조직에 있어서 말단 기관이며, 문헌(文獻)이나 금석문(金石文)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촌(村)에 관해서는 정창원(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화엄경(華嚴經)의 뒷종이로 붙어져 있는 신라장적(新羅帳籍:지금 淸州 지방에 있는 自然村 戶籍)에 의하면 자연촌락(自然村落)이 모여하나의 행정촌락(行政村落)이 된다. 이 촌락들은 3년마다 한 번 씩 실시하는 호적조사 때에 인구, 농토, 가축, 과수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조사하여 기재되었다.

신라의 장적(帳籍)에는 호적(戶籍)이 호(戶) 단위가 아닌 촌락(村落)이 단위가 되었다. 호(戶)를 아홉등분을 하여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로 나누고 있다. 또한 향(鄉), 소(所), 부곡(部曲) 등으로 불리는 천민부락이 있었다. 이 곳은 신라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할 때까지여러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를 비롯하여 피정복지 주민, 반역죄를 지은 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수용하는 부락(部落)이다. 이들 천민(賤民)들은 국가와 귀족(貴族)들을 위하여 농사나 각종 노역에 총사하였다.

신라 귀족들의 호화스런 사치생활의 그늘에는 위의 천민들의 고초가 있었다. 사하에 천민부락(賤民部落)이 있었다는 뚜렷한 사료(史料)는 없다. 신라시대에는 왜(倭)의 침략에 대비한 축성(築城)이 있었다. 확실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사하구는 일본과 교역의 중심지였고, 낙동강 연안의 기름진 농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축성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표적인 곳은 다대포의 응봉(鷹峰), 괴정(槐亭) 뒷산을 돌아 당리(堂里)에 이르는 지역이 축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고려, 조선시대에, 다시 축성을 하거나 개축을 한 일이 많아 알기 어려우나 이곳에는 신라의 토기편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統一新羅)시대에도 사하구는 행정구역으로 동래군에 속하였다.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국력이 팽창하여,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하구에는 불교 유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지형적인 조건과 부산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여전이 아닌가 추측된다. 신라는 8세기에 이르면서 차츰 기울기 시작하여 귀족들의 왕권 쟁탈과사회의 혼란 속에서 마침내 국운이 다하고 후삼국의 동란기를 맞게 된다.

이 시대의 사하구와 관계되는 사료(史料)는 찾아 볼 수 없다.

3. 고려시대(高麗時代)

1) 시대개관

고려 시대(高麗時代)라 함은 송악(松岳:開城)지방의 호족(豪族) 출신인 왕전(王建)이 송악을 도읍(都邑)으로 정하고 나라를 세운 918 년부터 이후 약 470 년간 왕씨 왕조(王氏王朝)를 누리다가, 1392년 이 성계(李成桂)의 조선 시대(朝鮮時代)로 넘어갈 때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태조(太祖) 왕건이 고려를 세운 때는 918년이지만 이때는 후삼국 (後三國)시대로서 신라와 후백제가 아직 존속하였었고, 실제로 한반도 (韓半島)를 다 차지하고 민족적인 재통일을 완성한 때는 936년이었다. 왕건은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도량이 큰 인물이었는데 20세에 궁예(弓裔)의 휘하에 들어가 신임이 두터웠고, 지략이 뛰어나 사방을 경략한 후에 백관의 우두머리인 시중(侍中)에 올랐다.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아 일거에 왕위(王位)에 추대되어 올랐으니, 그 때 그의나이는 42세였다. 태조의 즉위와 함께 국호(國號)를 고려로 고치고, 연호를 천수(天授) 원년이라 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맺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자진 항복을 받아 힘들이지 않고 신라의 영토와국민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한편 후백제에 대해 견훤(甄萱) 일가(一家)의 내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토멸(討滅)이 쉽게 이루어져 드디어는 후백제의 큰 세력도 어렵지 않게 넘어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태조는 후백제보다는 신라에 대하여 특별한 융화정책(融和政策)에 힘썼고, 신라의 경순왕에게 정승(政丞)이라는 최고의 지위(地位)를 주었다. 그리고, 결혼정책(結婚政策)을 써서 태조의 맏딸 낙랑공주를 경순왕의 부인으로 시집을 보내 더욱 유대(紐帶)를 굳게하고 또 경주를 그의 식읍(食邑)으로 주었다. 뿐만 아니라,경순왕을 따라 온 신라의귀족들에게도 한결같이 우대(優待)를 베풀었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은 신라의 정책을 이어받게 되어 제도상(制度上)으로나 문화적(文化的)으로나 「신라의 것」을 본따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관계에서 고려가 신라의 불교(佛教)를 계승하여 국교(國教)로 삼았고, 지방제도가 확립되었고, 각 지방에 대한 통치가 정비되어 왔다.

2) 지방호족의 대두와 지방제도의 확립

고려시대는 신라 왕조(新羅王朝)의 골품제(骨品制) 신분사회(身分社會) 와 조선(朝鮮)의 지주적(地主的) 관인국가(官人國家)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땐 시대였으며, 국가권력에 밀착하고 있는 귀족관인국가 (貴族官人國家)였다. 초창기의 고려는 신라의 쇠퇴기 이후부터 대두됐던 호족들의 세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체제의정비는 거의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방의 향호(鄉豪)들의 자치적인 행정이 실시되었다. 이호족 세력은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호족에 의한 반자치적(半自治的)인 지배 상태는 성종(成宗) 2년 (983) 까지 계속되었고, 현종(縣宗) 9년(1098년)에 가서 지방관제가 확립되었다. 성종때 지방관제를 반포하여 전국을 12주(州)로 나누고, 각 주에 처음으로 목사(牧使)가 파견되었다. 목사는 주의 행정을 맡아보는 지방장관이었고, 주 밑에는 부·군·현을 두어 중국의 군현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이 당시 사하는 상주목(尙州牧)에 속했으나, 성종 14년(995)에 개편에 따라 전국을 2경 4도호부(都護府) 10도(道)로 나누는 동시에 12목(牧)은 12주절도사(州節度使)를 두게 되었다. 부산은 10도중 영동도(嶺東道)에 속하였다.

그후 현종(縣宗) 9년(1018)에 10도를 8목(牧)으로 개편하면서 동경(東京:慶州)에 속하였다가 뒤에 5도(道)로 다시 바뀌면서 경 상도(慶尙道)에 속하게 되었다. 도(道)에 속한 하부조직은 군(郡), 현(縣)이 있었고, 그 밑에 촌, 향, 소, 부곡 등이 있었다.

촌(村)은 양민(良民)인 농민부탁이고, 작은 자연 마을을 몇 개씩 합하여 연합촌(聯合村)을 만들고 여기에는 촌장(村長) 또는 촌정 (村正)이 있었다. 아마도 부산 지방에도 몇 개의 연합촌이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며, 확실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향(鄉), 소(所), 부곡(部曲) 등은 천민(賤民)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향은 부산에서 기록된 곳이 대연동(大淵洞) 생천향(生川鄉)이 있었다.

소(所)는 금소(金所), 은소(銀所), 철소(鐵所), 사소(糸所), 지소(紙所), 와소(瓦所), 염소(鹽所), 자기소(瓷器所), 묵소(墨所) 등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죄인과 천민이 여기에서 일했는데, 사하에 대한 기록은 없다.

부곡(部曲)은 특수한 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장에서 역모(逆謀)를 꾸민 반역자(反逆者)가 나오면, 반역향(反逆鄉)이라 하여 고을 전체가 천 민이 되었고, 심지어 군·현을 부곡으로 만드는 일도 있었다. 천민들은 대 를 이어가며 천인 생활을 한 것은 물론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 의하면 부산 지방에는 네 개의 부곡이 있었다. 조정부곡(調井部曲:杜邱洞), 고지도부곡(古知島部曲:부산진매축공사시 없어진 섬), 형변부곡(兄邊部曲:龍塘洞), 부산부곡(富山部曲:寶水川, 대신동일대)이 있었다. 이런 천민 거주지역은 뒤에 차차로 없어지기 시작하여 조선초기에 완전히 사라지고, 지명만 문헌으로 기록이 전한다.

3) 고려시대의 사하(沙下)

우선 고려시대의 부산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울주(蔚州) 두 현(縣:동래현, 기장현)이 되었다. 동래현은 본래 신라의 거칠산군으로서 경덕왕이 동래군으로 고쳤는데, 현종(顯宗) 9 년에 내속(來屬)되었고, 뒤에 현령(縣令)을 두었다.」

그리고, 동평현(東平縣)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양주(梁州)」 두 현에 속하였다. 동평현은 원래 신라의 대증현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고 했다. 여기에서 다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보면 「동래현은 옛 장산국(萇山國)이다. 신라가 이를 뺏아서 거칠산군(居漆山郡)을 두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현종(顯宗)이 울주(蔚州)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현령(縣領)을 두었고, 속현(屬縣)으로 동평현(東平縣)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들과 유사하다.

위의 기록대로 보면 그때의 동래군은 동래현으로 지위가 떨어져서 울 주의 영현이 되었으며, 동평현은 지금의 양산군이 양주의 영현이 되었다. 이때의 영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고, 고을 일은 거의 지방에 맡겨 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려 시대에 호족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호 족은 그 출신지로써 본관을 삼았는데, 고려 시대의 동래에서는 동래 정 씨가 대표되는 호족이었던 것 같으며, 그 집안에서 유명한 인물이 많 이 나왔다.

고려 시대 부산의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은 그때의 기록에 인구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지금 이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고려 멸망 후 62년 만인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조선 초기의 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誌)에 따르면, 동래현에는 290호(戶)에 남자가 1,151명이었고, 동래현에는 108호(號)에 남자가 382명이었다. 이때의 인구 조사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약30년 앞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 동래현은 290호에 남자 1,151명, 여자 1,265명으로 모두 2,416명이며, 동평현은 108호에

남자 342명, 여자 285명으로 모두 627명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1424년부터 1425년까지 2년간 조사된 숫자다. 그런데, 당시에는 호구 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실제의 인구 수는 이보다약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시대에는 화척(禾尺) 또는 양수척(楊水尺)이라고 하여 가축 도살이나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유기(柳器)를 만드는 천민(賤民)과 재인(才人)이라고 하여 예기(藝技)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이들은 국가의 호적에 오르지 않은 사민(私民)으로서 국역(國役)을 지지 않은 데서 백정(白丁)이라고 불렀으며 물론 인구 수에도 들지 못했었다.

신라기에 등장한 호국불교정신(護國佛教精神)은 고려조(高麗朝)에서는 극도(極度)에 이른다. 고려는 개국(開國) 이래 역대의 왕들이 계속하여 호불(護佛)정책을 썼기 때문에 불교는 교리면에서나 신앙면(信仰面)에서 비상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불교와 왕권은 호국 신앙에서 서로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국 신앙은 일종의 왕권의 표시로서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속했고, 사원(寺院)과 승려는 국가의 보호하에세속적인 세력을 얻게 됨에 따라 귀족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전국 곳곳에 사원이 세워졌고 국민 문화생활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였다.

사하구에는 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리나 그 기록이 없다. 다만 사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사찰이 만덕동(萬德洞)에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의 머리를 깎아서 만덕사(萬德寺)에 두었다는 고려사의 기록과 함께 그 터만 남아있다. 그러나, 구덕산 줄기가 뻗어 시약산과 승학산이 병풍처럼 둘러 싼 사하에 작은 사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한 곳뿐만 알려진 당리동의 학산제(鶴山齋)는 후세의 것으로 보인다.

도공(陶工)은 고려 시대의 공예(工藝)로 하여금 가장 광채를 빛내는 것으로 실로 우리나라 예술의 정화(精華)이다. 12세기를 전후하여 상감청자(象嵌靑磁)의 생산은 우리 문화사(文化史)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은 많이 떨어지는 순청자(純靑磁)이지만 사하의 감천동(甘川洞)에서 구워진 일이 있었던 것을 땅 속에서 출토된 자기편에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마터가 보이지 않고 이 일대는 농토로 개조되었다가 지금은 집들이 들어서서 더 이상 알 수 없다. 부근에 오래 살았던 노인들은 이곳을 「불밑꼴」이라고 불러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4) 몽고침입(蒙古侵入)과 삼별초난(三別抄亂)

고려의 역사(麗史)는 외적(外賊)의 침입을 잇따라 받아 수난의 역사였다. 고려의 군사조직은 2군 6위로 편성한 중앙군(中央軍)과 주현군(州縣軍)으로 편성한 지방군(地方軍)이 있었다. 지방군은 정종(定宗) 2년(947)에 조직된 광군(光軍)이 뒤에 주현군으로 개편되어 실질적인 전국 각처를 지키는 국방(國防)을 맡았었다.

주현군은 북쪽 양계(兩界)의 각 진(鎭)에 상비군으로 배치되었고, 각 도에 보승군(保勝軍), 정용군(精勇軍), 일품군(一品軍)으로 편 성되어 보승군과 정용군은 지방의 방수(防戍)와 치안(治安)을 담당 하고, 일품군은 농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노역(勞役)부대였다. 이들은 말이 군인이지 중노동에 시달렸고, 군인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었다.

고려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10 \sim 11$ 세기 성종(成宗), 목종(穆宗), 현종(顯宗)의 3대에는 북쪽에서 거란족(契丹族)이 수차에 걸쳐 침공하여 수난을 겪었고, 12 세기초는 여진족(女眞族)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더구나 고려의 문벌귀족사회(門閥貴族社會)는 12세기를 고비로 여러 면에서 모순이 노정되고 귀족 상호간에는 파벌(派閥)싸움이 일어 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었다. 이들 난은 진압되어 일단 정치적 위기는 벗어 났으나 사회의 모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누적되어 갈 뿐이었다. 더우기 의종대에 이르러 국왕과 문신(文臣)들은 향락마을 일삼음으로써 사회는 크게 동요되었다.

극심한 문무(文武)의 차별대우와 민중의 몰락은 귀족사회 내부에 배태(胚胎)된 큰 모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의종 20년(1170)에 무신정권(武臣政權)이 성립되었다.

이 무신정권도 처음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였고 문신귀족(文臣貴族)의 횡포에 바발하는 성격을 가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씨정권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사회모순을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는 단계를 지향하고 있었으나,그 후 몽고의 침략을 당하여 이를 물리치기에 분주한 나머지 전반적인 개혁은 그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몽고의 침입은 고종 18년(1231)에 시작하여 6차에 걸쳐 30여년이나 계속된 처참한 국난(國難)이었다. 그들은 북·동의 양계에서 시작하여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 3도(道)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유린하여 무수한 인명(人命)과 재산(財産)의 많은 피해를 입혔고, 몽고군이 지나는 곳에는 재만 남는다는 포악한 침략을 자행하여 민족의 일대 수난기를 맞게 되었다.

고종 41년(1254)의 제6차 침입때 몽장 차라대(車羅大)는 본영을 경상도의 협주(陝州) 즉, 합천의 단계(丹溪)에 두고서 군대를 지휘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직접 부산에 침입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인근지역(隣近地域)에서 많은 전화(戰禍)를 입었기 때문에 역시 많은 피해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합포(合補) 즉, 지금의 마산(馬山)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하여 함선등 군비를 갖추고일본 정벌을 위한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을 편성하여 원종(元宗)15년(1274: 충렬왕 즉위년)과 충렬왕(忠烈王) 7년(1281)에 두 차례의원정을 강행까지 하였으니, 다대포 항구가 있는 사하지방 역시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몽고의 1차 침입때부터 강화도(江華島)에 피난하여 항전을 계속하던 고려 조정은 원종11년(1270)에 뭍으로 나와서 개경에 환도하여 몽고와는 강화(講話)가 이루어졌다. 이때 몽고와의 항몽투쟁에 앞장섰던

삼별초(三別抄) 군은 중앙정부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항전의 뜻을 굳히고 강화도에서 궐기하였다. 삼별초군은 왕족인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조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니 이를 「삼 별초의 난(亂)」이라 한다.

그러나, 강화도는 고려 정부군(政府軍)과 몽고군(蒙古軍)이 연합하는 마당에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 중손(襄仲孫) 등은 무리를 이끌고 바닷길로 남하하여 남해의 진도(珍島)를 점거하고 근거를 삼았다. 진도를 점거한 삼별초군은 서남해의 제해권을 쥐고, 남도의 세공선(稅貢船)을 노획하기도 하고 고을을 습격・점령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에 전력을 다 하였다.

원종 12년(1271) 정월 이후에는 서쪽으로는 전라도의 장흥(長興)에서 동쪽으로는 경상도의 합포(마산), 금주(김해), 동래(부산) 등지에 이르기까지 침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때 여러 고을이 호응하여 봉기하였다. 진도에 궁전을 지어 도성(都城)을 만들고 격문(檄文)으로항몽의식(抗蒙意識)을 고취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여 진도에 모여 들었고 금성(金城:나주)에서는 정부군과 격전을 벌였었다.

이와같이 삼별초의 활동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몽연합군(魔蒙 聯合軍)이 진도를 치게 되니 이때 삼별초는 굳세게 저항하였으나,군세 (軍勢)가 부족하여 제주도로 밀려났고, 원종14년(1273)에 그곳에서 치열한 항전끝에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국토를 이민족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고려 백성들의 투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었다.

5) 왜구(倭寇)의 잦은 侵入

고려 중엽에서 부터 말기에 이르는 동안에, 일본의 해안지방 사람들은 해적떼를 조직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해안 및 여러 섬을 침범하고,때 로는 내륙지방까지 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았다.

왜구(倭寇)란 말은 처음부터 명사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왜의 침구

·입구(入憲)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뒷날 하나의 명사로 된 것이다. 즉, 고려사에 왜(倭)가 동래(東萊)에 침구(侵寇)했을 때는「왜구동래(倭寇東萊)」라 쓰고, 동평(東平)에 들어 왔을 때는 「왜구동평(倭寇東平)」이라고 쓴 것이 하나의 용어가 된 것으로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극성이 절정에 달했다.

왜구의 활동 범위는 그 지역이 넓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남쪽의 해안 지방이었다. 고려사에 보이는 왜구에 관한최초의 기록에 의하면 고종10년(1223) 5월 금주(김해)에 입구하여약탈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왜구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맹렬한 기세를 떨치게 된 것은 충정왕 2년(1350) 이후의 일이다. 이때 부터 왜구는 매년 연해안(沿海岸)지방을 휩쓸었고, 공주(公州), 전주(全州)등 내륙지방에서 개경(開京)앞 강화도(江華島)까지 침구(侵寇)하여 천도설(遷都說)까지 나왔었다.

우왕(稱王) 때에는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尚道)가 완전히 왜구의 소굴이 되었다. 이들 왜구는 최소 2~3척의 선단(船團)에서 많은 경우 200척에서 500척의 선단을 이루고 있었으나, 보통은 2~30척이 한 선단이 되어 조운(漕運)과 성읍(城邑)을 습격하여 양곡을 약탈하고, 관아(官衙)와 민가(民家)에 방화(防火)하였고, 백성들을 살상·노략해 가기도 했다. 특히 조운의 습격으로 세미상납(稅米上納)을 못 받는 조정의 어려움은 컸다.

공민왕(恭民王)때에는 부산·경남 지방에만 약 30번에 걸쳐 침략하였다. 공민왕 원년(1352) 9월에 왜선(倭船) 50척이 합포(마산)에 침략하였고, 7년(1358) 3월에는 고성에 침략, 13년(1364) 3월에 왜선 200여척이 침입하여부산을 비롯한 거제도·갈곳도를 본거지를 삼아 하동·고성·사천·김해·밀양(밀성)·양주(양산)등을 약탈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같은 해(13년:1364) 5월에 경상도도순문사 김 속명(金續命)이 왜구들에 반격을 가하여 왜적 3,000 여

명을 진해현(鎭海縣)에서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공민왕 다음 우왕 때에는 왜구의 번창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우왕때 의 고려사 기록은, 거의 왜구가 과련된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하여 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 피해는 막심하였다. 우왕 원년(1375) 11 월에는 왜구가 금주(김해)・진주 등지에 침입하여 와서 살육(殺肉) 과 분탕을 저질렀다. 그때 경상도 도순문사로 있던 조 민수(曺敏修)는 왜적을 격퇴하여 큰 공을 세웠고. 우왕 2년(1376) 6월에는 고성이. 또, 11월에는 고성ㆍ진주ㆍ함아ㆍ부산(동래)ㆍ양산ㆍ언양ㆍ기장 등지 가 노략질 당하였고, 12월에는 양주(양산) 물주(울산)와 의창(창 원) · 회원 (마사부근) · 함아 · 진해 · 동평 현 (부산) · 동래 (부산) · 기 장 등이 또 왜구의 침략을 받았는 데 그때 마산에서는 군영이 불태워졌다. 이에 관한 고려사의 기록은 우왕 즉위년 12월 왜적이 밀성(밀양)을 침략하여 관청을 불사르고 백성과 물자를 노획하여 갔었다. 그리고, 우 왕 1년 정월의 기록에는 왜적이 밀양을 불태우고 노략질을 하였는 데 도 만호(萬戶)가 이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장군 최 인철(崔仁哲)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게 하고, 모든 관리들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있 는 계책을 올리도록 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초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첫번째 것은 왜적이 진주 명진현(冥珍縣)에 침구하였다는 사실과 또, 함안·동래(부산)·양주(양산)·언양·기장·고성. 영선(진주지방) 등지에 나타나 이 곳들을 불사르고 약탈하였다. 두번째 것은 왜구가 밀성군(밀양)과 동래현(부산)을 침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왜적이 합포(마산)·울주(울산)의 두 주(州) 및 의창(창원)·회원(마산부근)·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부산)·동래(부산)·기장 등의 현(縣)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불살랐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고려에서는 일본에 정 몽주(鄭夢周)등 사신을

몇번이나 보내어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때 부터 고려는 군사를 기르고, 왜구 토벌에 주력하였고, 여러 군현에는 성보(城堡)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 사하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예부터 왕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왜 구의 피해가 가장 심했었다. 고종 10년(1223) 5월 22일 왜구가 금주(김해)에 침입할 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다대포와 장림, 신평, 하단동에 피해가 컸었고, 동13년 6월에도 금주에 침구할 때도 같았다. 동14년 4월에는 왜구가 금주에 입주하자 방호도감(防護都監) 노단(盧旦)이 군사를 이끌고 적선 2척을 나포하고 복병을 사로잡았다. 공민왕9년(1361) 3월에, 동 13년에 금주에 침입하였다. 우왕 원년(1375) 11월, 동 3년(1377) 곡창지대 김해를 자기집 드나들 듯이 침략하였으니, 금주의 관문인 사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집을 비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피난 생활을 하였었다. 그래서, 농사나 어로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대포를 비롯 해안지대의 마을은 집들이 모두 불타 버리고, 황폐한 속에 버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태에 따라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 박 위(朴 威)는 우왕 13년(1387)에 황폐한 채로 버려진 동래읍성(東萊邑城)을 개축하는 등 부산지역의 방비시설에 힘썼으나,그렇다고 왜구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왜구로 인하여 고려말의 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고, 연해지역은 민심의 동요가 심했다.

공민왕 6년 사헌부(司憲府)의 상소(上疎)에 따르면 「근년 이래 왜구가 침능(侵陵)하여 국가가 다난(多難)한 데 대원(大元)이 북비(北鄙)에 가까이 있고, 대명(大明)이 요심(遼潘)에 둔병(屯兵)하여 조석으로 우리의 사정을 엿보고 있으니 장차의 환난을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하었으니, 당시 기울어 가는 고려 조정의 답답한 사정을 알만하다.

고려는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

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것은 본래 이 무렵에 고려의 국력이 왜구를 격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쇠퇴하였다. 그때 고려는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부터 국력이 기울어져간 데다가 여 '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준비와 두 번에 걸친 정벌의 실패로 말미암이 더욱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약화된 고려로서는 왜구라는 박찬 적을 상대로 싸워 나가는 사이에 차츰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때, 이 성계(李成桂)와 최 영(崔螢)은 열세에 놓여 있는 고려군을 이끌고 용감히 싸워서 왜구 격퇴에 그 위명을 떨치기로 하였다. 그때 얻은 명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 성계는 최 영을 제거하고 드디어고려를 넘어뜨리고 새 왕조인 조선을 세우게 되었다. 이 성계에 의해서 고려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조선왕조(朝鮮王朝)가 1392년에 열리게 된다.

4. 조선시대(朝鮮時代)

1) 조선전기(朝鮮前期)

(1) 시대개과(時代概觀)

고려 국가가 그 내부적 사회모순과 대외적 시련을 해결 극복할 능력을 상실한 막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륜을 가진 주체세력인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여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국가가 조선왕조이다. 따라서,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제도는 태종·세종·문종을 거치면서 거의 완성되었다.

고려말 영흥(永興) 호족 출신의 이 성계(李成桂)는 무장(武將)으로 홍건적(紅巾賊)과 왜구(倭寇) 격퇴에 전공을 세우고 지반을 굳힌 후에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중앙 정계의 실권자(實權者)가 되어 최영(崔螢)·조 민수(曺敏修)·정 몽주(鄭夢周)등 반대파를 차례로 몰

아내고, 전제개혁(田制改革)으로 구세력(舊勢力)의 기반을 완전히 꺾은 다음 신진 유학자(新進儒學者)들의 세력을 형성하여 마침내 1392년 7월 17일 개성 수창궁(壽昌宮)에서 배 극렴(裵克廉)·정 도전(鄭道傳)등의 추대를 받아 새 왕조를 개창하고 왕위에 오르니 이가 조선 태조(太祖)이다.

처음에는 급격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국호도 그대로 고려라 하였으나, 뒤에 곧 조선(朝鮮)이라 고쳤으며, 인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서울을 한양(漢陽:지금의 서울)으로 옮겼다. 태조는 왕조 개창과 동시에 국가의 3대 정책을 국시(國是)로 내걸었는데, 첫째, 문화적으로 고려 시대에 폐단이 많았던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가의 정치·교육의 근본이념(根本理念)으로 삼았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농업을 산업의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세째, 외교적으로는 사대교린책(事大交隣策)을 내걸어 명(明)에 대해서는 사대정책(事大政策)을 썼고, 여진·일본에 대해서는 교린정책(交隣政策)을 써서 친선을 도모하였다.

조선 왕권의 확립은 태조 때 그 기초가 잡히고, 그 뒤를 이은 태종 때부터 성종까지 영주(英主)들이 잇따라 나와 100여 년간의 치적으로 양반 관료국가로서의 왕권은 반석위에 놓인 듯 확립되었다. 건국 직후에는 나라의 기반도 굳건하지 못하고, 인심도 안정되지 못함에 따라, 왕위(王位)계승권을 둘러싸고 두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나, 승리를 거둔방원(芳遠:太宗)이 왕위에 오르자 과단성 있게 정무(政務)를 처리하여 왕권을 확립하였다.

(2) 조선 전기의 사하(沙下)

조선시대의 부산은 여전히 동래현(東萊縣)과 동평현(東平縣)에 속하였으나, 태조(太祖) 6년(1397)에 이곳을 일본과 대치하는 국방상의 중요한 요지(要地)로 보아 여기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진鎭의 병마사(兵馬使)가 동래현의 행정관인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되었고, 그뒤 세종(世宗) 5년(1423)에 병마사를 첨절제사가 판현사를

점하게 되었다. 세종 22년(1440)에는 부산포에 일본인의 내왕이 빈번하게 되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진(鎭)을 속현 동평현으로 옮겼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동래로 환진하였는데, 그 후 얼마 가지 아니하여 판현사를 현령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편, 동래현의 속현 동평현은 고려 시대 부터 양주(양산)의 영현(領縣)이었으나, 조선 태종 5년(1405)에 동래현의 속현이 되었고, 태종 9년(1409)에 다시 양주에 속하였다가 세종 10년(1428)에 와서 또다시 동래현의 속현이 되었는데, 현(縣)의 소재지는 현재 부산진구당감동이며 지금도 돌로 쌓은 흔적이 남아 있다.

동평현은 속현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고, 동래현령의 행정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그 후에 속현 제도가 없어짐에따라 동래현에 통합되고 말았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초엽이 된다. 조선 초기의 부산 지방에는 신라 시대 부터 천민의 집단 거주지로서 군현 제도의 말단 조직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던 부곡(部曲)과 향(鄉)이고려 후기로 부터 차츰 해체되어 갔으나, 그 일부가 엄연히 남아 있었다. 각 부곡에는 별도로 인리(人吏)를 두어 행정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인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곡이 완전히 행정면에서 독자성을 지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문헌상에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부곡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향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부곡과 향은 15세기말에 완전히 해체되어 동래현에 흡수 됨으로써역사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자 그대로 동래제일현(東萊第一縣)이 된 동래현은 일본 사신이 왕래하는 요지였으므로, 명종(明宗) 2년(1547) 재상(宰相) 이던 이 묘(李苗)의 건의에 따라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고, 당 상관(堂上官)이 부사(府使)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동래 도호부는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패몰지(敗沒地)라 하여 동래현으로 강동되고 현령이 임명되었다. 그뒤 선조 32년(1599)에 명(明)나라 장군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다 시 도호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당상관(堂上官)인 무관(武官)을 부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부사(府使)밑에 문관(文官)인 판관(判官)을 두었는데, 선조 31년(1601)에 일본측에서 적극적인 강화 교섭을 하였으므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감안하여 부사는 당상의 문관을 임명하였고 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후 효종(孝宗) 6년(1655)에는 동래부에 독진(獨鎭)이 설치되었고, 숙종(肅宗) 16년(1609)에는 부사가 방어사(防御使)를 겸하게 되었으나, 불과 2년 후에는 방어사를 없앴으며, 영조(英祖) 15년(1739)에는 부사가 동래성(東萊城)과 금정산성(金井山城)의 수성장(守城將)을 겸하여 조선말 갑오경장(1894)때 지방 관제가 전면적으로 개혁된 고종 32년(1895)에 까지 이르렀다.

동래의 수령(守令)으로서는 현이었을 때는 현령(종5품)이,도호부가 되었을 때는 도호부사(정3품)가 중앙에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임하였다.이 현령이나 도호부사는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 군수·현령·현감 등 각 급 수령 중에서 제6급과 제4급에 해당되는 지방관이다.동래부사 선생안에 의하면 연산군 12년(1506) 8월 13일에 현령 김 홍수(金弘壽)가 부임한 후로 고종 32년(1895) 5월 29일부사 정 인학(鄭寅學)이 이임할 때까지 389년 사이에 현령이 27명, 부사 255명,도합 282명이 교체되었다.

동래도호부사(東萊都護府使)를 약칭하여 동래부사(東萊府使)라고 부른다. 동래부사는 경상감사(慶尚監司)밑에 속하며, 그 임기는 5년(뒤에는 3년이 됨)이었는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동래 지방 출신자가 아닌자로 임명하였고, 또 가족을 동반하여 부임할 수 없었다.이것은 공정한 행정과 지방적인 세력의 부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부사의 임기는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았고 대개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교체되었다. 즉, 이러한 사실은 389년 사이에 현령을 포함한 282명의 부사가 교체되었고, 그 중 겨우 21명만이 임기를 채웠었다는 것으로 넉넉히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사의 업무는 중앙정부 기구인 6조(六曹)의 경우와도 같이 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 등으로 나누어 처리되었는데 각 방의 담당 사무를 대충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이방은 인사·출장 명령과 서무를 담당하였고, 호방은 조세의 징수와 균역(均役)·호구(戶口)·농사·둔전(屯田)·관우(官牛)·사창(司倉)·전곡(錢穀)·회계(會計)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예방은 전문(箋文)·제사·의례(儀禮)·빈객·유생·관교(官教)·첩문(帖文)·사문(赦文)·문무 蔭官의 이력과 의원 등에 대한 사무를, 그리고, 병방은 군사·병선(兵船)등에 대한 사무를 보았다. 형방은 재판·금령(禁令)·형구(刑具)·죄수·감옥 등에 관한 사무를 보았었고, 끝으로 공방은 공장(工匠)·영선(營繕)·공용지(公用紙) 등에 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사가 부임할 때 그 막료로서 데리고 온 비장(裨將)과 동래지방의 토착민인 이속(吏屬)들이 배치되어 실제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해 나갔다. 그중에서도 이방·호방·형방이 가장 중심이 되었으며 그 수리(首吏)를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였고, 특히 호방의 수리인 호장은 부사가 부재할 때에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였다. 그들 이속은 일반적으로 향리, 혹은 아전이라 하였는데 향리는 다시 그 하급 보조원인 가리(假吏)와 구별된다.

그렇지만, 이들 향리는 제도상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이역(東役)에 종사해야만 했기 때문에, 전혀 생활의 보장이 없어서 자연히 백성들에게 온갖 부정을 자행하게 되었다. 더구나 수령은 대개 행정의 실무에 밝지 못한 데다가 재임 기간마저 짧아서 지방실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향리들이 보다 용이하게 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향리들의 폐단은 관기(官紀)가 문란해진 왕조의 후기에 이르게 되면 더욱 심해져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세종 7년(1425)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와 동 14년(1432)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기록된 동래현

(東萊縣)과 동평현(東平縣)의 인구수는 경상도지리지에는 동래현에는 290호에 남자 1,151명, 여자 1,265명, 계 2,416명, 동평현에는 108호에 남자 342명, 여자 285명, 계 627명으로서 합계 398호에 3,043명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인구 조사가 16세 이상 6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조사였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인구에는 여자가제외되었다. 그러므로, 호수는 실제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구는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동래부의 행정 구획과 호구 수는 동래부지 (東萊府誌)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래부의 행정 구획은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촌(南村), 동평면(東平面), 사천면(沙川面), 북면(北面)의 7면 22동 79리로 나누어져 있었고, 남자 9,616명(승려 230명 포함), 여자 9,483명, 제 19,099명의 인구가 5,639호에 살았었다.

각 면에는 원래 도윤(都尹)·부윤(副尹)·도약정(都約正)· 부약 정(副約正)·직월(直月)·포도별장(捕盜別將)·포도관(捕盜官)· 향도계(香徒契) 등의 임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부터는 사상과 사하면에 도약(都約) 1명, 약정(約正) 1명, 도장(都將) 10명, 포도군관(捕盜軍官) 14명, 도검장(都檢將) 8명, 기찰장(譏察將) 8명, 하유사(下有司) 2명, 근농관(勤農官) 2명을 두었고, 면의 하부 조직인 이동(里洞)에는 이정(里正)과 주인(主人)을 각 1명씩 두었다.

이들의 임무는 동래부와 백성들의 중간 위치에서 정령(政令)을 전달 주지시키고 또, 실행케 하였었고, 동시에 부세(賦稅)를 독려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도장, 포도군관, 도검장, 기찰장 등은 범죄의 수사와 죄인의 체포 등 지금의 치안유지를 위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면에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외관은 전혀 없었고, 풍헌·약정 같은 임원도 좌수·별감의 천거에 따라 부사가 임명하는 것이었으므로, 면은 부사의 관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향청과 향약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면은 일종의 지방의 자치단체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보겠다.

사하구(沙下區)는 당시 사하면(沙下面) 하단(下端)에 속해 있었다. 하단은 신초량리(新草梁里), 구초량리(舊草梁里), 대티리(大峙里), 목장리(牧場里), 감천리(甘川里), 독지리(禿旨里), 장립리(長林里), 서평리(西平里), 다대리(多大里)의 9개 리(里)로서 지금의 중·서구(中·西區)도 해당된다.

그리고, 신초량리에는 숙종 4년(1678) 부터 왜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평리에는 수군만호영, 다대리에는 다대첨사영이 있었다.

고종(高宗) 5년(1868)에 편찬된 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에 따르면 부산면(釜山面)이 생기고, 사천면(沙川面)이 둘로 갈라져서 사상면(沙上面)과 사하면(沙下面)이 신설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평면(東平里)에서 범천(凡川) 이남을 분리시켜 부산면이 신설되었고, 사천면은 폐지하고 이를 사상면(沙上面)과 사하면(沙下面)으로 나누어 9개 면(面)을 편성하였다.

(3) 조선전기의 국방(國防)과 부산

조선 전기의 국방제도를 고찰하면, 고려 이래로 있어 온 8도(道)에 군사를 맡아보는 도병마절제사(道兵馬節制使)를 임명하고 그 일을 보좌하기 위하여 병마사(兵馬使)와 지병마사(知兵馬使), 병마부사(兵馬副使)를 1명씩 두고, 판관(判官)과 반향(伴向)을 각 3명씩 두었다. 도병마절제사의 소임은 각 주(州), 현(縣)의 군(軍)을 지휘할 뿐이며, 직속 군사는 두지 않았었다.

태조 6년(1397) 부터는 8도 중심의 군사조직(軍事組織)이 진 (鎭)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즉, 각 도(道)의 요진(要鎭) 2 곳 내지 4 곳에 진을 설치하였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임명하여 관할 지역의 주(州), 현(縣)의 군(軍)을 지휘하여 방어에 담당하게 하였으며,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처음 경상도(慶尙道)에는 합포

(合浦), 강주(江州), 영해(寧海), 동래(東萊)에 진을 설치하여 4 진(鎭)을 두었으나, 세종조에는 동래(東萊), 울산(蔚山), 영일(迎日), 영해(寧海), 사천(泗川)의 5진으로 바꿨으며, 세조 때에 이르러 지방 군제의 기틀이 완전히 잡혔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의하면 동래진(東萊鎭)의 병력(兵力)은 380명으로 되어 있다.

세조 원년(1455) 지방 군제를 다시 개편하여 이때까지 해안 지역에만 두었던 진(鎭)은 내륙 지방에 두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해안의 진이함락 당하는 때를 예상해서 이루어진 개편이었다. 따라서, 각 도에 둔 몇곳의 진이 부근에 주현군(州縣軍)을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으로 분속시키고 각 현의 수령(守令)이 군사직을 겸하게 하였다.이때 동래진의 중익은 동래 현이고, 좌익은 기장현, 우익은울산군이었다.

중익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또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좌우익 (左右翼)은 각각 병마단연사(兵馬團鍊使)가 지휘를 맡았다. 그 뒤 세조 3년에는 이를 다시 개편하여 각 도를 진으로 바꾸고, 중익·좌익·우익제도를 폐지하였는데, 동래현은 울산진에 소속되었다. 세조 12년(1466) 관제개혁에 따라 군제도 역시 개편되어 전국(全國)을 진관(鎮管) 으로 편성하는 이른바 진관제(鎮管制)를 실시하게 되어 수령(守令)들이 군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각 도주진(道主鎭)의 병사(兵馬節度使)가 그 관하에 몇 곳의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절제사(節制使)와 첨절제사(僉節制使) 로 하여금 통솔토록 했으며, 그 밑에 제진(諸鎭)들을 두어 동첨절제사 (同僉節制使)·만호(萬戶)·절제도위(節制都尉)로 하여금 일선 방위를 담당케 하였다.

국방상 특히 중요한 함경도와 경상도에는 관찰사(觀察使)가 병사(兵)를 겸하고 다시 좌·우로 나누어 각각 병사를 두었으니 경상도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세사람인 셈이다. 경상도 병마절도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尚左道兵馬節度使)는 울산(蔚山)에,경

상우도병마절도사(慶尚右道兵馬節度使)는 창원에 각각 배치 근무하였고, 좌도는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우도는 진주목사(晋州牧使)가 겸임하고 있었다. 그 뒤에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당시의 부산은 경상좌도병마절도 사영의 관할에 들어 있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군사지휘권은 주진 (主鎭)인 각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부터 거진(巨鎭)의 첨절제사 로 거기에서 제진(諸鎭)의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로 이어진 것이다.

동래현(東萊縣)은 울산에 있던 경상좌병영(慶尚左兵營)관하의 경주 진관(鎭管)에 속했으며, 동래현령이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고 있 었다. 그후 명종(明宗) 2년(1547)에 동래도호부(東萊都護府)로 승 격하게 되자 동래도호부사(동래부사)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를 겸 임하여 동래 일원의 육군을 지휘했으며, 그 휘하에 유방군(留防軍) 3여 (旅) 370명이 있었다.

고려말 이래 극성을 떨고 있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부산 지방에는 일찍부터 수군진영(水軍陳營)이 설치되었다. 태조 3년(1394)에 이미 경상도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두었고, 태종 때에는 경상, 전라,충청 3도(道)를 통할하는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두는 한편, 해안(海岸) 요지에 만호(萬戶), 천호(千戶) 등의 군관(軍官)을 배치하여 바다를 지키게 했다. 그후 세종 때에 이르러 수군도절제사의 명칭이몇 번 바뀌었는데 전국의 수군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의해 통할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수군(水軍)의 방위활동은 일선의 만호영(萬戶營)에서 맡아 보았었다.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각각 수군도안무처치사영(水軍都安撫處置使營)을 두었는데, 좌도에는 동래 부산포에 수군도안무처사의 본영을 두고 그 밑에 10개의 만호영을 설치했다. 이 중의 하나가 사하구의 다대포에 첨사영(僉使營)이 설치되었고, 지금의 구평동(舊平洞) 입구에 서평진(西平鎭) 만호영(萬戶營)이 설치되었다.

부산 지방에 수군설치를 견고히 한 이유는 삼포개항(三浦開港) 이후 일본 선박의 출입이 특히 심해져서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왜구의 침입

을 경계해서였다.

세조 12년(1466)에 수군도안무사를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水使)로 고쳐 부르고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水營)을 주진(主鎭)이라고 했으며,그 밑에 거진(巨鎭)을 두어 절제사(節制使),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임명했다. 거진에는 여러 개의 진(鎭:諸鎭)을 실지하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경상도의 좌도수군도안무사가 좌도수군절도사로 바뀌면서 좌수사영을 울산의 개운포(開雲浦)로 옮겼으며, 그 관하에 부산포 진관이 설치되고 그 밑에 10개의 만호영을 두었다.

다대포영(多大浦營)에는 대맹선(大猛船) 1척, 중맹선(中猛船) 2척, 소맹선(小猛船) 6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1척이 배치돼 있었고, 성종(成宗) 21年 (1490) 11월에는 둘레 1806척(尺),높이 16척(尺)의 석성(石城)을 쌓았다. 그 뒤다대포영은 만호영에서 첨사영(僉使營:僉節制使營)으로 승격되었고,이때에 개운포의 경상좌수영(慶尚左水營)이 동래 남촌(南村) 즉,지금의 수영(水營)으로 옮겨졌었으며, 중종(中宗) 39년에는 부산진영(釜山鎭營)내에 서평포(西平浦) 만호영(萬戶營)이 신설되었다. 서평포는 지금의 사하구 구평동 입구 극동철강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며, 그 때에 쌓은 성(城)은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대 첨사영은 원래 무관(武官) 종(從) 4품(品)의 만호가 그 수장이었으나,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변지이력(邊地履歷)으로 정해진 자리는 원칙보다 직품(職品)이 높아 수군(水軍) 가운데경상(慶尙) 다대첨사(多大僉使)와 육군(陸軍)으로 만포진첨사(萬浦鎭僉使)는 정3품(正三品)의 당상관(堂上官)이 첨사로 임명되었다.

그후 효종(孝宗) 5년(1654)에는 첨사가 목장(牧場)의 감독관을 겸임하게 되었으나 숙종 2년(1676)에 이르러 그 겸임이 해제되고,그 이듬해에 다시 감독관을 겸하게 되었다.

서평포 만호영은 원래 무관(武官) 종9품(從九品)의 권관을 수장으

로 하는 가장 작은 진보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폐단으로 말미암아 능히 진보를 유지하지 못하여 다대첨사영의 성안에 이전하였다가 현종 9년(1668)에 다대 첨사영의 성(城) 안이 비좁아서 이에 다시 옛 영지의 남쪽 2리의 지점에 돌아왔다.

그후 숙종 3년(1677)에 이르러 본 만호영이 왜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 수장의 관질이 낮아서 체통이 서지 않는다 하여 무관 종 4품(從四品)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으로 승격되었다. 만호 밑에는 군관 8명, 진리 6명, 지인 3명, 사령 2명이 있었으며, 지니고 있은 병선은 전선(戰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侯船) 2척이 있었고, 그 중에서 병선이 딸린 군사는 1,101명이었다.

한편 좌수영(左水營) 직속의 각지 병고(兵庫)는 좌수영 관하의 7진(鎮) 및 기장(機張), 울산(蔚山) 등에 병고 27개소(所)를 설치하였다. 동래는 상산(上山), 동변산(東邊山), 서변산(西邊山), 운수산(雲水山)의 4개소이고, 다대포에는 몰순산(沒雲山), 두송산(頭松山), 금티산(金峙山)의 3개소에 두었다. 그 외 서평(西平), 기장(機張), 울산(蔚山), 서생(西生), 경주(慶州), 장기(長鬐), 영일(迎日), 홍해(與海), 밀양(密陽), 양산(梁山) 등에도 각산(各山)을 봉(封)하여 병고(兵庫)로 하였다.

그리고, 병선(兵船)은 60월(月)로서 선령(船齡)의 만기(滿期)로 하여 폐선(廢船)하였고, 이 보충은 차례로 20월로 한하여 개조(改造)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다.

(4) 교통(交通)과 통신체제(通信體制)

조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통·통신시설은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원(驛院)과 봉수대(烽燧台)였다. 역은 전국의 주요 도로에 30리마다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으며, 5~6개에서 수십개의 역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도(道)라 하고, 여기에 종 6품의 찰방(察訪)을 두어 도에 속하는 역무(驛務)를 과장시켰다. 역에는 항상 공용의

마필(馬匹)과 역정(驛丁)을 갖추어서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마필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숙식(宿食)을 알선하며, 또한 진상(進上)과 같은 관물(官物)의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그임무였다.

조선 시대 부산 지방에는 경상도 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 신역(新驛)과 소산역(蘇山驛)에 보이고,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성산역(省山驛)과 신역이 실려있다. 그러나, 예종 원년(1469)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에 지금의 동래 남쪽에 휴산역(休山驛)이 있었고, 소산역(蘇山驛)은 동래 선동에 각각 자리잡고 있었다.

위에서 말한 역(驛)이 교통, 통신과 수송의 기능을 가진 것이었는데, 선조 30년(1597) 이후부터는 중국 명(明)의 제도를 모방하여 오직 통신만을 담당하는 파발(擺撥)이라는 것이 생겨서 긴급을 요하는 변경 (邊境) 지방의 공문서를 신속히 중앙 정부에 전달하게 되었다. 파발에는 기발(騎撥)을 25리마다, 보발(歩撥)은 30리마다 각각 1참(站)을 두었다.

동래부지(東萊府誌)에 의하면 동래부의 관내에는 소산참(蘇山站), 관문참(官門站), 부산참(釜山站), 초량참(草梁站)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방상 중요한 통신 시설로서는 봉수(烽燧)라는 제도이다. 봉수는 변경(邊境) 지방에서 일어난 사변의 정황을 서울 또는 이웃의 군사 기지에 알려 주기 위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대개 30 리의 거리를 두고 산꼭대기에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 을 밝히고, 낮에는 연기를 내어 이웃의 봉수대에 연락하였다.

봉수는 평상시에 1거(炬:낮에는 1煙), 적이 나타나면 2거,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침범하면 4거, 적과 접전(接戰)하면 5거를 들어서 차례로 서울까지 연락하였다. 만약, 구름과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불어 후망(侯望)이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전달하기 마련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방에서 전달되어 올라오는 봉수 연락을 병조(兵曹)에서 받아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였다. 만약 비상사태가 일 어났을 때는 비록 밤이라도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었다. 봉수에는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이 있었는데, 직봉은 봉수의 주요 간선이며, 간봉은 직봉사이의 중간 지역을 연락하는 보조선이었다.

사하구에는 석성봉수(石城烽燧:天馬山)와 응봉봉수(鷹峰烽燧:多大浦 뒷산)가 있었다. 석성 봉수대는 세종 7년(1461)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인데 초량 왜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페단이 많았으므로, 영조 원년(1725) 동래부사 이 중협(李重協)의 건의에 따라 구봉(龜峰:堂里洞嚴光山)으로 옳겼고, 응봉 봉수대는 중종 25년(1530)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구봉 봉수대의 통신, 연락은 동으로 황령산 봉수대와 연락하였고, 응봉 봉수대는 동은 구봉, 서쪽은 김해의 성화례산(省火禮山) 봉수대와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각 봉수대는 도별장(都別將) 1명을 두고, 그 밑에 별장(別將), 감고(監考), 봉군(烽軍)을 두었는데, 응봉과 구봉 봉수대에는 별장 6명을 두었고, 감고는 1명, 그리고 봉군은 각 1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봉수대를 관장하는 기관은 고종 5년(1868)에 작성된 동래부 사례(東萊府事例)에 따르면 응봉 봉수대는 다대진(多大鎭)에서 구봉 봉수대는 부산진(釜山鎭)에서 맡아 관리하였다.

(5) 산업공부(産業貢賦)와 조운(漕運)

조선 초기에 주민의 부담이었던 수취제도(收取制度)는 공(貢)과 부(賦)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과 부의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공은 토산 공물 즉 토공(土貢)이고, 부는 전세(田稅)와 전결공물(田結頁物)을 의미한다. 전세(田稅)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는 20년마다 한번씩 전지(田地)를 새로 측량하여 매년 수확량의 1할 制을 조(租:地代)라는 명목으로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국가에 납부하였고, 전주(田主)가 개인인 경우에는 받은 조의 15분의 1을 국가에 상납(上納)하여야 했다.

15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 따르면 당시 동래현의 농민들은 모시·무명·5새무명(正五升布)·상중미(常中米)

·조미(造米)·전미(田米)·꿀·밀(燭密)· 참기름·들기름 등 10 종을,동 평현의 농민들은 무명· 5 새무명베·갱미(更米)·조미·전미·콩 등을 전세로서 국가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하 지방은 바다와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농업 다음으로 수산업이 있었다. 당시의 수산업은 반농·반어 (半農·半漁)로 생활을 영위하는 포촌 (浦村)의 주민들이 그 주체가 되었다. 주민들은 생활 상태가 매우 빈곤하였고, 어로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연안 해상과 강에서 어로활동을 했었다. 그들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15세기 후반에는 전자리상어·대구·청어·홍어(가오리)·전어·은구어(은어)·농어· 광어둥 어류 8종과 전복 등 조개류 4종, 김·미역 등 5종과 해삼을 합하여 18종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업은 국가의 무관심과 사회의 천시, 그리고, 관부(官府)의 수탈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건전한 발전을 못했다. 염업은 암염맥이 없는 까닭에 순전히 해염(海鹽)에만 의존하였는데, 장림동(長林洞)에는 염분(鹽盆)이 있어 제염에 종사한 백성들이 소금을 납입(納入)했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

공납은 궁중과 중앙 정부 각 기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주·현을 단위로 그 지방의 전결(田結)·호구(戶口)와 토산물을 참작하여 책정된 것인데, 각 주·현은 낱낱의 민호(民戶)에 배정하여 징수·상납하게 되어 있었다. 공물외에 또 진상(進上)이라는 명목의 공물이 부과되었다. 이것은 지방관이 왕(조)에 대한 예의로서 상납(上納)하는 것인데 민호(民戶)에 부담시켜 백성들의 부담은 컸다.

평상도 지리지(慶尚道地理誌)에 기록된 동평현의 토산품(土産品)공 물의 종류는 꿀·촉밀·참기름·들기름·미역·개암(榛子)·황밤· 지초 (芝草)·지지(紙地)·어교(魚膠)·전복·상어 껍질·말린 조개· 김 ·무우·참가사리·황합(黄蛤)·해삼·대구어(大口魚)·청어(靑魚)· 방어·표고버섯 등 22 종의 많은 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백성들의 공납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 은 도(道)의 감영과 수영이 각기 자체의 수요에 따라 관할 지역 안의 주·현에 별도로 토산물을 징수하고, 그 나름대로 필요한 물품을 백성에게 배정, 징수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공납 부액은 전세의 3·4배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위의 여러 가지 공부(貢賦)를 걷는데는 지방관속들의 농간과 횡포로 백성들은 더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고, 관속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 나갔었다.

받아들인 공부는 조운(糟運)을 통해 서울로 운반되어 갔다. 전세는 원래 김해 불암창(佛巖倉)에 모아서 배에 싣고 남해와 서해의 해로(海 路)를 통해 서울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조운은 지방민에 게는 말 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되었다. 해로를 통한 수송은 위험이 따를 때가 많았다.

태종 3년(1403) 5월에는 경상도 조선(漕船) 34척이 침몰되어 쌀 1만여 섬과 승선원 1천여 명이 수장되는 큰 참사가 있었다. 그때 살아 남은 단 한 사람이 도망을 하여 머리를 깎고 멀리 떠나가서 영구히고통에서 벗어나서 살겠다고 했다니 조운은 백성들에게 비참한 부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 사고에 충격을 받은 태종은 하륜의(河崙)의 건의에 따라 동왕(王) 4년(1404) 부터는 이를 중지하고, 육로(陸路)로 수송하여 문경 초점(草帖)을 넘어서 충주 가흥창(可興倉)에 수납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수납된 전세는 다시 배에 싣고 남한강의물줄기를 따라 서울까지 운반하였다. 그러나, 위험성은 적었지만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했다.

태종 3년(1403) 사간원(司諫院)의 반대 진언(進言)도 있듯이부산 지방에서 충주(忠州)까지 10여 일이 걸리었고 특히 겨울에 얼음이얼고 한풍이 심하여 부재(負載) 운수하는 민원(民怨)이 높고 우마(牛馬)는 곤폐하여 그 참상을 이루 말 함 수 없었다

(6) 삼포(三浦)의 왜라(倭亂)

고려 말기부터 창궐한 왜구의 침입이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린외교(交隣外交)로 회유하였다. 이러한 교린외교에도 불구하고 태조 5년(1396)에는 일본의 해적단인 왜선(倭船) 120여 척이 경상도 지방에 침입하여 우리 병선(兵船) 16척을 빼앗아가고, 수군만호(水軍萬戶)이 수춘(李壽春)을 죽인 후 동래·기장·동평현의 성(城)을 함락했으며, 태종 2년(1402)에는 다시 부산포에 침입하여수군 천호(千戶)전 남보(全南寶)와 군졸 10여 명을 살해하는 등 행패가 심하였다.

이와같은 왜구의 행패에 정부에서는 그 통제에 고심한 나머지 회유, 강경의 양면으로 대처하였다. 세종 원년(1418)에는 대마도를 토벌하기도하고, 그뒤 삼포인 부산포, 제포(창원·웅천), 염포를 개항하여 교역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계해약조를 맺고 세공선, 특송선의 규약까지 정하여 삼포의 왜관에는 왜인의 거루(恒居倭人)까지 허락하였다.

그후 삼포는 날로 왜인의 출입이 늘어나고 거류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거류왜인은 국가의 공전을 임의, 불법으로 차지하여 경작하는 일이 생겨났고 또, 연안의 공사어장에서 불법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일으키는 등 관민을 괴롭혔다. 그리고, 거류지역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가에 침입하여 교역도 하였고, 군·현민을 상대로 상거래까지 하였다.

사하구는 부산포와 가까이 있었고, 창원·웅천의 제포와 이웃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대포 항구와 낙동강변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왜인의 물자 거래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많았다.

삼포(三浦)는 명목상의 국제무역을 위한 개항장(開港場)일 뿐,실제는 일인을 후대함으로써 침구(侵寇)를 막아보자는 출현적인 조치였다. 왜관에는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각종 구실을 내세워 불법체류하는 자가 많았다. 이것을 항거왜(恒居倭)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만호(萬戶)를 협박하고,부녀자를 겁탈하였고,어획물을 강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 어민을 궁지에 몰아넣고,공전(公田)의 점탈,왜전(倭田)의 확장과 탈세 등 행패가 날로 심하였는데,정부에서는 왜인(倭人)의 감정을

우려하여 왜전(倭田)에 대해 면세까지 해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다.

군진(軍鎮)을 습격하여 살상과 물품의 강탈을 물론 심지어 민가를 습격,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으나, 정부는 왜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껏 대마도주에게 소극적으로 항의하는데 그쳤을 뿐, 많은 적대행위를 일삼는 왜인들을 눈앞에 두고도 삼포의 방비태세는 말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무방비 상태에서 중종 5년(1510) 4월에 삼포의 왜란이터졌다. 부산첨사(釜山僉使)가 왜관의 토목공사에 항거왜인을 너무 혹사하였고, 웅천현감(熊川縣監)은 왜인의 흥리를 일체 금하면서 양료(糧料)조차 제때에 잘 지급하지 않았고, 제포첨사(齊補僉使)는 왜인들의 내료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대마도주의 군사 도움을 받고 폭동을 일으켰다. 왜인의 우두머리 대조마도(大趙馬道)와 노고수장(奴古守長)은 무장한난도 4~5천명을 거느리고 제포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의 민가를 불사른후에 성문을 혈고 난입하여 첨사 김 세균(金世釣)을 납치하고 성을 함락시켰다. 제포를 점령한 왜인들은 다시 웅천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부산포에서는 이미 난도들이 수비가 허술한 부산성을 점령하여 침 사 이 우중(李友曾)을 살해하고 이어 동래의 속현인 동평성 부근까지진 출하여 진을 치고 동래현의 군사와 싸우는 한편 민가를 불사르는 만행까 지 저질렀다.

현령 윤 인복(尹仁復)은 적은 병사로 분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래성으로 물러나서 성을 고수하면서 싸웠으나 전세는 불리하였다. 이때 경상좌수영의 김 현손(金賢孫)이 군수 문 경전(文敬全)우 후(虞侯)이 분(李盼)을 거느리고 달려와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들이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겨우 동래성은 함락을 모면하고 지킬 수가 있었다.

이때 울산의 염포도 침공을 당했다. 이 사태가 위와 같이 중대한 국 면에 이르자 경상감사의 급보에 접한 정부는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황 형(黄衡)을 좌도방어사(左道防禦使), 유 담연(柳 助年)을 우 도방어사(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군사 2,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좌의정 유 순정(柳順訂)을 도원수(都元帥), 우의정성 회안(成希願)을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하여 전투에 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를 갖추어 서울을 떠날 무렵 왜적들은 삼포의 거주지를 버리고 대마도로 도망쳐 버렸다.

이 왜변을 계기로 삼포는 폐지되고 대마도(對馬島)와도 교섭이 끊어졌다. 경지는 부족하여 조선과 일본 본도 사이에서 교역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대마도는 일대 파격이었다. 이에 대마 도주(島主)는 막부에 간청하여통교의 교섭을 요청하고 한편으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으며, 심지어는 난의 괴수의 목을 함에 넣어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피해가 너무 커서 부산포에서만 100 여 명이 살해되고, 관위(官衛)와 선박이 불탔으며, 동평현의 민가(民家) 12호, 동래현의민가 198호가 불타버렸으니 왜를 대하는 민심은 중오와 공포에 불타있었다.

처음에는 강경하였던 정부에서도 2차에 결친 사신의 간청도 있어 왜인을 회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의논에 따라 결국 중종 7년(1512)에 이를 받아 들어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고 통교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조선정부(朝鮮政府)에서는 제포(齊浦)만 개항하고 항거왜(恒居倭)를 없앴으며, 제포에만 왜관을 두어 일본인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왜변이 연속되어 정부에서는 왜관을 부산포(釜山浦) 로 옮겼으나 그들의 난동도 여전하였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일 어난 것이다.

(7) 임진왜란(壬辰倭亂)

○ 부산·동래성·다대포진의 항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15세기 후반 부터 100여년 동안 소위 전국

시대라는 혼란기였다. 일본의 호족들의 싸움을 수습하고, 전국의 통일을 성취하여 정권을 장악한 풍신수길(豐臣秀吉)은 대륙 정복의 야망으로 명 (明)을 칠터이니 조선(朝鮮)은 길을 비키라고 요구해 왔다.

풍신수길은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대마도주를 시켜 조선의 내정을 정탐케 하는 한편, 양국간의 수교를 요청하고, 또, 명나라 정벌을 위한 일본군이 조선을 통과 할 수 있게 길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여왔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풍신수길은 조선 침공의 뜻을 굳히고, 군사를 모으고, 병선을 제조하는 등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당쟁 때문에 지배층이 분열되어 정치는 어지럽고 국방은 허술하였다. 대마도 도주의 주선으로 모처럼 일본에 파견되어 그 곳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온 황 윤길(黄允吉), 김 성일(金誠一)등 통신사 일행이 서로 엇갈린 보고를 하여,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국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그때 조선의 사정은 국초이래 계속된 태평성대에 지배층인 양반·관료 중문경무(崇文輕武)의 풍조속에서 국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정치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쟁으로 국론이 분열되었고, 정치는 혼란하고 이도(吏道)는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한편 경제적으로 양반, 관료의 토지겸병은 날로 심하여 국가는 재정이 고갈되었고, 일반 국민의 생활은 극히 어려웠다. 국민 상하에는 유리감 내지는 위화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외침에는 방위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소서행장(小西行長), 종의지(宗義智), 송포진신(松浦鎭信) 등이 거느린 왜군 제1진 18,700여 명이 700여 척의 병선에 나누어 타고부산으로 밀어 닥쳤다.

영도(影島)에 사냥을 갔다가 이를 발견한 부산첨사(釜山僉使) 정

발(鄭撥)은 급히 진영(鎭營)으로 돌아와 배 3척으로 방어에 나섰으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城) 안으로 후퇴하여 일대 접전 끝에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부사(府使) 송 상현(宋象賢)이 지키던 동래성 역시 마찬가지로 항전하였으나, 함락되고 말았으니, 이 두 성(城)의 척참한 싸움은 역사 에 길이 남게 되었다. 정 발 장군과 송 상현공의 위국충절은 길이 추앙을 받을 것이다.

부산성을 합락한 왜적은 그날 바로 군사를 나누어 사하구의 구평동 입 구에 있던 서평포 (西平浦)에 몰려와 격전이 벌어졌는데 서평포는 즉시 합락되었다. 이어서 왜적은 다대포로 몰려와 다대성(多大城)을 포위하 고 총공격을 감행하니 첨사(僉使) 윤 흥신(尹興信)이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사(戰死)하였고, 다대성도 합락되 었다.

동래성을 무너뜨린 왜군 제1진은 별 저항도 받지 않고 양산(梁山)· 밀양(密陽)을 거쳐 대구(大邱)·상주(尚州)·조령(鳥嶺)을 거쳐 서울로 향하였다. 이에 4월 19일에는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이끈 제 2진 22,000여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경주를 거쳐 영천 신녕 방면으 로 향하였고, 같은 날 제3진 11,000여 군사도 흑전장정(黑田長政) 의 인솔하에 부산에서 해상으로 죽도 즉, 김해군 가락면 죽동리에 상륙하였다. 이 날은 사하구 일대가 전화에 짓밟혀 비참한 하루였고, 그 참상은 눈뜨 고 볼 수가 없었다.

다대포항을 거쳐 낙동강물을 따라 장림, 신평, 하단을 지나서 김해에 상륙하였으니 피해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뒤 모리길성(毛利吉城)의 제4진 14,000명, 복도정칙(福島正則)의 제5진 25,000명 소조천웅경(小早川隆景)의 제6진 15,700명, 모리휘원(毛利輝元)의 제7진 30,000명,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의 제8진 10,000명, 우시수승(羽柴勝)의 제9진 11,500명 등이 연달아

부산에 상륙하여 일부는 북진을 하고, 일부는 후방 수비를 하였다.

한편, 구귀가륭(九鬼嘉隆), 등당고호(藤堂高號)등의 수군 9,000 여명은 부산포를 근거로 육군과 평행하여 북진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조선(朝鮮) 수군(水軍)에 눌려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쨌든 부산 일대는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 왜군의 후방기지와 병참기지가 돼 버렸다. 주민들 중 부녀자와 아이들은 산중을 비롯한 각처로 피난길을 떠나고,노인들만 집에 있었으나, 집이 많이 불타고 왜군에 약탈당하였으며, 노역에 강제동원되기도 했다. 청장년은 물론 군역(軍役)에 끌려갔으나, 군역에 참가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역시 왜군에 끌려 노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조선의 강토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었다.

○ 다대포 전적(戰績)

다대포진(多大浦鎭)은 국초에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는데,뒤에 지금의 다대포에 옮겼다. 다대포는 옛날부터 왜구들을 막기 위한 군사 요지였는데,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경상좌도의 칠진(七鎭:釜山多大,西平,包伊,開雲,豆毛,西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어 왔으며,다른 진보다 2배의 병선(兵船)을 배치하였고,전국 25명의 다른 첨사는 종3품이었는데,다대포 첨사와 평안북도의 만포진(滿浦鎭) 첨사는 정3품당상관(堂上官)이었다.이 두 곳의 첨사는 첨사를 관할하는 수사 (水使)와 동격 (정3품)의 관원이었으니 그 전략적 중요성은 능히 집작하고 남음이 있다.

위와 같은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대포의 전적(戰績)에 관하여서는 그다지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강 필리(姜必履)의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에 의하면

······, 삼가 고의사(故義士),이 승지(李承旨) 정헌(庭憲)의 행장(行狀)을 상고하면 적(賊)이 먼저 부산을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동래 및 제포(諸浦)를 합락시키니,다대첨사 윤공(尹公)이 사절(死節)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조 부학(趙副學) 서문(叙文) 중에 팔곡(八谷) 구 사맹(具思孟)이 지은 구팔곡(具八谷)의 조 망록(吊亡錄)에는 '적이 성(城)을 포위하거늘 윤 공이 역전(力戰) 끝에 물리쳤다'고 했다. 그 마하(摩下)가 말하기를 "내일에 만약 거진(擧陳)하여 와시 공격하면 그 세력을 지탱하기가 이겨우니 나가석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매 흥신은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 하였다. 과연 왜적이 크게 닥치니 군졸은 모두 도망하였지만, 흥신은 홀로 종일 적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고 하였는데, 행장(行狀) 및 조망록(吊亡錄)을 참고하면 본부(本府:東萊)와 양진(兩鎭:釜山,多大)이 함물(陷沒)한 것이 모두 일시의 일이니 부산은 임진(壬辰) 4월 14일에 동래는 15일이었으므로 다대포의 합몰도 동래와 같은 날의 일이 아닐까 한다. 만약 같은 날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될 것이니 요컨대 15·6일을 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평포(西平浦)의 전투기사는 별로 기록된 데가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다대포보다 앞서 함몰한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그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활공을 하였는가도 알 수 없다.

윤공(尹公)의 사적(事績)은 오래 들어나지 않아 임진왜란 후에 뒤늦게 알려졌다. 왜란 때에 동래와 부산진에서 순절(殉節)한 사람들은 차례로 밝혀져서 은전(恩典)을 입었으나, 다대진(多大鎭)만은 동래에서 50여리나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무식하여 당시의 전공(戰功)을 말하지 못하고 더구나 역대의 첨사(僉使)도 대개 무식한 무부(武夫)로서 전대(前代)의사적(事蹟)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다대진의 항전(抗戰)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英祖) 37年(1761)에 경상감사(慶尚監使)조 엄(趙曮)이 윤 흥신(尹興信)의 사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믿을만한 문헌(文獻)을 보고 조정에서 포상(褒賞)해 줄 것을 청하게 되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에 다대첨사 이 해문(李海文)은 영조 41년(1765) 윤공단(尹公壇)을 다대포성(多大浦

城) 안에 쌓고 매년 4월 15일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 윤 공 (尹公)의 전망일(戰亡日)을 알 수가 없으므로 송 상현의 전망일을 따라 날짜를 정한 것이다. 다대성 안(지금의 다대국민학교)에 있던 윤 공단(尹公壇)은 현재의 자리로 옮겼는데, 중앙에 「僉使尹公興信殉節碑」가 서고 그 좌우에 윤 공의 서제(庶弟) 「尹興悌碑」와 「殉亂土民碑」가 세워져 있다.

국토수호를 위해, 사하의 다대포성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윤 공(尹公)의 전적(戰蹟)이 200여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던 것은 실로 애통한 일이었다. 여기에 윤공의 조국수호의 전공(戰功) 및 순절(殉節)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 다대포 첨사 윤공 전망사적서(戰亡事蹟級)

일짜기 懲毖錄을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多大浦僉使 尹興信은 힘껏 싸우다가 戰死하였다」하고 또,再造藩邦志를 보니「倭兵이 군사를 나누어 西平浦·多大浦를 함락시키므로,多大浦僉使 尹興信은 힘껏 싸우다가 살해 되었다.」고 하였다. 정비록은 선조조의 相臣 柳成龍이 지은 것이요,再造藩邦志는 東陽尉의 맏아들인 申炅이 지은 것이다. 당시의 文獻을 반드시 상고한 바 있었을 것이니 信憑할 만하다.

임진란 후 167년 丁丑(英祖 三十三年·1757)에 내가 東萊府使로 官家에 到任한 이튿날 忠烈祠에 麥拜하였다. 忠烈祠는 곧 府使 宋象賢과 釜山 僉使 鄭撥의 神主를 모신 곳이다. 尹公이 當日에 殉死한 것은 二公으로 더불어 그 땅이 같고 그 아름다움이 같으므로 腏食과 崇報의 思典로 마땅히다름이 없어야 하겠으나, 二公은 한 祠堂에 함께 모시고 십지어는 吏胥와奴隷로서 생명을 버린 자에까지 미치고 있는데도 홀로 尹公만이 빠져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를 매우 凝訝하게 생각하여 邑誌를 詳考하고 本浦 (多大浦)를 방문하였으나, 歲月이 寢遠하고 傳聞이 迷茫하여 後裔가 상고하지 못하고 闡

發할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이에 그 義烈이 아직도 드러나지 못하였음을 슬 퍼하고, 참으로 더 오래되면 깜깜해질 것을 두려워 하였다. 辛巳年 봄에 嶺 南監司로서 道內에 孝烈과 節義가 두드러져 가히 일컬을 만한 자를 모두 列舉하여 褒尚할 것을 狀請하였는데 그 하나가 尹公의 일이었다. 禮曹에서 贈職이라 써서 議政府에 보고하였으니 議政府의 覆奏는 요컨대 마땅히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 이 마음이 조마조마함은 오히려 그 사적의 기록을 상세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한스런 일이었다.

近日에 우연히 八谷 具思孟의 吊亡錄을 읽었는데 그 死節條에 多大浦僉使 尹興信을 特書하고 註를 내어 이르기를 倭賊이 성을 포위하자 力戰 끝에이를 물리쳤다. 그 麾下가 말하기를 「來日에 만약 舉陳하여 와서 공격하면 그 세력을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나가서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니, 興信은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하였다. 과연 賊軍이 크게 닥치니 軍卒은 모두 도망하였지만 홀로 종일 賊을 쏘다가 城이 합락되자 죽었다.」고 하였다. 또, 詩로서 이를 哀悼하기를 「도망한 列邑은 이미 완전히 비었는데, 職分을 死守하겠다는 高高한 言行으로 홀로 충성을 바쳤구나. 摩下를 만약 흩어지지 않게 하였더라면, 외로운 城은 오히려 뛰어난 공로를 폐하기에 죽했을 것이로다.」고 하였으니, 그 記錄의 勧獎하고 추켜세움이 懲毖錄과 再造蕃邦志에 비하여 더욱 소상하였다

조의 遺忠과 餘烈은 이에 더욱 밝혀지고 뚜렷이 나타나서 千載之下에 사람의 耳目을 비춰 줄 것이다. 이와같은 데도 忠烈祠의 제사를 받드는데에함께 모시지 못하였으니, 무엇으로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할 것이며 오는 뒷날을 권장하겠는가. 혹은 節義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이 또한 각각때가 있어서 그러함인가.

내가 癸未年(英祖 三十九年: 1763) 日本에 使臣으로 가서 임진란을 追想함에 憤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더욱 더하고 忠烈之人을 돌이켜 생각 하니 그들을 들어 나타내려는 뜻이 더욱 간절하여 이에 幕僚들과 이를 말 하고 한탄하며 슬퍼하였다. 李海文은 狀士이면서 詩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옆에 앉아 듣고는 문득 더욱 한탄하고 슬퍼하였다. 돌아오자 나가서 本浦 를 鎮守하였는데 尹公의 義烈이 泯殺됨을 슬퍼하여 四律의 글을 지어 읊고 나에게 알리며 拙文을 벽위에 揭示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그 뜻은 참으 로 邊境 사람들을 聳動시켜 길이 風聲을 심어 주는 데 있을 따름인 것이다. 尹公을 褒揚하는 것은 내가 十年이나 품은 본래의 뜻이었다. 비록 朝庭 에 準請하여 宋·鄭 兩公과 合享함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지금 本鎭(多大浦)에서 壁에 揭示하자는 의논을 어찌 감히 글이 서툴다고 하여 사양하겠 는가. 이에 전후 사실을 모아 대략 위와 같이 기록한다.

崇禎紀元後 百三十八年(英祖 四十二年: 1766) 에 原任 行副提學 趙��一 【 多大浦 魚使 尹公戰亡事蹟叙 】

竊嘗見懲毖錄 有曰 多大僉使 尹興信 力戰死之 又見再造籓邦志曰 倭賊分 兵陷西平多大浦 多大僉使 尹興信 力戰被殺 憨毖錄 是宣廟朝 相臣柳成龍所 撰藩邦志 是東陽尉胤子申炅所撰 當時文獻必有所考 而可徵信也 壬辰後百 六十六年 丁丑 不侫守萊州 到官之翌日 拜于忠烈祠 祠即府使宋公象賢 釜山 僉使鄭公撥 安靈之所也 尹公之當日殉國 與二公同其地而並其美 腏食崇報之 典 宜無異也 而二公則一廟並享 至及於掾吏奴隷之捐生者 獨尹公關而不與焉 余甚訝之考之邑誌 訪諸本浦 歲月寢遠 傳聞迷茫 後裔莫考 闡發無人 余於是 乎 竊悲其義烈之未彰 誠恐愈久而愈晦也 辛巳春 按嶺藩也 歷暈道內孝烈節義 之表 表可稱者狀請褒尚 其一尹公事也 自禮部 題以贈職 貼報政府 政府之覆 奏 要當在早晚間而此心頻頻 猶恨未得 其記蹟之詳備者 近日偶閱 具八谷思孟 吊亡錄 其死節條特書多大浦僉使尹與信 註之曰 倭賊圍城 力戰却之 其下曰明 若擧陳來攻 其勢難支 莫如出避 興信曰 有死而已 何忍去也 賊果大至 軍卒盡 迯 獨終日射賊 城陷而死 又以詩悼之曰 奔亡列邑已全空 分死危言獨効忠 摩 下若教終未散 孤城猶足策奇功 其記載獎翊 比之懲毖錄藩邦志 尤為纖悉 公之 遺忠餘烈 於此 益彰明較著 可以照人耳目 於千載之下矣 如是而 不得同享于 忠烈祠之俎豆 顧何以慰忠魄 而勧來後乎 豈節義之顯晦 亦各有時而然敷 不倭 癸未奉使之日本 追想龍蛇之變 憤惋之心尤倍 緬懷忠烈之人 闡揚之意益切 時 與幕僚輩 語此而感歎李令海文 壯士而能詩者也 在傍而聽 輒增慷慨 及還出鎮 本浦 惜尹公義烈之泯没 吟成四律 書報于余 要得拙文 揭于壁上 其意實在於

聳動邊士 永樹風聲耳褒揚尹公 是余十年素志 雖未及準請於朝家 合享於宋鄭 今於本鎭 掲壁之論又何敢以不文辭 兹摭前後事實 略識如右 崇禎紀元後百三 十八年 原任行副提學趙曮書

。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

대저 士君子는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 義를 분발하여 熱血 丹心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일에 殉節하면 이는 진실로 탁월한 大節이다. 褒尚의 思典이 반드시 죽은 후에까지 미치는 것이니 이 때문에 榮光스러운 이름은 無窮한 것이다. 만약에 빚나는 節意와 烈烈한 氣慨로써도 불행히 깊숙히 가리워지고 침몰해서 비석에 실리지 않고 祭亨에 列하지 못한다면 홀로 죽은 사람의 서러웁고 답답함만이 아니라, 그 忠義를 드러내고 賢良을 登進하는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 節義를 나타내어 人臣의 가르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진란에 僉使 尹興信이 多大浦를 지킬 때 梅寂이 不意에 닥쳐오니 公은 千名에 차지 않는 殘兵을 이끌고서 창을 휘두르고 분격하여 왜군의 승리에 기세를 탄 불꽃같은 銳鋒을 물리쳤으니 어찌 壯하지 않겠는가. 밖으로 개미새끼한 마리의 후원도 없고 외로운 성이 장차 屠城이 될 것을 알면서도 끝내 떠나갈 뜻이 없어 한번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였으니 어찌 義롭지 않은가. 賊의 來襲이 구름과 같고 麾下의 軍士가 모두흩어졌음에도 더욱 勇氣를 내어 종일토록 賊을 쏘다가 활전대를 품고 운명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烈이 아니겠는가. 公이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쳐 殺身成仁한 것은 참으로 옛 烈丈夫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그 공을 이룩하여 세움이 특출함은 실로 무리들이 냇물처럼 무너지는데 砥柱山이 우뚝 솟은 형상이라, 국가에서 愍忠의 章을 행하고자 한다면 어찌 公을 뒤로 하겠는가.

아아, 당시 東萊一城에 忠臣 義士가 어찌 이같이 한 곳에 모였던가. 本 府의 忠烈公 宋象賢은 朝衣를 입고 從容히 義에 나아가 죽었고, 釜山鎭의 忠壯公 鄭撥은 黑衣를 입고 힘껏 싸우다가 殉節하였으며, 多大鎭에는 또 한 公이 있었다. 만약 節義의 旗幟를 내걸고 厲鬼가 되어 賊을 죽인 忠誠을 논한다면 마땅히 三公은 아름다움을 견주어 서로 오르내릴 것이다. 우리 聖朝의 褒贈은 이미 宋‧鄭 兩公에게는 미쳤으나 홀로 公만은 누락되었다. 그 義烈이 泯改되어 빛나지 않아서 世上에서 이를 칭찬할 수 없게게 되었으니 어찌 근자에 이른바 불행히도 깊숙히 가리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해 가을, 내가 東萊府使로 와서 忠烈碑를 읽고 尹公이 실리지 않았음을 애석하게 여겼고 忠烈祠에 참배하고 尹公이 參與하지 못했음을 슬퍼하였으며, 그 遺芬을 방문하였으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지나간 자취가 아득하고 막연하여 村翁 野老들이 능히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금년 봄에 내가 金井山 梵魚寺에 出遊하였다가 우연히 國朝 戰亡人의 施食册子를 보니 多大浦 僉使 尹公의 이름을 宋‧鄭 兩公의 밑에 大書하고 있었다. 公의 貞忠으로서 遺祠에 寢食하지 못하고 단지 절간의 離享에 들어 있으니이 어찌 士林의 思慕하는 뜻이 중들의 숭배하여 받드는 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고는 더욱 公의 답답함을 슬퍼하고 더욱 나라의 典禮가 미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아아, 당시의 大人 君子들이 만일 능히 義를 思慕하여 오래도록 감동함이 옛날 韓愈같은 이가 있었다면 睢陽의 南人은 반드시 張巡·許遠으로 더불어 함께 실려 이름을 가지런히 하였을 것이다.

근자에 李海文은 尹公이 殉節한 옛 땅에 出鎭하여 感懷를 일으켜 一律을지어 吊慰하고 또한 原任 副提學 趙曮公에게 叙文을 요구하였다. 대개 趙公은 本府에 부임하면서부터 慨然히 尹公의 死節을 추모하였으며, 本道 監司가 되어서는 또한 表尚의 청을 임금에게 上奏하였는데 尹公의 事蹟을 崇獎함에 있어서는 이미 積年의 苦心을 품고 있었으니, 지금 叙文에서 징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尹公의 忠義의 감추어진 광채가 거의 闡發되어 마침내 埋没되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아, 尹公의 壯한 事蹟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殉國의 달과 날짜를 장차 찾을 수 없지 않겠는가. 삼가 살피건데 故 義士 承旨 李庭憲의 行壯에는 「賊이 먼저 釜山을 한탁하고 군사를 나누어 東萊 및 여러 浦鎭을 한락시 키니 多大浦僉使 尹公이 죽었다.」하였고, 또 살피건데 副提學 趙曮이 叙文 中에 引用한 具八谷의 吊亡錄에는 「賊이 성을 포위하자 尹公이힘껏 싸워 이를 물리쳤으며, 이튿날에 賊이 크게 닥쳐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이제 行壯과 吊亡錄을 參考하면 本府 兩鎭이 함락당한 것은 모두 같은 때의 일이었다. 釜山은 곧 壬辰 四月十四日이요, 本府는 一五日이니, 또한 多大浦의 함락이 역시 本府로 더불어 같은 날인지 알지 못하겠다. 같은 날이아니라면 그 翌日이니 요컨대 이 一五・六兩日을 넘지 않을 것임은 의심이 없다고 하겠다.

하루는 府東가 나에게 致辭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壬辰年에 本府의성이 합락된 날이다. 府使 宋公이 靖遠樓 엔터에서 殉國한 까닭에 해마다이 날 저녁 壇에서 제사를 모시며 그 밖에 義에 죽은 자도 모두 불러 祭 享하옵니다.」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尹公은 어찌 이 壇에 列하지 못하는가. 兩鎭의 死節은 同一한데 홀로 忠壯公만 配食한다면 尹公의 死節이 어찌 忠壯公에게 遜色이 있어 능히 함께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趙英珪・盧蓋邦 諸公으로부터 아래로 幕僚・無人・吏屬・女人에 이르기까지, 무릇 능히 國難에 殉節한 자는 官爵의 秩品이 爛然하고 俎豆는 질서가 있으나 오로지 저 尹公만은忠節이 기록되지 않아서 혼령이 血食을 못하는 것은 또한 홀로 어인까닭인가.

내가 이 날에 東岳 李安訥公의 「새벽에 집집마다 哭한다」는 詩를 외우고는 慷慨하여 受降門 위에서 칼을 스다듬고 多大浦 港口를 바라보 매 黑風이 바다에서 불어 怒濤가 해안에 부딪치니 어찌 公이 흐느껴울 면서 성가퀴에 오르던 옛 용기가 아니겠는가. 검푸른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 쓸쓸한 비가 갑자기 내리니 어찌 公의 입이 화를 내어 賊을 욕설하던 餘憤이 아니겠는가. 지금 壬辰年을 相距하기 百七十餘年 사이에 忠魂과 毅魄은 생각컨대 반드시 저승에서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 바람을 타고 번개를 채찍질하여 상하와 사방에 이리저리 떠다닐 것이나, 세상

에 巫陽의 부름으로 荔丹과 蕉黄으로 公의 혼령을 위로하여 드리는 者가 없으니 이 어찌 梵魚寺 施食憎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겠는가.

아아, 公을 忠烈祠에 올리는 것은 일이 朝庭의 典禮에 관계되므로 사사로이 議論할 수 없으나 宋公壇에 함께 제사를 모시는데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것이 本府의 義起한 일로 一體로 제사함을 어찌 가히 그만 둘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尹公의 事實을 枚擧하여 上營에 진정하고 기필코 尹公을 宋公壇에 追配함으로써 얼마간 구구한 忠節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하는 것은 나의 소원인 것이다.

또한 듣건대 副提學 趙曮이 前者에 청한 褒錄의 思典은 早晚間에 마땅히 행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다만 壇만이 아니라 忠烈祠의 配食도 반드시장차 차례로 擧行될 것이다. 참으로 이와 같으면 尹公의 밝혀지지 않았던 義烈이 一朝에 밝게 씻겨 나타나 表旌하여 나타나고 모셔서 配食하여 宋·鄭 兩公으로 더불어 그 지위가 伯仲할 것이며, 百世에 廟食하여 芳名이 남쪽 하늘에 가지런할 것이니, 公이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발돋움하고 이를 기린다. 李公은 詩와 叙文을 나에게 보이고 인하여 一言을 請하였으나 나는 拙辭라서 사양하였다. 마침 忠臣이성에서 죽은 달과 날을 향해서 遺烈을 상상함에 분함을 느끼는 마음이밖으로 激發하여 붓을 잡아 써서 李公에 부치고 인하여 李公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尹公은 반드시 죽지 않았으니 먼저 이 글을 가지고 한紙錢을 만들어 没雲臺 옆에서 이를 불사르고, 壇에 제사를 장차 거행할것이며, 褒章이 반드시 미칠 것이라고 고하여 그 원통함을 위로하라.」하였다. 崇禎紀元後 百三十九年에 府使 姜必履 적음.

宣武原從功臣錄券을 살피니 僉使 尹興信의 이름이 一等에 있었다. 만약 城이 포위된 지 하루만에 곧 함락되었다면 비록 하루의 승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釜山에서 시체가 쌓인 것이 세 곳이라 한 것과同一한 것이다. 鄭忠壯公은 이미 錄券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어찌 홀로 尹公만이 기록될 이치가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尹公이 처음 賊을 만나

혹은 물리치고 혹은 이겨서 道臣과 師臣의 공로를 列擧한 장계가 있었기때문에 錄券에 들었으나 뒤에 다시 포위되어서 戰亡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컨대 多大浦의 함락은 반드시 本府城이 함락된지 오래된 후일 것이다. 姜侯(姜必履) 가 인용한 李承旨의 行壯은 곧 지금 사람들이 지은 것이니 이는 懲毖錄 등의 서적에서 얻어 추측하여 지은 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마도 족히 證明하지 못함것 같다.

【尹公死節記】

夫士君子 奮義於危難之際 以熱血丹心 輕七尺而殉國事 是固卓犖之大節 而褒尚之典 必及於身後 是故榮名無窮焉 苟或以昭昭之義 烈烈之氣 不幸幽 翳沈没 不載於貞氓 不列於爼豆則 非獨死者之愍欝 其於顯忠遂良之道 大有 所乖 故昔晦翁感歎鄭威愍驤 必欲表章其節義 以爲人臣之權者 良以此也 粤 在我國龍蛇之變 尹僉使與信守多大浦 海寇不意充斥 公提殘兵不滿千揮戈奮 擊 卻乘勝焚 銳之鋒 何其壯也 外無蟻子之援 知孤城之將屠 而終無去意 以 一死自矢 何其義也 賊來如雲 摩下盡散 勇氣彌勵 終日射賊 伏弢而殞 何其 烈也 公之見危致命 殺身成仁 眞無愧於古之烈丈夫 而其樹立卓卓 實有衆潰 如川 砥柱屹然之象 國家欲舉愍忠之章則 豈後公也哉 噫 當時萊山一域 忠 臣義十 一何萃也 本府忠烈宋公 以朝衣從容就義 釜山忠壯鄭公 以黒衣力戰殉 節 多大又有公焉 若論抗節義之幟 爲厲鬼殺賊之忠則 宜三公之並美 而相上下矣 我聖 朝褒 贈已及於宋鄭兩公 而獨公漏焉 其義烈泯没不章世 無得以稱之 豈向所謂不幸 幽翳者非耶 昨年秋余來守萊山 讀忠烈碑 而惜尹公之不載 拜忠烈祠 而悲 尹公之不與 訪其遺芬則 星霜已稠 往蹟悠茫 村翁野老 莫能記之 今春余出 遊 金井山梵魚寺 偶閱朝戰亡人施食册子 大書多大浦僉使尹公之名 列於宋鄭 兩公之下 以公之貞忠 不得腦食於遺祠 而只入於梵宮之醮享 是豈士林向慕之 意 不及於緇徒之崇奉而然耶 余覽此 而益悲公靈之湮欝 益歎國典之欠闕 噫 當時之大人君子 苟有能慕義 而曠感如古韓文公者則 睢陽之南八 必將與巡 遠同載 而並名矣 近者李令海文 出鎮尹公殉節之舊地 拊覽與懷 作一律 以 吊之 又乞叙文於原任副學趙公曮 蓋趙公自莅本府 慨然慕尹公之節 及按本 道 又以表尚之請奏之 天聦於崇 獎尹公之事 已抱積年 苦心今於叙文可驗矣 然則 尹公忠義之潛光 庶幾闡發 而終不至於埋役歟 嗚呼 尹公之壯躅已違則

殉國之月日 其將靡所徵乎 謹按故義士季承旨庭憲行狀 以爲賊先陷釜山 兵陷東萊及諸浦 多大僉使尹公死之云 又按趙副學叙文中所引 其八谷吊亡錄 以爲賊圍城 尹公力戰卻之 明日賊大至 而城陷云 今以行狀及吊亡錄条及則 本府兩鎭之被陷 皆一時事也 釜山即壬辰四月十四日 本府即十五日 抑未知 多大之陷 亦與本府同日歟 不與同日則 乃其翌日 要之不出此十五六兩日也無 疑矣 一日府吏致辭於余曰 今日乃壬辰本府城陷之日也 府使宋公殉國於靖遠樓 古址 故每年此夕 壇以祭之 其他死義者皆來享云 余聞而悲涕曰 尹公其不得列於 此壇乎 兩鎮死節一也 而獨忠壯公配食則 尹公之節豈遜於忠壯 而不能同其享 耶 自趙盧諸公 下逮慕僚吏婆 凡能辨一死者 莫不爵秩爛然 俎豆秩然 而惟彼 尹公忠不錄 而靈不血者抑獨何故歟 余於是日誦東岳李公 平明家家哭之詩 慷 慨 撫劒 於受降門之上 南望多大港口則 黒風吹海恕濤簸岸 豈非公飮泣登堺之 舊勇耶 黑雲四合 凄雨忽作 豈非公奮口罵賊之餘憤乎 今去壬辰百七十餘年之 間 忠魂毅魄 想必欝結於冥冥 駕風鞭霆 浮遊於上下四方 而世無巫陽之招以 荔丹蕉黄 慰薦公靈者 此豈不爲梵魚施食僧之所笑乎噫 躋公於忠烈祠 事係朝 典 不可私議 而至於並祭宋公壇 既是本府義起之事則一體之祀 鳥可已也 余 將枚舉尹公事實 陳于上營 期以尹公追配於壇 少寓區區慕忠之懷者 是余之願 也 且聞趙副學前所請褒錄之典 早晚當行云 然則非特壞也 忠烈祠之配食 必 將次第舉之 苟如是 尹公晦昧之義烈 一朝昭洗出來 表以揚之妥以侑之 鄭兩公伯仲其位 廟食百世 齊芳名於朱鳥之天也 公何憾焉 余方翹 足而待之 李令以詩 雙叙文役示於余 仍請一言 而余以辭拙辭焉 適值忠臣死城之月日 像想 遺烈 感情之心 激發于外 援筆而寫 寄諸李令仍託李令曰 尹公其必不死 先將 此文作一紙錢 焚之於没雲臺側 以告壇祀之將舉 褒章之必及以慰其冤泣也 崇 禎紀元後百三十九年 府使姜心履記。

按宣武原從功臣錄券 僉使尹興信名在一等 若城圍一日即陷 雖有一日之捷 此與釜山積屍三處同矣 鄭忠壯旣不入錄券 豈有獨錄尹公之理 是必尹公初與 賊遇 或却或勝 有道師臣列功狀 故入於錄券 後再被圍 以至戰亡 竊意多大之 陷必在本府城陷旣久之後 姜疾所引李承旨行狀 即今人所述 此不過得於懲毖錄等 書 意推而爲之文 恐不足證

ㅇ 부산대첩(釜山大捷)

임진왜란 초기에 육지에서는 불리하였지만 해상(海上)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적이 침입할 때 경상좌수사(慶尚左水使) 박 홍(朴泓)은 도망하고 경상우수사(慶尚右水使) 원 균(元均)이 무너져서 적의 수군 (水軍)은 한때 득세하였으나,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이 순신 (李舜臣)으로 전세는 달라졌다.

경상도 수군이 무너지자 왜적의 수군은 날로 증강되어 부산·김해 등경상도 연안을 휩쓸고 있었다. 재기하여 활동은 하고 있었으나, 실의에 차있던 원 균은 부하장병의 간청으로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선(賊船) 500 여 척이 낙동강, 양산강, 명지, 다대포 등 여러 곳에 정박하여 마음대로 육지에 올라가서는 연안을 점령하니 각 고을과 포구 병영과 수영은 거의 다 함락되어 봉화가 끊어진 것이 분통합니다. 그래서, 본도의 수군을 뽑아 출동 시켜 적선 10 여 척을 분멸하였겠지 마는 나날이 적병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대적할 수도 없으며 본영도 함락되었으니, 이제는 두 도(道)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육지의 왜적들이 뒤를 염려하게 될 것이니 귀도의 군선을 남김없이 거느리고 당포(唐浦) 앞바다로 나와주시오』(충무공전서권 2 장계)

그리하여 이 순신은 5월4일 좌수영인 여수를 출발하여 경상도로 향하였다. 5월 7일 부터 6월 5일까지 거제의 옥포, 통영의 적진포, 당포, 고성의 당항포에서 대승을 거두고 7월 6일에는 그 유명한 한산도에서 대승의 개가를 올렸다. 8월 24일 부터 9월 2일에 걸쳐서 부산포의 왜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부산포로 향했다.

이 순신은 전라좌·우도수군(全羅左·右道水軍)의 전선(戰船) 74척과 협선(狹船) 92척을 모아 8월 1일에 함대의 편성을 끝내고 24일에 전라우수사이 억기(李億祺)와 함께 출동을 하였다. 사량(蛇梁)에서 경상우수사원 균과 합류하여 가덕도(加德島)에서 밤을 새우고,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낙동강 하구(河口)에 다다르니 장림동에 있던

장림포(長林浦) 앞 바다에 적의 수군 30여 명이 대소(大小) 6 척에 분승하여 양산방면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조선 수군을 보고 당황하여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났다. 이에 조선 수군은 왜선을 모두 부수어 불태우고 잔적 1명을 벤뒤, 일단 가덕도로 돌아가 그날 밤을 세웠다.(난중일기)

9월 1일 첫닭이 울자 부산포를 향해 출발하여 이른 아침에 다대포 몰운대 앞 바다에서 왜선 8척, 서대포(西大浦:구평동에 있던 西平鎮 앞 바다)에서 9척, 절영도 앞 바다에서 2척 등의 큰 배를 발견하고, 격파하였다.

이어서 부산포 앞 바다에 왜선 470 여 척이 정박해 있고 선봉선 4척이 초량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탐지한 이 순신은 이 억기와 함께 독전기(督戰旗)를 휘두르며 총공격의 영(令)을 내렸다. 이때 조선의함선 수는 적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되었고, 또 왜군은 높은 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다.

영(令)이 내리자 녹도만호(鹿島萬戶) 정 운(鄭運), 귀선돌격장(龜船突擊將)이 언량(李彦良), 전부장(前部將)이 순신(李純信: 防踏僉使), 중위장(中衛將) 권 준(權俊:順天府使), 좌부장(左部將)신 호(申浩:樂安郡守) 등이 앞서 돌진하여 왜군의 선봉선(先峰船) 대선(大船) 4척을 부수어 불태우자 타고 있던 왜군들이 뛰어내려 육지로 도망하였다. 왜병들은 배안과 성(城)안, 굴 속에 숨어있다가 산으로 올라가 6개처로 나누어 포진(布陳)하고 바다위의 우리 함선을향해 탄환과 화살을 비오듯 퍼부었다. 우리 수군도 적을 향해 화살과 탄환을 쏘면서 적의 함선을 깨뜨리는데 온 힘을 썼다. 부산포에 정박해 있던 왜선 100여 척을 격파하고 왜군의 완강한 저항과 군마(軍馬)도 없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상륙치 못하였다. 그 다음날은 풍랑이 심하였기 때문에 적의 남은 함선과 지상의 왜군을 마저 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때 부산대첩(釜山大捷)에서 아깝게도 정 운(鄭運)이 전사를 했다. 정 응은 영암(靈岩) 출신으로 중종(中宗) 38년(1543)에 태어

나 28세에 무과(武科)에 올라 30세에 거산찰방(居山察訪), 그뒤웅 천현감(熊川縣監), 제주판관(濟州判官)등을 지냈으나, 청렴· 강직한 성품 때문에 지주 화를 입어 물러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유 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녹도만호(鹿島萬戶)가 됐으나 그 인품에 비해 초라한 직책이었다. 왜란이 일어나자 이 순신의 막료(幕僚)로 종군하였다. 항상 부하와 동료에게 '물러나 욕되게 사는 것보다 나아가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 옳다'고 역설(力) 說)하였고, '비록 집이 있어도 열병을 알아 닷새만 땀을 못 흘리면 죽는 것이 아니랴 적환(賊丸)속이라도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죽는다 해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웃으며 죽을 수 있지 않느냐'고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정 운은 세 차례의 대첩에서 선봉(先峰)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웠고, 부산의 대승첩(大勝捷)에서도 앞장 서서 적진으로 돌진하여 죽음을 생 각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해전(海戰)을 마치고 돌아설 때 적의 유탄(洗彈)에 맞아 전사(戰死)하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었다. 정 운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왜병들이 '이제는 큰 걱정을 덜 었다'고 기뻐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용맹한 공(公)을 왜적이 얼마 나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순신이 「녹도만호 정 운은 직무에 충실하고 담략이 있어서 더불어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란이 일어난 이래 의기를 일으켜 나라를 위해서 몸을 잊고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국방에 힘썼으므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는이 정 운(鄭運)등몇명이 있을뿐이 었다. 세 차례의 접전에 언제나 선봉이 되었고, 이번 부산대전 때에도 몸을 던져 죽음을 잊어버리고 앞에 나아가 적의 소굴을 무찌르며 종일토록고 전하였으며, 어떻게나 쏘아댔던지 적들이 감히 꼼짝도 못하였으니, 이는 오직

정 운의 힘이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정 운은 이 순신이 가장 믿고 아끼는 장수요, 또한 부산 해전에서 제일 큰 전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충신 정공운순의사기(鄭公運殉義死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년 8월에 왜적은 막강한 세력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위의 연안에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충무공 이 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 위기에 쌓여있는 우리 나라를 막는데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충무공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굥 (公) 의 아장 (牙將) 으로 활약하던 정 운 장군은 충무공과 함께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런데, 이 난에 있어 특히 다대(多大)부근 지 역이 위태로운 것을 안 충무공은 이 지역에 출전할 용사를 구하니 마침 정공(鄭公)이 자지하여 나오게 되었다 공은 원래 힘이 센 역 발장사(力發將士)였으며, 의지가 강하였다. 그러나 패하여 가는 지경 이라 아무리 힘과 의지가 굳센들 대군세(大軍勢)에 인부족(人不足) 세부족(勢不足)으로 차츰차츰 군병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몇명의 군 력 (軍力)으로 부득이 후퇴에 이르러서 결국은 다대포 앞 몰운대(没 雲臺)까지 이르렀다. 공은 홀연히 마음을 움직이고는 '몰운(役雲) 의 운(雲)이 흡사 내 이름의 음(音)과 같다 하고 필사(必死)의 뜻을 굳게 하였다. 때마침 날이 저물고 바람은 심하게 불어 제장(諸 將) 들이 철퇴 (撤退) 하기를 원했으나, 공은 듣지 아니하고 '나는 벌 써 적과 더불어 죽기로 맹세하였다.'하고 나아가 적과 용감히 싸우다. 가 저사하였다.

공의 순국후(殉國後) 조정(朝庭)에서는 그 공(功)을 높히 평가하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추증(追贈)하고 뒤에 다시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가증(加贈)하여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녹도(鹿島)에 있는 사당(祠堂)에 합사(合祀)되고, 또 고

향인 영암에도 효종(孝宗) 3년(1652)에 충절사(忠節祠)를 세우게 하였다. 이 사당에는 그후 30년만에 숙종이 편액(扁額)을 하사(下 賜)하였다.

지금 몰운대 산위에는 공의 사적을 기리는 비가 서 있으며 또한 충 멸사 정화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부산에서 전몰한 사람을 합사(合祀)하 는 뜻에서 정 운도 충렬사에 합사하게 되었다.

실로 부산해전의 대승첩(大勝捷)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우리 수군 (水軍)을 용감하고 탁월한 영도력으로 지휘한 충무공의 힘이 컸지만 한편 정 운과 같은 위국충절이 강한 노련한 장수들과 부하들이 한몸한 뜻으로 사기(士氣) 충천하여 항전(抗戰)한 결과이다. 부산포 해전은 왜적이 이미 한산도(閑山島) 해전(海戰)에서 주력(主力)을 잃은 터에 그 나머지를 격파하여 왜를 완전히 무력화(無力化)시켰다. 그리고, 당초에 남해를 돌아서 서해로 나아가 수륙(水陸)으로 나란히 나아가려던 왜적의 작전계획에 차질을 가져 오게 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조선후기(朝鮮後期)

(1) 시 대 개 과

조선 후기는 1608년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던 때로부터 1863년 즉 철종(哲宗) 말년(末年)에 이르기 까지의 255년간을 말한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족(滿洲族)의 두차례에 결친 침입, 즉 호란(胡亂)과 모진 당쟁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 양반사회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차츰 붕괴(崩壞)의 길로 치닫고 있던 때이다.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농경지(農耕地)는 감소되어 농촌은 황폐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재원은 고갈되었고,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疲弊)하여 정 치,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연쇄적인 혼란과 변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조(朝鮮朝)가 사양화(斜陽化)하는 역사라고 말 할 수 있다.

(2) 국방과 경비

16세기 말에 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래(東萊)·사하(沙下) 지방은 한낱 대수롭지 않은 남쪽 변경(邊境)의 포촌(浦村)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왜란후에는 국방의 요새지로서,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 그 모습이 달라졌다.

부산 지방은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차 또 있을 지도 모를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시설이 갖추어지고, 경비태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효종(孝宗) 6년(1655)에는 지금까지 경상 좌병영 관하의 경주 진관(慶州鎭管)에 속해 있던 제진(諸鎭) 중의 하나인 동래진을 경주 진관에서 떼어 내어 하나의 단독진(獨鎭)으로 승격하여, 양산군과 기장현 소속의 군사까지도 통합하여 지휘하게 하였다.

사하에서는 다대진(多大鎭)과 서평포(西平浦)가 군사적 요지였다. 그리고, 좌수영은 관할 구역안의 각 처에 병고(兵庫)와 봉산(封山)을 두었다. 봉산은 배를 만드는 재료의 조달을 위해, 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산을 말하는데, 사하구는 다대포의 몰운산(没雲山), 두송산(頭松山), 금티산(金崎山)이 봉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대 첨사영(僉使營)은 지금의 다대동에 있었다. 원래는 무관(武官) 종 4품의 만호가 그 수장으로 되어 있는 만호영이었으나,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변지 이력(邊地履歷)으로 알려진 첨사영이므로, 승격하여 무관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이 첨사로 임명되었다. 그 후 효종 5년(1654)에는 첨사가 목장(牧場)의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게 되었으나, 숙종 2년(1676)에 이르러 그 겸임이 해제되고, 그 이

듬해에 다시 감목관을 겸하게 되었다.

첨사의 밑에는 군관 14명, 진리 24명, 지인 13명, 사령 10명, 군뢰 8명 등이 있었다. 이들은 첨사를 도와 영(營)의 사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기도 하였고, 그외의 직무에 사역되기도 하였다.

첨사영(命使營)은 둘레 1,806 尺, 높이 13 尺의 돌성으로 둘러 싸여 있었으며, 동·서·남·북으로 성문이 있었다. 동문을 패인루(沛仁樓), 서문을 영상루(迎秀樓), 남문을 장관루(壯觀樓), 북문을 숙위루(肅威樓)라 하였는데, 지금도 성곽이 약간 남아 있다.

성 안에는 회원관(懷遠館:客舎),수호각(睡虎閣:東軒)을 비롯하여 청상루(淸霜樓:軍器所),관청(官廳),금산소(禁山所),목소(牧所) 공방소(工房所),도훈도소(都訓導所),지통소(紙筒所),제향소(祭享 所)등 관사와 대동고(大同庫),유포고(留布庫),대변고(待變庫),진 창(鎭倉)등 창고가 있었다. 성 밖에는 진남루(鎭南樓:舟師의 官門), 진남정(鎭南亭:舟師의 待變所) 등이 있었다.

그리고, 다대진에 배속(配屬)된 병선(兵船)은 전선(戰船) 2 尺, 귀선(龜船) 1尺, 사후선(伺候船) 4 尺이었으며, 전선에 딸린 병원(兵員)은 감관(監官)혹은 선장(船將)이 1명, 지구관(知彀官) 2명, 교사(教師) 5명, 토사부(土射夫) 18명, 포수(砲手) 24명, 능로군(能櫓軍) 145명, 분방사부(分防射夫) 106명, 방군(防軍) 800명이었다.

서평포(西平浦) 만호영은 지금의 구평동에 있었다. 원래 무관(武官) 종 9품의 권관(權管)을 수장(守將)으로 하는 작은 일선의 진보(鎮堡)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에는 영(營)을 유지할 수 없어 다대진의 성내(城內)에 이전하였다가, 현종(顯宗) 9년(1668) 다대진성이 좁아서 서평포로 다시 환진(還鎭) 하였다.

그후 숙종 3년(1667)에는 왜관(倭館)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수장(守將)의 관질(官秩)이 낮아서 체통을 세우지 못한다 하여,무관 종 4품의 만호(萬戶)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으로 승격하였다. 만호 밑에는 군관(軍官) 8명, 진리(鎭吏) 6명, 지인(知印) 3명, 사령(使令) 2명이 있었다. 그리고, 병선(兵船)은 전선(戰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배치되어 있었고, 병선에 딸 린 군사는 1,101명이었다.

(3) 조세부담

임진왜란을 치른 뒤에는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더구나, 기근과 역병(疫病)의 유행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특히 동래부, 수영좌수영, 부산첨사영, 다대첨사영 등 많은 권력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민 중에 대한 수탈(收奪)을 자행하는 거점이 되었다.

'더구나, 조선 후기의 부산, 사하 지방은 군사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 른 어느 지방보다 국가적 관심이 높은 고장이었지만, 유교적(儒敎的)인 교화(敎化)와 유학(儒學)의 보급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불모지(不 毛地) 였다. 그것은 단순히 일본과 가까운 변경(邊境)의 해읍(海邑)。 포촌 (浦村)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조정으로 부터 심한 차별 과 버림을 받았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여도 급제하는 예가 없었다. 그 래서,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 (氣風)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사환 (仕宦 으로 입신출세(立身出世)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드러진 양반(兩班), 사족(士族)이 있을 리 없었고, 사하의 주민 대부분은 다 만 흥판자생(興販資生)으로 살아가는 쇠잔(衰殘)한 양민(良民)들이었다. 위와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부산 지방의 백성들은 농업과 어업에 종 사하였는데, 이들이 겪은 큰 고초는 공납(貢納)이었다. 이것은 민호(民 戶)에 부담시켜 거두어 들이는 지방의 특산물을 말하는데 그 종류도 많 아 부산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무리한 공물도 있었다. 이에 중간에서 쌀로 대납을 받아 공물을 사서 상납하는 방납(防納)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은 관(官)과 결탁하여 중간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물의 대체를 지 나치게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더했다.

임진왜란 후 조정의 재정도 말이 아니어서 광해군 원년(1608)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공물대신 그 값을 쌀로 내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베나 돈으로 내었으니, 이것을 대동포(大同布)와 대동전(大同錢)이라불렀다.

동래부에서는 숙종 3년(1677)부터 실시하여 매년 전세(田稅)와 함께 땅 1결(結)에 쌀 12말씩을 고루 거두었다. 이렇게 징수한 대동미(大同米)는 다른 지방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왜관(倭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지를 위한 경비로 충당되었다. 거기다 빈번히 발생한 왜관의 화재로 인한 관우(舘宇)의 개축(改築)과 수리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왜인 접대를 위한 경비도 부산 지방민의 부담(負擔),노력(勞力)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지방보다도 민폐가 가장심했던곳이었다. 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의 기록을 보면 거두어 들인 대동미로써 동래에 비치된 저치미(儲置米)가 7490여 석(石)인데 그중 3600여 석을 왜인 접대비로 썼으니,이는 전체의 48.1%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2300여 석을 동래부에서 쓰는 수용비로 삼고, 1590 석은 좌수영과 각 진(鎭)의경비로 썼었다.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軍事制度)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국민 개병제(皆兵制)에 바탕을 둔 부병제(府兵制)로 병역 의무를 진 자는 중앙의오위도총부(五衛都總部) 산하에 있는 5위(五衛)에 윤번으로 배치되어복무했으며,그 일부는 유방병(留防兵)이라 하여 각도의 병영(兵營)과수영(水營) 및 그 휘하의 각 진(鎭)에서 복무하였다. 그러나,사실은 양반의 자제들이 빠지고 대신 복역하는 자가 많아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에도 개병제란 말 뿐이었다. 그뒤 임란 후에는 5위를 폐지하고 5영(營)을 두어 병역제(兵役制)를 혁신하였다. 이것은 모병제(募兵制)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적 군인제(軍人制)로 바꾸었다. 정번수포법(停番收布法)이라고 하여 군역(軍役)에 나가지 않는 자는 매년 베 2필씩을 내면 되었는데,이를 군포(軍布)라 한다.

그런데, 군포를 내지 않는 양반들과 관리들의 부정으로 얽힌 일부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은 관리들로 부터 더 많은 군포를 내도록 강요 당했다. 시달리다 못한 농민들 중에는 농토를 버리고 유랑하는 무리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조정에서는 균역법(均役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

교역법이란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되 그 대신 결작(結作)과 해세(海稅)를 부과하여 군사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양반층은 제외되었고, 백성들의 부담은 여전했다. 특히, 어세(漁稅)와 염세(塩稅)선박세(船舶稅)로 나누어진 해세(海稅)는 사하구의 해안과 낙동강변일대 주민들에게는 당치도 않은 부과였다. 조선 시대 염전은 장림동과 신평동에 있었다.

동래감리서관첩준안(東萊監理署關牒存案)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감천, 서평 등 사하 부락민들은 다대포군영(多大浦軍營)과 좌수영(左水營)으로 부터 가혹한 부역(賦役)과 징세(徵稅)로 시달린데다가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수탈까지 겹쳐서 도저히 살아 갈 길이 없어 유랑자가 늘었고, 남은 부락민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명을 이어갔다.이에 정부에서는 수영진의 전단(專斷)을 급하고, 동래감리서로 하여급이 지역을 다스려 페단을 막게 했었다.

(4) 장시(場市)와 상업(商業)

조선 후기의 상업 활동은 전기에 비하면 다소 활발해졌지만 대체로 부진한 상태였다. 그것은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이 농사짓기에 힘쓰고, 장사를 천시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농업 기술과 교통 수단의 미발달과 자급자족적인 농업 생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화폐 경제가 건전한 발달을 하기가 어려웠고, 상업 활동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부산에는 상업을 형편없는 직업으로 천시하는 토착 양반이 비교 적 적고, 왜관이 설치되어 일본인들의 무역이 번성한 데 영향을 받아, 다 른 지역보다 상업이 빨리 일어난 셈이었다. 17세기 전후한 무렵부터 여러 곳에 장(場)이 서고, 장사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조선 후기의 사하 지방에는 독지장(禿旨場)이 개시(開市)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 독지장은 1일과 6일에 열려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이나, 혹은 그들이 부업적으로 만든 수공업품과 어열 등이 물물교환이나 또는 쌀과 포목,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역되었다.

그리고, 하단은 대저 (大渚) 나루터를 경유하여 김해 지역의 농산물이집하 (集荷)되고, 낙동강류(洛東江流)를 통하여 농산물 특히 벼의 집하장으로 예부터 흥청댔고 이곳에 구포와 함께 큰 장(市場)이 섰었다. 언제부터 개시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부산장, 하단장, 동래장은 당시의 이름난 장이었다. 하단장은 미곡(米穀) 거래 시장으로 번창하였고, 다른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交易地)로서도 이름을 떨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번창했던 하단장의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2일과 7일에 열리고 있으나, 채소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초라한 시장이 되었다.

또, 이러한 장에는 인근 각지를 순회하면서 행상을 생업으로 하는 소위보부상(褓負商)이 있었다. 이들은 생활주변의 소도구나 세공품을 파는 봇짐장수인 보상과, 농산품과 건어물이나 각종 기물 등을 파는 등짐 장수인 부상을 일컫는다. 보부상들은 각 지역별로 일종의 동업조합과 같은 굳건한 조직체를 가지고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였었다.

한편, 조선 후기의 대일 무역은 순전히 부산에 있었던 두모포 왜관(豆毛浦倭館)이나 초량 왜관(草梁倭館)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왜관은 대일 무역장으로서 기능을 가졌다.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에는 소위 왜관 개시(倭館開市)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역과 일본의 연례 송사(年例爰使)들이 가져오는 공사 물화에 대한 정부의 회사(回賜)와 공무(公貿)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역이 있었다. 왜관 개시는 왜관에서 일본인과 조선 상인 사이에 사적으로 교역을 행하던 정기의 시장을 이른다.

이 왜관의 장은 매달 3일, 13일, 23일 등 3번 섰으나, 광해군 2년

(1610)에 이르러 3순(三旬)의 3일과 8일에 6번 장이 섰다. 장날이 되면 동래부에서 왜관 출입을 허가하는 패를 받은 후에 들어가교역하였다.

(5) 개 항 기 (開港期) 의 사 하 (沙下)

1800 년대의 부산은 한가로운 어촌이었고, 항내 (港內)에는 해조류가 무성해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어장이었다. 수공업 또는, 농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약 2000여 어민은 부산포를 비롯하여 다대포, 감천 등에 어장 (漁帳:정치망)을 설치하고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서양열강(西洋列强)의 동양에 대한 진출이 활발 해졌고, 그 물결이 부산에도 파급되었다.

1863년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흥선대원군(興宜大院君)은 사실상 집권을 하여 모든 제도를 정비 개혁하고 대담한 내외 정책을 실시했으나, 극동에 눈을 돌린 강대국들의 침입에 여러 차례의 시련을 당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열강의 강요에 의하여 굳게 닫혔던 문을 열게 되었다.

부산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항구이다. 그러나, 개항의 동기가 우리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강요에 의한 개항이었다. 개항후 부산 지방은 완전히 일본의 침략에 말려 들어갔는데, 이 무렵 사하는 그들의 활동무대인 중심가에서 한쪽에 위치하여 큰 변화는 없었으나, 주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불안한 속에서 살았다.

개항 후 부산은 대내외적으로 크게 변모되어 갔다. 일본은 그들의 거류 지를 조선과 대륙에 대한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조계(租界)와 조차 지(租借地)에 모든 근대적인 시설을 급속히 서둘러 갔다.

초량 왜관이 일본 전관 거류지로 바뀌게 되자, 그들은 먼저 일본의 이권을 부산 주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왜관 주변을 둘러싼 석벽을 맨 먼저 철거해 버렸다. 그리고,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이권과 세력을 부평동 아대신동 · 부민동 · 영도 방면으로 확대시켜 나갔고, 마침내 영주동 사이에 있

던 쌍산(双山:兩山)을 깎아내려 거류지를 조선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연결시켰다.

1909년 1월 순종(純宗)이 부산에 순행(巡幸)한 한 해 뒤인 1910년 사하면(沙下面) 즉,지금의 사하구에 속했던 동명은 하단동(下端洞), 괴정동(槐亭馬), 대티동(大峠洞), 당리(堂里), 평립동(平林洞), 구 평동(舊平洞), 다대동(多大洞), 장림동(長林洞), 신평동(新坪洞), 감천동(甘川洞) 등이었다.

그리고, 1910년(隆熙4년) 6월 20일 현재로 조사된 사하구인 사하면의 일본인 인구수는 아래 표와 같다.

洞		名	人	口	累	計
槐	亭	洞	4	2		2
平	林	洞	28	8	3	0
大	峠	洞		3	3	3
下	端	洞	84	1	11	7

위의 표에 의하면 하단동에 일본인이 가장 많았던 것은 하단진(下端津)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농산물의 이름난 교역지(交易地)였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하단동에 주로 정미소를 차리고, 김해평야와 낙동강 유역에서 운반한 벼를 정미하였었다.

러시아와 청국(淸國)의 열강을 누른 일본인들은 부산의 시구(市區)를 정리하여 일본식 마을 이름을 붙이고, 부두를 만들고, 철도를 부설하는 한편 용두산 주변의 일본 거류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형성하게 되니 이제까지 부산의 중심지가 되었던 부산진은 오히려 변두리가 돼 버렸다. 따라서, 부산의 근대도시 형성은 여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대티촌 (大峠村)과 일본인

대티 (大峠)고개는 지금의 괴정동에서 서대신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이

지만, 옛날에는 괴정동에서 아미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였다. 이 고개는 부산과 사하면 하단을 왕래하는 통로였으며, 부근에는 숲이 무성하여 하단장에서 곡식을 팔아 넘어 오는 장꾼들을 도적들이 나와 빼앗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왜관을 부산진에서 용두산으로 옳길 때 여기에는 조선인 촌락이 있었다. 왜관이 옳겨진 뒤에 왜인들이 자주 이 마을을 침범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조선인 마을 사람들을 대티에 있는 산골 마을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대티촌 (大峙村)이다. 대티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몹시 증오하여 일본 사람을 보면 시비를 걸고, 대티 고개를 넘는 왜인을 보면 고개위에서 기왓장과 돌로 봉변을 주기가 부지기 수였다. 왜인 때문에 산골로 옮겨 오게 된데 대한 앙가품이었다. 왜인들은 대티촌을 곡정(谷町)이라고 불렀으며, 곡정 사람이라면 벌 떨었다고 한다.

5. 개항이후 (開港以後) 의 사하 (沙下)

1) 강요당한 부산개항(釜山開港)

부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항(開港)된 항구이다. 따라서,부산의 개항은 한국의 근대 개항을 의미한다. 부산의 개항은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성장에 따른 산업의 발전, 새로운 시대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아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근대화된 일본을 비롯 서구 열강들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된 문호 개방이었다.

그러므로, 부산의 개항은 우리 민족의 근대적인 새로운 시련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면, 개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국내외 정세를 고찰해 본다. 19세기에 후진 동양(東洋)으로 밀려오는 구미(歐美) 자본주의(列强)의 침략 물결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때가 바로 조선 철종 때이며,봉건 사사회는 그 내부적 모순으로 인하여 삼남(三南)의 광범한 지역에서 반봉

건적 농민봉기(農民蜂起)가 일어났다.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병인양요(丙寅洋擾: 1886 년 佛함대 침입)후 서양에 대한 방비를 위해 강화도에 진(鎭)·무영(撫營)을 설치하여 전국 포수 삼천 명을 뽑아 그들에게 지키며 과리하게 하고, 삼남에 저세(田稅)를 또한 거두어 포량미(砲糧米)로 삼으니 그것이 수만 석에 이르렀다. 관리들은 이로 말미암아 중간 노략질을 하게되니, 남쪽 백성은 더욱 곤경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大院君)의 봉건체제 재정비 강화를 위한 철(鐵)의 통제아래 단행된 대외 정책은 이러한 때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삼남의 농민봉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위와같은 조선의 봉건적 후진성과 부패한 양반층의 무능을 틈타 구미열 강의 시선이 조선을 노리고 있어서, 대내적으로 불안이 쌓이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본은 1854년 개국후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이 이루어졌다. 명치정부는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무사(武士)를 관료화하고, 후진국에 대한 무서운 침략성을 내포하여 대륙(大陸)으로의 강제진출을 꿈꾸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그 침략의 목표로 삼아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 체결될 때까지 갖은 횡포와 무력적(武力的)시위 등 위협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감행했다.

1866 년 프랑스 함대의 병인양요, 1871 년 4월 미국 함대의 강화도침입으로 일어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5 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가 강화도를 불법침입하여 포격을 가하고, 무력 시위를 벌여 1876 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부산 개항후 일본은 용두산(龍頭山)을 중심으로 약 11 만평에 1877년 1월 「釜山浦租界條約」이 체결되어 일본인들 중심의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절영도(絶影島)를 해군의 저탄장(貯炭場)으로 조차(租借)하여, 조선과 대륙에 대한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다.

독립국가(獨立國家)인 이나라 부산의 국방(國防)은 무방비(無防備)

상태였으며, 일본의 침략군 시설은 증가되었다. 1876 년 10월 22일 두모포영(豆毛浦營:舊舘)이 폐지되었고, 1881년 2월에 다시 포이포영(包伊浦營:南區), 개운포영(開雲浦營:佐川洞), 서평포영(西平浦營:多大洞)의 3진(鎭)이 절영도진에 폐합되어 군사규모가 축소되었다. 1895년(高宗 32년) 5월 9일 전국의 봉화제(烽火制) 폐지와 함께 부산지방의 봉화대도 폐지되었다. 7월 15일에는 지방의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관직이 폐지되었고, 그 진영(鎭營)도 없어져 부산지방의 좌수영(左水營), 첨사영(僉使營)을 비롯한 각 포영(浦營)도 폐쇄되었다.

위와 같이 우리의 군사시설은 폐지되었는 반면, 부산은 일본의 군수(軍需)·병참기지화 (兵站基地化)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9월 일본의 수비대(守備隊) 설치를 비롯하여, 1896년 헌병분대, 1896년 6월 육군 군수부(軍輸部) 부산지부, 1910년 조선주차육군창고 부산지고(釜山支庫) 등을 설치하여, 조선과 대륙침략의 발판을 부산에 마련하였다.

2) 일제시대(日帝時代)

1910 년 8월 조선을 합방한 일제 (日帝)는 1905년에 각 지방에설치했던 이사청(理事廳)을 폐지했다. 그리고, 9월 30일부로 반포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관제(官制)와 지방관제(地方官制)에 따라 10월 1일부터 부산부(釜山府)가 설치되었다.

부산부는 처음에 과거의 동래부(東萊府) 전역을 관할했으나, 부산면(釜山面), 사중면(沙中面)과 사하면(沙下面)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사하(沙下)는 사하면(沙下面)의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고, 괴정(槐亭), 감천(甘川), 구평(舊平), 다대(多大), 신평(新平), 장림(長林), 하단(下端), 당리(堂里) 등의 낙동강 하구는 사하면으로 동래군에 편입되었다. 이후부터 사하는 대티(大峠) 고개를 경제로 하여 부산과

완전히 격리되었고, 사하 지방으로 부르게 되었다.

1942년 10월 1일 행정구획 변경으로 부산부 사하출장소(沙下出張所)를 설치하여 부산에 편입되었고, 동래군 사하면의 사무를 부산부(釜山府)의 이름으로 계속 시행하는 셈이었다.

부산의 면모를 혀진한 것은 항만시설공사 부터였다. 항만 시설은 제1기 시설을 마쳤으나, 1919년 부터 6개년 계획으로 국제항구의 규모로 건설하여 일제의 대륙침략의 교두부가 되었다. 도로와 항만공사에는 많은 석재(石材)가 필요했다. 이 석재는 사하의 구평동, 감래포(甘來浦:大浦)의 서해안 끝 8,767평을 매수하여 썼다. 현재 감천동 부산화력발전소의 서쪽이며, 산 전체가 바위였다. 후에 감천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역시이곳에서 채취하여 썼다.

당시의 공사는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이곳에 큰 석재 채취공장을 설치하고, 기계력을 써서 할석소요 (割石所要) 예상수량 128,820평 6합 중 114,800㎡를 채취할 목적으로 착암기용 (鑿岩機用)의 공기압용기(壓鎔機), 기관(汽罐) 기타의 기계실과 각종 대기소, 집합소, 소옥(小屋) 창고, 대장간, 석재를 싣기 위한 잔교(殘橋), 운반선의 예양장(曳楊場),궤조부설, 전화가설, 숙소와 사무실 건축, 간이수도설비, 폐화약가공(廢火樂加工)과 변형소(變形所) 등을 만들어 몇년 동안 감천만이 활기를 한때 갖게 되었었다. 사하지방 출신의 노동자가 대부분 이 석재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전한다.

교육기관으로는 한일합방전에 이미 부산에는 몇개의 한국인이 공부하는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때 사하의 하단(下端)에 사립교육기관이 1908년에 설립되었고, 이것이 뒤에 사하보통학교(沙下普通學校)가되었고,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긴 뒤지금의 괴정동 사하국민학교(沙下國民學校)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다대포는 일찍부터 일본인이 수십명이 건너와 살았었고, 1906 년 부터 복강현(福岡縣)의 어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어촌을 만들어 살았 기 때문에 부산에 앞서서 전기가 가설되었고, 이른바 학교 조합에서 운영하 는 일본인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908년 설립된 사립학교가 훗날 오늘의 다대 국민 학교(多大國民學校)가 되었다.

부산 시가지는 확장에 따라 발전되어 갔으나, 사하지방은 1930 년일본사람들이 시내에서 거둔 통과 오줌을 사하에 내다 버리기 시작하면서 도시화사업에 들지 못했다.

하단은 이 지방의 유일하게 번성된 포구 (浦口)로 일찍부터 농산물과 미곡등의 거래로 큰 마을이 되었고, 장림(長林) 일대에 이르는 강변은 김(海苔) 양식지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티 고개위에 똥오줌 저장소를 만들고 하단동에는 구만 섬 들이 똥오줌 처리장을 만들었고, 땅 밑에 관을 묻어 저장소에 부은 분뇨가 처리장까지 흘러가도록 했다.

그래서, 괴정동 대티 고개부터 하단까지는 분뇨차가 줄을 잇고 냄새가 심하여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지방이 되었다. 하단 분뇨 저장소는 낙동 강으로 뻗은 분뇨관을 통하여 배에 실려서 김해평야로 팔려 갔다. 그리고, 인분이 필요 없는 계절에는 바로 강물에 투기하여 하단의 김 생산은 중지되었다. 이러한 시책으로 하단은 피폐해 졌고, 하나의 한촌(寒村)이 되었고 사하의 발전도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제(日帝) 35 년간은 식민지(植民地) 민족으로서 쓰라린 비극은 컸다. 침략의 손길은 부산을 발판으로 그들의 포악한 야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시달림은 다른 어느 곳보다 컸다. 그와 동시에 부산의항일감정도 컸었다. 일반, 학생 할 것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방이 될 1945 년까지 계속되었다.

1937 년 7월 7일 일본의 도발로 일어난 중일전쟁(中日戰爭)후 황민화 동화운동(皇民化同化運動)은 과거와 같이 문화적 정신적 동원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건설과 군수 사업에 근로 동원이 실시되었다. 시국 인식의 철저를 위해 중일전쟁 직후 전국의 주재소를 주체로 하여 시국 좌담회를 열었고, 또, 1938년에는 정무총감(政務總監)을 총재로 하여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가 설립되었다. 부락, 공장, 회사 등에 방공단을 만들고, 교회를 비롯 종교단체 내부에까지 방공부를 설치하였다.

1940년에 이르러 제 2 차 대전 중에도 한반도의 식민지 정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니, 이른바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로 한민족의 말살정책을 썼다. 그리고, 황민화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창씨개명(倉氏政名)을 비롯하여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 일본의 대륙 정책의 전초기시가 되었고, 일본의 전략 적 요청과 그 절대 복종만이 지상 명령으로 강요되었다.

1941년 소위 태평양전쟁으로 돌입한 후부터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고, 1942년 부터는 강제 징병제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를만들고,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강제모병을 하였고, 전쟁이 패색(敗色)되자 징병제도로 바꾸어 우리의 학생·젊은이들을 끌어다가 패전장의이슬로사라지게 만들었다.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징용(徵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의 탄광이나 군수공장 전선기지 등에 강제 동원을 했었다.

1941년 부산은 군사적 도시로 변모하였다. 일본의 패전이 농후해진 가운데 오끼나와를 점령한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으로 가상하고, 이곳에 군비를 강화하였다. 미군 상륙지로 지목된 부산에 군사력을 증강, 부산 요새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영도를 비롯하여 적기(赤崎)에서 하단(下端)에 이르는 해안지대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하단동 에덴공원 강선대 정상에 왜군이 깊이 굴을 파고, 포를 묻고 일 본군의 포병부대가 주둔하였던 흔적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요새사령부는 지금의 영주동 산중복에 있었으며, 아까스끼 부대가 초량 국민학교에 부대본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초량동에 있는 봉 래각(篷萊閣, 중국요리집)은 그들 장교들의 숙소였다. 그외 부산에는 많 은 군사시설, 고사포 진지, 병기고가 있었고, 현재 사하구 감천동에는 해군 예과(海軍豫科) 비행 연습장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아성은 1945년 9월 17일 미군의 25군단 제6사단의진 주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소련이 북쪽으로 부터 한반도에 침공 하였고, 광도(廣島)와 장기(長崎)에 원자탄이 투하됨으로써,일본은 무 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

3) 해방(解放)의 기쁨

1945 년 8월 15일 정오, 일제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감격(感激)의 해방을 맞아 온 국민은 35년간의 쇠사슬에서 풀려 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이 땅을 차지하고 날뛰던 일본인은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이와 더불어 부산 시민의 감격은 절정에 이르렀고, 부산이 개항된 이래 일제가 지배하고 개발했던 세계적인 그 훌륭한 항구가 우리의 손에 돌아와 주인을 찾게 된 것이다.

해방이 되자 부산은 해외(海外)로 부터 조국으로 돌아오는 귀국선(歸國船) 특히 재일교포들을 맞이하는 감격과 눈물의 항구였다. 일본에 징용이나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 갔던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이 타고 왔으며, 부산 부두에는 태극기의 물결과 애국가, 그리고, 아리랑을 소리 높이 부르면서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8.15 해방은 감격과 영광에 찬 날이었으나, 일군과 일본인들이 철수를 위해 부산항을 메웠고, 귀국하는 귀환 동포들로 부산은 혼란 상태였다.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대가 조직되었고, 한편 독립된 정부수립을 위해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가 구성되었고, 미군이 부산에 상륙할 때까지 혼란한 질서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종전후 미군은 9월 16일 부산에 상륙하여 17일에 부산부청 청사를 접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부(府) 직원들은 토성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보수동에 있던 사세청(司稅廳)으로 쓰던 건물, 부용동의 수도공장등에 분산하여 집무하게 되었다.

미군정(美軍政)에 따라 경남지사에 하뢰스·장이 임명되었고, 부산시장에 P·H 케리 소령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비서 겸 총무부장에는 한국인 2세인 다니엘 문 대위가 임명되었다. 동래, 부산진, 수영, 사하에는 출장소를 두었으며, 사하출장소에는 장 부찬(張富贊)이 임명되었다.

1946년 1월 24일 초대 한국인 부윤(府尹)으로 양 성봉(梁聖奉)이임명되었고, 경남지사에는 김병규(金秉圭)가 임명되었으나, 다음해에 김

철수(金喆壽)로 교체되었다. 한편 본청을 미군에 내어주고 분산 집무중이었던 부산부는 본청 건물을 미군으로 부터 다시 이양받아 여기로 옮겼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1949년 8월 15일에 부

제 (府制)가 폐지되고, 시제 (市制)가 되어 호칭도 부산시와 부산시장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6.25 動亂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불법남침(不法南侵)으로 온 국토가 폐허(廢墟)가 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전재(戰災)를 입었으나, 다행히사하는 임시수도의 후방군사기지(後方軍事基地)로, 또는 피난민 수용지(避難民收容地)로 그 역할이 컸었고, 직접적인 전화(戰禍)는 입지 않았다.

부산은 북괴 공산도배의 남침 때 부터 9.28 수복에 뒤이어 1.4 후퇴에서 환도(還都)에 이르기까지 반격의 병참기지로서 그 수행한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크게 기여한 도시였다.

이 때 우방 미군이 김해 비행장으로 도착하였고, 유엔군도 공수(空輸) 되어 와서 부산 공설 운동장을 기점으로 각 학교 운동장 등 요지에 주둔 하면서 착착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전황의 비보(悲報) 속에서 절망감만저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우방군을 맞아 다 소 안도의 항숨을 쉬게 되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항도 부산은 피난민으로 들끓게 되었고, 시가지는 어지러웠고, 이들의 구호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부산을 둘러싼 전황(戰況)은 서부 경남의 관문인 하동(河東)에 7월 25일에 몰려왔고, 7월 30일에는 함안(咸安)과 창녕(昌寧)에 침입하니 이때 부터 마산, 대구, 경주를 연결하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었다. 낙동강 전선과 부산과의 관계는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생명선과 심장과의 관계 그것이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략적

(戰略的)인 후퇴와 반격 태세 준비의 교차전(交錯戰)이 전개되다가 9월 11일 부터 본격적인 반격작전이 개시되었다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여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에 정부도 환도하고 피난민도 귀가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눈앞에 둔 순간 중공군 (中共軍)의 불법 개입(介入)으로 52년 1월 4일 정부는 또 다시 부산에 천도하였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북한으로 부터 탈출해 온 사람들까지 합하여 훨씬 많은 수가 부산에 몰려들었다.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은 최선을 다하였다.

겨울철에 몰려 온 피난민들은 거처할 집이 없었다. 당시에 조사된 부산시내의 일반시민 인구는 889,000 명인데 구호 대상자인 피난민의 수는 40~50만 명이나 되었고, 구호양곡이 매일 평균 2만석이나 소요되었다. 혹한 중에 긴급대책으로 학교를 비롯하여 극장, 교회, 사찰을 비롯한 큰 건물에 집단 수용되었고, 시내의 도로변, 언덕, 산비탈 등 빈터는 모조리 피난민의 움막이나 판자집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사하구의 괴정동 한복판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넓은 터에 판자촌이 형성되었으니 이곳이 당시에 이름 지어진 신촌(新村)이다. 피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계를 위해거리에 노점이나 행상 또는 부두 노동자 등으로 나섰다.

전시에는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구호하기 위한 고아원이 곳곳에 생겼으며 특히 사하 지방에 많이 생겼다. 이때의 고아원은 주로 외국단체의 원조를 받아서 운영되었는데 대개는 기독교 등 종교를 배경으로 운영되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고아원을 세웠다고 하면 외국 원조를 받기가 유리한 점이 있었다. 당시 사하구의 사하(沙下), 감천(甘川)국민 학교 아동중에 고아가 많은 것이 이색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다. 중학교는 사립 중학교로 삼성중 학교가 신설되어 남녀 공학이었는데 한동안 재학생의 80% 이상이 고아였다.

5) 환도(還都) 이후(以後)

중공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1.4 후퇴의 고배를 마셨던 국군과 유엔군은 1953년 1월 15일 부터는 반격을 개시하여 3월 14일에는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다. 그후 이어서 적의 춘계공세를 완전히 분쇄하고는 38신을 넘어다시 진격하려 했다.

그러나, 7월 27일에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유엔군 대표와 공산측 대표 사이에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말았다.

서울이 탈환되자 부산에 피난와 있었던 많은 시민들은 귀환 준비를 서둘 렀고, 6월 8일 휴전 성립의 최대 난관이었던 포로 교환 협정이 조인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서울로에의 복귀에 집중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분실」이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환도를 시작하였다. 6월 10일 농림부가 몇 명의연락관만 남겨놓고 맨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이어서 정부 기구의 대부분이6월 중에 환도하였다. 문교부, 사회부도 7월 28일경 올라갔다. 시민들과 함께 환도하겠다고 최후까지 경남도청에 국회도 9월 1일 도강해제령(渡江解除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환도후의 부산에는 활기를 잃었고, 많은 전쟁의 부산물이 남게 되었다. 돌아갈 고향도 없고, 또,힘도 없는 가난한 피난민과 이들이 살고 있는 판 잣집과 전쟁 고아였다. 시내에서 대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생기면 그곳에 판잣집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고 괴정 2 동의 신촌으로 이주시켰다. 그래서, 신촌은 6.25 의 전쟁통에 생긴 새로운 마을이었다.

환도 후의 사하는 도시로서의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주택 뿐아니라 식수(食水)도 큰 문제였다. 대티고개 너머 사하 지방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다. 괴정의 괴목밑 큰 샘을 비롯하여 마을마다 우물과 산계곡의 물을 끌어다 이용했으나 태부족이었다.

다음으로, 사하는 교통의 불모지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티고개를 너머다니는 버스도 고물차일 뿐만아니라, 비포장 도로여서 사하구민이 겪는 고통난은 산골의 시외 버스와 다름이 없었다. 사하로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시외버스였으며, 그것도 충무동에서 출발하였다. 감천행은 송도 윗길을 통

하여 운행되었고, 하단행, 다대포행 버스가 다녔으며, 고물이라 고장이 많았고, 자주 운행되지 않아서 항상 만원이었다. 따라서, 사하구민이 겪는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밀수는 전시사회(戰時社會) 또는 사회가 혼란할 때 성행하기 마련이다. 밀수는 항공기, 대형선박 또는 작은 어선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었고, 때 로는 단속하는 경비정보다 성능이 좋은 쾌속정에 무장까지 하고 대개는 폭 력단이 끼는 수도 있었다.

밀수품은 다대포와 감천 등 해안에 양륙하였기 때문에 밀수의 본거지 였 다. 1954년 9월 다대포 앞 바다에서 밀수업자와 일부 권력기관원과 결탁 한 수억(數億)대의 대밀수를 총격저 끝에 검거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1956 년 2월 다대포에서 국제밀수사건을 비롯하여, 다대포 앞 바다의 쥐 섭에서 억대의 망다(網緞) 밀수선 어영화(魚營丸)을 적발한 일이 있었다. 괴정동 신촌에는 6.25 동란 후에 생겨난 새로운 마을이지만, 해방 후일 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을 수용하는 외국인 수용소가 있었다. 수용자는 별로 많지 않았었다. 정부에서는 이 건물을 고쳐서 평화선을 침 범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나포된 일본 어선의 어부들을 수용하였다. 수용된 어부는 일단 수용되면 풀려날 수 없었으므로 그 수가 날로 늘어났 고,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의 일이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59년 9월 17일 아침에는 태풍 사라호 14호가 최대강풍으로 남해안 을 휩쓸고 불과 2시간 동안에 부산을 강타한 후 대구를 거쳐 동해로 빠 져 나갔다. 다대포를 비롯하여 해안가에는 해일까지 겹쳐 막대한 피해를내 고 사라졌다. 이 날은 마침 추석 (秋夕) 이라 아침 6 시경 부터 비바람이 몰려오자 사람들은 집안에 갇히게 되었고, 전기와 통신망이 끊어지고 교통 이 두절된 거리에는 기왓장과 함석, 간판 등이 날렸었고, 전주와 가로수가 부러졌다. 부산에서는 사망자 28명, 부상자 약 5,000명을 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영구 집권을 폐하고 비행을 서슴지 않았던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의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희박해지자 언론을 탄압하고,기발

한 선거 대책을 세워 실시하였다. 이것은 3인조(組)니 9인조니 하여 부정 선거를 철저히 기획하여 공공연히 일반적으로 진행된 부정선거였다.

사하의 투표장(投標場)들도 대부분 아침부터 야당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공개적이며 일방적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투표라기 보다 투표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국민에게 강용하여 국민의 의사는 도외시하고 집권 (集權)을 하려는 어리석은 짓들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 집권의 종말을 초래한 것이었다.

마산과 서울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파도처럼 술렁이자 부산의 학생들도 대열을 같이 하고 나섰다. 이 데모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4.19 의거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승만(李承晚) 대통령의 하야성명으로 불길은 가라앉고, 허정(許政) 수반(首班)의 과도정권을 거쳐민주당(民主黨)정권의 성립을 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안정된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정국은 점점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데모가 난무하여 사회질서 (社會 秩序)의 문란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국정(國政)을 바로 세 우지 못하고 파쟁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부정, 부패, 사회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새벽 박 정희(朴正熙) 장군을 중심으로 몇 장성과 장교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 기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6) 신흥(新興) 중심가로 변모

사하는 1975년 서구에서 떨어져나와 부산시 직할 출장소가 되었다. 그때에 사하는 서구 전체 땅의 70%가 넘는 29.8 6 로 떼어 가지고 독립된 살림을 차렸지만, 땅이 넓기만 했지 실속이 없는 땅이었다. 지금도이곳땅의 64% 곧 646 만평쯤이 개발이 제한된 녹지대로 묶여 있으며, 20%쯤인 19십만평쯤이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고, 나머지 16%인 16십만평

쯤이 주거지역 이어서 땅의 이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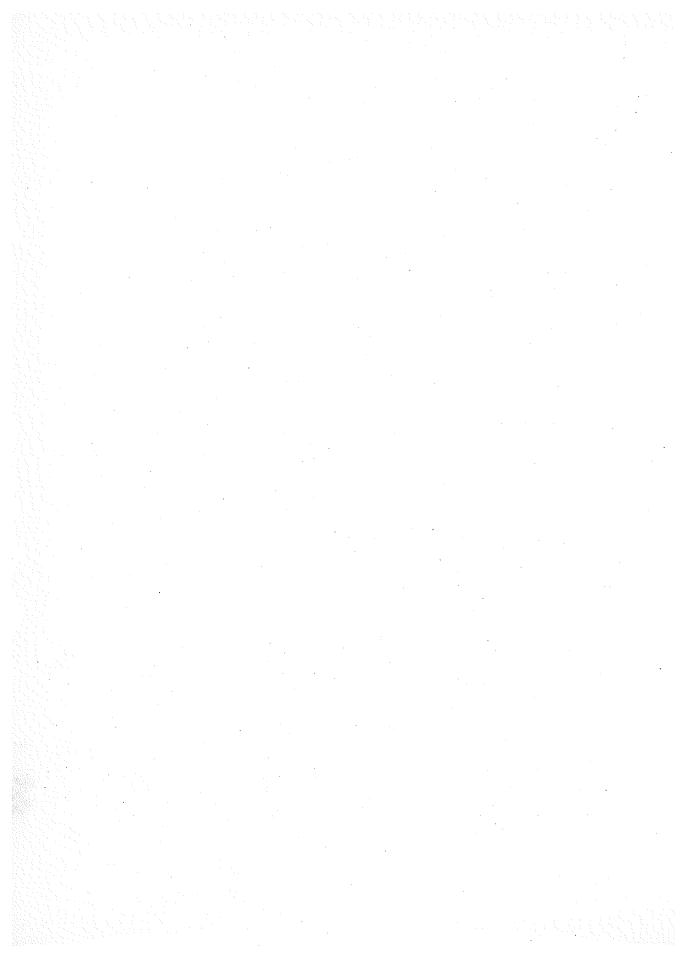
사하의 개발과 새로운 시가지 조성으로 부산의 신흥(新興)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5.16 이후 부터이다. 사하의 건설상은 놀라운 것 이었으며, 도로의 건설, 정비와 감천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특기할 만하다. 감천 부산화력발전소의 건설을 계기로 송도에서 감천에 이르는 도로도 폭 15 m 길이 3,160 m를 만들어 포장하여 1962 년 2월에 완공되어 감천을 비 롯 사하의 발전에 기여했다. 부산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 주관으로 건설되 었는데 소속 직원 사택촌을 함께 건설하여 감천의 지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일신해 놓았다.

서구 서대신동에서 사하구 괴정동으로 너머 오는 대티 고개의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운행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직선도로를 새로 건설이 요망되었다. 그래서, 1973년 대티 터널이 준공되어 사하의 발전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대티 터널에서 김해공항으로 연결되는 낙동로와 간선도로인다대로, 감천로의 교통이 원활하여 준공업지구로서 많은 공장이 세워졌다.

1972년 괴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괴정동의 면모도 일신되었고, 73년 당리, 하단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많은 농경지가 주택지로 환지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로 각광을 받자, 살기 좋은 사하로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하의 가로 확장 공사는 장래를 내다본 획기적인 공사로 사상(沙上)공업단지와 남해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로 구실을 하게 되었고,사하는 과거의 변두리 지역에서 당당한 시가지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티터널의 개통은 사하를 완전히 시내권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수년 전의 초라한 사하 지방의 면모를 바꿔 놓았다.

1983 년 4월 23일 기공된 낙동강 하구 둑이 완공되면, 사하는 주거지 로서, 공업지로서, 상업지로서 웅비하는 도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第三章 沙下의 區政과 洞

- 1. 沙下의 어제와 오늘
- 2. 洞 의 유 래
 - 1) 槐 亭 洞
 - 2) 堂 里 洞
 - 3) 下端洞
 - 4) 新 平 洞
 - 5) 長 林 洞
 - 6) 多 大 洞
 - 7) 舊 平 洞
 - 8) 甘川洞

1. 사하(沙下)의 어제와 오늘

1) 沙下區의 開發 沿革

先史時代부터 자연스런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沙下가 都市計劃區域으로 設定된 것은 1942年 沙下面이 釜山市에 編入되어 沙下出張所가 設置되었으나 훨씬 뒤의 일이다.

1961년 6월 24일 內務部 告示 第598 號로 沙下地區 112,236 千㎡를 第一次 釜山市 都市計劃地域으로 擴張, 編入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沙下地域에서 西區로 빠지는 길이 험해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못했던 만큼 부산의 中心地에서 볼 때에 沙下는 오랫동안 외진 곳이었고, 開發이 안된地域이었다.

1971년에 西大新洞과 槐亭洞을 있는 대티 터널이 뚫리고 곧이어 槐亭洞에서 北區 엄궁동을 거쳐 南海高速道路와 金海 공항까지 가 닿는 洛東路가 넓혀지고, 포장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開發이 시작되었다.

沙下의 都市開發은 60年代 및 70年代의 祖國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하여여러 차례의 經濟開發計劃이 樹立되어 經濟成長을 成功的으로 이룩하였고, 農業에 의존하였던 一次 産業에서 工業化로 탈바꿈을 하게 됨에 따라 大都市에 人口가 集中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都市의 開發이 절실하게 요구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위와 같은 工業化 現象에서 오는 經濟政策으로 農村 人口의 都市에로의 移動은 70 年代 전후로 일어 났다.

또 政府에서는 70 年 初부터 새마을運動을 展開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改善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시켰고, 이와 함께 都市計劃事業을 퍼나갔다. 특히 沙下區는 옛날부터 庶民들이 生活하기 좋 은 곳이어서, 급진적으로 人口가 늘어났다.

沙下區의 開發事業을 보면, 各種 大型事業은 市에서 施行하였고, 區에

서는 區民의 宿願事業을 解決해 주는 데 있다. 下端, 槐亭의 土地區劃整理를 비롯하여 多大 宅地造成, 甘川港 開發, 新平, 長林工業團地造成, 槐亭川 覆蓋事業 등 사하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낙동강 하구둑 공사는 부산의 生活用水를 비롯하여 공업용수와 하구지역 중합개반 계획에 따라 자연에 도전하는 대역사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2)沙下의 土地區劃整理

(1) 事業의 動機 및 必要性

土地區劃整理事業은 都市計劃區域內에서 廣濶한 一定 범위의 土地를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地區로 定하여 그 사업시행 이전의 상황보다도 良好한 상태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公共施設의 用地를 공제 확보하고, 남은 토지를 질서정연하게 區劃을 정하고, 地形 및 形質을 쓸모있게 정리하는 데 있다.

이것은 1960 年代에서 1970 年代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人口 증가에 따른 宅地需要를 充足시켜 주고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沙下區의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실시한 地域은 下端洞과 槐亭洞 一部로서, 이곳에는 지금, 잘 정비된 도로와 현대식 주택이 들어섰고, 주거 공간과 環境이 快適한 地區로 변모되었다.

(2) 事業概要

			在于未允儿	(単位・前)
地	區 別	總面積	投資額(千원)	宅 地
下	端、洞	1,355,099	889,420	942,972
槐	亭 "	508,761	23,700	407,902

地區別		公	共	用 地		施行	期間
YE BE M	計	公 園	學 校	市場	道路溝渠	施行認可	處分認可
下端洞	412,127	6,479	23,170	4,132	378,346	1973. 6. 4	1979. 6.19
槐亭〃	100,859	1,021		1,332	98,506	1966. 9. 2	1972. 3.29

3) 公有水面 埋立

(1) 事業動機

釜山港의 立地的 與件은 世界的으로 由來가 드문 良港으로서의 條件이 구비되어 있으나, 市街地는 峻傾과 접한 海岸에 남북으로 뻗은 狹少한 지 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沙下도 三面이 바다와 洛東江과 접하고 있어서 해 안 일대의 水面을 埋立하여 新市街地 造成이 不可避하다.

(2) 沙下의 港灣埋立計劃

아래 표의 沙下區 臨港地區內의 散發的인 埋立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國土擴張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민간인시행의 적은 규모의 埋立을 止揚하고, 종합적인 埋立計劃을 樹立하여 臨港地區 확보 및 도시미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港灣埋立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臨港地區의 海岸 埋立計劃을 都市計劃의 一部로 決定하고 있다. 沙下의 港灣埋立計劃은 長林洞 全面 洛東江 河口 약 1,537,800㎡, 多大洞 約 178,200㎡이다.

釜山港 區域內의 굴곡이 심한 海岸一帶의 대대적인 埋立計劃樹立과 이의施行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臨港地區의 用地確保와 항만의機能別 分散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망되다.

(3) 公有水面 埋立

£ 71.					
免 許 年月日	竣 工年月日	埋立面積 (㎡)	埋立	目的	埋 立 場 所
1964. 2. 5	1964. 8.24	26,281.2	甘川 火大所 및 港	及	甘川洞 410番地의 8 地先
1964. 3.18	1970. 2.11	708,971.67	工場	敷 地	長林洞 662 의 4 및 872 番地 地先
1964. 8. 6	1965. 7.21	1,168.2	华地 및	造船場	多大洞 370의1番地 地先
1966. 4.30	1970. 8.31	112,454.1	"		舊平洞 49의1番地 地先
1966. 6.18	1974. 1. 1	66,660	工場	敷地	甘川洞 759 番地 地先
1967. 1. 1	1985.	66,369.6	工場 敷地	也 造成	甘川洞 759番地
1967. 4.17	1968. 5.18	841.5	宅地	造成	多大洞 353 의 1 番地
1967. 7.29	1971. 7. 8	12,751.2	工場	敷 地	甘川洞 393 의 3 番地 地先
1967. 9.26	1971. 3. 5	184,565.7	工場	設 置	多大洞 450 番地
1968. 5.16	1970. 7.10	14,215.41	工場	敷 地	舊平洞 395 番地 地先
1968. 7.19	1970, 7.19	6,738.6	道	路	多大洞 381 番地 地先
1968. 7.25	1971.11.18	104,431.8	工場	敷地	多大洞 120의 11 番地 地先
1968.12.11	1970.12.11	11,404.8	野 積	場	舊平洞 山 36 의 1 番地 地先
19 6 8.12.17	1969,12.17	2,032.8	垈 地	造 成	多大洞 329番地 地先
1976. 4.10	1983.12.31	20,434.92	造船所敷	地造成	舊平洞 388의 1番地
1978.11.22	1980. 9. 6	27,908.76	造船所敷	地造成	多大洞 120 의 1番地

(4) 公有水面 埋立計劃

免 許 年月日	竣 工 豫定日	埋 立 面積(m²)	埋	攻	目	的	埋立場所
1981. 4.28	1990 .12 .31	171,000	エ	場	敷	地	舊平洞 山 108 番地 地先
1981.4.28	1990.12.31	85,000	埠			頭	<i>"</i>

免 許 年月日	竣 工 豫定日	埋 立 面 積 (m²)	ţ	里立	目	的	埋 立 場 所
1981 . 4 . 28	1990.12.31	24,000	埠			頭	甘川洞 380 의 2 番地 地先
1981. 4.28	1990.12.31	30,000		,	,		〃 308番地 地先
1981. 5. 6	1987. 3. 2	70,000	エ	場	敷	地	舊平洞 427의 2番地 地先
1981. 7. 8	1990.12.31	300,000	エ	業	團	地	多大洞 山 1-1番地 地先
1981. 9. 1	1990. 9.22	65,000	-	,	,		舊平洞 山 90-6番地 地先
1982. 2. 1	1986.12.31	12,000	造	船	敷	地	舊平洞 38番地 地先
1982. 2.30	1986. 8. 3	42,000	倉	庫	敷	地	舊平洞 357番地 地先
1982. 4. 8	1986.12.31	13,000	造	船	敷	地	舊平洞 402의 9番地 地先
1982. 7.13	1990.12.31	57,000	エ	場	敷	地	舊平洞 山 108 番地 地先
1984. 4.24	1986.12.31	13,000	造	船	敷	地	舊平洞 407의 1番地 地先
1984. 9.14	1987. 1.16	81,000	原	木	저	장	多大洞 120의 6番地 地先
1984. 2. 4	1989. 9.27	95,000	造	船	敷	地	舊平洞 365 의 2番地 地先
1985. 7.24	1986.12.31	26,000		,	"		舊平洞 178의 3番地 地先

4) 多大 宅地造成

(1) 事業動機

오늘날 都市人들의 주택난의 근본 원인은 宅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특히 沙下 주민 중에도 무주택자가 많으며, 부산의 주택난 해결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宅地開發促進法을 1980年 12月 制定하여 宅地難의 解消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開發 ·供給 및 管理 等에 關한 特例를 두어 窮極的으로는 國民住居 生活의 安 定과 福祉向上에 寄興함을 目的으로 한다. 宅地開發促進法에 依한 開發事業의 施行者로는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開發公社 또는 大韓住宅公社가 있으며,이 中 釜山市에서는 韓國土地開發公社가 市 全域에서 事業施行 中에 있는데 現在 韓國土地開發公社가 事前 完了 地區로는 多大1, 多大2가 있는데 그 內容을 詳述하면<表1>과 같다.

(2) 事業概要

〈表1 〉		宅 地	開	發現	况 (單位: #	说,坪)
地區名	位	置	面	積	事業期間	備考
1 多 大 1	多大洞 7	48 番地 一圓	355,802	(108,000)	1981.4.11 ~ 1983.12.30	
2 多 大 2	多大洞 9	番地 一圓	148,868	(45,000)	$1981.4.11 \sim 1983.6.30$	

資料:韓國土地開發公社.

多大 1 地區는 1981年4月11日 建設部 告示 第113號豆 宅地開發豫定 地區로 指定되었고 同年 9月24日 宅地開發 計劃承認(建設部 告示 第 361號)되었는데 本 事業의 概要는 〈表2〉와 같다.

〈表2〉 多大1地區 宅地開發事業 概要

:				
	區	分		事 業 內 容
事	業	期	間	1981. 4.11 ~ 1983.12.30
土	地 利	用計	劃	總 面 積 355,802㎡ (100%)
				住宅用地 261,627 (73.5%)
				公共用地 94,175 (26.5%)
計劃	人口 吳 扫	能定收容	戶數	• 計劃人口 8,500 人 · 推定收容戶數: 2,024 戶
幹	線	施	設	・ 上水道:L=5,485m ・ 下水道:L=5,337 m
				• 道路:L=5,694m
事	· 4	業	費	計 8,435,000 千원
				用 地 費 5,435,000
				開發費 3,000,000
	VAn stot	4-4- (1

資料:韓國土地開發公社

多大 2 地區 1981年 4月 11日 建設部 告示 第113 號 2 宅地開發 豫定地區 2 指定되었고 同年 9月 3日 宅地開發 計劃承認(建設部告示 第340號)되었는데, 그 概要 는 〈表 3〉과 같다.

〈表3〉 多大2地區 宅地開發事業 概要

區 分	事 業 内 容
事 業 期 間	1981. 4.11 ~ 1984. 6.30
土地利用計劃	總 面 積 148,868㎡(100%)
	住宅用地 99,473 (66.8%)
	公 共 用地 30,514 (20.5%)
	開發留保地 18,881(12.7%)
計劃人口 및 推定收容 戶數	· 計劃人口: 7,700人 · 推定收容戶數:1,900戶
-t-A	• 上水道:L = 658 m • 下水道:L=1,763 m
幹線 施 設	• 道路: L = 1,335 m
事業費	計 2,535,000 千 원
	用 地 費 1,435,000
	開發費 1,100,000

資料:韓國土地開發公社

(3) 都市計劃法에 依む 宅地 및 工業用地 造成

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과 工業用地造成事業은 1962年 1月10 日字 都市計劃法 制定當時 都市에서의 大單位 土地開發方法의 하나로 推進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沙下區 域內에 行해진 一團의 住宅地 造成事業現況은 〈表4〉와 같다.

〈表 4 〉

一團의 住宅地造成 事業 現況

(單位: nt)

事 業	期間	事業名	位置	事業施行者	規模
認可日	竣工日	事 未 石	位置 事業施行者		况 侠
計			1個地區		15,707
1979.10.17	1980.4.24	甘川洞 "	沙下區 甘川洞 山 57-1 番地	南區 大洲洞 289-21番 地 송진환	15,707

資料:都市計劃課.

5) 甘川港 開發

(1) 事業施行의 動機

釜山港은 繼續되는 物動量 增加와 船舶의 大型化, 콘테이너化에 따라 새로운 港灣開發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을 뿐 아니라 港灣能力의 提高를 爲하여 北港, 甘川港, 多大浦 等 機能에 따른 貨物別 專用埠頭 建設을 年次的으로 政府豫算과 民資를 誘致하여 推進하고 있다.

甘川港은 釜山港의 補助港으로서 古鐵,糧穀,시멘트 専用埠頭와 綜合造船 園地 및 遠洋漁業基地로서 지난 1979 年早时 開發하고 있으며 1991年度까지 民資 832 億원을 包含む 總 事業費 1,775 億원을 投入하여 防波堤 1,150 m, 岸壁 및 物揚場 5,573 m 等을 築造하게 된다.

本 事業이 完了되면 荷役能力은 年間 7,730 千屯,接岸能力은 21 隻으로서 釜山港의 補助港으로서 機能을 다할 것이며 1986 年度에는 이 事業에 63 億원을 投入하게 된다. 〈表 5 〉

(2) 事業概要

甘 川 港 建 設

〈表5 〉

區		分	總規模	政府施行	民資誘致
事	業費(音	百萬원)	177,518	94,313	83,205
	防 波	堤(m)	1,150	1,150	-
· 소. 그다. 나다 무박	岸壁 /	物揚場(加)	5 ,573	920	4,653
施設規模	護	岸(m)	1,448	5 63	885
	進入	道 路(加)	8,143	8,143	

註: ○ 釜山港의 補助港 및 遠洋漁業 基地港으로 開發

○ 事業計劃(1979~1991)-基本實施 1988年 完工

(3) 年次別 投資計劃

(單位:百萬원)

	分	全體	計劃	既 投 (1985	<u>・</u> 資 かなり	1986 施	行	將來計	
lerer.	23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事業量
合	計	-	(50,000) 94,313		17,123		6,336		70,854
	事業波堤	650 m	48,685	築造 60 m	1,574 1,000	下部 180 m 上部 130 m 岸壁下部	5,336 4,500 768	下部 410 m 上部 460 m 1式	41,775 16,375
荷役	裝事 構業 事業 事業	크레인 2基 1 式 500 m	45,628	1式	574 15,549 15 106		68 1,000	크레인 2基 l 式	29,079
臨港	改道 賞施 選路 漢野 漢語 漢書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製	8,143 m 1,546 千㎡ 1 式 1 式		ACTE ON III	443	ECT /T DE DE RE	-,	8,143 m 1,546 干m³ 1 式 1 式	

(民資83,205百萬원 未包含)

※ 事業效果

○ 靜穩水面: 4,467 千㎡

○ 荷役能力: 7,730千屯ノ年(政府1,430,民間6,300)

接岸能力:21隻(1千~5萬屯級)

6)新平·長林工業團地造成

(1) 事業施行의 動機

市內 非工業地域所在 工場의 移轉用地 確保와 土地利用의 極大化를 위하여 釜山市와의 協約에 따라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 1981年 5月부터 1984年 6月末까지 284億원을 投資하여 934千㎡의 工業團地를 造成한 것으로 現在 支援施設用地 一部를 除外하고는 用地分讓이 完了되었고,〈表6〉과 같이 45個業體가 입주하였고 12個業體가 工場建設中에 있어 새로운 工業地帶로서 變貌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同地域에 계속해서 入住業體의 操業環境 維持 改善과 基盤施設擴充 整備를 위하여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한工業團地로 指定管理를 推進中에 있다.

(2) 事業概要

1	(4)	-31	木	164	亥

〈表6〉

用 地 分 讓 狀 況 (1986.2.20 現在)

	• ••					
區 分	面積	分	譲	比率	殘 餘 面 積	備考
	山 復	事業數	面積	儿中	发虾曲馒	畑 ち
計	(203)干㎡	110	667千㎡ (195)	99.2	5 干 <i>n</i> t	
工場用力	也 (185)	97	613	100		
支援施設用地	也 (15)	12	44	89.7	5 ← m²	
自動車檢查場	10 (3)	1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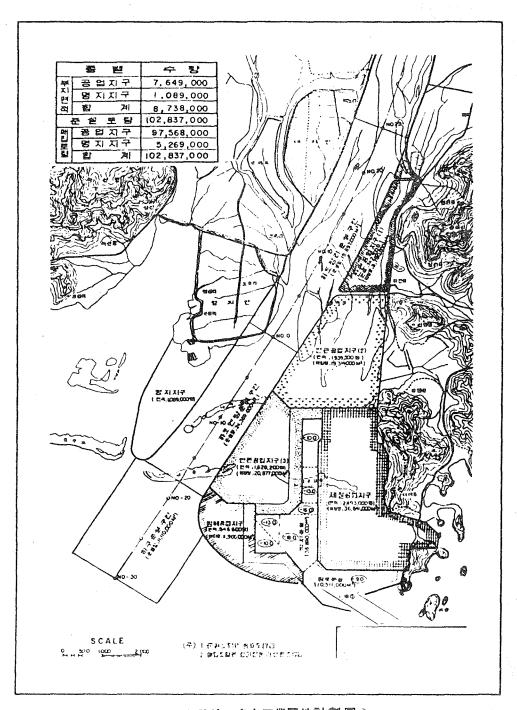
※ 未分讓:金融,醫療,郵遞局用地

工場 및 支援施設業種 入住狀況

(1986. 2.20 現在)

區		分	分 讓 業體數	計	場 入 竣 工	住 建築中	未着工
	計		110	57	45	12	53
	小	計	97	56	44	12	41
上	纎	維	15	3	3		12
場用	化	學	16	11	7	4	5
地	機	楲	43	27	23	4	16
1	其	他	28 ·	15	11	• 4	8
支援	後施設.	用地	12				12
自重	車検:	査場	1	1	1	-	

〈圖1-1〉



< 長林・多大工業團地計劃 圖 >

7) 河川維持管理

(1) 河川現況

釜山直轄市 河川은 총 24 個所에 127.97 ㎞이며, 이중 直轄河川 1 個所 (18.50 ㎞)와 準用河川 21 個所에 (90.27 ㎞) 其他 河川 2 個所로서 19.2 ㎞로 形成되어 있으나 〈表1〉 釜山의 河川은 地理的으로 河川이 海岸에 接하여 있고, 大部分의 河川延長이 짧고 河床勾配가 急하므로 流水에 依하여 세굴이 많이 되고 있으며, 下流에는 土砂가 堆積되며, 每年 浚渫을 하지 않으면 下流에는 浸水가 되는 곳이 많은 地帶이다. 또한 釜山市의 河川은 小河川으로 一時에 많은 降雨量이 있고 滿潮時期와 並行을 이루게 되면, 下流에는 물바다를 이루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요즈음에는 家庭汚水와 工場廢水로 因하여 都心地 河川바닥의 토양을 汚染시키고 있어 事實上 河川의 機能이 喪失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表 1 〉 河川現況(1983年 末現在) (單位: km)

				_			
园	5 分	河川名	河川	改修延長	未改修延 長	改修率	生二(左 月日)
		1.3 \(1.7H)	延 長	(兩岸)	(兩岸)	(%)	告示(年月日)
總	計	24 個所	127.97	199.44	47.60	80.73	
直	轄河川	洛東江	18.50	28.10	_	100	82.2.4 (最初63.4.1)
準	用河川	槐亭川	1.90	3.80	_	100	釜告 第34號(68.5.20)

(2) 槐亭川 覆蓋事業 動機

釜山市에서는 比較的 流水量이 적은 規模의 河川에 對하여 覆蓋가 不可避한 路線을 留意選定하여 事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事前計劃洪水量과 流水斷面,流路狀況 등을 充分히 檢討하여 過去에 粗雜한 施工으로 因한 問

題가 또다시 惹起되지 않도록 愼重을 期하고 있다.

槐亨川은 沙下區 槐亨 3 洞 세리골을 基點으로하여 槐亭,堂理,下端洞을 經由 洛東江 河口에 流入되는 河川으로서 槐亭國民學校 앞에서 槐亭橋(多大路交叉點)까지는 都心地 交通疏通의 圓滑을 期하기 爲하여 幅 12 m의 道路計劃이 1972 年에 樹立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年 11 月부터 1984年 12 月까지 4個年計劃으로 事業費 16億2千萬 원을 들여 河川 920 m 覆蓋工事를 推進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年度別 覆蓋工事推進狀況은 〈表2〉와 같다.

(3) 事業概要

〈表2〉	河川	覆 萘工事	推進	雷線

(單位:千원, m)

年度別	工事金額	工 事	概要	施工者
1980	300,000	L = 280	B = 12	신한건설산업 (주) 박 강 호
1981	200,000	L = 70	B = 12	"
1982	200,000	L = 90	B = 12	"
1983	560,000	L' = 305	B = 12	. "
	200,000	L = 120	B = 12	새마을가꾸기사업

8) 長林下水處理場 建設

(1) 事業施行의 動機

長林 下水處理場 對象區域은 洛東江 下流의 左岸邊에 位置む 地域으로 龜浦地區 沙上工業團地,新平·長林工業團地,下端地區를 包含한다. 感潮 區間인 洛東江 河口에 本 地域의 工場廢水 및 家庭汚水가 流入되어 沿岸漁 漁業에 被害를 주고 있으며, 東洋最大의 철새到來地인 乙淑島의 철새棲息에 영향을 주고 있고,大潮期에는 바닷물의 逆流現象에 依해 本 地域에서排出된 汚・廢水가 勿禁까지 逆流되어 釜山市民의 上水道源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本 地域 下流部에 河口둑을 1983 年부터 建設케 됨으로 洛東江河口둑의 建設 後에는 停滯된 Dam 內水의 汚染原因이 되어 環境에 惡影響을 미칠우려가 있어 그 豫防에 目的을 두고 있다. 本 事業은 河口둑 事業과 병행하여 총 事業費 886億원을 投資하여,日處理 300,000 ㎡의 處理 場과 下水管路 40 ㎞를 1984 ~ 1988年(5 個年)에 결쳐 施行할 計劃이다.

(2) 事業概要

〈表1〉 事業概

處理場	下水管渠	處理力	ī 式	事 業 期	間	事 業 費
m³/日 300,000	40 km	標準活性	汚泥法	1984~88年	(5 個年)	886 億원

要

資料:下水課.

9) 洛東江 河口堰(号) 建設

(1) 河口号 工事概要

○ 洛東江 河口堰 推進事項

年 月 日	事	項
1966.11 ~ 1972. 3	洛東江 流域 豫備調査	
	(調査者:建設部/産公一	UNDP/FAO)
$1972.10 \sim 1973.12$	洛東江 河口 및 支流	豫備調査
	(調査者:建設部/産公-	UNDP/FAO)

	The state of the s
年.月.日	事項
1974.10 - 1977.12	洛東江 河口調査
	(調査者:産公-UNDP/NEDECO)
1976. 6	洛東江 河口堰 建設地點
	大統領 裁可
1980.11 - 1982. 5	洛東江 河口堰 實施設計
	(設計者:産公-NEDECO)
1982.12.16	洛東江 河口堰 建設借款
	導入 國會同意
1983. 3. 7	洛東江 河口堰 建設事務所 現地設置
1983 . 4. 6	河口堰 建設事務所 新築
	工事着工
1983. 4.23	起工式 擧行
1983. 5.14	釜山市의 用地補償依託
	協約締結
1983. 6. 3	入 札 초 청
1983. 6.27 - 29	現場説明
1983. 8.10	入 札 마 감
1983. 8.24	入 札 書 評 價
1983. 8.26	I.B.R.D 承認要請
1983. 9. 7	落 札 決 定
1983. 9.10	契約締結 및 着工

● 事業概要

o 河口堰延長 …… 2,400 m

○ 土 堰 堤 …… 1,890 m

○ 閘 門 …… 1 個所 (巾 9 m × 長 50 m)

○ 魚 道 …… 2 個所 (橫 1.8m × 縱 2.25 落差 1.0 m)

o 右岸排水門 …… 1 個所 (巾 8.7 m × 高4.9 m 3 連)

o 公 道 橋 …… 巾 18 m (4 次線)

○ 用地擴張 …… 埋立 200 ha

ㅇ 工 事 費 …… 1천8백95억9천7백만원

(內資: 1 천 38 억 4 천만원

外資: 1억 2천만 달러)

○ 工事期間 …… 1983. 9.10 ~ 1987年

(2) 河口号 建設의 問題點 提起

自然保護論의 제1 命題는 「철새는 바로 自然」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

「洛東江河口를 찾아드는 철새는 단순한 철새가 아니라 洛東江의 自然 環境에 대한 무언의 중언자이며, 인위적인 環境破壞에 대한 최후의 감 시자다」라고 주장한다.

이곳 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乙級島를 비롯한 137 16m의 삼각주와 37 16m의 간석지를 중심한 하구일대가 철새의 낙원이라 일컫는 곳이다.

이곳을 찾는 칠새는 136 중에 10만 마리를 헤아린다. 그 중엔 천연 기념물 190호인 황새, 205호 저어새, 203호 재두루미, 206호 느 시 등 희귀조도 섞여 있다.

¹⁾ 釜山地域 發展과 洛東江河口開發, 釜山商工會議所・釜山經濟研究센터 主催 제1회 學術세미나 結果報告書, p.127~137 洛東江河口開發과 自然保護

이곳에 날아오는 새는 대체로 겨울새·여름새·나그네새로 나눌수있다. 겨울새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께까지 볼 수 있다.

오리과가 가장 많고 갈매기과·농병아리과·아비과·매**과**·수리과·멧과 등이 섞여 일대장관을 이룬다.

이곳을 민물과 바다물이 교차되는 어금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삼각주·모래톱 등은 바다가 滿潮때는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營養염류를 함유한 민물에 잠기며,干潮 때는 水面 위에 노출되어 生物群集의 낙원을 이룬다.

민물과 바다물이 서로 섞여 항상 汽水상태이므로 풍부한 영양과 太陽에너지가 어울려 生物의 生産物과 번식성이 대단히 높다. 이곳에 서식하는 식물만 74科에 366種에 이른다. 식물의 자양분이 되는 영양소는 上流로 부터 연간 100t 가량이 흘러내린다. 다른 河口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비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모래섬 주변이나 간석지엔 계들이 멍석에 콩을 깔아 놓은듯 총총이 무리짓고 갯지렁이 등 무척추 동물들이 무진장으로 우글거려 철새들의 풍부한 먹이가 된다.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아시아 대륙의 北部·北美 또는 高緯度地方에서 번식해 살다 혹심한 추위를 피해 날아왔다가 봄이 되면 다시 北上한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폭넓은 국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 河口둑이 건설되면 어떤 生態系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주장이 있으나,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河口둑이 건설되면 流水量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河口에 流入되는 영양염류도 줄어들어 생물서식이 어려워지므로 철새의 먹이가 격감할 것이다.

둘째, 5월과 6월 등 渴水期에 수량부족으로 물이 河口둑을 넘지 않으면 河口둑 아래쪽 삼각주는 바다물에만 잠기게 되므로 민물과 바다물이 어울리는 汽水상태가 유지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生物서식에 변화가 와서 역시 철새의 먹이가 적어질 것이다.

세째, 하구둑이 건설되면 河口의 地形 자체가 변화되어 결국은 철새가 사는 삼각주・간석지 등의 空間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집트의 나일강 河口의 애스완댐의예를 든다. 이곳에 댐을 건설한 뒤 上流로 부터 내려오던 영양염류가 없어

지자 연어 어장이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 나일강 下流의 디스토마 感染인구가 댐건설 전의 150 만명에서 건설후 10년만에 무려 1,800 만명으로 12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自然保護論者들은 洛東江 河口 지구개발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한다. 철새도래지의 생태계변화와 아울러 문제되는 것은 環境汚染이다.

먼저 氣象學的 측면의 걱정을 들어본다.

河口 일대에 工團이 들어서면 金海 와 長林·新坪 지구는 물론 내륙 도심지에 까지도 大氣汚染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洛東江 河口는 남쪽만 트이고 다른 3 면은 거의 막힌 분지형이므로 1 년중 겨울을 빼고는 대개 南風 및 南南西風이 불어 河口공단에서 발산되는 오염된 大氣가 모두 江岸으로 몰리고 이것이 다시 西面일대로 빨려든다는 것이다. 7 에르선 베기에의 무조 萬國의 러던 美國의 로스에젠레스 日本의

그 예로서 벨기에의 뮤즈, 英國의 런던, 美國의 로스엔젤레스, 日本의 요꼬하마 등 世界的인 대기오염 지역을 내세운다.

이들 지역의 특징으로서, ① 분지형이나 골짜기, ② 바람이 거의 없거나 氣溫逆轉이 자주 일어나고, ③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海岸 및 江流域 등이라고 하면서 洛東江河口도 이러한 環境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가공할 光化學 스모그현상 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 걱정하는 것은 金海국제공항의 농무현상이다. 지금도 안개가 자주 기어 飛行機 이착륙에 지장이 많은데 하구둑으로 큰 저수지가 형성되고 대단위공단이 생기면 농무현상이 더욱 잦아져 視界를 흐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洛東江 保存會에서는 「江과 바다 그리고 철새의 죽음은 곧 人間의 죽음을 뜻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國家利益을 가져오는 開發을 무조건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自然 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國益을 생각해야한다는 人間生存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소신을 밝힌다.

自然保護論者들은 河口지구개발과 관련하여 河口둑 건설만으로도 생태계의 파괴현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간척사업까지 편다면 釜山은 삭막한 도시로 변할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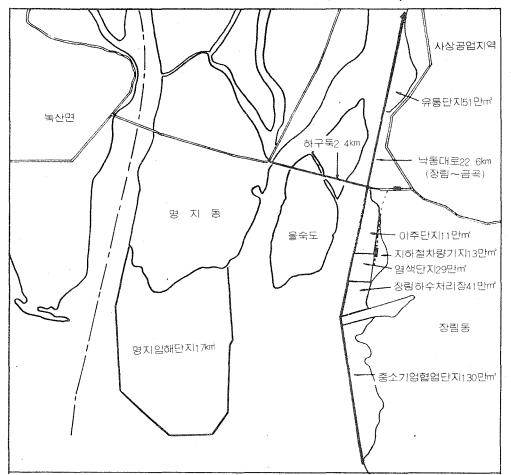
(3) 河口号 建設과 開發論의 主張

開發論者들의 주장은 보다 현실적 근거를 제시한다.

釜山市民의 上水道源 확보는 물론이고 인근공단 까지 포함한 工業用水 및 농업용수의 공급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商工관계자들은 근 4천 개의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工業用水가 연간 2

○ 洛東江 河口流域 施設配置 計劃圖(圖1-2)



천 6 백만 t 이나 되는데, 모두 일반수도료를 물고 있어 原價압박의 큰 요인이 되며, 특히 水道물에 塩分이 많이 올라오면 염색업체나 化學제품업체는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고충이 많다고 설명한다.

다음 用地문제다. 이에 관해선 工業用地・宅地・도로부지・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釜山의 발전과 함께 절실히 필요한 用地확보를 위해선 이곳을 활 용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環境保護論者들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 産業基地 개발공사측은 「우려할 만큼의 環境파괴는 없을 것」이리고 맛선다.

먼저 하구둑을 댐과 같다고 잘못 인식한다고 반박한다. 하구둑은 간단히 말해 하구에 대형교량을 세우는 것이나 같다고 한다. 구포교를 비롯해서 큰 다리를 세곳에다 세웠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 라는 것이다.

하구둑 설계도 따라서 일반교량과 같이 물의 흐름을 거의 같게 하도록했다고 말한다. 물론 産開公측도 생태계변화가 全無할 것이라고 강변하진 않는다. 流量과 流速의 변화로 河口의 형태가 약간은 바뀌어질 전망이나 그것도 크게 걱정할 정도까진 안갈 것이라 예상한다.

(4) 對策方向 - 環境과 開發의 調和

環境保護論者의 개발비판론은 결코 경제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정책을 통한 自然의 최대한 保全이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開發論도 따지고 보면 生態系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環境과 開發의 적절한 조화이며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試行錯誤를 막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은 여러말 할 나위가 없다

起工式을 올린 이상 河口둑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半萬年의 유구한역사를 통해 생성된 洛東江 7백 리는 이 國土의 주된 젖줄의 하나이며 절묘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 낙동강에 일대변화가 생기는 순간이며 河口지구의 개발이 본격

화 되면 그 일대의 모습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臨海工團의 조성과 함께 工場의 매연과 폐수가 가세하여 河口 인근 바다까지 오염범위가 확대될 심각한 위험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럴 경우엔 하구둑 건설과 관련된 生態系 변화로 철새도래지가 입을 지도 모를 피해는 문제가 안될 만큼 중대한 환경파괴가 발생할 위험성이 뒤따를 지도 모른다.

관계당국에선 하구둑 건설과 하구지구 간척사업을 「쾌적한 부산」을 만들 전제 조건이라 강조하면서 싱가포르의 주론工團을 예로 든다.

1천 2백만평에 이르는 주론工團은 완벽한 公害방지 시설과 함께 緑地帶를 넓게 확보하여 마치 田園都市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앞으로 洛東江河口의 개발 방향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특히 江의 생태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안의 水産資源은 더욱 중요하므로 주론공단 못지않게 河口工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비판론은 주론工團을 洛東江河口와 같은 분지가 아니고 사방이트여 있으며,1년내내 적당한 강우량이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퍼면서 주위환경 조건을 감안하지 않는 모방은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 한다.

대책은 처음부터 빈틈없어야 한다. 특히,公有水面을 매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신중히 배려해서 環境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 (1) 埋立地域 및 주변환경의 현황파악 氣象·海象·地象 등 自然조건에 관한 기초적 사항과 폐기물로써 埋立할 경우, 폐기물의 성질·발생장소·발생량·종래의 처리방법 등에 관해 조사하며 赤潮 발생 빈도가 높은 海域에서는 발생 및 피해상황도 조사한다.
- (2) 環境영향 평가항목의 선택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埋立地의 규모· 용도·매립장소의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 (3) 環境保全수준의 설정
- (4) 埋立이 화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예측 및 확보해야

할 환경수준과의 비교검토

- (5) 환경보전에 관해 강구해야 할 조치 및 그 효과
- (6) 종합평가

특히 洛東江河口 매립과 같은 경우엔 海洋環境의 변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1) 계획지구 주변의 波浪에 대한 영향
- (2) 河川上流部의 背水位나 흐름에 대한 영향
- (3)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
- (4) 연근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環境汚染을 방지하겠다는 투철한 인식과 어김없는 실천에 있다고 하겠다. 環境廳 모간부의 다음과 같은 말은 경청할 가치가 충분하다.

즉 「환경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깨끗이 보전하고 淨化시켜야 한다는 자각이 앞서야 한다. 내가 남용한 합성세제가 내가 마시는 우물과 수도물에 섞여들고, 내가 마구 뿌리는 농약의 잔류독성이 내가 먹는 쌀과 야채와 과일에 스며들어 내스스로 난치 고질병에 시달리거나 흉물스러운 기형아를 태어나게 한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洛東江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自然보호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開發사업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을 비롯해서 공장을 세우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주나 근로자가 뜻을 합치고 또 일반시민과 농민이 정성을 다해 모두가 내집·내 뜰·내 우물·내 저수지처럼 洛東江을 아끼고 사랑하며 철새, 물고기 등 자연물을 소중히 간직하려 할때 環境과 開發의 훌륭한 調和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과 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화경, 풍요한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5) 洛東江 河口号 建設의 效果

1983년 4월 23일 洛東江河口둑 建設 大役事의 起工式이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날 全斗煥大統領은 치사를 통해 「이 工事는 自然에 과감히 도전하여 自然의 나쁜 條件을 人力으로 克服하면서 大自然을 오히려 알뜰하고 슬기 롭게 活用하려는 끈질긴 努力의 일환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積極的인 全國의 水域開發이 水資源의 확보는 물론, 水質汚染 등 公害防止를 통해 맑 고 깨끗한 國土를 우리 손으로 精誠스럽게 다듬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살기 좋고 福된 나라를 가꿀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낙 동 강 하 구 둑 건

洛東江은 그 支流를 합해 우리나라 최대 최장을 자랑하는 民族의 젖줄이 며 嶺南圈의 生命線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과밀화 되어가는 港都 釜山의 上水道源이자 工業用水供給源으로서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한다. 그 河口에 總延長 2천 4 배 m 에 4 車線道路를 겸한 巨大한 둑을 쌓게 되 었다는 것은 釜山의 面貌를 일신시키고 洛東江河口開發을 促進시키는 기폭 제가 됨은 물론 이를 통해 이 地域 生活環境과 經濟與件에도 一代轉換의 契

機를 마련한다고 높이 評價된다.

1987 年까지 근 5년에 걸쳐 內資 1천 38억 4천만원, 外資 1억 2천만 달러 등 總工事費 1천 8백 95억 9천 7백만원이 投入된다.

이 事業의 目的은 실로 거창하고 重大하다. 洛東江 下流流域의 急增하는 生活用水·工業用水·農業用水를 監害없이 계속 供給함으로써 釜山·馬山·蔚山·溫山·昌原·鎭海등 주변 산업도시와 金海平野地域의 안정적 成長을 보장함과 아울러 河口地域 綜合開發計劃을 促進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釜山市의 立場에서 이 工事의 効果를 살펴보면 첫째는 市民의 上水道 및工業用水의 차질없는 供給量 確保라고 할 수 있다. 上水道源은 94%를 洛東江에 依存한다. 해마다 갈수기와 大潮期만 되면 海水 逆流로 勿禁取水場의 염분농도가 높아져 取水를 中斷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 結果 制限給水가 不可避하며 高地帶는 물곤란을 겪어야 하고 理·美容業所는 물론 發電所, 船舶등에 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招來하는 惡循環을 겪어야 하는 實情이다.

河口둑 建設은 그러한 고충을 잘 解決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이 事業推進의 가장 절실한 理由라고 하겠다.

둘째, 金海平野의 灌溉개선으로 農士의 監害를 防止함으로써 土質向上· 食糧增産의 効果를 겨냥하고 있다.

세째, 海水역류방지를 위해 安東대에서 放流해야 하는 연간 12억t의 소중한 물을 節約할 수 있다

네째, 河口둑의 4 車線 道路를 鎭海까지 連結하면 이 地域 全體의 교통 원활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다섯째, 준설토를 利用한 埋立地 造成으로 釜山市의 用地不足을 완화하고 河口일대의 効率的 開發이 可能해진다.

여섯째,巨大한 人工湖水를 活用한 觀光資源開發과 함께 市民을 위한 體 育公園등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遊休勞動力 흡수,裝 備의 대량 활용등에 의한 失業者 救濟가 可能하고 이를 통한 이 地域 景 氣活性化에 도움을 주게 된다.

釜山市에선 施工者인 産業基地開發工社와는 별도로 沙上工團 폐수종말처리장 設置등으로 水質汚濁을 防止하고 철새도래지를 最大限으로 保存하며 유람선 運航,流域緑地帶 造成等 綜合開發計劃을 세워 이 地域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方針이다.

2. 동(洞)의 유래(由來)

1) 괴정동(槐亭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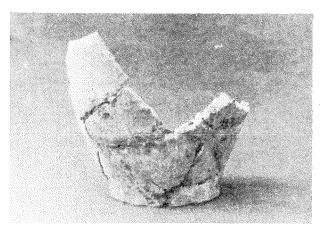
괴정동(槐亭洞)은 구덕산의 서쪽 능선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둘러져서 세찬 북풍과 낙동강 강바람을 막아 주고, 동쪽으로 시약산(蒔藥山)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금티산(金峙山)이 솟아 그 줄기가 서쪽으로 나즈막한 구릉(丘陵)을 이루어 해풍(海風)을 막아 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새리골(세리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괴정천(槐亭川)을 이루어 괴정촌을 반월형(半月形)으로 흘러 이 마을을 윤택하게 하고, 하단 포구로 흘러들어간다. 따라서, 괴정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인 하나의 분지(盆地)를 형성하고 있다.

괴정(槐亭)의 지명(地名)은 팔정자에 얽힌 사연이 있는 회화나무(槐木)에서 유래된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가렴주구에 혈안이된 포악한 다대포 첨사의 이야기와 동래부사의 벌목령 등 많은 전설을 안고 있으며, 괴목(槐木)에서 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괴정 1 동을 「고분들」・「본동」이라 불렀고, 희망촌 (괴정 4 동)을 「 말골」・「마하곡」・「소태미」라 하였다.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살던 보수천변 판자촌과 동광동 판자촌 화재 이재민들이 이사하여 새로 된 마 을이 괴정 3 동에 있는 「심촌 (新村)」이다. 또, 신촌 건너편 북쪽 산기 슭에 간이 주택촌이 들어서서 [양지(陽地)] 마을을 형성하였고, 서대 신동으로 넘어 가는 괴정동 대티(大峙)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대티동이라 불렀다. 이와 같은 마을들의 멍칭을 종합하면, 괴정동에는 곳곳에 옛 부터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괴정동은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일구워 살았다. 괴정 분지에서 농경(農耕)에 종사하고, 동쪽 구릉을 넘어 감천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아랫머리 산줄기를 돌면 조개와 물고기가 수없이 많은 낙동강 포구에이르고, 배고개를 넘으면 신평 너른 들과 강가에 다다랐으니, 그 당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

뿐만아니라, 신평동으로 넘어가는 「삼밭골」에서 삼농사를 지어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단 갈밭에서 거두어 들이는 잘꽃은 솜의 역할을 하여서 추위를 막아 주었다. 실제로 괴정동 패총 (貝塚)에서 실을 피는데 사용한 방추자 (紡錘車) 두 점이 나왔다. 그리고, 이 병도 박사도 잘꽃이 면재배 (綿栽培)이전에는 솜의 역할을 대신했고, 명주가 나온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은 잘꽃을 삼배옷 사이에 넣어 겨울을 지냈다고 한국사 (韓國史)에 썼다. 괴정동에서 선사유적 (先史遺蹟)과 유물 (遺物)이 발견된 지점은 지금장평 중학교 교문옆 길가와 대치 (大峙)로 올라가는 옛길 입구 즉 신동교역회사 공장뒤편의 주택가, 그리고 지금 괴정 (槐亭)국민학교 남쪽 길건너 냇가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無文土器)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무문토기에 단(丹)을 칠한 완형토기(完形土器)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예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토기는 일본의 이른바 야요이식(癩生式) 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문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은 도로확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주택이 들어 서기 전부터 발굴을 하고 보존을 잘 하였다면,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과 더 많 은 유물이 발굴되었을 것으로 보아 아쉽다.

괴정동에 남아 있는 큰 나무(槐木) 두 그루 중 산록에 있는 고목(古木)을 중심한 주변 일대가 패총(貝塚)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니 집밑에서 옛 선인(先人)들의 유물들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패총은 1929년 11월 24일 일본 사람 좌산우좌길(佐山右左吉)이 발견하여 대곡미태랑(大曲美太郞)과 함께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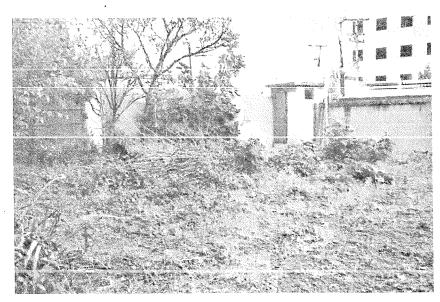
그뒤 기록이 분명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잘 모르다가 1978 년 길을 크게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패총이 있는 곳을 찾아 부산대학교 박물관 팀이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집들이 꽉 들어 차서 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여 이 패총을 부산시 지정 문화재에서 해제해 버렸다.

우리 사하 고장의 문화재를 정식으로 조사도 하기 전에 상실한 것은 후손으로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곳에서 나온 유물은 김해식토기편(金海式 土器片)과 토제 방추자(土製紡錘車)등 여러 가지이다. 적갈색 토제 방추차 2 개가 나온 것은 그 당시 직조문화(織造文化) 즉 베를 짜서 입고 살았다는 사 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패총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그 때부터 해방후까지 괴정동의 원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가 여기였다. 옛날 사람들이 잡은 살기 좋은 명당(名堂)은 지금도 살기 알맞은 명당이다.

괴정동 패총에서 나온 토기편은 김해식 토기편과 다들 바 없기 때문에 강건너 김해지방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 넘는 산은 높고 험하기때문에, 자연히 낙동강에서 수렵어로 생활을 하면서 김해문화기에 속했다.

괴정동 패총과 이어져 옛 오성고등공민학교 일대에 밀집된 괴정동 고분군(古墳群)은 특이한 석곽옹관묘(石槨甕棺墓)와 수혈식 석곽묘(竪穴式 石槨墓)가 발굴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끌었던 유적이다. 이런 옹관묘나 석곽묘는 기원2~3세기의 것이라고 생각되며, 석관묘의 경우는 더 연대가 내려가면서계속되었다.



<槐亭洞貝塚以었던ス>

석곽묘에서 주목할 것은 금지환(金指環)이 여러 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임찍부터 이 마을에 금지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 마을의 규모 와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분군 속에는 가야 (伽倻) 후기인 삼국시대의 고분도 있다. 이 곳에서 나 온 여러 유물들은 산업대학교와 성지공고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 槐亭洞出土 半同形石刀와 有孔土器片>

부산시의 역사편찬에서 고려시대가 가장 자료가 없다. 괴정동 역시 마찬가지이며 고려시대의 고분은 승학산에서, 조선시대의 고분은 금티산록(金時山麓)에서 발견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무덤 앞에서는 상평통보(常平通寶)등 엽전(葉錢)을 놓고 사발로 덮어놓은 유적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괴정동은 조선시대에 목마장(牧馬場)으로 기록된다. 동래부지(東萊府誌)에 나온 목장리(牧場里)가 바로 괴정리(槐亭里)이다. 부산의 목장은 영도가 가장 큰 것이었고, 그 다음이 괴정인 것 같다. 여기에서 목장리는 괴정만 말한 것이 아니고 당리, 하다까지 일컫는다.

이곳에서 언제부터 말을 걸렀는 지는 알 수 없다. 하여간 목마장으로서의 시설은 일제시대까지 그 목책(木柵)이 남아 있었다고 하며, 확실한 시설 로는 목마성(牧馬城)이 남아 있다.

이 목마성을 국마성(國馬城)이라고도 부르며축성(築城) 연대는 알수가 없다. 석축으로 된 이 성은 대티고개에서 당리 뒷산까지 약 3 km로이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희망촌(希望村) 동쪽 산골에 있는 것이다. 두께가 8척(尺)이고, 높이는 8~12척(尺)의 단단한 성으로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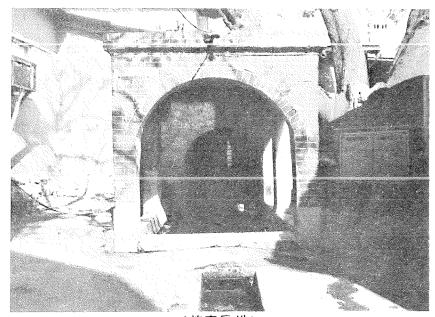
이 성지(城地)에서도 신라토기편(新羅土器片)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혹시 그 전부터 쌓여진 성을 후에 목장성(牧場城)으로 수축(修築)하였는 지도 모르겠다.

괴정동의 목장은 다대첨사(多大僉使)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였었고, 지금의 희망촌을 마필(馬谷), 마하곡이라 불렀다.

「통샘」・「단물샘」은 괴정 패총 바로 밑에 있는 물 좋은 샘이다. 이 샘은 아마도 괴정 패총인(貝塚人)이 살던 변한(弁韓)시대에도 사용 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통샘 바로 밑에는 「콘새미걸」이 있다. 이 곳은 괴정동에 있는 빨래터이다.

도시개발과 수도시설이 된 지금도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이고 와서 옷 가지들을 빨았었고, 지금도 도심속의 시골빨래터로서 훈훈한 마을의 인정이 오가는 곳이기도 한다



<槐亭통샘>

신촌 (新村)에는 집은 별로 없었고, 밭(田)이었는데 그들을 [중맥들]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티고개를 넘으면 대신동인데 이 고갯길은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松峙)라고 불렀다. 길이 험하고 산짐승도 나오고, 도적이 나오는 일도 있어서 하단재첩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괴정 삼거리에서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가 넘어 갔다고 해서 「재첩고개」가 「대티고개」로부르게 되었다고 전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대티고개에는 「天下大將軍」과 「地下女將軍」의 장승이 있었는데 6·25 동란때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서대신동으로 넘어 가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괴정에서 아미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였다. 이 길은 하단, 독지(禿旨:구평동), 구포, 강 건너 김해지역에서 부산까지 왕래하는 보부상(褓負商)과 일반 행인들이다니던 길목이었다.

일제시대에 지금의 대티고개에 큰 길이 닦아지고, 괴정 삼거리를 거쳐 엄

궁, 사상으로 가는 길과 다대포로 가는 길을 닦았지만, 좁고 거칠은 시골 길 그대로 였다. 거기에다 대티 마을에 분뇨투기장이 생기고 하단에 분뇨처리장이 생겨 매일 똥차가 오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1945년 해방될 때에 대티(괴정 2 동), 콘샙거리(괴정 1 동)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었고,과수원이 띄엄띄엄 있었고, 대부분이 논밭이었다. 괴정동은 일제시대 사하지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중심지였기에 경찰관(警察官) 주재소(지금의 支署)가 세워 졌다. 해병후에 미처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사람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세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 사람 수용소가 괴정천변 신촌 남쪽에 있었다.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하나 둘 돌아가고 한동안 텅비었는데, 때마침 평화선(平和線)을 넘어와 우리 영해(飯海)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던 일본 어부들을 잡아다가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기약없이 갇혀 있던 어부들 중에는 도망을 가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었다.

괴정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은 1970년대다. 분뇨투기장이 북구 엄궁동으로 가고, 괴정 터널이 뚫리고, 시가지(市街地)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고 부터다.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대티고개 넘어 복잡한 시내에서 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와 많은 집들이 세워졌다.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이 있던 곳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세워져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다.

많은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거나 이사를 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괴정 삼거리에는 옛날 시장(괴정구시장)과 사설시장(私設市場)이 생겨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사하지방의 상업 중심지도 된다.



<신동양, 자유APT 단지>

괴정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앞머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00 년도 념은 회화나무 (槐木)가 있어서 괴정 (槐亭)이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96)지방 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대티동 일부를 병합하여 괴정동이라 하고 다시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고,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에 편입되었다. 1959년 1월 1일 동제 개편에 따라서 부산시 조례 제 156호에 의하여 괴정동을 갈라서 괴정 제 1동과 제 2동으로 나누었고, 1966년 1월 1일부산시조례 제 176호에 의하여 괴정 1동을 갈라서 괴정 제 1동과 제 3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1979년 8월 8일 부산시 조례 제 1360호로 괴정 1동이 제 1동과 제 4동으로 나누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ㅇ 괴정동의 지명

• 고분들:괴정 제 1 동에 있는 마을

- 까치고개: 괴정 제 1 동에 있는 고개
- 단물 샘:괴정 제1동에 있는 우물
- 당산신당(堂山神堂):괴정1동에 있는 신당
- 대티(大峙:대티동):대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
- 대티고개:괴정동에 있는 큰 고개
- 마을 골:괴정 제1동에 있는 골짜기
- 마 하 곡(馬下谷:마하골, 말골):희망촌
- 배고개(배오개, 이현, 적현, 신평고개): 희망촌 남쪽 신평동으로 넘
 어 가는 고개. 배나무가 많았었다고 함.
- 사리골(沙利谷, 舎利谷, 새리곡):대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시촌(新村):괴정 제3동에 새로 된 마을
- 양지(陽地): " " 있는 마을
 - ㆍ 양지 쪽이란 뜻에서 붙여짐
- 오작교(烏鵲橋):괴정 제3동에 있는 다리
- 조산(造山)거리: 괴정 제2동에 있는 마을, 인공으로 만든 산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이다.
- 큰새미걸:괴정동 괴목나무 밑 우물 옆에 있는 빨래터.

동 세

1986.10. 1. 현재

동	명	면 적 📶	세대수	인 구 수	통 수	반 수	비고
괴정]	동	1.07	6.322	24.962	34	199	
" 2	: 동	1.02	4.945	21.521	37	189	
// 3	3 동	1.89	5.077	22.345	37	187	
<i>"</i> 4	. 동	0.83	4.662	19.532	22	127	

2) 당리동(堂里洞)

당리동(堂里洞)은 동쪽으로 괴정동, 서쪽으로 하단동과 접하고 있다. 북쪽에는 태백산맥의 줄기가 내려오다가 승학산(乘鶴山)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동쪽에 산불당(山不良), 남쪽은 호복구(虎伏山:獨山)를 바라보고 맑은 계류(溪流)를 따라 좁은 골에 마을을 이루어 사는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다.

승학산은 해발 450 m로써 마치 학(鶴)이 웅비(雄飛)하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산불량은 태백산맥의 줄기가 이곳까지 뻗 어와 아깝게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쓸 산이라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고려시대 부터 발달된 지리 도참설(圖讖說)에서 유래되어 구전(口傳)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을의 한 가운데를 연중 맑은 물이 흐르는 제석골거렁(堂里川)사이로 초가집이 옹기종기 서고, 밥 짓는 연기가 산 골짜기를 따라 하늘로 흘러가는 시적(詩的)인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괴정동에서 옮겨 온 사하구청이 들어서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사하의 중심지가 된 동네가 되었다.

당리(堂里)라는 동네 이름은 제석곡(帝釋谷)이라고 부르는 승학산과 산불량의 사이에 있는 계곡에 제석단(帝釋壇)을 쌓고 기우제(祈雨祭) 를 드린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제석곡에 사 당을 짓고 여신(女神)을 모신데서 온 것이라는 속설(俗說)도 전한다.

현재 이곳에 제석사(帝釋寺)가 있으며, 옛날에는 기우제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 절 부근에서는 고려 시대의 목엽문와편(木葉文瓦片)이 발견되었으며, 그 밖에는 별다른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제석(帝釋)이란 불교용어로 제석곡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당히 많으며, 이런 곳에는 대개 기우제단(祈雨祭壇)이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치섬을 제석곶(祭釋串)이라고 하며, 여기에도 역시 기우소(祈雨所)가

있었다.

당리동에서는 매년 3월3일날 당제를 지낸다. 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잡 귀(雜鬼)를 막고 부락을 수호하는 거릿대가 있는 성역의 종류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큰 소나무나 포구나무 중 하나를 택하여 신목(神木)으 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돌들을 쌓아 탑을 만드는 것인데, 목신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리동은 석탑을 만들어 당제(堂祭)를 지낸다. 이 석탑은 당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제석골에 있으며, 동신(桐神)을 제사지내는 서낭당이 있다.



<제 석 사>

당리동 뒷산까지 괴정 牧場里의 목마성(牧馬城)이 뻗고 있으며, 이 부근에는 성(城)이 괴정의 어느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되면서 주택과 공장이 여기저기에 들어서고 부터는 이 골짜기의 아름다운 암석(岩石)은 채석(採石)되어 토목공사에 사용되어 볼품없이 되었다. 당리천에 흐른 맑은 물을 막아서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수청명(山水淸明)한 전설적인 고장의 맛을 잃기는 했

으나,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므로 주택지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

당리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신당이 있었으므로 당곡 또는 당리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33년(1896)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리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린에 된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고,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 사하에 편입되었다.

ㅇ 당리동 지명

- 당골, 당리(堂里):당리동
- 관음사(觀音寺): 당리에 있는 절
- 당리거렁, 제석골거렁(堂里川): 제석골에서 당리로 흐르는 내
- 당리교(堂里橋), 당리다리: 제석골거렁에 놓인 다리
- 당리새미:당리에 있는 우물
- 당산(堂山):당리에 있는 산, 당집에 있음.
- 정각사(正覺寺): 당리에 있는 절
- 제석곡(帝釋谷), 제석골:당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동신을 제사지 내는 서낭당이 있음.
- 청마묘(靑馬墓): 당리 천주교 묘지에 있었던 시인 류 치환(柳致環) 의 묘

동 세

(1986.10. 1.현재)

동	명	면 젹 (km²)	세대수	인 구수	통 수	반 수
당리	; 동	3.87	6.618	26.930	36	207

3) 하단동(下端洞)

하단동(下端洞)은 당리, 신평, 북구 엄궁동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 명지동과 마주 보고 있다.

하단의 지명(地名) 유래는 낙동강 끝이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아래치] [끝치]라고 풀이된다. 동래부지(東萊府誌) 편찬 당시엔 사천면(沙川面) 상단(上端)·하단(下端)이 있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사천면 하단에는 786호(戶)의 호수(戶數)가 있었다. 동래읍내(東萊邑內)의의 호수 1,165호에 비하면 동래 다음의 대집단부락(集團部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래부지 및 경남여지(慶南與地) 집성(東萊邑誌)에 보면「舊草梁里는 官門에서 三十七里에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구초량」은 하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3세기 경의 철기시대(鐵器時代)부터가 아닌가 한다. 하단진(下端準)에서 신평, 장림쪽으로 조금산모퉁이를 돌아가면 하단동 패총(貝塚)이 있다. 김해문화기(金海文化期)의 패총으로 [모래구찌」라고 불리는 산곡(山谷)에 있다. 옛날에는 강물이 이 산골짜기까지 들어갔던 듯 토총(土層)에 사역층(砂礫層)이 형성되어 었다. 산이 평화스런 경사를 이루며 3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면만 강을 향해 열려 있다.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遺物)은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패총밑의 갈밭이 있는 늪지대에서도 김해기(金海期)의 토기편이 출토된다.

하단 동편의 산 모양이 범과 비슷하다 하여 「호복구」(虎伏口)라 부른다. 그 산기슭 낙동강가에 신선암(神仙岩)이라 부르는 큰 암석이 하나 우뚝 솟아 있다. 이 바위에 신선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신선암은 바위밑에 작은 굴을 형성하고 있어서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주거지(主居地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1934년 낙동강 호안공사를 맡은 일본인이 이 바위를 깨어서 돌을 이용하려고 몇 명의 석공을 불렀다. 한 석공이 돌을 깨뜨릴려는 순간 즉사(即死)했다고 한다. 그 뒤 이 원인불명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감히 이 바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

에덴공원은 다대포 몰운대와 함께 부산의 팔선대(八仙臺) 중의 하나로 강선대(降仙臺)라고 불렀다. 강선대 동쪽 맞은 편에는 승학산(乘鶴山)이다. 고려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산세(山勢)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 하다고 하여 승학산이라 지었고, 이 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하여 강선대라 불렀다.

하단은 갈밭이 많아서 갈대나 갈 꽃으로 일용 수공품을 만들었고, 지붕과울타리도 갈대를 사용하였고, 땔감으로도 이용하는 등 갈대와 주민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73년 당리·하단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많은 농경지구가 주택지로 바뀜에 따라 갈밭 무성한 옛날의 낭만은 찾아 볼 수 없다. 하단포(下端浦)는 부산항 개항(開港)(1876년) 당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모였고, 이곳에서 다시 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내륙지방에 운반되던 상업의 요지였다. 당시 상인들은 인근 명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싣고 삼랑진(三浪津), 왜관(倭館), 상주(尚州)로 드나들며 나락과 교환했다. 하단포에는 나락을 사들여 도정(搗精)하는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하였고, 소금 노적가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1892 년 7월 처음으로 기계 시설에 의한 부산정미소(釜山精米所)가 생기면서 하단포에 닿은 낙동강 유역과 김해평양의 나락이 이 곳으로 운반되어 정미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미곡(米穀) 거래 시장으로 하단의 번창은 대단하여 부산에서 대티(大峙)만 넘으면 모두 하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따라서,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交易地)로 흥청댔고, 구포(龜浦)와 함께 큰 장(市場)이 섰던 곳이다. 부산장, 하단장, 동래장은 그 당시의 이름난 장이었다. 지금도 하단 제방옆에 5일장인 하단장이 서는데 인근 김해(金海), 명지(鳴旨) 등에서 장꾼들이 몰려든다.

일본이 이른바 대륙 경영을 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고 하여 1898년 9월 대한제국(大國帝國)과 경부철도합동조관(京釜鐵道合洞條款)을 맺는데 성공하여 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래서, 190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인 1896년에 일본 영사(領事)가 사냥꾼처럼 꾸민 기술



<하 단 장>

진을 보내 철길을 놓기에 알맞는 곳을 찾아 한반도를 둘러보게 했었다. 비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린 그들은 삼랑진에서 낙동강 서쪽 강가를 건너 하단동과 괴정동을 거쳐 지금의 대티 터널쯤에서 굴을 뚫고 대신동을 거쳐 동광동에 종착역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만일 이 계획이실행되었다면 오늘의 하단을 비롯한 사하구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朝鮮鐡道史 참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 하단동의 주민들과 객주들은 「쇠말이 들어 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여 이곳에 철도가 부설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 여 철길이 북부산(北釜山)으로 깔렸다고 한다.

1897년 8월 부산이 낳은 선각자 박 기종(朴琪淙) 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도를 부설할 것을 계획, 부산과 하단동 사이에 길이가 6 km인 철길을 놓으려고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설립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일부 착공까지 했으나, 하단 주민들과 객주들의 맹렬한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위와같은 원인으로 경부선 철도가 사상(沙上)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아뭏든 하단의 번창했던 영화는 철도 부설뒤 몰락하기 시작했다. 열차편을 이용한 물자의 운반으로 정미업이나 그 밖의 교역지는 자연적으로 하단에서 구포로 옮겨지게 되었고, 화륜선(火輪船)과 각종 상선(商船)이 분주하게 오가던 낙동강엔 동산유지(東山油脂) 옆에서 명지(鳴旨)로 오가는 도선만이 옛 영화를 반추한 뿐 적막에 젖어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큰 포구로서 번성했던 하단은 매년 낙동강의 홍수로 그 하상(河床)이 높아져 좋은 포구(浦口)가 될수 있는 조건을 잃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30년 부산부(釜山府)가 9만석(九萬石)을 수용하는 분뇨(糞尿)탱크를 하단에 만들어 대티 고개의 투기장에 버린 분뇨가 지하구(地下溝)를 통하여 이곳에 저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저장된 분뇨는 낙동강으로 뻗어나간 분뇨관을 통하여 배출되어 분뇨선(船)에 실려 김해평야로 나가기도 하고, 낙동강에 버리기도 하였다. 이때문에 이곳에 이주해 오는 사람이라곤 없어졌고, 하단을 메마른 빈촌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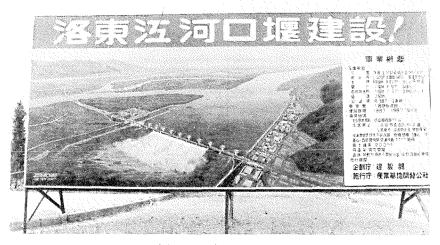
일제시대 몰락한 하단에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 와서 낙동강의 수질이 해 태 (海苔) 양식에 최적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미야꼬」란 일본인이 양식 용 대 (竹)를 일본에서 구입, 하단을 중심으로 신평, 다대, 장림 등지에 해방전까지 해태 생산을 기업화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교역지(交易地)로 번성하던 하단포에는 1909년에 하단리(下端里)우편소(郵便所:하단우체국)가 생기고, 그 전해인 1908년에 현 사하(沙下)국민학교의 전신(前身)인 사립 양정학교가 설립되어 당시 부산 지방에서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후의 하단은 쓸쓸한 한촌(寒村)이었다. 명지(鳴旨)로 건너가는 나루터로서 면목을 유지했고,부산시내로 들어오는 학생과 명지등에서 반 출되는 야채를 받아들이는 조그마한 선착장에 불과한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낙동강에 펼쳐진 갈대밭과 하단의 명물인 재첩과 고시라기 회를 찾아 나오 는 시민들의 발길이 보이는 정도의 조용하면서도 낭만적인 시골 마을 그 대로 였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조국근대화의 물결은 하단에도 밀려 왔다. 1966년

5월 22일 7개년 계획으로 길이 2,030 m 폭 (幅) 18.74 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대교 (洛東大橋)가 이곳에 착공되자 하단은 교통의 중심지가두 번째 될 뻔했다. 그러나, 하단동은 「큰길과 그다지 인연이 없었던지 남해 고속 도로의 낙동교가 북구 구포동에 새로 들어서기로 결정된 뒤로는. 기둥 받침대만 몇 개 세워 놓은 채로 공사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래서 낙동교의 꿈은 좌절됐으나, 하단 분뇨처리장의 폐쇄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일약 도시화로 발전 되었다. 도로는 신설 포장되고, 구포까지 강변도로가 사상 공단 설치와 함께 신설되었고, 신평・장림 공단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의 중심지가되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하구언 (河口堰) 공사가 완공되면 — 낙동대교의 꿈은 사라졌지만 — 명지, 진해를 있는 교량역할이 되고 하단동의 모습은 더욱 새롭게 바뀔 것이다.



<河口堰工事 計劃圖>

하단동하면 잘대와 고시라기와 재첩과 철새를 연상하는 곳이다. 하단포구(下端浦口)의 영화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자리에 재첩을 파는 식당이 몇 개소 있을 것이다.

낙동강의 낙조 (落照)와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 보호된 東洋最大의

철새도래지로서 철새때의 비상하는 장관을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에덴공원도 잘 가꾸어 도시인의 휴식 공간과 함께 관광명소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이다.

하단동은 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을 하였다. 1975년 5월 1일 서구 서대 신동에 있던 부산 여성교육의 명문인 부산 여자 고등 학교가 하단에 새고 사를 짓고 이전한 것을 필두로 건국중 상업 고등학교의 이전, 그리고 사하 여자 중 학교의 신설, 부산 고등 교육의 요람인 동아대학교 제 2 하단캠 프스의 건립 이전으로 명실공히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하단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원전 4-3세기 경부터 사람이 살기시작하였고,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 하단(평림동)이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96)에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釜山府)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단동이라 하여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고,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 사하출장소에 1975년 부산시시직할출장소, 1983년 「사하구」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ㅇ 하단동 지명

- 강나루: 선창에 있는 나루터
- 강선대(降仙臺): 에덴공원에 있는 대(臺). 신선이 학을 타고 내 려왔다 함.
- 강선암(降仙庵): 에덴공원 건너편에 있는 절
- 본동(本洞): 하단동의 본 마을
- 선창(船艙):하단동 서쪽 강가에 있는 마을 강나루가 있음.
- 시온섬: 선창 앞에 있는 섬(현재는 하구둑 공사로 매립되었음)
- 시처(矢川):하단동에 있는 마을
- 시선암(神仙岩):선창 남쪽 강가에 있는 바위
- '심천(新川):하단동에 새로 된 마을
- 에덴공원:하단동에 있는 공원. 부산 명승지의 하나로 강선대가 있음.
- 장(場)터:하단동에 있는 마을. 하단장이 있음.

- 평림동:하단동의 옛 이름
- 하단도선장(下端渡船場): 하단동에 있는 나루터. 을숙도와 북구 명 지동 도선장으로 건너감.
- 하단장(下端場):장터에 있는 시장

=	-37
-2-	세

1986.10.1. 현재

동	명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통 수	반 수	비고
하 단	동	7.01	7,499	33,664	44	252	

4) 신평동(新平洞)

신평동(新平洞)은 망끼, 망후, 동메 등의 옛 이름이 있었으며, 「新坪洞」이라고 기록된 예도 있다.

망후촌(望後村)이란 유래는 임 경업(林慶業)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로 피신해 와서 살았다는 구전(口傳)에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임 경업 장군이 영의정(領議政)이던 안동(安東) 김(金씨 김 차점(金自點) 일파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9 존까지 몰살을 당하였을 때 임장군의 조카 절충장군(折衝將軍) 임 중생이 의주(義州)에서 신평까지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보아 뒤를 돌아 보았다. 그래서, 망후촌이란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저한다.

또, 다른 측면은 신평동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망후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향토연구가도 있다. 즉, 다대진(多大鎭)의 후망소 (侯望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아 망후촌이란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견해이다. 다대진은 원래 신평동 마을 앞 장림동(長林洞)에 있었으며, 옛날에는 이 마을도 다대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어쨌든후자의 설(說)이 맞는다면 요새(要塞)에 어울린 흥미있는 전설이다.

그리고, 신평동 뒷산에 고석암(孤石岩)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임 경업 장군의 호가 고송(孤松)이기 때문에 그 집안과 관계있는 전설이 아닌가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신평동과 임 경업 장군 집안과는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평동 뒤에는 북산 즉 호복구 (虎伏口)라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북쪽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낙동강(洛東江)의 만입(灣入)으로 간척지(干折地)가 전개되어 밝고 따뜻한 마을이다.

마을 앞에 독뫼(獨山)라고 불리는 외딴 동산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깎여서 원형을 잃었지만, 이 독뫼로 건너가는 입구에 예로 부터 조개모래라고 부르는 땅으로 많은 비가 내려도 쉽게 마르는, 바꿔 말하면,배수(排水)가 잘되는 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을 닦아놓고 타작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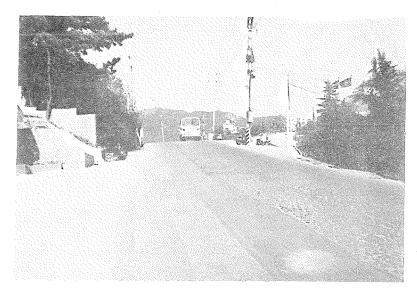
이 곳이 바로 기원 1세기 경의 김해문화기(金海文化期)의 패총이다. 패총 주변에는 조개껍질이 쌓여 패각층(貝殼層)을 이루고 있었으나, 석회(石灰)공장에서 일대를 파헤쳐 패각 수십 트럭을 운반해 가버렸고, 토목공사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신평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 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이 패총을 남긴 기원 1세기경 부터 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직선으로 제방을 쌓아 강의 만입부(灣入部)가 농사지대로 변했지만,그 전에는 이곳이 간사지(干寫地)로서 많은 어패류(魚貝類)가 잡힌 곳이었다.

이후부터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넓은 농토를 얻게 되어서 어업보다는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신평에서 괴정으로 넘어 가는 고개를 배고개, 배오개, 이티라고 부르며이현(梨縣)으로 쓰고 있다. 이 고개에 배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게되었다고 하나 배(梨)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아닌가 한다. 동쪽에 있는고개이므로 「볽고개」의 「붉」에서 「배」로 전음(轉音)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고개는 선사시대의 신평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이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보러다니는 장꾼들이 넘어 다녔던 유서깊은 고개이다. 또, 배고개 골짜기를 삼



< 배 고 개 >

밭골이라 부르며, 옛날부터 삼을 많이 갈았다고 전한다.

신평동 산기슭에서는 신라시대의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기와조각이 발견된 것을 보면, 변한시대 부터, 가야, 신라, 고려를 통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마을보다 전설도 많이 전하고 있다.

이 마을 아랫쪽 낙동강변에 「초복고」라고 부르는 곳에 나룻터가 있었다. 김해 명지(鳴旨)로 왕래하는 도선장(渡船場)이었다.

1960년 5월에 550세대의 삼천 명쯤이 신평동으로 옮겨 왔다. 1959년 9월 17일에 부산을 휩쓴 태풍 사라호로 28명이 죽고, 오천 명쯤이 다쳤고. 삼천 육백 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부숴졌었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영도구 남항동 같은 곳이 피해가 컸는데 그곳에는 바람과 해일이 겹쳤기때문이었다. 그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듬해 5월에 이곳 신평동으로옮겨와 한 세대마다 일곱 평 남짓한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조용하던 토착민의 마을에 변화가 왔다. 또, 1968년 3월에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둑을 고쳐 쌓을 때에 집을 뜯긴 사람들의 1,630세대도 이사를 와 열 다섯명의 집들을 짓고 살았다.

그때부터 신평동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고, 1967년 10월

2일 시평국민학교가 세워졌고, 길도 포장되어 큰 동네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1년 5월 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평·장림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공장이 이사를 왔고, 사람들도 따라와 신평동은 새 로운 공업단지 주변의 마을로 번창하였고,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신평동은 일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망끼. 망후 또는 시평이라 불 렀는데, 고종 33년(1896) 지방 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 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평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사하면 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 입되었고,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 사하에 편입되었다.

ㅇ 신평동 지명

• 망끼, 망후: 신평동의 옛 이름

• 골 짝 새 미 : 신평동에 있는 우물

• 돌메새미: "

• 동쪽새미: "

• 동 메:신평동에 있는 마을

· 모래구찌: "

• 모래구찌골:모래구찌에 있는 골짜기

• 배 고 개: 신평동에서 괴정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

• 배곡, 배옥곡, 이곡:배고개 밑에 있는 마을

보리바우:신평동에 있는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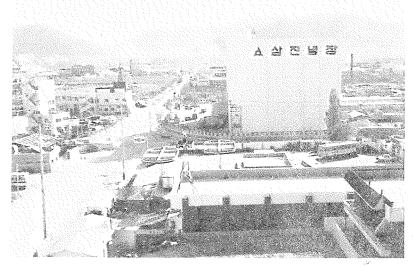
삼 밭 골:신평동에 있는 골짜기

• 새 마 을:신평동에 새로 된 마을

○ 동 세

〈 1986.10. 1 현재 〉

동 명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통 수	반 수
신 평 동	3.24	6,061	26,565	32	212



< 신 평, 장 립 공 업 단 지 >

5) 장림동(長林洞)

장림동(長林洞)은 신평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안장림(內長林), 바깥 장림(外長林), 보덕포(補德浦:보득포, 부득포, 버득포) 등의 3개 지역이 합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다. 당초 외장림은 농업을,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형태를 갖추고 반농반어의 취락형태를 이룬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안장림과 외(밖)장림이 주택으로 이어졌으며, 원래는 안장림이 고래의 장림이었고, 외장림은 부산과 다대포간(多大浦間)의도로개설 이후 도로변에 집들이 들어서서 생긴 마을이다.

보득포는 안장림에서 두송산(頭松山) 줄기가 북쪽에 끝나는 능선을 넘어 낙동강 강가에 가면 응봉 봉수대의 북쪽 기슭에 있다. 영제 농어민의 마을로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득포에서 강안(江岸)을 끼고 작은 능선을 넘어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면 장대한 암벽(岩壁)이 있고, 그 밑에 강(江)을 향하여 입구가

있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채석작업으로 파괴되었으나, 선사 (先史) 이래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굴은 석회암 층이 강류(江流)의 침식(侵蝕)으로 용해되어 생긴 공동(空洞)으로 넓은 암반이 내려앉아 형성된 곳으로 50여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하고, 약 20도 성노의 경사신 암반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

보득포와 안장림 사이의 강변 구릉(丘陵) 위에 개간된 밭이 있고 그곳에서 기원 1세기 경의 김해문화기의 토기편이 나오는 패총이 있었다. 규모는 작으나, 조사를 할 겨를도 없이 폐멸되었고, 그 성격은 건너편 신 평동 패총과 같은 것이다.

고목(古木)이 서 있는 안창림 일대는 대부분 사빈(砂濱)지대로 모래와 자갈이 쌓여 이룩된 땅이다. 땅속에서 패각(貝殼)도 많이 나오며, 신라의 토기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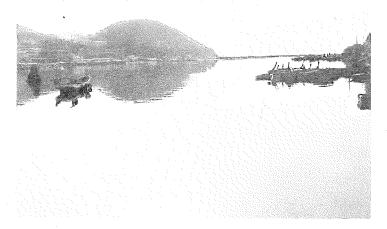
두송산(頭松山)에서 보득포에 이르는 강안(江岸)의 능선을 응봉(鷹峰)이라고 부르며 봉수대가 있었고, 독수리(鷹)의 서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독수리가 살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 먹이로 하고 있다.

다대진(多大鎭)이 원래 장림동에 있다가 다대포(多大浦)로 옮겼다는 것은 경상도지리지(慶尚道地理誌), 동래부지(東萊府誌), 문헌비고(文獻備考) 등에 확실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언제 지금의 다대포로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진(鎭)이 다대로 옮기기 이전에 장림리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장림동과 신평 동 사이의 제방이 쌓인 곳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이었다면 물의 깊이가 얕아 군항(軍港)으로는 적합치 않은 점도 있다.

장림의 옛 이름 중에 고다대 (古多大)라고 전하는 말이 있는데, 신평동을 망후 촌(望後村)으로 최근까지 불렀던 것을 보면 장림포(長林浦)의 위치와 규모를 대강 집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장림포에 염분(塩盆)이 있었다고 한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尚道續撰地理志)와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의 기록을 보면 장림포에서는 조선초에 이미 제염(製塩)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드는 가마가 있었고,



< 장 립 포 구 >

염세는 두지(斗地)마다 1양씩으로 정해져 해마다 4월까지 중앙의 균 역청에 바쳤다.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따르면, 우리 수군(水軍)이 장림포 앞 바다에서 왜선(倭船) 6척을 발견하고, 5척은 깨어 불살랐고, 1척을 불태운 뒤 낙오병의 목을 이몽구(李夢龜)가 베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숙종때에 명지만(鳴旨灣)에 표착(標着)하여 장림포에 내박(來泊)한 왜선 1척을 서평만호장(西平萬戶將) 이연정(李淵廷)이 사문(査問)했다는 기록이 보인 것을 보면, 장림포는 조선시대 군사상의 요지인 것은 틀림없다.

장림동은 그 후 한동안 낙동강 하구의 초라한 한촌(寒村)에 불과하였고, 영세 농어민들이 사는 한가로운 마을을 이루고 잘았다. 그러나, 개항후 김(海苔) 생산지로서 그 명성을 날렸다.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에는 일본 사람들이 건너 와서 김양식에 상당한 이익을 올렸었고, 이때 부터이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되었다. 장림과 홍티(虹峠)에서 생산된 김을 「장림 김」이라 하였고, 다 알아주는 특산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60 년대 말까지만 해도 장림동에는 몇 채의 초가집이 있었으며, 집집 마다 마루, 마당, 지붕위, 논밭 할 것 없이 새까맣게 김을 말리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가을이면 김을 팔러 나가거나 받아 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줄지어 걷는 모습은 어촌의 낭만적인 정경이었다. 특히 장림김은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맛이 독특하여 부산 지방 김의 대병사처럼 여겨시기도 하였다.

장림동에도 이주민이 많았다. 71년대 초에 부산시는 서구 남부민동과 중구 대청동을 있는 산복도로를 뚫었는데, 그때에 집을 뜯긴 주민 가운데 1,400세대가 장림동으로 옮겨왔고, 대티터널 공사때 대티 고개에 있던 불량 주택이 뜯겨 그곳에 살던 360세대도 이곳으로 이사왔다. 집의 크기는열 평 안팎이었고,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된 집들이었다. 또한 1971년도 장림공단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주택이나 토지값이 올랐고, 급기야 도시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83년도에 접어들면서 면적 4.26 6 에의 광대한 면적에 6,341세대의 인구 30,077명을 수용하는 과대한 동으로 발전되었고 연평균 8.2%의 인구증가 추세로 당시의 인력과 장비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부산직할시 조례 제1864호로 장림동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아미산의 능선과 장림진입로 및 장림삼거리에 장림국민학교를 포함하여 장림, 신평공단도로 (장림137번지선)와 신평경계 지점을 동서로 분할하여 그 서쪽을 장림 제1동, 그 동쪽은 장림 제2동으로 1983년 10월 1일부로 분동하게 되었다.

한편 장림동과 구평동에는 1953년에 경상남도 지방에서 온 음성 나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다. 장림 농장에는 20세대의 80여 명이 돼지, 닭, 개를 기르며 살고 있고, 구평동에는 68세대의 270여 명이 가축을 기르며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살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장림동에 1966년 3월 1일 장림국민학교가 설립되어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에 생겼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대단하였으나, 부랑아 수용기관의 아동과 음성 나환자의 아동들이 문을 연 장림국민학교에 다니도록 한데서 마을 사람들과 대립이 있었다. 결국, 당국에서는

일반 동민의 아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용기관의 아동은 수용기관 (영아숙) 안에서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고, 음성 나환자촌에는 따로 분 교장을 세워서 세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일단락 되었다.

장림동이 오늘과 같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것은 1972년 장림·신평의 넓은 땅을 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구획정리가 되고, 많은 공장들이 이사를 오고, 정책 이주민들도 돈을 벌어 모아 좁은 땅이지만 새로 높은 집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주택, 공업지대로 탈바꿈을하였다.

길도 넓혀 포장을 하고, 장림에서 공업단지를 끼고 낙동강을 따라 하단 까지 새로운 길도 뚫려 편리해진 장림동에 낙동강 강안(江岸)의 아름다 운 시가(市街)로 변모해 가고 있는 마을이다.

장림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장림포라 하였는데,고종 33년(1896)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장동, 외장동을 병합하여 장림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에 편입되었다.

ㅇ 장립동 지명

- 감나무 골: 밖장림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감나무가 많았다.
- · 내장림(內長林): 안장림
- 내 장림 둑:안장림과 신평동 사이에 있는 둑
- 다 대 고 개 : 장림에서 다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밖(밧)장림, 외장림: 장림동의 큰길 바깥쪽의 마을
- 보덕포(補德浦), 보득포, 부득포, 버득포: 안장립 서남쪽 바닷가에있는 마을
- 새 마 을:장림동에 새로 된 마을
- 성화원(聖花院): 장림동에 있는 마을
- 안장림(내장림): 밖장림 서북쪽에 있는 마을, 큰길 안쪽이 됨

192 사하의 구정과 동

• 야 시 골: 밖() 장림에 있는 골짜기

• 외장림(外長林): 박장림

• 작은새 미: 안장림에 있는 작은 우물

• 장립고개:장립동에 있는 고개

• 장 림 늪: 안장림에 있었던 늪

• 장 림 들: 안장림에 있었던 들

• 장림포(長林浦): 장림동

• 큰 새 미: 안장림에 있는 큰 우물

• 홍 티 굴: 아장림과 다대동 사이에 있는 굴

ㅇ 동 세

< 1986.10. 1 현재>

동	명	면적(㎢)	세대수	인 구 수	통수	반 수
장 림	1 동	1.79	3,977	17,518	20	108
장 림	2 동	2.47	3,848	15,220	21	110

6) 다대동(多大洞)

다대동(多大洞)은 낙동강구(洛東江口)에 자리잡고 있어 옛날부터 국 방의 요새지로 주목을 끌어 온 곳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자비왕조(慈悲王條)의 기록을 보면「5년 여름 5월 왜인이 활개성을 쳐서 사람 1000 여명을 포로로 잡아 갔다. 6년 봄 2월 왜인이 삽량성(梁山)에 침입 했으나 패하여 달아났다. 17년 일모(一牟)·사호(沙戶)·광석(廣石)·답달(畓達)·구례(仇禮)· 좌라(坐羅)등 성(城)을 쌓았다. 〈五年夏五月 倭人襲破活開城虜人一千而去 六年春二月 倭人歌良城 不克而去. 十七年 築一牟・沙戶・廣石・畓達・仇禮・坐羅等城…〉」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기록된 답달(畓達)은다대(多大)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달」의 「답(畓)」은 인마잡답(人馬雜畓)으로 거듭(重)을 의미하고, 「달(達)」은 달(到) 또는 현(顯) 저(著)를 의미하며, 오늘의 다대(多大)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記)에도 다다라진(韜韛津)・다다라(多多羅)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신찬성시록(新撰姓氏錄)이란 일본 고서(古書)에는 다다라(多多良)라고 한 것을 보면, 다대(多大)라는 이름을 답달(畓達)・다다라(多多羅)・다다라(多多良)에서 변하여 생긴 이름으로 부산의 지명(地名)중 그 유래가 가장 오래되는 것이다.

다대동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5~6000 년 부터라고 생각한다. 몰운대(投雲台) 북쪽에 남겨놓은 다대포 패총(貝塚)으로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대포 패총(貝塚)의 아랫문화층에서 기하문계(幾何文系) 토기와 무문토기(無文土器)가 발견되고, 윗문화층에서 회색(灰色) 경질토기계통(硬質土器系統)의 유물(遺物)이 출토되었다. 따라서,이 두 문화는 성격이 달라 신석기시대 말기에 아랫층 문화의 사람이 살다가 버리고 간 뒤에 윗층 문화의 주민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토기편 이외의 유물로는 흑요석, 골각기(骨角器)등이 있으며, 사슴뿔로 만든 칼자루도 발견되었다. 이 시대에는 어로(魚撈) 중심의 경제생활이었다.

신석기 시대에 이어 청동기(靑銅器) 시대인 마제석기(磨製石器)의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면 그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대포 북쪽 응봉(鷹峰)산의 옛 봉수대(烽燧台)에서 수 점의 마제석부(磨製石斧)와 석검(石劍)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반도목재주식회사(半島木材株式會社) 공장을 건설할 때 마제석검(磨製石劍)한 개가 출토 되었는데 김해(金海)무계리(茂溪里)와 괴정동(槐亭洞)에서나온 석검과 동일하다.

다대포는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와 마주 보고 있는 곳이며, 3세기경 부터 일본과의 교섭이 있었으므로, 한국문헌인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은 없지만 일본측 문헌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라진(蹈韛津)은 지금의 다대동 또는 다대포지역인 것은 분명하다. 대저(大渚)까지 포함시키는 설도 있고, 장림포설(長林浦說)도 있으나, 왜국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한일통교상(韓日通交上)의 요지였기에 일본측의 사서(史書)에 자주 나온 것이다.

여말(麗末)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고, 약탈이 시작하면서 대마도와 마주하고 한반도의 입구에 자리한 다대포는 왜구에게 짓밟혔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다대포는 국방의 요새로서 조선시대에 경상좌도 7 진(慶尙佐道七鎭)「부산」・「다대」・「서평」・「포이」・「개운」・「두모」・「서행」 가운데 국방의 요새지로 가장 중요시 하여 다른 진(鎭)의 2배의 병선(兵船)을 배치하였다. 뿐만아니라 전국 가운데서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와 한만국경의 만포진첨사(滿浦鎭僉使)만은 무장(武將)으로 정삼품(正三品)당상관(堂上官)만으로 임명하였으니,이것은 수사(水使:수군절도사)와 동격이었다.이러한 수군명장(水軍名將)들이 근무한 다대포에는 선인(先人)들의 무공(武功)을 알려 주는 많은 유적(遺蹟)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윤 흥신(尹興信) 첨사를 비롯한 다대포 주민의 항전(坑戰)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부산진성(釜山鎭城)을 함락한 왜적은 서평포진(西平浦鎮:舊平洞)을 함락하고, 이어서 구름떼같이 다대포진(多大浦鎮)으로 침공하여 왔다. 이에 윤 흥신 다대첨사가 지휘하는 아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기록은 빈약하여 안타깝다.이 전사(戰史)는 다대포의 영광이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다대포는 우리 수군과 대결하던 제일선이오, 격전지였다. 특히 녹도만호 정 운 (鄭運)은 부산포를 총공격할 때 이 순신 (李舜臣)장군이 가장 아끼던 선봉장으로 왜적과 다대포 앞 바다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정공 (鄭公)이 전사한 곳이 몰운대(役雲台) 앞 바다이며, 여기에는 정공의 순절을 기리는 비석이 건립되어 있다.

다대성(多大城)은 석축둘레 6,960 m이고, 성내(城內) 면적은 26,162 평방m인데 현재 남아있는 옛날 건물은 몰운대로 이전된 첨사영(僉使營)의 객사(客舎) 하나뿐이다.

다대포 첨사가 우리나라 수군을 통솔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던 동헌(東軒)이 있었던 곳에는 다대국민학교가 세워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으나, 첨사영 건물로 몰운대에 이전된 객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객사 건물의 관리는 지나칠 정도로 소홀하여 1904년 4월 구한말(舊韓末) 때 세워진 다대실용학교의 교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뒤다대국민학교로 개편된 뒤에도 60여 년 동안 교실의 구실을 하다가 몰 운대로 이전, 복원된 것이다.

윤공단(尹公壇)은 다대국민학교의 구석진 곳에 비석만 우뚝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1970년 485,000원의 예산으로 현재의 주산(主山) 산정으로 옮겨 세우고, 1976년 1,742,000원의 예산을 들여 비석단(碑石壇)을 개축하고 홍살문을 세워 정비하였다. 윤공단은 현재 부산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운순의비(鄭運殉義碑)가 몰운대(没雲台) 정상(頂上)에 일본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정조(正祖) 22년(1798)에 세워졌으며,이조판서(吏曹判書) 민 종현(閔鍾顯)이 찬술(撰述)하고,훈련대장(訓練大將) 서 유대(徐有大)가 쓴 것이다. 이 비석은 정운 공의 8대손인 정 혁(鄭爀)이 다대첨사가 되어 세운 것으로 높이 172 ㎝,폭 69 ㎝, 두께 22 ㎝의 화강암이다.

청사영(僉使營)이던 다대포 성지(城址)가 현재 다대동 일대에 일부나마 남아 있다. 윤 흥신공이 최후를 마쳤던 다대포진(多大浦鎭)의 성병은 지금 밀집한 주택들의 담이 되었고, 동문(東門)은 다대포 삼거리옆이며, 서문(西門)은 옛 당산(堂山) 밑이며, 남문(南門)은 기로당(耆老堂) 앞에 있었고, 북문(北門)은 다대국민학교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길로 변해 흔적도 없다.

동네안에 동그마니 남은 야문(夜門) 주춧돌과 주택으로 변한 선소(船所)가 다대포의 옛일을 중언하고 있다. 다대포 동회 (洞會)에 전승되어 오던 무관복(武官服)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현재는 충렬사에 진열되어 있다. 그 옷을 언제 누 가 입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마을에서 농악꾼들이 입고 춤추던 것 을 부산시사(釜山市史) 편찬위원회에서 입수하여 보관하였던 것이다. 갑 옷과 투구 그리고. 다대선생악(多大先生案)이라 책자가 함께 발견되었 다. 다대포 첨사 명부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소실되어 찾을 수 없고, 지금의 명단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몰운대(投雲台)는 안개가 잦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몰운대는 신석기(新石器)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으며, 패총 (貝塚)을 남기고 있는 곳으로 낙동강 하구(河口)에 길게 뻗어서 안개나 구름이 끼면 그 속에 가리워 없어진듯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몰운대라는 낭만적이고 시화적(詩畵的)인 이름으로 예부터 불려 온 경승지(景勝地)이다. 여기에 서서 푸르른 창파(滄疲)와 날아다니는 해조(海鳥)를 바라보는 정경도 좋으며 특히 강구(江口)의 낙조(落照)를 바라보는 흥취(興趣)는 천하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문인(文人), 묵객(墨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래의 시는 동래부사 이 춘원(李春元)의 몰운대의 절경승지(絶景勝地)를 노래한 것이다.

浩蕩風濤千萬里

白雲天半没孤台

扶桑曉日車輪赤

常見仙人賀鶴來

「호탕한 물결은 천만리에

고대(孤台)는 흰구름에 덮여 사라지고,

동녘 하늘에 떠오르는 둥근 아침해는

언제나 선인(仙人)이 학을 타고 오는 것만 같구나.」

<東萊府誌 56、題詠雜著社조 >

물운대는 신라(新羅) 이전에는 동백(冬栢) 우거진 작은 섬이었다. 16세기 초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中宗) 39년(乙未年) 2월을사조(乙巳條)에 물운도(投雲島)라 적혀 있고, 1763년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조 안(趙琮)의 해차일기(海槎日記)에 나전소도(羅前小島)였다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기록들은 물운대가 옛날에 섬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불러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근거로 물운대가 적어도 16세기까지는 하나의 섬이었고, 16~18세기 사이에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의 퇴적으로 다대포와 연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운대가 언제 육지와 이어졌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낙동강 유사(流砂)가 파도에 밀려 강구(江口)에 자연적인 사구(砂丘)가 형성되면서 부터 섬이 육지와 이어진 것으로 본다.

산림이 울창한 몰운대에 있는 다대포 객사(客舎:부산시 유형문화재 3호)와 정운 장군의 순의비(殉義碑:부산시 기념물 20호) 그리고, 다대동 입구의 윤공단(尹公壇:부산시 기념물 9호)이 임란 당시의 처절한 격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다만 선인(先人)들의 충혼(忠魂)이 어린 몰운대 입구 바닷가에는 생선횟집이 몰려있고, 낙동강 하구에 접한 백사장은 이상적인 해수욕장으로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명승지가 될 것이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위 다대성 8경(八景)은 지금도 그 분 위기를 지니고 있다

- 아미완월(峨嵋[山]翫月) → 峨嵋半月
- ・ 몰운관해(没雲〔臺〕觀海)
- · 야망어창(夜望[臺]漁唱)
- 화손낙조(花孫〔臺〕落照)
- 두송만취(頭松[山]晚翠)

- 남림숙하(南林宿霞)
- - 삼도귀범(三島歸帆) → 三島:쥐섬,고리섬,솔섬

그러나, 솔섬으로 가는 길목엔 목재공장, 주택이 들어서 지금은 남림 숙하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옛 첨사영 밑에 다대 「샘」이 있다. 이 샘은 다대포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 부터 주민 전부의 식수로 사용되어 왔다. 상수도가설치된 지금도 일부는 식수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량은 무진장이기 때문에 종일 길어내어도 한밤중에는 물이 철철 넘쳐서 물줄기가 끊어진일이 없다. 그리고 샘에서 넘치는 물을 받아 아래에 10평 남짓한 곳에 공동세탁장을 만들어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이고 와 빨래하는모습은 도심속의 훈훈한 옛 정취를 엿볼 수 있다. 옛날 상수도 설비가없었을 때는 700여세대 4,000여인구가이 샘하나를 식수로 사용하였고, 어업용수까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다대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대포진(多大浦鎭)은 세종 이후 만호영(萬戶營)이었으나, 임진란 전에 첨사영(僉使營)으로 고쳤다.

효종(孝宗) 3년 경상좌수영(慶尚左水營)이 지금의 수영(水營)으로 복치(復置)된 이후 7진(七鎭)중의 하나이던 다대포의 방비군(防備軍) 규모는 전선(戰船) 2척,수군(水軍) 2,160명,무학사부(武學射夫) 236명이었고,좌수영 상비군(常備軍) 편성함대에서 좌사파총(左司把摠)을 다대첨사가 맡았다.

좌사파총전선(左司把摠戰船)에는 사부(射夫) 18명, 교사(教師) 5명, 포수(砲手) 24명, 능로군(能櫓軍) 120명이 있었으니, 오늘의 다 대동은 군사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편 다대영(多大營)에 배치되었던 예비병력(豫備兵力)은 전선(戰船) 2척, 사후선(伺侯船) 4 척이었으며, 몰운산(没雲山), 두송산(頭松山), 금티산(金峙山)의 세 곳에 병고(兵庫)를 두었다.

이러한 군제(軍制)는 갑오년(1894) 구군제(舊軍制)가 폐지될 때까지 240 여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대동 뒷산에 응봉 봉수대(烽燧台)가 있었다. 여기에 봉수대가 생기기 전에는 석성(石城: 天馬山頂) 봉수대에서 다대포 만호진(萬戶鎭)을 방수(防戌)하는 후망소(侯望所)로서의 임무를 맡았었다. 이 봉수대는 세종(世宗) 7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중종(中宗) 25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는 다대 포의 응봉(鷹峰) 봉수대가 첨가되고 있다. 이것이 다대포 응봉 봉수대 가 처음 보이는 기록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 무렵 다대포 지역에 염분(塩盆)이 있어서 소금을 생산하여 관아(官衙)에 납품했음을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 기록된 다대포 군수염분일 좌(軍須塩盆一坐)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대포진(多大浦鎭)은 1894년 6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정부기구가 변모함에 따라 경무청 관제가 공포됨으로써 부산경무관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국 각 지방의 군사시설과 같은 운명을 짊어지고 군대는 해체 당한 뒤 1895년 5월 폐진(廢鎭)되었고, 박 세혁(朴世赫) 첨사를 마지막으로 한낱 어촌(漁村)으로 전략해 버렸던 것이다.

다대포에는 1906년 일본 후꾸오까쪤에서 어민들이 이주해 왔다. 지금의 대명 (大明) 목재 저목장이 있는 앞 바다에서 멸치가 무진장 많이 잡혀 지예망 어업이 성행했다. 지예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마른 멸치로 만들어 남포동에 가지고 와 객주에 넘겼다.

임진왜란 때 격전장이었던 다대포 앞 바다는 일제(日帝)말 미군(美軍)의 그라망합재기가 여객선 가모메마루를 격침, 일제의 패망을 예고했던 곳이다. 그리고, 1953년 1월 부산에서 여수간을 운행하던 여객선 창경호(昌慶號)가 다대포 앞 가덕도에서 침몰하여 330여 명이 사망한 애확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1939 년 구한말(舊韓末)의 정객으로 태극기(太極旗)를 처음 국기로 사용했던 박영효가 서울에서 죽자, 다대포의 가족 묘지에 매장했다. 당시의 대규모 장례 광경을 처음 보게된 부산 사람들의 한동안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구한말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고, 개화독립당을 조직하여 김 옥군(金玉均)과 같이 나라의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데 참여한 대표적 인물이되었던 박 영효는 1907년에 이 완용(李完用) 내각의 궁내부 대신을지냈다. 그는 한일합방에 협조한 일은 별로 없었다고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박 영효를 합병 유공자로 작위를 주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그의 만년은 한국의 저명인사로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풍수를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 이름난 산을 찾아 자기가 묻힐 묘자리를 물색하다가, 명당이라고 하는 다대포 본동을 묘지로 결정하였다. 그는 조선총독 齊藤을 움직여 광범한 국유림(國有林)을 불하받아 묘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옹주(翁主)를 비롯한 백씨, 형수를 이곳 분묘에 먼저 매장하였고, 1939년 자기 자신이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에 따라 여기에 묻히게 되었다.

박 영효의 유해는 서울에서 특별차로 부산까지 운구되어 경상남도 일본 사람인 도지사의 지휘로 부산역에서 다대포까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화려한 장례를 치루었다. 이같은 화려한 대규모 장례식을 부산 사람들은 처음 보았고, 그 장례식 행렬이 부산 특히 다대포 고로 (古老)들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이였다고 지금도 말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 개화의 선구자 현현거사(玄玄居

士)의 무덤앞 석비(石碑)에 일본 황실(皇室)에서 부여된 작위(爵位) 가 새겨져 있어, 해방후 비문의 망신스러운 귀절을 깨뜨려 버렸고, 비 석도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졌다.

1958 년 박 영효의 장손 박 찬범(朴贊範)은 가산을 완전 탕진하고, 불하받은 선조의 산소까지 팔아 먹은 뒤에 남은 1,000 여평의 묘지도 팔아 버렸다. 그는 조부모의 유골을 파헤쳐서 이장하고, 명당으로 알려진이 묘소를 사겠다고 나선 안남동 돈 많은 요리집 주인에게 거금 500 만환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이 묘지의 새 주인은 미리 자기의 묘비까지 세워놓고 10 여년 동안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 관속에 들어가 묻혔다. 초라한 하나의 어촌이 되어버린 다대포는 해방 후 6.25 동란 뒤까지 밀수배들의 밀수 근거지로, 일본으로의 밀항 근거치로 당국에서 감시를 주력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다대동은 어촌이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신당 건물과 성역의 규모가 큰다대포 성황당이 있다. 그리고, 홍치부락에는 상조대신(上祖大神),당상조모(堂上祖母)의 위패를 모셔 놓고, 1월 초순에 당제를 지낸다.

1970 년대에 다대동은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몰운대가 공원으로 정비되었고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開場)되어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목재 (半島木材)를 비롯한 큰 공장들이 들어서고, 1981 년부터 다 대지구 택지조성을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 사의 숨결이 꿈틀거리는 다대동으로 이사를 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다대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다대포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96)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홍티동을 병합하여 다대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고,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 사하출장소에, 1975년 부산시 시직할출장소, 1983년 「사하구」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ㅇ 다대농지명

- 고리섬:다대포 앞에 있는 섬
- 나무석: " " "
- · 나포(羅浦):낫개(마을)
- 낫개(나포):다대동에 있는 마을
- 낫개들:낫개에 있는 들
- 다대암(多大庵):다대동에 있는 암자
- 다대포개:다대포에 있는 개
- · 다대포 첨사영 객사(多大浦僉使營客舍):다대동에 있는 다대포첨 사영의 객사
- 다대포 해수욕장:새목에 있는 해수욕장
- · 두송산(頭松山):새모기 앞에 있는 산 전체가 반도로 되어 있음.
- · 몰운대(沒雲臺): 몰운산에 있는 대. 임진왜란 때 이 순신 장군 밑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용맹을 날린 정 운(鄭運)이 이 곳에서 전사하여 몰운이란 땅 이름이 맞았다하며, 정 운 장군 순의비가 있어서 더욱 유명함.
- 몰운산(沒雲山):다대동 남쪽에 있는 산, 몰운대가 있음.
- 무지개:다대동에 있는 마을

- 무지개고개:무지개에 있는 고개
- 무지개굴:무지개에 있는 굴
- · 봉화대 (烽火臺) 터 : 몰운산에 있는 봉화대 터
- 새모기, 새목, 조항:다대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새모기들:새모기에 있는 들
- 서도(鼠島), 쥐섬; 몰운대 앞 바다에 있는 섬. 쥐가 많았다 함.
- · 솔섬:다대동에 있는 섬, 소나무가 많음.
- · 아랫새모기사장(모래톱):새모기 아래쪽에 있는 모래톱
- 야망대(野望臺):다대포와 낫개 사이에 있는 대
- · 오리정(五里亭) 터:다대동에 있는 옛 정자 터
- · 오목고개:다대포에서 구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오목하게 생겼음.
- 웃새모기사장:새모기 위쪽에 있는 모래톱
- · 윤공단(尹公壇): 다대포에 있는 고적.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다대포 첨사 윤 흥신(尹興信)과 그 아우 윤 흥제(尹興悌)의 전공비가 있음.
- · 윤씨(尹氏)내:다대포에 있는 내. 이곳에 윤씨가 많이 살았으므 로 윤씨내라 한다 함.
- 윤씨내 다리:윤씨내에 놓여 있는 다리
- 재앙당:다대포에 있는 서낭당.
- ㆍ 정 운 장군 순의비(殉義碑): 몰운대에 있는 정운 장군의 순의비
- · 조항(鳥項):새목
- 지동바우:새목에 있는 바위
- 큰새미:다대포에 있는 큰 우물
- 화손대(花孫臺):몰운대 동쪽에 있는 대
- · 활터:다대포에 있는 활터. 옛날 다대포 첨사가 활 쏘던 터라 함.

○ 동 세

(1986.10.1 재)

동 명	면 적 (k㎡)	세대수	인구수	통 수	반 수
다 대 동	5.59	3,444	14,614	22	102

7) 구평동(舊平洞)

구평동(舊平洞)은 구서평(舊西平), 구시평, 구평이라 불렀으며, 조선(朝鮮) 초부터 만호영(萬戶營) 즉 서평포(西平浦)가 설치되 어 군사상의 요충지였고, 독지장(禿旨場)이 섰던 교역의 중심지였다.

구평동은 동북으로 간대프(甘內浦:大浦灣)와 마주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금티산(金峙山)이 우뚝 솟아 괴정, 신평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 며, 서쪽으로는 두송반도(頭松半島)가 남쪽 바닷가로 돌출하여 다 대동과 이웃하고 있어서 해륙(海陸)의 요충지(要衝地)이다.

구평동의 성개(성포)는 구평동 동남쪽에 설치된 개(城浦)로써성(城)이 있었으며, 최근까지 토성지(土城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토성이 언제 쌓아졌고, 진성(鎭城)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토성의 축조 상태와 거기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토기편으로 보아 아마 신라때 부터 이곳에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평포진(西平浦鎭)은 세종때까지만 하여도 부산 첨사영(僉使營)에 속한 하나의 작은 보성(堡城)에 지나지 않았다. 이웃의 다대진(多大鎭)이 만호영(萬戶營)에서 첨사영으로 승격되어 무관(武官) 당상관(堂上官) 정삼품(正三品)인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임명된 데 비하여, 무관 종구품(從九品)의 권관(權官)을 수장(守將)으로 한 초라한 진보(鎭堡)였다.

서평포가 신설된 것은 중종(中宗) 5년(1510) 삼포(三浦)의 왜란(倭亂)에 이어 중종 19년(1519)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난 후 진관제(鎭管制)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서였다. 서평포는 이웃에 설치된 왜관(倭舘)과 가깝고, 왜선(倭船)과 인원의 출입 점검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요지(要地)였다.

서평포 만호(萬戶)는 경상좌수영(慶尚左水營)의 상비군(常備軍) 편성에서 좌사파총(左司把摠:多大鎭僉)에 딸린 좌소관(左哨官)이었다.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일시에 부산진성(釜山鎭城)을 함락한 왜병(倭兵)의 일부가 서평포를 함락하였다. 서평포는 해륙(海陸)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왜병과의 전투는 치열했을 것으로 추측되나,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전(口傳)도 없으므로 누가 어떻게 지켰고,어떻게 싸우다가 함성(陷城)이 되었는 지도 알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서평포의 주민과성(城)의 군인들 모두 처절한 싸움으로 전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 해전(海戰)에 출병했던 이 순신 장군이이끄는 우리 수군(水軍)이 서평포 앞 바다에서 왜병 대선(大船) 9척을 무찌른 전과(戰果)가 「충무공전서」에 기록된 것을 보아도 이곳은 격전지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임진왜란후에 성(城)이 잔폐(殘廢)하여 진보(鎭堡)를 유지할 수 없어서 다대진의 성안으로 이진(移鎭)하였다가, 현종(顯 宗) 9년(1668) 다대포성이 좁아 다시 서평포로 환진(還鎭)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성을 못쓰게 될 만큼 격전지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肅宗) 3年(1677) 서평포진이 왜관(倭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수장(守將)의 관계(官階)가 낮아 체통이서지 않는다고 하여 무관 종4품(從四品)의 만호(萬戶)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萬戶營)으로 승격되었고, 만호밑에 군관(軍官) 8명, 진리(鎭吏) 6명, 지인(知印) 3명, 사령(使令) 2명을 두었다그리고, 서평포의 병선(兵船)으로는 전선(戰船) 1척, 병선(兵船)1척, 사후선(伺侯船) 2척이 있었고, 수군(水軍) 1,080명, 무학사부(武學射夫) 118명이 있었다. 이밖에 서평포진에는 선재(船材)조달을 위해 벌목(伐木)을 금하는 1개소의 붕산(封山)을 가지 있었다.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에 따르면 17세기를 전후하여 독지장(禿目場)이 개시(開市)되었다고 하는데 장(場)이 섰던 자리가 어데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일과 6일에 개시(開市)되어 사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장림에서 생산된소금,그리고,수공업품 등이 물물교환이나 미포(米布) 또는 전화(銀貨)에 의하여 교역되었다. 독지장은 동래,부산, 좌수영장과 함께 조선 중기에는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나,당시의 독지리(禿目里)의 범위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동래읍지에 사천면(沙川面) 하단(下端)이 신초량리(新草梁里), 구초량리(舊草梁里), 대티리(大峙里), 목장리(牧場里), 간천리(甘川里), 독지리(禿旨里), 장립리(長林里), 다대리(多大里) 등 9리(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서평포를 독지리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구평동은 성개에서 해안선을 따라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두 송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뚜렷한 발전을 못하고, 조용한 어촌으로 형성되어 왔었다. 마을까지 겨우 찻길이 닿은 것로 일제시대 일본군이 이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하였기때문에, 군사도로(軍事道路)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구평동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당집이 있으며, 산신도를 걸어둔 신당이 있고, 부락의 일년동안 안강을 축원하는 동시에 동구(洞口) 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마을에는 바닷가에 용굴이라고 불리는 굴이 있으며,이 굴이 신평동 뒷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이 굴을 용머리로 보고, 신평동 뒷산을 용의 꼬리로 보는 전설이 전한다.

구평동에는 극동철강이 들어서고, 여러 공장이 이사를 와 자리를 잡고 세워졌고, 1977년에는 해안도로를 폭 4 m로 넓혀 교통문제 를 해결하여 살기가 편리해 지자 발전하기 시작했다. 구평동 어항도 정비되었고, 더구나 감천만이 부산의 제삼의 항구로 건설되자 전망은 밝기만 하다.

구평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전출한 바와 같이 구서평, 구시평, 또는 줄여서 구평이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99)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평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고,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12월 15일 사하구청 승격으로 사하구에 속한다.

ㅇ 구평동 지명

- 구서평(舊西平): 구평동
- · 구시평:구평동
- 구평못:구평동에 있는 못
- 나지목: " 앞에 있는 개
- * 성개(성포):구평동 동남쪽에 있는 개
- 성포(城浦):성개
- * 솔배기: 구평동에 있는 개. 소나무가 있었음.
- 화엄사(華嚴寺): 구평동에 있는 절

ㅇ 구평동 동세

(1986.10. 1. 현재)

동 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통 수	반 수
구 평 동	2.55	1,503	6,052	10	48

8) 감천동(甘川洞)

감천동(甘川洞)은 선사시대 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가 오랜 마을이다. 감천(甘川)의 옛 이름은 감내(甘內)이며, 감(甘)은 「잠」, 「검」에서 온 것으로 「검」은 선(神)이란 뜻이다 「川」은 「내」를 말하며, 그 이전에는 「內」를 적어 「甘內來里」이며, 감내(甘內) 또는 甘來라고 하였고, 다내리(多內里:多大 안쪽 마을)로도 불렀다.

감천의 나이 많으신 분 중에는 감천은 물이 좋아서 甘泉 또는, 甘川이라고 했고, 많은 선박들이 옛날에 이곳에 들어와 급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검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뭏든 감천은 부족사회(部族社會)의 권력자가 살았던 지역으로 추측되며, 지석묘(支石墓)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소도(蘇塗)와 같은 신역(神域:聖域)으로 추측된다.

감천동은 천마산(天馬山), 아미산(峨嵋山), 금티산(金崎山)이병 풍처럼 우뚝 솟아 있고, 감천항을 두송반도(頭松半島)가 길게 뻗어내려 감천만(甘川灣)이 깊숙이 들어가 천연의 항구가 된 마을이다. 따라서, 선사 시대 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으며, 지석묘 6기(基)의 발견은 청동기 시대(青銅器時代)에 사람들이 살았었고, 부족사회의 권력자가 이곳에서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지석묘는 남방식(南方式) 지석묘가 2기, 변형적 지석묘가 3기, 표석식(標石式)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1기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감천에 지석묘가 영위된 청동 기 시대가 퍽 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비탈에 살며, 땅 위에 집을 짓고 취락을 이루어 농사를 지으면서 살 았고, 벼도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동기 문화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농업의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부족 국가가 곳곳에 생겼다. 감천동의 지석묘는 위와같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며, 제1~3호는 부산화력 발전소 사택촌 앞 도로를 따라 있었다. 제1호에서는 마제석검(磨製石劍) 1점이 출토되어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2,3호는 도로공사를 하던 중기(重機)에 밀려 파괴되었고, 상석(上石)은 도로밑에 묻혀 버렸고, 출토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 4 호 역시 구도(舊道) 서쪽 밭 가운데 있었으며, 마을에서 옛날부터 「복(福)바위」라고 불렀고, 이 바위를 전드리면 복이 나간다는 전설 때문에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공장을 세우게 되어서 발 굴 조사되었으나, 유물도 없었다.

제 5 호는 해변 서북쪽의 산기슭에 산에서 흘러내린 흙에 묻혀 上石만 보였었는데, 택지 조성으로 파괴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 단병식(二段柄式) 마제석검(磨製石劍) 1 점이 채집되었다. 이 석검도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 6 호는 현재 버드나무집 식당(食堂)의 뜰에 있으며, 지주(地主)가 잘 보호하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남방식(南方式) 지석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유래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단 하나뿐인 지석묘는 마을 주민을 비롯하여 부산시민 모두가 잘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석묘의 주변에서는 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과 우각형(牛角形) 손잡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제1호 동남쪽 산 기슭에서 석구(石臼) 가 하나 출토(出土)되었고 주변에서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그외 마제 (磨製) 유구석부(有溝石斧) 1점, 마석촉(磨石鍜) 1점, 석착(石 鑿) 1점 등이 발견되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중 에서 유구석부는 농경문화(農耕文化)와 밀착된 석기로 한반도의 남부에만 보였고, 북부지방에서는 출토된 예는 없다.

이 유적 가까운 발가에서 가야초기의 옹관장이 1기 발견되었고,부산 화력발전소 사택을 건축하기 위해 택지공사를 하던 중 가야 시대의 것 으로 보이는 작은 석관묘(石棺墓) 10억기기 되괴된 일이 있었다.

삼성여자고등학교 동남쪽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이 많이 나왔는데,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 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옆 남쪽에서 고려 청자편(靑磁片)이 많이 출토되는 요지(窯址)로 추측되는 곳이 있었다. 소문(素文)이지만 시유(施釉)가 좋은 편이고, 색조는 암촉색이다.

감천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자주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포와 가깝고 다대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으로 몇 번인가 마을이 폐촌이 되다시피 했다.

조선 시대에 감천은 천마산성(天馬山城)과 서평포진(西平浦鎭)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천만에 위치한 요지로 바다에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수문(守門)과 공청(公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때는 괴정과 함께 목마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고, 그 건물은 해방후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國軍의 前身)에서 쓰다가, 6.25 동란때에는 영국군 부대가 사용하였다.

감천만의 동쪽 해변에는 재래의 작은 어촌이 있어 감천의 원래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북쪽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쓰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감천 해수욕장은 규모가 좁고 사장이 없으나, 큰 소나무들이 줄 서 있고, 깨끗한 자갈밭이 깔린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러나, 1962년 이곳에 부산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면서 해수욕장과 그 앞에 있는 용두섬이란 작은 섬이 없어지고 감천의 모습이 바뀌었다.

감천 2동에는 태국을 받들며 도를 닦아 성인이 된다는 신흥 종교인 태국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천여명 모여 집단촌을 이루어 1958년 감천 2동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신자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앙촌을 만든 것은 부산으로 피난온 전국의 그 신자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하여모여든 6.25전쟁 기간 동안의 일이다.



〈 태 극 도 〉

감천동에 있는 화력 발전소에서는 하루에 삼십삼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일으켜 부산시 일대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보내주고 있다. 1964년에 한국 전력에서 미국의 한 전설회사에 공사를 맡겨 세운 이 발전소는 그을음을 엄청나게 내뿜어 사하와 서구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렸다. 이에 한전측에서 1969년 7월 발전소 굴뚝에 그을음을 걸러내는 시설을 해 공해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 화력발전소가 생긴 뒤에 감천의 바닷가에는 횟집을 비롯한 유흥업소(遊興業所)가 들어서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감천항(甘川港)은 부산항의 보조항(補助港)으로서 지난 1979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1991년까지 민자(民資) 832억원을 포함한총 사업비 1,775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150 m, 안벽(岸壁) 및물양장(物陽場) 5,573 m 등을 축조하고 있다. 감천항 개발이 완공되면 감천동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천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감내 또는 감천이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16)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감천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1월21일 부산시 조례 제156호의 동제 개편에 의하여 감천동을 갈라서 감천1동과 제2동으로 나누었고, 1983년 12월 사하구 승격과 함께 사하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ㅇ 감천동지명

- 감내. 감처(甘川):감천동
- 감내포(대포만): 감내 앞에 있는 만
- · 괴정고개, 괴정곡(槐亭曲), 샘피곡;용두암 서북쪽에 있는 고개 괴정동으로 넘어감.
- · 금티산(金峙山), 운수산: 감천 남쪽에 있는 산. 높이 187 m
- 깔마까지: 감천동에 있는 어장
- 딱딱골:감천동에 있는 골짜기
- 마낭더기: 감천동에 있는 어장
- 반달고개, 아미동(峨嵋洞)고개: 감천에서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백작포:감천 남쪽에 있는 개
- 부산화력발저소: 감천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 안골새:감천 안쪽에 있는 마을

• 용담, 용당, 용두암(龍頭岩):감내 남서쪽에 있는 굴

• 장군산(將軍山): 감천동과 암남동에 결쳐 있는 산

• 잿거랑:감천에 있는 고개

• 조금몰:감천동에 있는 어장

• 조금돌래: 감천동에 있는 개

· 죽도(竹島):용두암 앞에 있는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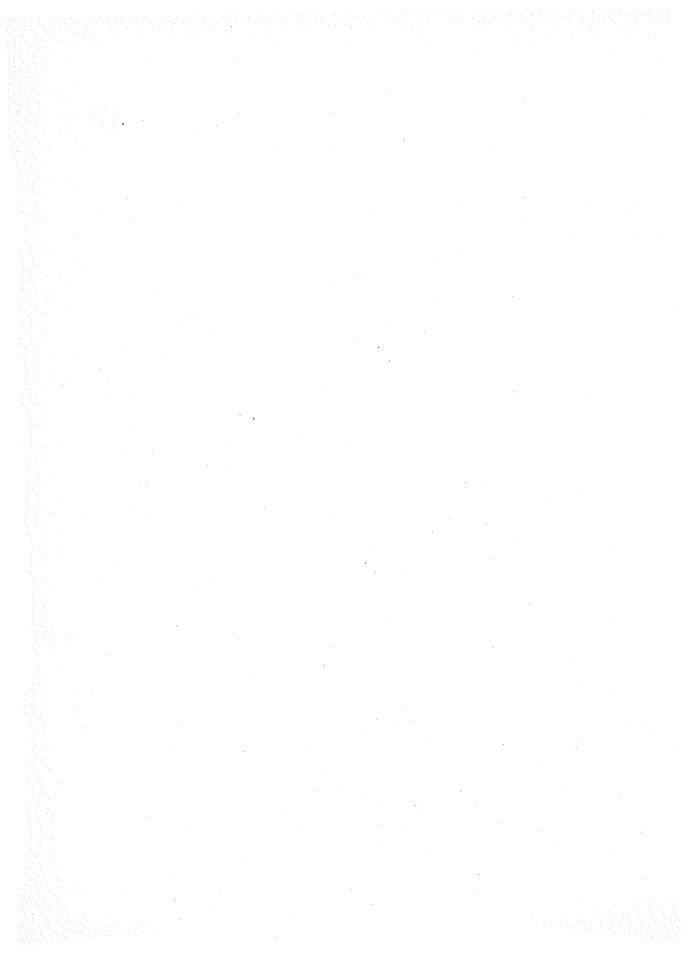
· 천장봉(千丈峰): 감천동에 있는 산

・ 호수암(虎首岩): 감천동에 있는 어장

ㅇ 甘川洞 동세

(1986.10.1 현재)

동 명	면적 (km²)	세대수	인 구수	통 수	반 수
감천 1 동	2.17	6,647	28,368	40	209
감천 2 동	0.62	5,428	25,358	36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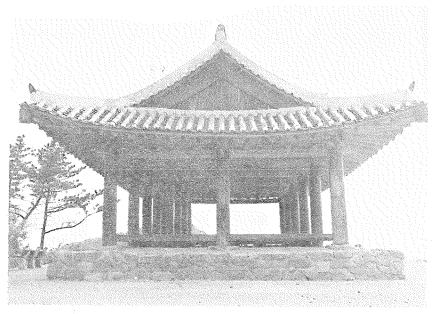


第四章 沙下의 遺蹟 및 名所

- 1. 遺蹟 및 遺物
- 2. 天然記念物
- 3. 傳 説
- 4. 特産 및 名物
- 4. 歷代 多大浦 僉使 人名録
- 6. 其 他

1. 유적(遺蹟) 및 유물(遺物)

1) 다대포 객사(多大浦 客舍)



<多大浦 客舍 寫眞>

ㅇ 종 류:부산직할시 지방 유형문화재

지정번호:제3호

o 구 모: 122 m²

ㅇ 지정년월일: 1972년 6월 22일

소 재 지:사하구 다대동 산의 144

객사(客舎)는 조선 시대(朝鮮時代) 지방관아(地方官衙) 건물 (建物)의 하나로 수령(守令)이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大闕)을 향(向)하여 망배(望拜)를 드리던 곳이뎌, 또 사신(使臣)의 숙소(宿所)로

이용(利用)되기도 했다.

현재(現在) 다대포(多大浦) 몰운대(股雲台)에 있는 객사(客舎)는 조선조(朝鮮朝)후기(後期) 다대첨절제사영(多大僉節制使營)의 건물(建物)이다.

다대포(多大浦)를 비롯하 남해안(南海岸)은 옛 부터 왜구(倭寇) 등의 침탈(侵奪)이 심하였던 곳이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세종조(世宗朝) 삼포(三浦)의 개항(開港)이 있게 되자, 그 곳의 방어(防禦)는 중요시(重要視)되어 부산포(釜山浦), 제포(齊浦)에 첨절제사영(僉節制使營)을 두고 경상좌도(慶尙左道)에는 부산포영(釜山浦營)의 마하(摩下)에 다대포(多大浦)등 십포(十浦)에 만호영(萬戶營)을 두었다.이 때 영(營)은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다.이 역(營)이언제 다대포(多大浦)로 옮겨졌는 지는 불명(不明)하다. 명종이후(明宗以後)수군제(水軍制)의 변경(變更)에 따라 진・보제(鎭・堡制)가실시(實施)되고 부산포(釜山浦)와 다대포(多大浦)는 중요시(重要視)되어 진(鎭)이 되었으며,종전(從前)의 좌도(左道)의 대부분(大部分)의 만호영(萬戶營)은 보(堡)가 되었다.

임진란(任辰亂) 이후 (以後) 다시 군제(軍制)의 변혁(變革)으로 다대진(多大鎭)은 부산진(釜山鎭), 두모진(豆毛鎭), 개운진(開雲鎭), 포이진(包伊鎭), 서생진(西生鎭), 서평진(西平鎭)과 함께 경상좌도(慶尚左道)의 칠진(七鎭)의 하나가 되었다. 다대진(多大鎭)은 부산진(釜山鎭)과 함께 다른 진(鎭)보다 중시(重視)되어 다른진(鎭)보다 2 배(倍)의 병선(兵船)을 보유(保有)하였을 뿐만아니라, 다대진첨사(多大鎭僉使)는 북경(北境)의 만포진첨사 (萬浦鎭僉使)와 같이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의 높은 벼슬이 주어졌으니 이 진(鎭)의 중요성(重要性)을 알 수 있다.

이 다대진(多大鎭) 객사(客舎)는 언제 창건(創建)되었는 지 불명 (不明)하나,1825년 (純祖25년)에 중수(重修)한 것이다. 원래 다 대국민학교(多大國民學校) 구내(構內: 舊 僉使營)에 있던 것을 1970 年 몰운대(没雲台) 현재의 자리에 원형(原形) 그대로 이전 복원 (復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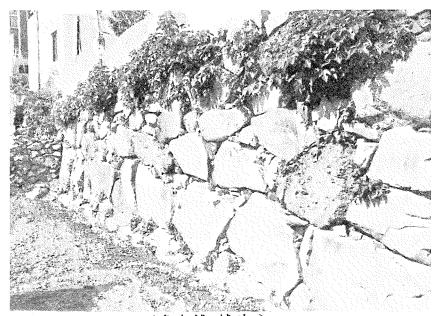
부산시(釜山市)에서 80年 6月 13日에서 동년(同年)9月 10日까지 3,048萬원으로,기둥 8本중 6本의 기둥을 교체(交替)하였고,색와공사(穡瓦工事)(185.5 ㎡)와 마루(82.32 ㎡)를 교체하였으며,단청공사(丹靑工事)와 현팎(懸板)을 설치하였다.

조선조(朝鮮朝) 후기(後期)의 객사건물(客舎建物)로서 이 고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건물(建物)은 정면(正面) 5간(五間) 촉면(側面)2間8작(八作) 홑처마 지붕이며, 안두리 기둥을 배치하여 절단된 대량을 받치고 있다.

상태는 최근에 이전, 보수공사(補修工事)로 잘 정돈(整頓)되어 있다. 기둥의 밑 뿌리에 하방(下防)이 남아 있으며, 기단(基壇)위에 벽체없는 집이 서 있다.

2) 다대포 성지(多大浦城址)



<多大浦 城址 >

o 종 류:지정이외의 문화재

ㅇ 소 재 지:사하구 다대동 일대

경상좌도(慶尚左道) 수군철도사(水軍節度使)에 예속되었던 다대진 영(多大鎭營)의 성지(城址)이다.

다대포는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와 마수 보고 반도 남쪽 낙동강의 강구(江口)에 자리잡고 있어서 국방(國防)의 요지(要地)로 지목되었다. 조선(朝鮮) 세종 이후 만호영(萬戶營)이 설치되고 종 4품(從四品)의 무관(武官)인 만호(萬戶)가 장(長)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임진왜란 전에 첨사영(僉使營)으로 승격되었고,그 장도 정 3품(正三品)의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임명되었다. 임진왜란후 1654년(孝宗5年)에는 첨사가 부산 절영도 밖 두 목장(牧場)의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휘하에는 군관 500여명이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며,첨사영은 1894년 갑오관제개혁시(甲午官制改革時)에 폐지되었다.

이 진영(鎭營)이 설치된 고을에 언제부터 성(城)이 축조(築造)되었는 지 알 수 없으나,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다대포진이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곳에서 현 다대동에 옮긴 후에 본격적인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때 축조(築造)된 성(城)은 임진년(壬辰年)에 수축(修築)되어 왜적(倭賊)에 대비케 하였다고 하나 임진란때 왜군(倭軍)의 침입에 크게 파괴되었다. 임진란 후에 다시축조되었고, 그것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지금 다대동에 남아있는 성지가 그것이다.

이 성은 둘레 1,806 尺, 높이 13 尺의 석성(石城)으로 (東萊府誌 十八 城郭條:多大浦城 僉使所居也 在府南五十里 周一千八百六尺 高十三 尺) 성내(城內) 면적은 26.162 평방m이며, 동·서·남·북으로 성문 이 있어 동문은 패인루(沛人樓), 남문을 장관루(壯觀樓), 북문을 숙위루(肅威樓)라 하였다.

성내에는 회원관(懷遠館:客舎), 수호각(睡虎閣:東軒)을 비롯하여 청상루(淸霜樓:軍器所), 금산소(禁山所), 목소(牧所), 공방소(工 房所), 도훈도소(都訓導所), 지통소(紙筒所), 제향소(祭享所)등 많 은 객사와 대동고(大同庫), 유포고(留布庫), 대변고(待變庫), 진창 (鎖倉)등의 창고(倉庫)가 있었으며, 성외(城外)에는 진남루 (鎭南 樓:舟師의 官門), 진남정(鎭南亭:舟師待變所), 목장창(牧場倉:鎭의 10리 거리에 있음), 대티창(大峙倉:鎭의 동쪽 15리), 석포창(石浦 倉:鎭의 東쪽 45里)등이 있었다.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많이 파괴되었지만 성의 윤곽은 알 수 있으며, 문루 5개소지(門樓五個所址)가 남아 있으며, 성벽(城壁)도 최고 3 m에서 최저 1 m의 유지(遺址)를 볼 수 있다.

3) 윤공단(尹公壇)



< 윤공단 >

종 류:부산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이 지 호:제9호

ㅇ 지정년월일: 1972년 6월 26일

o 뭐 적: 43 m²

ㅇ 소 개 지:사항구 다대동 산 24

윤공단(尹公壇)은 임진왜란 때 왜적과 고군분투(孤軍奪鬪)하다 순절(殉節)한 다대첨사(多大僉使) 윤 흥신(尹 興信)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1765년(英祖 41年) 다대첨사 이 해문(李海文)이 다대객관(多大客館)의 동쪽에 설치한 것이다.

1592 년(宣祖 25 年)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倭軍)은 14일 부산진성(釜山鎭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에 군(軍)을 나누어 다대진(多大鎭)과 동래부(東萊府)를 공격하였다. (忠烈祠志 卷三 尹公壇事 尹公死節記:姜必履記)이 때 다대첨사 윤 흥신은 동생 흥제(與悌)와 군관민(軍官民)을 이끌고 막강한 왜적과 맹렬히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장렬한 전사(戰死)를 하였다. 일설(一說)에는 첫날 왜적은 다대진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하였으나 힘을 다하여 물리치고,이튿날에 적이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를 하였는데, 적의 공격이 있자 분연항쟁(奪然抗爭) 끝에 순사(殉死)하였다고 한다.(忠烈祠志 卷三 尹公遺事 多大浦僉使 戰亡事蹟斂:趙曮記)

왜란이 끝난후 동래부와 부산진에서 순절(殉節)한 이들은 차례로 밝혀져서 보상(褒賞)의 은전을 입고 단(壇), 사묘(祠廟)도 세워졌으나, 윤공에 대한 기록이 없고 주민들이 당시의 사실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역대의 첨사들도 임란때의 사적(事蹟)을 알아내는데 무관심하여 알려지지 않았다.

윤공의 공적이 200년 가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761年(英祖 37年)에 경상감사 조 엄(趙曮)이 유적을 찾아내어 조정(朝廷)에 보 상(褒賞)을 청함으로써 비로소 윤 흥신의 사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에 다대첨사인 이 해문(李海文)이 나라를 지키다 순절한 공의 전공을 추모하는 돌비를 세웠으니, 후세 사람들은 윤 공단(尹公壇)이라 부르게 되었고, 향사일(享祀日)은 음력 4월15일로 정하여 거행되었다.

원래 이 단(壇)은 다대포성내(多大浦城內) 즉 다대국민학교에 있던 것을 1970년 12월 5일 현재의 자리에 이단(移壇)하였다. 비석은 높이 약 180㎝ 넓이 60㎝ 정도이며, 앞면에는 「첨사 윤공흥신순절비(僉使尹公興信殉節碑)」라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공의 전적(戰蹟)이 12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석의 양쪽에는 의사 윤흥제비(義士尹興悌碑)와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가 서있다.

현재 제향(祭享)은 동민(洞民) 중심으로 거행되고 있다.

○ 尹公壇 移壇 整備

날 짜	공 사 내 역	공사비/원	비고
1970.11.16-12.15 1976.10.13-12.31 1978.6.12-10.19 1978.11.11-12.14	移壇 碑壇改築,홍살문건립 齊室新築 조경,石築工事	485,000 17,420,000 20,218,000 2,620,000	15.50 /坪 石築: 14.4/㎡



〈 尹 公 壇 홍 살 문 〉

。 僉使 尹興信公의 殉節碑

옛날 임진년(王辰年)의 사면(事變)에 있어서 맨 먼저 봉인(鋒刃)에 부딪혔는데, 동래성을 둘러싼 진(鎭)을 지키는 신하 수십 명 중에서그 순절(殉節)이 가장 나타난 사람은 동래부사 송 상현(宋象賢)과 부산점사 정 발(鄭廢)이고 다대포는 윤 흥신공(尹興信公)이 있으니 이가동래지방의 순절신(殉節臣)이 된다. 동래부(東萊府)의 사람들이 충렬사(忠烈祠)를 세워 송공(宋公), 정공(鄭公) 두 분을 제사(祭祀)지내고 윤공(尹公)은 집에 정포(旌褒)하였다.

처음 왜적이 부산을 함몰(陷没)시키고 병졸을 나누어 다대포를 포위 (包圍)하니 공(公)이 힘을 다하여 이를 물리쳤는데, 군사(軍事)가 앞 에 나와서 말하기를 「적이 반듯이 죄다 이르게 될 것이니 피하는 같지 못합니다.] 함으로 公은 꾸짖기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하였다. 이튼날 적병(賊兵)이 많이 모여드니 마침내 우리 군대가 무너졌다. 公은 외로이 종일토록 적을 쏘았지마는 성(城)이 함락되므로 순절(殉節)하였다 그 후에 팔곡(八谷) 구 사맹공(具思孟公)이 조망록(弔亡錄)을 만들어 그 사적을 매우 상세히 기록했다 한다. 公은 찬성(贊成) 윤 임(尹任)의 아들로서 형제가 여섯 (六人) 이나 되는 데 그중 셋 (興仁, 興義, 興禮) 은 을사년(乙巳年) 사화(士禍)에 참여(參與:피살)하게 되었다. 가 다대진에 부임할 적에 서제(庶第) 흥제(興悌)가 따라 왔는데, (賊)이 公에게 다가와서 시퍼런 칼날이 마구 쏟아지니 흥제는 公을 ्} 고 함께 죽었는데 손으로 단단히 취고 끝내 놓아주지 않으므로 _마침내 한 관(棺)에 시체를 넣어 매장(埋葬)했으니 어찌 그렇게도 기이 (奇 異)하고 장렬(壯烈)했던가. 그후 백여년(百餘年)에 나의 선대부(先 大夫) 께서 동래부사가 되고 잇달아 일본에 사신으로 갔기에 公의 사적(事 蹟)을 매우 자세히 알고서 그가 宋公과 鄭公의 사당(祀堂)에 빠뜨려져 있음을 민망히 여겨 이 사실을 조정(朝廷)에 아뢰었더니 오랜 후에 일

이 마침내 시행(施行)되었다. 이 해문공(李海文公)은 사신의 중사관(從事官)이었는데 이 다대포진에 부임하므로 선대부(先大夫)께서 公의 사적을 기록하여 주었더니 이미 벽에 게시하고 또 장차 비석(碑石)을 세우려고 했는데 마침 해문이 관직을 떠나갔다.

그 후에 다대포진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리(事理)에 통하지 않는 관리(官吏)이므로 이런 일을 이야기 할 수도 없었다. 불민(不民)한 내가 일짜기 李公의 비석을 찾았으나 다대포진 사람이 아는 이가 없기에 이 역사(役事)가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이 글을지어 사모(思慕)한 이가 이공(李公)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보국중록대부(輔國崇祿大夫)관돈녕부사(判敦寧夫使) 겸이조판서(吏曹判書) 관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조진관(趙鎭寬)은 찬술(撰述)함·

종응(鐘應)이 동래부사로 부임할 적에 지금 상국(相國:政丞) 운석(雲石) 조공(趙公)이 나에게 송별(送別)하면서 말하기를 「동래부에는 충렬사(忠烈祠)가 있는데 옛날에 宋象賢, 鄭巖 두 신하를 제향(祭享)하고 있었다. 그곳에 尹公(興信)까지 제향한 것은 나의 선대부(先大夫)부터 시작했으며 선군자(先君子)께서 실제 그 사적(事蹟)을 기록했는데 애석하게도 비석의 각문(刻文)이 지금까지 빠뜨러져 있으니 그대가 나를 위하여 이를 도모(圖謀)해 주오」 하였다.

내가 이곳에 부임해서 유적(遺蹟)을 감염(感念)하여 빨리 비석을 다듬어 세우게 되었다. 아마 퇴폐(頹廢)된 제도를 개수(改修)하고 유일(遺逸)된 사적(事蹟)을 보충하는 것은 대개 雲石이 允代의뜻을 능히 계승하였고, 충신(忠臣)은 천양(闡揚)하고 절사(節士)를 표창하는 것은 또한 책임이니 마침내즐거이함께 성사(成事)시키게 된다.

중정기원후(崇槙紀元後) 네 번째 신축년(辛丑年:憲宗七年 1841年) 四月 日 知府 洪鐘應은 씀.

○ 僉使 尹公與信殉節碑 碑文

昔在龍蛇之變 東萊首嬰其鋒 環東萊鎮 守之臣十數 其殉節寂著者 地主宋象質 釜山鄭撥 多大浦則尹公興信 是為東萊殉節臣 府人立忠烈詞 紀宋鄭兩公公則龍旌于家 始倭陷釜山 分兵圍多大 公力却之 軍吏進曰 賊必悉至 莫伽避 公叱曰 有死而己 明日賊大集 軍遂潰 公獨終日射賊 賊城陷死之 其後八谷具公思孟 為用囚跡 記事甚備云 公贊成之子 兄弟八人其三人者 與於乙己之禍 其赴鎮也 有庶弟 興悌從焉 及賊逼公 白刃亂下 興悌抱公同死 握固終不釋 遂同棺而窆 何其奇且烈也 後百有餘年 我先大夫守萊府 繼泛東槎和 公事甚熟 愍其闕拾宋鄭之祠 白于朝 久之事竟旌 李俟海文 槎上客也 及莅此鎮 先大夫記公蹟與之 旣揭壁 又將竪碑 會海文去官 其後守鎮者 皆谷吏不足語 此事不侫 甞訪李俟之石 而鎮人無知者 懼斯役之不成作此文 竣士慕義知李俟者云 輔國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義府事知經筵春 秋舘事 趙鎮寬撰 鐘應出守萇山 今相國雲石趙公贈之以言曰 萊府有忠烈祠 舊享宋鄭兩臣其垃廢 尹公自吾先大父始先君子實紀其事 惜貞珉之刻 尚此闕焉子其爲我圖之 及莅是地 感念遺蹟 函伐石以竪 噫修墜典補事 盖雲石 所以克濟先志 闡忠表節 亦守臣責 遂樂興之成 崇祯紀元後四辛丑四月

知府洪鐘應書



< 尹公석상 >

4) 정운공 순의비(鄭運公 殉義碑)



< 순의 비 >

o 종 류:부산시 지정 문화재 기념물

지정번호:제20호

ㅇ 지정년월일:1972년 6월 26일

ㅇ 재 료:화강석(化崗石)

o 규 격:높이 172 cm, 넓이 69 cm, 두께 22 cm

이 시 대:조선시대

소 재 지:사하구 다대동 산 144

1952년 9월 1일(음력) 이 순신(李舜臣)장군은 부산포 해전 (海戰)에서 왜적선(倭賊船) 500여 척(隻)과 싸워,100여 척을 격파 (擊破)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이 순신 장군 함대의 우부장(右副將)으로 가장 큰 공을 세운 녹도만호(鹿島萬戶) 정 운 (鄭運)장군은 선봉으로 끝까지 적선(賊船)을 쳐부수다가 순절 (殉節)하였다.

이 비석은 1798년(正祖 22年) 충장공 정 운 장군이 전사하였다고 전하는 바다 근처인 몰운대 위에 公의 공덕(功德)을 추모(追慕)하기 위하여 세웠으며,이조판서(史曹判書)민 종현(閔鍾顯)이 비문(碑文)을 찬술(撰述)하고 훈련대장(訓練大將)서 유대(徐有大)가쓴 것이다. 비면(碑面)에는 「忠臣鄭公運殉義碑)라는 8字가 적혀있고,비음(碑陰)은 18행으로 公의 순절사적(殉節事蹟)을 상술 (詳述)하고 있다.

이 비석은 정 운公의 8대손(八代孫) 정 혁(鄭爀)이 다대첨사가되어 그 임지내(任地內)의 명소인 몰운대를 택하여 세운 것이며, 비문에는 정 운공(鄭運公)이 선봉(先鋒)으로 몰운대 아래에서 왜적(倭賊)을 만났을 때 몰운(没雲)의 운雲자가 자기 이름字인 운雲자 음이 같음을 알고 이 곳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분전(奮戰) 하다가 순절(殉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비각(碑閣)은 1974年 부산시에서 건립(建立)하였다.



< 鄭運將軍碑閣 >

○ 萬戸 鄭運의 沒雲臺 殉義碑記

동래부의 몰운대란 곳은 고(故) 녹도만호(鹿島萬戶) 병조판서 (兵曹判書)에 추증된 정 운공(鄭運公)이 순절(殉節)한 곳이다. 公이처음 녹도만호로 임관(任官)되었을 때에 왜적(倭賊)이 온 나라의병력(兵力)을 동원하여 침입해 와서 먼저 영남(嶺南) 지방을 함몰(陷没)시키니 임금께서 사태의 금합을 듣고 서쪽 용만(龍灣:義州)에 몽진(蒙塵)하여 피납하셨다.

이 때 충무공(忠武公)이 순신(李舜臣)이 전라좌도수사(全羅左道水使)였는데 소속진영(所屬鎭營)의 장수(將佐)를 모아 일을 모의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으나, 公만이 홀로 분연(奮然)히 이충무공에게 청하기를 「지금 왜병이 영남지방을 함몰시켰는데도 앉아서보기만 하고 구원(教援)하지 않으면 이는 적을 스스로 자초(自招)하는 일입니다. 왜병이 우리 지경(地境)에 이르기 전에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를 친다면 군사의 기세가 왕성하고 또 우리의 수비(守備)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임금께서 몽진(蒙塵)을 하고 계시니,이 때야말로 꼭 왕께서 치욕(耻辱)을 당하매 신하가 목숨을 바쳐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마땅히 한번 죽음으로써 여러장수들의 선봉(先鋒)이 되겠읍니다.」하니 이 충무공께서 그 말을 장(壯)하게 여겨 그 계책에 따라 그날 여러 군대에서 영(令)을 내려배를 타고 영남(嶺南)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왜적의 배를 옥포(玉捕:巨濟島)에서 만났는데 우리 군사가 처음 적병(賊兵)을 보고 감히 먼저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공(公)이 노(櫓)를 빨리 젓게 하고 북을 울리면서 여러 장수들 앞에 나서 서 칼을 휘두르며 군사를 독려하니 군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적의배 50여 척을 부수어 이를 불태 워 버렸다. 앞으로 나아가 사천(泗川)에 이르러 적의 배를 부순 것 이 전후에 근(近) 백(百)척이나 되었는데 싸울때마다 반드시 제일 먼 저 적의 배에 올라 선창(先倡)이 되었다.

또 나아가 적병을 고성(固城)과 거제(巨濟)사이에서 만났는데, 기세(氣勢)가 매우 강성(强盛)하므로, 公은 이 충무공에게 청하여 적병을 유인하여 한산도 큰 바다로 오게 하고는 깃발을 휘두르고 노를 되돌려 저어 직에게 육박하니 북소리는 비디에 진동하고 희살은 공중에 꽉차고 비오듯 쏟아졌다. 적이 접을 먹고 기운이 빠져서 감히 싸우지 못하므로, 마침내 분발하여 적을 쳐서 크게 무찌르고 그 배를 다분 태웠으니, 왜적의 침임이 있은 이후로부터 전승(戰勝)의 성대 (盛大)합이 아직 이와 같음이 없었다.

전승의 소식이 조정에 들리니 임금께서 公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 으로 임명하고 장차 크게 임용하려고 하였다. 公은 그 공로를 소유하 지 않고 더욱 뜻을 가다듬어 적을 토멸(討滅)하려고 부산으로 나아 갔다. 부산에 이르기 전에 적(賊)을 몰운대(殺雲台) 아래에서 만났 는데 공(公)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더니 몰운(没雲)의 운자(雲字) 방음(方音)이 공(公)의 이름字인 운(運)과 서로 같은 것을 깨닫고 는 이내 자신(自身)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서 군사(軍事)를 지 시(指示)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적(賊)에게 알려서 기운이 나게 해서는 안된다"하였다. 때마침 해가 저물고 바람이 세차게 부니 장령(將領)들이 물려가려고 하는데 공(公)은 즐겨하지 않으면서 말 하기를 "나는 이미 적(賊)과는 맹세코 같이 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고는 마침내 전진(前進)하여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빗나간 (彈丸)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이 공(公)이 공(功)을 세우 고 자신(自身)을 죽인 대략(大略)이다. 아아 공(公)이 평상시(平 常時) 에 있어서 자신(自身)을 나타내지 않아서 관직(官職)이 가장 낮 았으나 그가 국난(國難)을 당해서는 분발(奮發)하여 언사(言辭) 가 장렬(壯烈)하고 의리(義理)가 엄정(嚴正)하며 계책을 결정하 여 용감(勇敢)히 악장서서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고서

적(賊)의 예봉(銳鋒) 을 꺾고 국난(國亂)을 막으니 그 중흥(中興)의 위 업 (偉業) 으로 말하면 비록 그 몸이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그 공로 (功 勞)를 누구와도 겨눌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 당(唐)나라 장순(張巡) 과 허 원 (許遠)은 휴양(睢陽)의 한 성(城)으로써도 강회지방 (江淮 地方)을 막아내고서도 마침내 자신(自身)이 사절(死節)하였는데 론 (評論) 하는 사람이 "天下가 멸망 (滅亡) 하지 않은 것은 이 두사람 의 힘이다"라고 했으니 뒷날의 이충무공(李忠武公)과 공(公)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장순(張巡)과 허 원(許遠)의 아래에는 두지 않을 것이 다. 공(公)의 관직(官職)이 낮은데도 능히 일을 맨 먼저 일으킨 것은 기이 (奇異) 하고 특별히 뛰어난 비상 (非常) 한 선비라 할. 수 있겠다. 지금 임금(正祖) 이십년(二十年), (1796)년에 교지(教旨)를 내려 공(公)의 충성(忠誠)과 용맹(勇猛)을 보창(褒彰)한 것이 무릇 수 백자(數百字)나 되어 화하게 드러냄이 해와 별처럼 되었으며 인하여 공 (公)의 팔세손(八世孫) 혁(爀)을 찾아서 관등(官等)을 뛰어 올려서 다대진첨사(多大鎭僉使)로 임명(任命)하였다. 다대진(多大鎭)은 동 래부 (東萊府) 의 땅에 있고, 몰운대 (没雲台) 는 그 관할구역 (管轄區域) 이 되었는데 혀(爀)이 이내 도임(到任)해서는 옛날의 사적(事蹟)을 발휘 (發揮) 해서 조정 (朝廷) 에서 충신 (忠臣) 을 현창 (顯彰) 하는 특 수 (特殊) 한 은전 (恩典) 을 나타내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이에 몰운대 (没雲台) 위에 비(碑)를 세워 그 당시(當時)의 사적(事蹟)을 써서 이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용동(聳動)하도록 하려고 서신 (書信) 을 급히 서울에 보내어 나에게 비문(碑文)을 청하였다. 아아 공(公)은 열렬(烈烈)한 장부(丈夫)이다. 생각컨대 그의 영웅다운 혼령(魂靈) 과 굳센 기백 (氣魄)은 육신 (內身)의 죽음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고 해 상 (海上)의 사이에 서리고 얽혀서 바람과 번개를 몰아와서 작은 고기를 삼켜 먹은 고래 (惡人의 괴수)를 베어 잘라서 항상 대마도(對馬島)와 강호 (江戶 : 東京)를 차서 던져버리는 기세 (氣勢)가 있는 듯 하였다.

몰운대(股雲台)는 곧 해상(海上)의 한 작은 언덕이지만, 그러나 병란(兵亂)이 종식(終息)된 2백년후(二百年後)에도 이 곳을지나면서그 당시(當時)의 위대한 공열(功烈)을 추상(追想)한다면 다만 이이 한 조각의 비석(碑石)이 남극(南極)의 동주(銅柱)가 되어 오랑 캐들로 하여금 스스로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의 모퉁이가 청구히 튼튼하게될 것이니 어찌 다만 순절(殉節)한 곳만 될 뿐이겠는가. 마침내 써서 사적을 기록(記錄)하였다.

崇禎紀元後 세번 째 戊午年(1798年) 三月八日

崇政大夫 行吏曹判書 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五衛都 擦府都擦官 閱鍾顯은 글을 짓고.

訓練大將 嘉義大夫 兵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訓練院都正 徐有大는 글을 씀.

鄭萬戸 沒雲臺殉義碑記

東萊之没雲臺者 故應島萬戶 贈兵曹判書 鄭公蓮殉義之地也 公始任應島倭賊 領國來寇 先陷嶺南路 上聞警急 西辛龍灣 以避之 時李忠武公舜臣 爲湖南左 道水使 會屬鎭及將佐 與計事 衆各異見 公獨奮然 請于李公曰 今賊陷嶺南而 坐視不救 是行自及也 賊未至吾境 而急引兵擊之 士氣可壯 亦所以固吾守也 况今君父蒙廛 此正主辱臣死之秋 我當以一死 爲諸將先 李公壯其言 而從其策 即日下令諸軍 乘船向嶺南 遇倭船於玉浦 我師初見賊 莫敢先試其鋒 公促 櫓鳴鼓出諸將先 擊劍勵士 士無不殊死戰 遂破其五十餘艘而焚之 進至泗川 破賊船 前後近百艘 戰必先登 爲之倡 又出遇賊於固城巨濟之間 氛甚盛 公請於李公誘賊之閑山大洋 摩旗回櫓 以與賊薄 枸鼓盪海 矢石彌空 賊氣奪不敢戰遂奮擊大破之 盡燒其船 蓋自寇亂以後 剋捷之盛 未之有也 報聞行朝 上超援折衝將軍 將大用之 公則不有其功 益勵志滅賊 趨進釜山 未至 遇賊于没雲臺下 公忽心動覺 没雲之雲 方音與公名相似 因自盡必死 處置軍事曰 我死 勿

令賊知而生氣會日暮風急將領欲退公不肯曰 吾己與賊誓不俱生矣 遂進力戰中流丸以没 此爲公立功殉身之大略也 嗚呼 公之在平時 不自表見 官最卑及其臨亂奮發 辭壯而烈 義嚴而正 決計倡勇 至死不悔 用能摧賊鋒 而捍國亂以其中興之偉績 雖其身先預 而功莫與爲倫 昔唐之張巡許遠 以一睢陽 而藩 蔽江淮 卒以身死之 議者 以天下之不亡 爲二人之力 後之視李公及公者 必不在張與許之下 若公之微 而能首事 尤可謂奇偉特絕非常之士也 今上二十年 下教 褒公忠勇 凡數百言 昭揭若日星 仍訪公之八世孫爀 超援 多大鎮僉使 鎮在萊府地 臺爲其所營 旣至 懼無以發揮舊蹟 以揚朝家顯忠之殊典 於是 將竪碑臺上 特書當時事 俾觀瞻咸聳 馳書至京師 徵余爲文 噫公烈丈夫也 意其英靈毅魄 不隨死而亡 蟠結於海山之間驅 駕風霆 斬截鯨鯛常若蹴馬島搗 一江戶之氣 臺即海上之一小阜爾 然於息兵二百年之後 過是也而想其人之偉烈 則惟一片石 爲南極之銅柱 使蠻夷自聳 海遇永鞏 豈但爲殉義之地而已哉 遂書以記之

崇禎紀元後 三戊午 三月八日也

崇政大夫 行吏曹判書 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五衛 都摠府都摠管 閔鍾顯撰

訓鍊大將 嘉義大夫 兵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訓鍊院都正 徐有大書

5) 몰운대(沒雲臺)

ㅇ 종 류:부산직할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ㅇ 지정 번호:제27호

ㅇ 지정년월일: 1972년 6월 26일

ㅇ 면 적:약 506.184 ㎡

ㅇ 소 재 지:사하구 다대동 산 114



< 몰 운 대 전 경 >

다대동(多大洞)에 있는 몰운대(投雲臺)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남쪽으로 돌출한 얕은 산을 말한다. 우거진 숲과 깎아지른 절벽, 출렁거리는 창파(滄波)의 전망은 해수욕장과 함께 예로부터 경승지(景勝地)로 유명하다. 몰운대는 낙동강 하구(河口)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16세기(世紀)까지는 몰운도(投雲島)라는 섬이었으나,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토사(土砂)가 쌓여 다대포와 몰운도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몰운대의 지명은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에는 이 일대가 그 기류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 이름이 불려 왔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부산포(釜山浦) 해전(海戰)에서 중군장 (中軍將)의 직책을 맡은 정 운(鄭運) 장군이 [몰운대]의 [운(雲)]자는 자신의 이름자와 음이 같다고 하여 장렬히 싸우다 전사(戰死)한 곳으로 그 당시의 사적(事蹟)을 적은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가 있으며, 또 다대포객사(多大浦客舎)가 이전 복원되었다.

물운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自然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무인도 (無人島) 중에는 낙동강 칠백리 물길따라 내려온 사토(砂土)로 형성된 대마

등도와 장자도, 부산의 제일 끝에 해당되는 남형제도, 북형제도, 목도가 있 있다. 그리고, 몰운대를 둘러싸고 있는 동호섬, 쥐섬, 모자섬, 자섬,동섬 팔봉섬, 금문도 등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한층 돋보이게 보여줘 옛부터 시인(詩人), 묵객(墨客)의 제영(題詠)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몰운대의 지형(地形)은 학이 날아가는 형상(形狀)을 하고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래한 시(詩)가 동래부지(東萊 府誌)(동래부사 李春元의 詩)에 전한다.

> 浩蕩風濤千萬里 白雲天半没孤台 扶桑曉日車輸赤 常見仙人賀鶴來

「호탕한 풍랑 천만리에 흰구름 덮히니 외로운 몰운대는 사라지고,동쪽하늘 둥근 아침 해는 늘 선인(仙人)이 학(鶴)을 타고 오는 것만 같구나.」

몰운대의 아름다운 자연 절경(絶景)은 해안변의 기암괴석(奇岩怪石)과 수목으로 그 빚을 더해주고 있다.

이 곳의 대표적인 나무는 해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에 상록 활엽수(常綠闊葉樹)로 섬음나무, 후박나무, 다정큼나무, 사철나무,동백 나무, 사스레피나무, 섬쥐똥나무, 봄보리수나무, 송악, 마삭덩굴 등이 자라고 있다. 그 외에 낙엽 활엽수(落葉闊葉樹)로는 굴피나무,때죽나무, 가새뽕나무, 붉나무, 자귀나무, 참나무등 약 90여종(種)이 산재해 있다.

몰은대는 다대팔경(多大八景;峨嵋半月,夜望漁唱,南林宿霞,没雲觀海,三島 <취섬,고리섬,솔섬>歸帆,花孫落照,八峰奇岩,頭松晚翠)중 가장아름다운 곳으로 다대포 해수욕장과 더불어 우리 고장 사하의 유명한 명승지로 이름난 곳이다.

현재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바닷가 유원지로 개발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6) 다대첨사청갑주(多大僉使廳甲胄)

- o 종 류: 부사시 지방민속자료
- o 규 격:길이 115, 폭 125 cm
- ㅇ 재 료:전(氈), 무명, 융단(絨緞), 모(毛)
- 이 시 대:조선시대
- ㅇ 소재지 : 동래구 아락동 838 번지

충렬사 기념관

다대포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서평포진을 함락하고 다대포진으로 몰려와 첨사(僉使)윤 흥신(尹興信)과 격전을 벌이던 곳이다.

이곳의 첨사영은 현 다대포국민학교 내에 있었으나, 1970년 이 첨사영을 몰운대(投雲台)에 이전 복원할 때 갑옷이 발견되었다.

이 갑옷은 윤 흥신첨사의 제향(祭享)때 제복(祭服)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모형이나 제작방법, 재료의 쓰임새 등이 견고 하고 튼튼한 것으로 보아 실전(實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 투복(戰鬪服)과 예복(禮服)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형태는 겉(表) 안(內) 속(裏)의 세 겹으로 구분되고, 속에는 화살, 칼 등 방패용 동판(銅版) 995개가 고기 비늘같이 엮어져 있으며, 외부에는 원형동파으로 장식되었다.

규모는 전장 115 cm, 폭 125 cm, 장식용 원형동판(圓形銅板)직경 2.3 cm가 43개, 1.2 cm가 935개, 2.5 cm가 15개, 견장(肩章) 용조각 2개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 동판의 숫자로 다른 갑옷의 배(倍) 이상이 된다.

겉감은 홍색전모(紅色氈毛), 안감은 흰색무명으로, 겉과 안과의 사이인숙(裏)은 담청융단(淡靑絨緞)으로 제작되었고, 옷을 장식하는 짐승의털(襸用獸毛)은 갑옷 가장자리 전부를 너비 8 cm, 길이 1,000 cm로 우아하고 견고하여 선인(先人)들의 섬세한 정성을 엿볼 수 있다.



<多大僉使廳 甲胄>

이 갑옷의 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고 임진왜란 당시 객사가 불타 소실 (消失)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순조 25년 (1825년)에 중수(重修)한 것이다.

1970년 부산시가 이건(移建)할 때 갑옷이 발견되었으므로 18세기 중반에 제작되어 객사를 건립할 때 함께 보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발견이후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78년 충렬사에 보관되고 있으며,조선시대의 복장사(服裝史) 및 민속자료(民俗資料)로 가치가 높다. 현재충렬사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1981년에 복원제작된 모조품이다.

7) 응봉봉수대(鷹峰烽燧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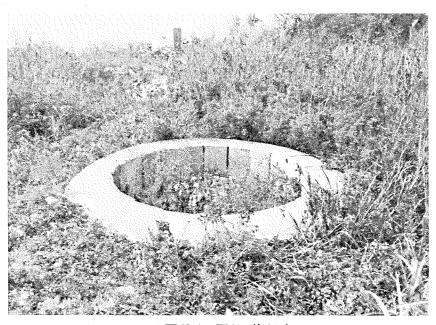
ㅇ 종 류:지정 이외의 문화재

이 소재지:사하구 다대동 두송산

봉수대 (烽燧台)는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통신시설 (通信施設)이다. 봉수는 변경지방 (邊境地方)에서 일어난 긴급한 정황 (情況)을 중앙 또는 인근의 군사기지에 알리는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 사용된 것이다. 대략 2~30 리의 거리를 두고 후망 (侯望)의 요지가 되는 산봉우리에 봉수대 (烽燧台:烽火台,煙台)를 두어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낮에는 연기를 내어 인근의 봉수대에 연락했다. 평시에는 일거 (一炬,낮:一煙),적이 나타나면 2炬(二煙),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炬(三煙),경계를 침범하면 4炬(四煙),적과 접전(接戰)하면 5炬(五煙)로 차례로서울까지연락하였다.

영남은 다대포가 출발점이 되어 동래 횡령산(荒嶺山)을 거쳐 영천, 안동, 충주를 경유 광주(廣州)를 통하여 최종점인 서울 남산까지 이 신호는 전해졌다.

봉수대는 국가의 중대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수령(守令)이 봉수군(烽 燧軍) 후망(侯望)의 실태를 감독하고 이와 연대책임을 졌다.



<頭松山 鷹峰 烽燧台>

다대포 응봉 봉수대에 도별장(都別將) 1人을 두었고, 그 밑에 별장(別將) 6명을 두었고, 감고(監考)는 1명, 봉군(烽軍)은 1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봉수대를 관할하는 기관은 다대진(多大鎭)이었다.

다대포 응봉 봉수대를 비롯 황령산(荒嶺山), 계명산(鷄鳴山), 간비오산(干飛烏山), 구봉(龜烽), 오해야(吾海也), 석성(石城)등 7개의 봉수대는 임진왜란 때 왜군(倭軍)의 침입시에 그 기능을 발휘한 바도 있어서 이 유지(遺址)는 국방의식의 앙양(昂揚)이란 점에서 중요시되는 문화유산이다.

다대포 봉수대는 1977년 수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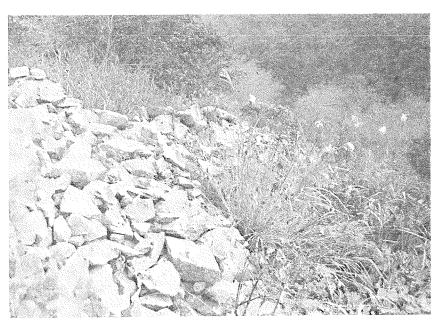
8) 목장성지(牧場城址)

옛날 괴정동(槐亭洞)에는 목장이 있었다. 동래부지(東萊府誌)에 나오는 목장리(牧場里)가 바로 괴정이다. 그 시대의 목장은 군마(軍馬)를 길러 나라에 바치던 곳인데 부산에서는 영도(影島)에 규모가 가장 큰목장이 있었으며, 낙동강구 동안지역에서는 괴정동을 비롯 하단, 감천, 신평, 장림, 다대동 등 곳곳에 있었고, 대개는 다대첨사(多大僉使)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한 때가 많았다. 특히 다대포 관하의 목장으로는 괴정동 목장이 가장 규모가 컸던 모양이다. 그래서 괴정동을 목장리(牧場里)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의 희망촌(希望村) 일대를 마필(馬谷)이라고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장리란 괴정동 뿐만이 아니라 당리(堂里),하단(下端)까지 포함한 것으로 다만 그 중심이 괴정동이었던 것이다.

괴정동에서 언제부터 말을 길렀는 지는 알 수 없다. 하여간 목마장으로서의 시설은 일제시대까지도 목책(牧柵)이 남아 있었다고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의 저자인 도갑현경(都甲玄卿)이 말하고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확실한 시설로는 목장성(牧場城)이 남아있다. 이 목장

성은 목마성(牧馬城) 혹은 국마성(國馬城)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축성연대는 알 수 없다. 석축으로 된 이 성은 현 대티(大峠)고개에서 시작하여 당라 (堂里) 뒷산까지 약 3㎞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완선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희망촌 동쪽 산골에 있는 것이다. 두께 8척(尺)에 높이 8 ~ 12척의 단단한 성이며,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은 성이므로 지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 성지에서도 역시 신라토기편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혹시 그 전부터 쌓여진 성을 후에 목장성으로 수축(修築)했는 지도 알 수 없다. 하여튼 여기에서 길러진 말은 백작포, 또는 모치포란 곳에 가서 헌상했다고 전해지는데 모치포란 모지포(毛知浦)라고 적히며, 모짓개라는 말로 현재의 혈청소(血精所) 옆의 부락이름이다.



〈牧 場 城 址〉

9) 제석공 성지(帝釋谷城址)

당리동(堂里洞)에는 제석골(帝釋谷)이라고 부르는 계곡이 있다. 이 명칭은 제석단(帝釋壇)을 쌓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붙여진 듯하며, 일설에는 제석골에 사당(祠堂)을 짓고 여신(女神)을 모신데서 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말 이곳에 기우소(祈雨所)가 있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동래부지(東萊府誌)의 승악산(勝岳山) 기우소(祈雨所)라는 말과 일치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제석사(帝釋寺)라는 절이 있고 기우제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한다. 이 절부근에서는 고려시대의 목엽지와편(木葉之瓦片)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별다른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석단(麋石壇)도 있어 민속학(民俗學)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 누 석 단 >

제석(帝釋)이란 불교 용어로 제석골이란 이름이 붙은 곳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런 곳에는 대개 기우제단(祈雨祭壇)이 있다. 가까이서는 아치섬을 제석곶(祭釋串)이라고 하며 여기에도 역시 기우소가 있었다.

이 계석곶의 주변에 쌓인 석축이 바로 제석곶 성인 것이다. 제석곶 성은 동래부지(東萊府誌)의 성곽조(城廓條)에 기록되어 있어 성축인 것이 분명하며, 삼포왜란(三浦倭亂)으로 말미암아 동래진(東萊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폐지한 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0) 윤공(尹公) 제영(題詠)

(1) 제영(題詠) 개요

영조 42년(1766년) 동래부사 강필리(姜必履)는 순영(巡營)에 장계(狀啓)를 올려 추향의 허가를 받고, 송공단(宋公壇)에 추향하는 제레(祭禮)를 올릴 때에 인근의 관장(官長)들에게 율시(律詩)의 운(韻:垂,悲,兒,疑,祠)으로써 제영을 청하여 모인 글이다. 현재 충렬사지(忠烈祠志)에 실려 전해 오고 있다.

(2) 제영(題詠)

- ① 첨사(僉使) 이해문(李海文)
 - 追憶尹將軍有感

龍蛇의 일을 말하려니 눈물이 앞서고,

孤城의 옛일은 더욱 마음을 슬프게 하는구나.

한 주먹으로 北虜를 죽인 사람은 있어도

雙傳을 세워 南쪽 사나이를 싣는 선비는 없었도다.

충성을 다한 魂은 억울하게 덮여 긴 무지개를 토하고,

싸움터는 창망하여 돌아가는 鶴이 의심하도다.

재 넘어 때때로 風雨소리가 울려오니

아마도 宋公祠에 오락가락 함이로고.

龍蛇欲說淚先垂 往事孤城益惋悲 人有隻拳捐北虜 士無雙傳載南兒 忠魂掩抑長虹吐 戰地蒼茫返鶴疑 隔嶺時時風雨響 也應來去宋公祠

② 전봉사(前奉事) 원 중거(元重擧)

o 和李節制詠尹將軍韻

몰운대 위에는 뭇 별이 드리운데 회원관(懷遠舘) 안에는 조각들이 슬프구나. 天地間에 大義를 보는 사람은 있어도 예나 지금이나 男兒의 이름을 記錄한 비석은 없도다. 풍진(風塵)이 혼돈하매 忠臣을 볼 수 있고 산과 물이 높고 맑으니 古壘가 의심스럽도다. 문헌을 늦게사 僧舍(梵漁寺施食册)의 말에서 引徵하니 短禄으로 누구나 國鴉者의 祠를 일으킬고.

投雲臺上衆星垂 懷遠館中片月悲 天地有人看大**義** 古今無石記男兒 風塵澒洞忠臣見 山水高清古壘凝 文獻晚徵僧舎語 短椽誰起國殤祠

③ 울산부사(蔚山府使) 조 재선(趙載選)

0 和 韻

절간(祗林)의 殘簡에 아름다운 이름을 드리우니 비내리는 孤城(외로운 성)에 울분이 슬프도다. 꿩이나 토끼처럼 모든 壯士들은 흩어져 도망가는데 熊魚(선택 분간할 줄 안다.)를 분간하여 취한 큰 남아가 있었도다. 푸른 바다에 원한의 물결을 사람들이 누가 민망히 여길 것이냐. 鋒鏑에 쓰러진 哀魂을 세상에서 혹은 의심하기도 하는, 百年을 泯沒하여 芬茲도 늙었는데 介山 어느 곳에서 그 遺祠를 물을 것인가. 祇林殘簡美名垂 靈兩孤城鬱憤悲 雉兔分逃諸壯士 熊魚辦取大男兒 滄溟寃浪人誰愍 鋒鏑哀魂世或疑 泯没百年芬苾老 介山何處問遺祠

④ 동래부사(東萊府使) 강 필리(姜必履)

o 奉 和

公의 이름이 아직 碑石(貞珉)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百世의 孤忠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도다.

亂에 다달아 어찌 참되고 바른 義士가 없으리오.
목을 죽여 능히 남아의 의기(義氣)를 저버리지 않았도다.
古城에 물결이 움직이니 유령이 울고
창(戟) 꺽인 沙場이 침몰하니 옛 자취가 의심스럽게 되었도다.
靖遠樓 빈 터전에 星月이 밝았는데.
舊壇에올려 服食하니 문득 新祠가 되었도다.

公名未向貞珉垂 百世孤忠衆所悲 臨亂豈眞無義士 殺身能不負男兒 古城波撼幽靈泣 折戟沙沈往蹟疑 靖遠樓墟星月白 舊壇醱食使新祠

⑤ 관찰사(觀察使) 정 존겸(鄭存謙)

• 和 韻

죽은 사람을 조위(吊慰)하는 사고(詩稿)가 百年에 걸쳐 있으니 칼이 重泉(日本)으로부터 나와 한번 침이 슬프도다. 옛적부터 목숨을 던지면 모두 烈士가 되느니 지금에 이르러 죽지 않는자가 진정 男兒이로다. 遺壇에는 바람이 소조하고 물결이 크게 起伏하는데 옛 城堞에서 구름이 머흘어 陳馬가 의심하도다. 지난날 事蹟은 焚魚寺에 永遠히 간직되어 있으니 三忠(宋公,鄭公,尹公을 말함)은 다른 날 정녕코 같은 祠院에 享祀될 것이로다.

吊囚詩稿百年垂 劒出重泉一擊悲 從古捐生皆烈士 至今不死是男兒 遺壇風肅波鯨伏 舊堞雲屯陳馬疑 往蹟梵魚經切在 三忠他日定同祠

⑥ 성현찰방(省峴察訪) 강 완(姜宗)

0 和韻

尹公의 偉節은 뒷 세상에 전해져야 할 것인데 문혀서 전해지지 않으니 志士가 슬퍼하였다. 厲鬼가 되어서도 오히려 능히 醜虜를 섬멸하여 君恩에 보답하니 진정 男兒의 義氣를 저버리지 않았도다. 荒城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軍聲만 있는데 滄海에는 파도가 달리니 陳勢를 의심하도다. 이제 雄篇을 얻어 壁에다 걸게 되니 表揚함에 어찌 新祠 일으키기를 기다리리요.

尹公偉節後堪垂 湮没無傳志士悲 爲厲猶能殲醜虜 報君眞不負男兒 荒城木落軍聲在 滄海濤奔陳勢疑 今得雄篇仍揭壁 表揚何待起新祠

⑦ 김 제윤(金濟潤)

0 和 韻

沒雲臺 옛 城堞에 夕陽이 드리웠는데 물결은 千秋에 울어 슬픔이 다하지 않구나. 큰 자취는 사라지지 않아 野老들에게 徵할 수 있고 남은 위세는 아직도 힘입어 蠻兒를 慴伏할 수 있도다. 張巡의 效節은 唐나라 臣下를 권장하였으나 紀信을 旌表하지 않음은 漢史의 疑案이로다. 崇報함이 어찌 일찍 壇祭에 配序함에 그치리요. 다른 때에 安樂原의 祠院에 함께 腏食케 할 것이로다.

役雲殘堞夕陽垂 波咽千秋不盡悲 懿跡未湮徵野老 餘威猶仗慴蠻兒 張巡効節唐臣勧 紀信無旌漢史疑 崇報豈曾壇配止 他時同輟樂原祠

⑧ 자인현감(慈仁懸監) 정충언(鄭忠彦)

o 話 韻

파도 맑은 동래 바다에 달과 별(尹公비유)이 드리웠으니 백년 동안 폐허로 전해 오는 다대포의 흔적을 어루만지니 슬프구나. 옛날 睢陽땅에 두 節士(宋·鄭公비유)있었음을 아노니, 이제 南八(尹公에 비유)한 남아를 더 하였구나. 단 위에 모신 영혼이 함께 흠향하시어 전날의 美學를 세상에 알리노니 野史에 전하는 글을 징험하여 흥신공의 민몰된 의심이 풀렀도다. 이로서 그 높은 이름은 金井의 멧부리와 가지런하고 동래읍의 사람들이 한 사당에 모시지 못하였던 애석함을 잊었도다.

被澄萊海月星垂 百載遺墟撫跡悲 舊識睢陽雙節士 今悉南八一男兒 壇靈合醱揚前美 野史徵文破宿疑 從此高名齊井嶽 邑人休惜未同祠

2.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 낙동강하류(洛東江下流) 철새도래지(到來地)



<철새 도래>

o 종 류: 천연기념물

o 지정번 호: 제179호

ㅇ 지정녀월일: 1966 년 7월 13일

○ 면 적:약127,000,000 ㎡(공유수면포함약247,000,000 ㎡)

○ 소 재 지:사하구 다대동 ~ 북구 금곡동까지의 낙동강 하류일대

우리나라의 최남단 사하구 다대동에서 장립동, 하단동을 경유하여 북구 금곡동에 이르기까지, 또 서쪽으로는 북구 명지동과 경상남도 김해군 및 의창군을 포함한 광활한 낙동강 하류 일대의 공유수면을 지정, 이를 천연 기념물(天然記念物)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의 넓은 하구(河口) 에는 사하구 을숙도(乙淑島), 일웅도(日雄島) 등 크고 작은 삼각주(三角洲)가 발달해 있고, 이들 삼각주와 하안(河岸) 일대에 우거진 준풀과 갈대의 숲은 철새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또, 심각주의 주변은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고 수심(水深)이 얕은 갯펄(潮干帶)이 넓게 청성되어 많은 프랑크돈과 어류(魚類), 패류(貝類), 수서곤충(水棲昆忠) 등이 번식하여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다.

낙동강 하류의 기후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철새들의 번식(繁殖) 및 월동지(越冬地)로써 좋다. 강변의 충적층(冲積層)의 사장(砂場)과 갈밭이 무성하고, 수초(水草)의 군집이 발달하고, 또 먹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수천 수단을 헤아리는 철새들이 강과 삼각주를 뒤덮고 비상하는 장관(壯觀)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철새의 보고(寶庫)이다.

낙동강 하류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대부분 물이나 물가에 사는 수 조류(水鳥類)이나, 이들을 뒤좇으며 잡아먹는 맹금류(猛禽類)가 약간 있고, 또 갈대숲이나 하안(河岸)의 풀밭을 생활무대로 하는 소형의 명금류(鳴禽類)도 상당히 서식(棲息)한다.

새들 중에는 번식지와 월동지(越冬地)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가진 종류가 많다. 일정한 시기에 왕래하는 조류(鳥類)를 철새(候鳥)라 하고, 연중 같은 지방에 서식(棲息)하는 것을 텃새(留鳥)라 한다. 그리고, 철새 중에서 여름철에만 볼 수 있는 것을 여름새(夏鳥),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것을 겨울새(冬鳥)라 하며, 봄과 가을의 이동할 때에 볼 수 있는 것을 나그네새(旅鳥,通過鳥)라 한다. 낙동강 하류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대분이 철새이고 또한 수조류(水鳥類)에 속하는 것이 많다.

1956 년 부터 1964 년까지 조류학계의 학술조사 보고에 따르면, 아비과 1종, 논병아리과 1종, 오리과 22종, 갈매기과 4종, 바다오리과 2종, 백로과 1종, 뜸부기과 1종, 두루미과 1종, 도요과 11종, 칼새(물제비) 과 2 종, 휘파람새과 1 종 등 모두 10 과 46 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낙 동강 하류에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겨울새 (多鳥)

- 이 오리과(科): 큰고니, 고니, 흑고니, 쇠기르기, 큰기러기, 개리, 혹부리오리, 황오리, 원양이사촌, 청둥오리, 쇠오리, 가창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발구지, 고방오리, 넓적부리, 원앙이, 흰쭉지, 붉은가슴흰쭉지, 댕기흰쭉지, 검은머리흰쭉지, 흰뺨오리, 검둥오리, 검둥오리사촌, 흰줄박이오리, 흰비오리, 비오리, 바다비오리 등.
- o 갈매기과(科): 갈매기, 재갈매기, 큰재갈매기, 팽이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등.
- 이 바다오리과(科):바다쇠오리, 알락쇠오리, 흰눈썹바다쇠오리 등.
- 아비과(科), 농병아리과(科): 아비, 회색머리아비, 큰회색머리아비, 농병아리, 귀뿔농병아리, 검은목농병아리, 뿔농병아리 등.
- ㅇ 가마우지과(科):가마우지, 쇠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 등.
- 도요과(科), 물떼새과(科): 민물도요, 깍도요, 흰물떼새, 댕기물떼새 등
- 이 매과(科), 수리과(科), 올빼미과(科): 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흰꼬리수리, 흰쭉지참수리,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항라머리독수리, 독수리, 츩부엉이, 쇠부엉이, 큰솟짝새 등.
- 뜸부기과(科): 흰눈썹뜸부기, 물닭 등.
- ㅇ 가마귀과(科):잘가마귀, 뗴가마귀 등.
- 이 지빠귀과(科):노란지빠귀,개똥지빠귀 등.
- 멧새과(科): 쑥새, 검은머리쑥새, 북방검은머리쑥새, 쇠붉은뺨멧새, 노란턱멧새, 쇠검은머리쑥새 등。
- 종다리과(科), 할미새과, 바위종다리과: 큰종다리, 밭종다리, 검은 등할미새, 백할미새, 힝둥새, 멧종다리 등.

- ㅇ 백로과(科):대백로, 흑로, 알락해오라기 등.
- 이 기타 희귀한 것: 재두루미, 황새, 저어새, 느시, 물수리 등.

낙동강 하류의 겨울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오리科와 갈매기科에 속하는 무리로서 고니類(白島), 쇠기르기,큰기러기 등은 각각 2,000~3,000 이상의 대군(大群)을 볼 수 있으며, 흰쭉지, 댕기흰쭉지, 청둥오리 등도 1,000~2,000의 혼합군(混合群)을 이룬다. 또, 갈매기類에서는 붉은 무리갈매기가 優占種으로 1,000이상의 대군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겨울새는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3월 상순경까지 볼 수 있으며, 북국 (北國)의 혹심한 추위를 피하여 남하(南下), 월동(越冬)하고 봄이되면 다시 북상하여 번식지로 돌아 가는데 주된 삶의 보금자리는 시베리아, 몽고, 중국, 만주, 유럽북부, 북미(北美) 등이다.

(2) 여름새 (夏鳥)

- 이 백로과(科): 왜가리,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 쇠백로, 검은댕기해 오라기, 덤불해오라기, 큰덤불해오라기 등.
 - ㅇ 뜸부기과(科): 뜸부기, 쇠물닭, 쇠뜸부기사촌 등.
 - ㅇ 잘매기과(科): 쇠제비잘매기
 - ㅇ 물떼새과(科):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등.
 - ㅇ 휘파람새과(科):개개비. 쇠개개비 등.
 - 물총새과(科):물총새
 - ㅇ 두견이과(科):뻐꾸기, 두견이
 - 0 제비과(科): 제비, 귀제비
 - ㅇ 칼새과(科): 칼새, 바늘꼬리칼새
 - ㅇ 찌르레기과(科):찌르레기
 - ㅇ 때까치과(科):노란때까치
 - ㅇ 할미새과(科):노란할미새
 - ㅇ 쏙독새과(科): 쏙독새
 - ㅇ 멧새과(科):붉은뺨멧새

여름새로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쇠제비갈매기며, 이들은 삼각주 (三角洲)의 모래사장에서 번식하며, 때로는 2,000이상의 대군(大群)을 볼 수 있다. 또 갈대밭에는 개개비, 쇠물닭, 뜸부기, 덤불해오라기 등이 많이 서식(棲息)하고 있으나, 갈대숲속에서 숨어 보금자리를 꾸려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여름새는 대체로 4월 무렵 모습을 나타내어 9월 까지 번식하여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 지방으로 이동한다. 주된 월동지(越冬地)는 중국남부, 대만, 마래제도(馬來諸島), 인도, 인지반도(印支半島), 필립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 등이다.

(3) 나그네새(旅鳥, 通過鳥)

- 도요과(科): 중부리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흑꼬리도요, 흰 허리뒷부리도요, 뒷부리도요, 학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삑삑도요, 알락도요, 노란발도요, 깝작도요, 꼬까도요, 청도요, 깍도요, 붉은가슴도 요, 붉은어깨도요, 세가락도요, 넙적부리도요, 좀도요, 종달도요, 모츠래 기도요, 민물도요, 송곳부리도요, 지느러미발도요 등.
- 물떼새과(科): 검은머리물뗴새, 댕기물뗴새, 개꿩, 검은가슴물떼새, 흰목물떼새, 왕눈물뗴새, 큰왕눈물뗴새, 큰물떼새 등.
- ㅇ 제비물떼새과(科): 제비물뗴새
- ㅇ 갈매기과(科):제비갈매기
- 뜸부기과(科): 쇠뜸부기

나그네새의 대부분은 도요類와 물뗴새類로서, 4,000 ~ 5,000 이상의 대군(大群)을 형성하여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와 갯벌을 뒤덮는다. 나그네새의 번식지는 시베리아, 몽고, 중국북부, 유럽북부, 북미, 등 구아대륙(歐亞大陸)의 북부나 북극권(北極圈) 주변이고, 월동지(越冬地)는 주로 중국남부, 마래(馬來), 인도, 인지반도(印支半島),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열대(熱帶) 및 아열대(亞熱帶)이다.

나그네새는 4월~5월 무렵과 8월 하순경 부터 10월 경 번식지와 월 동지로 이동할 때 낙동강 하류에서 쉬면서 먹이를 구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4) 텃새(留鳥)

낙동강 철새도래지(候鳥到來地)에는 철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연중 서식(棲息)하는 텃새도 많이 모여 든다. 오리科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흰뺨검둥오리는 가을이 되면 수백 마리의 대군(大群)을 형성하여 낙동강 하류에서 겨울을 지낸다. 또, 갈대숲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굴뚝새가 찾아들고 강가의 벌판과 논밭에는 가마귀를 비롯하여 큰부리가마귀, 까치, 꿩, 매추리, 멧비둘기, 참새, 방울새, 멧새, 종다리, 때까치, 딱새 등이 서식(棲息)하고, 맹금류(猛禽類)인 매,황조롱이, 솔개, 새매, 검독수리 등도 강변을 생활무대로 삼고 있다.

갈밭이 싱그러운 푸른 옷으로 갈아 입을 때면 여름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갈대가 누런 옷을 갈아 입고 하얀 모가지가 강바람에 하늘거릴 때면, 수많은 겨울새가 찾아와 장관을 이룬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 얼마 남지않은 철새 도래지(到來地)이며, 삶의 보금자리이다. 몇 십만 평에 이르는 갈밭도 낙동강 하구언 공 사와 을숙도의 개발로 차차 없어져 버리고 있다. 수많은 철새들이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군무(群舞), 무리지어 흩어지는 장관을 산 업문명과 도시개발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간대반 ↘

2) 괴정동(槐亭洞)회화나무



< 회화나무 >

o 종 류:천연기념물

ㅇ 지정 번호: 제 316호

ㅇ 지정년월일: 1982년 11월 4일

ㅇ 면 적: 308 ㎡

ㅇ 소 재 지:사하구 괴정동 870

괴정동(槐亭洞)의 회화나무는 마을 중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나무의 높이는 14.6 m, 둘레가 6.4 m에 이른다. 가슴높이 부분의 둥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나무는 윗부분이 30 m나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는 대략 600 살 이상으로 추정된다.

괴정동이란 마을 이름도 이 회화나무(槐木)에서 유래된 것이며, 옛날에는 마을의 여러 곳에 이 나무가 자생(自生)하였다고 촌로(村老)들은 말한다.

이 나무의 뿌리밑 부분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식수 (食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敬老堂)에서는 매년 봄 과 가을 두 차례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同祭)를 지낸다.

회화나무(Sophora Japonica)는 콩科에 속하는 낙엽교목(落葉喬木)이며, 흔히 마을근처에 심는다. 가지는 퍼지고, 작은 가지는 색깔이녹색이고, 자른 곳에서는 냄새가 난다. 잎은 호생(互生)하고,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이다. 작은 잎은 7~17 개씩이며, 난형(卵形) 또는 난상피침형(卵狀被針形)으로 길이 2.5~6㎝, 넓이 15~25㎜이며, 흔히 작은 탁엽(托葉)이 있고, 예두(銳頭) 원저(圓底) 또는 넓은 설저(舌底)이다. 표면은 녹색(綠色), 뒷면은 회색이며, 잔 복모(伏毛)가 있다. 소엽병(小葉柄)은 짧으며 털이 있다. 원추화서(圓錐花序)는 정생(頂生)하며 길이 15~30㎝로 짧은 복모(伏毛)가 있다. 꽃은 황백색이며, 길이가 12~15㎜이고, 꼬투리는 염주상으로 길이 5~8㎝이며약간 육질이다. 꽃은 8월에 피어서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꽃은 괴화(槐花), 열매는 피실(槐實)이라고 하여 약용으로 사용된다.

3. 전 설(傳説)

1) 신평동 망후촌(望後村)

임 경업(林慶業) 장군은 충주(忠川) 출신으로 시호는 충민공(忠 愍公)이다 어려서 부터 무술(武術)에 능하여 광해군(光海君) 10년 (1618) 무과(武科)에 급제(及弟)하여 인조(仁祖) 2년(1624)이 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자 안현(鞍峴) 싸움에서 공을 세워 진 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훈일등(勲一等)을 받았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의주부윤(義州府尹)이되어 청(淸)의 군사를 국경에서 막으려고 나라에 원병(援兵)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의 영의정(領議政)이었던 김 자점(金自點)의 반대로

좌절되어 마침내 왕족이 피난갔던 강화도(江華島)가 함락되었고, 왕이 피난가 있었던 남한산성(南漢山城)도 포위당하였다.

인조 20년(1642) 청이 금주(錦州)를 포위하자 임장군은 명(明) 과 내통(內通)하여 청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탄로되자 명나라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청나라가 명나라의 남경(南京)을 함락하매 드디어 청나라에 잡히는 몸이 되었다.

청나라에서는 부귀를 약속하면서 달래었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으므로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때마침 대신(大臣) 심 기원(沈器遠)의 모반사건에 임장군이 관련되었다 하여 인조는 청나 라에 사신을 보내어 장군을 본국으로 송환케 하였다.

인조는 임장군이 모반에 관련이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파 인 김 자점 등의 반대, 모함으로 피살되고 말았다.

그때 안동 김씨(金氏) 김 자점 일파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9촌까지 물살 당할 판국이 되자 임장군의 조카이던 절충장군(折衝將軍) 임 중생 이 의주(義州)에서 이곳 신평까지 피난와서 살게 되었는데, 누가 잡으 러 올까 보아 자꾸 뒤를 돌아 보았다. 그래서 망후촌(望後村)이란 마 을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백성들로 부터 영웅시된 입장군의 전기는 소설화하여 林忠愍公實記, 林忠臣傳, 林慶業傳 등의 책이 나와 조선때의 전쟁소설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그중 林忠愍公實記는 정조의 영(令)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이로부터 입장군에 관계되는 전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사당(祠堂)도 곳곳에 세워졌다.

2) 신선암(神仙岩)

하단 동편의 산을 「호박꿈(虎伏口)」이라고 부른다. 산의 모양이 마치 호랑이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숲이 울창하고, 높지 않은 산이기때문에 선사 시대부터 살아 온 하단 주민의 꿈이 어우려져 있다.

호박꿈(虎伏口) 산기슭 낙동강변에 신선암(神仙岩)이라 부르는 큰

바위가 하나 우뚝 솟아 있다.

「신선바위」는 700리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린 낙동강 물이 감싸고 돌아 넓은 평야를 이루고. 뒤로는 호박꿈의 산줄기가 숲을 이루어 문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는 산기슭 끝에 있어 그 아름다운 정취는 이루 말할 수없는 곳식다. 그래식, 그 아름다운 정취에 도취된 신신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에 따라 신선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에덴공원에 있는 강선대(降仙臺)에도 신선이 내려와 앉았다는 바위가 있으며, 이같은 전설은 원시신앙(原始信仰)내지 후세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선암은 바위밑에 작은 굴을 형성하고 있어서 선사(先史)시대 주거지(住居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1934년 낙동강 호안공사를 맡은 일본인 청부업자가 호박꿈 산기슭 낙동강변에 우뚝 솟은 이 바위를 깨어서 -조선사람들의 전해 오는 전설을 깨뜨릴 목적으로 -돌을 쓸려고 몇 사람의 석수장이를 불렀다. 한 석수장이가 연장을 가다듬어 일을 시작할려는 순간 갑자기 즉사하였다. 그 뒤 이 원인불명의 죽음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었고, 지금까지이 바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紳仙岩>

4. 특산(特産) 및 명물(名物)

1) 하단재첩

낙동강(洛東江) 하류의 하단(下端)을 중심으로 한 이일대에는 작은 담수패(淡水貝) 즉 「재첩」의 보고(寶庫)이다. 밀물일때 강가의 흙을 한 줌 쥐면 재첩이 한 주먹 쥐일 정도로 많았다. 술꾼의 해장국으로 일품이고, 간장과 폐병에도 좋다는 민간의속(民間醫俗) 때문에 국이라기 보다는 약(藥)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재첩국이다.

특히 하단, 엄궁등은 전 주민이 재첩국 장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아, 이 들이 외치는 「재첩국」이란 말은 부산의 옛 풍정을 말해 주는 명물이 되었다.

강물에 배를 띄우고 강바닥의 흙을 파서 체에 거두면 흙은 빠져나가고, 재첩만 건지게 된다. 이것을 씻고 밤새 고아서 만든 재첩국을 동이에 담 아서 머리에 이고 대티 고개를 넘어 새벽의 부산 거리를 누비며 팔았다.

「재치국 사이소 재치국」이란 외침은 부산 사람들이 매일같이 잠결에 듣는 첫 소리였고, 기상(起床)을 알리는 신호처럼 되었다. 특히다른 지방에서 부산을 찾아 온 나그네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부산의 추억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상 공단의 폐수와 오염 하수의 방류로 재첩의 생산이 매년 줄 어지고 있고, 또 하구언 공사와 불법 어로로 마구 채취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그 유명했던 하단 재첩도 지금은 섬진강 재첩에 밀려 빚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옛날 노적가리가 곳곳에 있고 번창했 던 하단포구(下端浦口) 선창거리에는 지금도 재첩회와 재첩국을 파는 음 식점이 남아있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下端재첩食堂>

2) 장림(長林)의 김(海苔)

장림(長林)은 한 때 김(海苔) 생산지로 그 명성을 날렸다. 일제시대하단, 장림 등에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 와서 낙동강의 수질이 김 양식에 최적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미야꼬」란 일본 사람이 양식용 대나무를 일본에서 가져와 해방전까지 김 생산을 기업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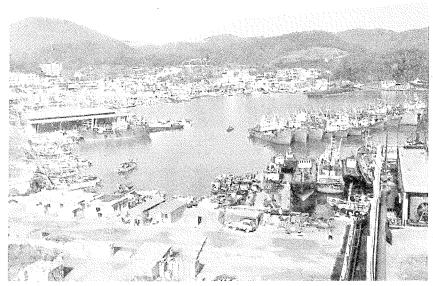
그때부터 김 양식이 이 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1930년 하단에 분뇨투기장이 들어서면서 하단에서는 김 생산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 장림과 홍치(虹峠) 마을에서 김 생산은 번창하여 「장림 김」이라면 다알아 주게 되었다. 1960년대 말까지 장림동에는 몇 채의 초가집이 있었고, 주민들 대부분이 김 생산에 종사했었다. 집집마다 마루와 마당, 지붕위, 그리고 논밭 할 것 없이 새까맣게 김을 말리는 광경은 이 곳에서만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다. 해태생산 조합도 설립되어 김 생산 주민들을돕기도 하였다.

가을이면 김을 팔러 나가는 아주머니들과 김을 받아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김보따리 행렬은 낭만적인 모습이었다. 장림 마을 사람들은 김을 양식 대신으로 먹고 살았고, 또 보약이라고 하며 먹는 사람도 많았다. 생 김무침은 이 마을을 찾는 손님들에게 진미(珍味)로 알려졌다.

특히 장림김은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맛이 뛰어나서 부산 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 유명한 장림 김도 공장과 가정에서 마구 버린 폐수로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애틋한 향수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3) 다대포(多大浦) 멸치젓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김치는 새우젓갈로 담아 맛을 낸다. 그렇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전적으로 멸치젓갈에 의존하여 김치를 담근다. 새우젓갈로 담은 김치는 담백하여 시원하기는 하지만, 구수하고 텁텁한 맛은 역시 멸치젓갈을 따를 수 없다. 이처럼 멸치젓갈 중에서 가장 신선도가 높기로 알려진 젓갈이 바로 다대포의 멸치젓이다.



< 多大浦港 >

다대포에는 1906년 일본 후꾸오까껜에서 어민들이 많이 몰려와 살았다. 현재 대명목재(大明木材) 저목장이 있는 앞바다에서 멸치가 무진장 많이 잡혀서 지예망(地曳網) 어업이 성행했다. 지예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마른 멸치로 만들어 남포동(南浦洞) 부산수산 주식회사(1898년: 현부산시청뒤)와 부산어업조합(1922년)등 객주(客主)들에게 팔아 넘겼다.

다대 앞 바다는 낙동강의 끝이어서 좋은 멸치들의 먹이(프랑크톤)가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 그래서, 형제섬, 취섬, 나무섬, 외섬 등 일대는 4월부터 7월까지 멸치떼가 쉴 사이도 없이 몰려 온다. 따라서, 다대주민의 30%가 어민(漁民)이라면 이중 절반 이상이 멸치잡이에 종사하였었다. 평균 7톤 규모의 어선이 40여척이나 되었는데, 한 배가 한달에 16톤 가량의 멸치를 잡아 들였다.

이 멸치는 다대포 앞 가까운 바다에서 잡기 때문에 육지에 닿는 대로 소금에 절여 젓갈로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방 멸치젓보다 단맛이 많고 신선도가 높아 김장용과 밑반찬으로 이용되고 맛이 좋았다.

일제시대 젓갈통을 떼어 기름이 꽉 어린 것은 모두 「다대멸치」라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또한, 다대 8 경 (多大八景) 중 야망어창 (夜望漁唱) 이란 말은 야망대 (夜望臺) 에서 고기잡는 노래를 듣는 것이 절경이란 뜻인데, 이것도 다. 대포의 밤 멸치잡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뭏든 다대멸치와 더불어 이의 갈무리를 위한 멸치젓갈은 예나 지금이나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5. 역대(歷代) 다대포(多大浦) 첨사(**僉使**) 인명록(人名録)

多大僉使 先生案은 壬辰倭亂 以前의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以後分만 남아 있다. 이것은 아마 壬辰倭亂때에 모든 文書가 烏有에 돌아간데 起因한 것으로 본다.

官案

- 절충(折斷) 김 정서(金廷瑞)居東萊 1600년(萬曆二十八年:庚子) 9월 1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瓜滿遠歸)
- 어모(禦侮) 김 윤룡(金閨龍) 居蔚山 1600년(庚子) 9월 11일 도임, 동년 11월 28일 파귀(罷歸)
- 어모(禦侮) 조 옥전(趙玉乾) 居京 1601년(辛丑) 12월 28일 도임, 1602년(壬寅) 2월 3일 파귀(罷歸)
- 어모(禦侮) 정 기남(鄭奇男) 居鐵山 1602년(壬寅) 2월 3일 도임, 동년 2월 10일 나거(拿去:체포되어 감)
- 절충(折衝) 송 희립(宋希立) 居興陽 1602년(壬寅)10월 22일 도임, 1604年(甲辰) 12월 3일 임기가 참
- 어모(禦侮) 정 여인(鄭汝麟) 居羅州 1604년 11월 3일 도임, 만기후 고성혁령(固城縣令)으로 옮김
- 어모(禦侮) 송 경신(宋敬臣) 居泰仁 1607년(丁未) 2월 **7**일 도임, 1608년(戊申) 2월 2일 파직(能職)
- 어모(禦侮) 손 안국(孫安國) 居海州 1608년(戊申) 2월 2일 도임, 동년 4월 8일 파귀(罷歸)
- 어모(禦侮) 김 엄(金淹) 居高敬 1608년(戊申) 6월 12일 도임, 1609년(己酉) 1월 25일 화귀(罷歸)
- 어모(禦侮) 어 운급(魚雲汲) 居 京 1609년(己酉) 3월 21일 도임,

동년 8월 5일 나거(拿去:체포되어 감)

- 어모(禦侮) 정 사서(鄭思恕) 居陜川 1609년(己酉) 9월 11일 도임, 1612년(壬子) 3월 12일 당상관에 오름(陞堂上)
- 절충(折衡) 김 대명(金大鳴) 居濟州 1612년(壬子) 3월 12일 도임, 1613년 2월 1일 막귀(罷歸)
- 어모(禦侮) 민 창윤(閔昌胤) 居羅州 1613년(癸丑) 2월 1일 도임, 1615년(乙卯) 9월 1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김 제필(金濟弼) 居全義 1615년(乙卯) 9월 12일 도임, 1618년(戊午) 2월 19일 당상관(堂上官)에 올라 돌아감
- 절충(折衝) 박 대진(朴大吉) 居襄陽 1618년(戊午) 2월 19일 도임, 1620년(庚申) 12월 6일 돌아감
- 어모(禦侮) 김 팽익(金彭益) 居靈岩 1620년(庚申) 12월 6일 도임, 1621년(辛酉) 4월 23일 파귀(罷歸)
- 절충(折衝) 신 경빈(申景濱) 居淸州 1621년(辛酉) 4월 23일 도임, 1623년(癸亥) 4월 22일 파귀(罷歸)
- 소위(昭威) 박 유기(朴有起) 居豐德 1623년(癸亥) 4월 23일 도임, 동년 11월 19일 체귀(逓歸)
- 어모(禦侮) 장 상한(張相漢) 居安岳 1623년(癸亥) 11월 19일 도임, 1626년(丙寅) 5월 27일 임기를 채우고 감(瓜滿遆)
- 가선(嘉善) 이 기심(李起尋) 居京 1626년(丙寅) 5월 27일 도임, 1628년(戊辰) 체귀
- 절충(折衝) 홍 봉일(洪奉一) 居京 1628년(戊辰) 11월 10일 도임, 1629년(己巳) 8월 15일 직을 사양하고 돌아 감(辭狀歸)
- 자헌(資憲) 성 태수(成台壽) 居光陽 1629년(己巳) 11월 6일 도임, 1630년(庚午) 10월 12일 체귀
- 어모(禦侮) 오 세장(吳世章) 居稷山 1630년(庚午) 12월 3일 도임, 1632년(壬申) 8월 20일 체귀

- 지략(芝略) 신경침(申景琛) 居京 1632년(壬申) 11월 1일 도임, 1633년(癸酉) 3월 16일 파귀(罷歸)
- 어모(禦侮) 김 영복(金永福) 居京 1633년(癸酉) 4월 28일 도임, 1634년(甲戌) 윤8월 4일 파귀(罷歸)
- 절충(折衡) 김 여현(金汝鉉) 居康津 1634년(甲戌) 10월 11일 도임, 동년 11월 18일 파직되어 머무름
- 어모(禦侮) 이 인득(李仁得) 居尙州 1634년(甲戌) 12월 18일 도임, 1636년(丙子) 6월 파직
- 어모(禦侮) 문 흥민(文興民) 居通津 1636년(丙子) 8월초 2일 도임, 1637년(丁丑) 2월 상(喪)을 듣고 돌아감
- 어모(禦侮) 신 중욱(辛重勗) 居抱川, 1637 (丁丑) 8月 2日 도임, 1639 (己卯) 7월 30일 체귀
- 어모(禦侮) 안 경직(安慶直) 居白川 1639(己卯) 8월 2일 도임, 1642(壬午) 1월 24일 체귀
- 어모(禦侮) 김 우인(金友仁) 居淸道 1660(庚子) 12월 2일 도임, 1661(辛丑) 6월 15일 파귀(罷歸)
- 어모(禦侮) 양 우급(梁禹及) 居寶城 1661 (辛丑) 7월 17일 도임, 1662 (壬寅) 8월 1일 과귀
- 어모(禦侮) 최 해(崔懈) 居鐵原 1662년 10월 1일 도임,1664(甲辰) 5월 23일 왜정 파귀(倭情能歸)
- 어모(禦侮) 이 항(李炕) 居咸安 1664 (甲辰) 윤 6월 25일 도임, 1665 (乙巳) 3월 17일 파귀
- 어모(禦侮) 하 종한(河宗漢) 居江華 1665(乙巳) 3월 17일 도임, 동년 7월 29일 왜적에 잡혀 감
- 어모(禦侮) 곽 재형(郭再亨) 居怯德 1665(乙巳) 8월 26일 도임,

- 1668 (戊申) 1월 10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김 주하(金柱夏) 居京 1668(戊申) 1월 25일 도임, 1670(庚戌) 7월 27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이 창혹(李昌或) 居通津 1670 (庚戌) 7월 26일 도임, 1672 (壬子) 1월 당상에 오르고 6월 3일 잡혀감(拿去)
- 어모(禦侮) 윤 창원(尹昌元) 居京 1672(壬子) 7월 14일 도임, 1673(癸丑) 10월 27일 병으로 돌아감(病狀遊歸)
- 어모(禦侮) 남 용빈(南勇賓) 居義城 1673 (癸丑) 10월 27일 도임, 1674 (甲寅) 12월 돌아감
- 어모(禦侮) 이 시형(李時衡) 居京 1675、(乙卯) 5월 1일 도임, 1677년(丁巳) 1월 1일 영일현감으로 옮김(移拜)
- 어모(禦侮) 최 숙(崔橚) 居水原 1677 (丁巳) 1월 1일 도임, 동년 2월 6일 당상관에 올라 상주영장으로 옮김(陞堂上尙州營將移拜)
- 어모(禦侮) 신 경원(辛景轅) 居京 1677 (丁巳) 2월 6일 도임, 1679 (乙未) 8월 12일 임기를 채우고 왜정에 잡혀감
- 어모(禦侮) 김 시진(金是振) 居京 1679(乙未) 8월 11일 도임, 1682(壬戌) 2월 24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절충(折衝) 김 효순(金孝純) 居京 1682 (壬戌) 2월 25일 도임, 1683 (癸亥) 5월 18일 어사의 서계로 파귀(仍御使書啓罷歸)
- 어모(禦侮) 이 정빈(李廷彬) 居京 1683(癸亥) 5월 18일 도임, 1685(乙丑) 7월 30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절충(折衡) 장 만첨(張萬瞻) 居京 1685 (乙丑) 7월 30일 도임, 1688 (戊辰) 2월 7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신 대겸(辛大謙) 居靈山 1688 (戊辰) 2월 7일 도임, 1690 (庚午) 7월 29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황 규(黄奎) 居楊州 1690 (庚午) 8월 1일 도임, 1692 (壬申) 당상관에 올라 돌아감
- 어모(禦侮) 이 귀제(李貴濟) 居安岳 1692(壬申) 8월 2일 도임, 1695(乙亥) 1월 30일 돌아감
- 어모(禦侮) 전 성유(全聖兪) 居鎭安 1695(乙亥) 2월 2일 도임, 1696(丙子)년 당상에 오르고, 1697(丁丑) 8월 2일 임기를 채 우고 돌아감(瓜滿遊歸)
- 어모(禦侮) 박 시자(朴時梓) 居京 1697(丁丑) 8월 2일 도임, 1699(己卯) 9월 24일 임기가 되어 돌아감
- 어모(禦侮) 최 상운(崔尚雲) 居洪州 1699(己卯) 9월 24일 도임, 1700(庚辰) 10월 17일 화귀
- 가선(嘉善) 고 준량(高浚良) 居京 1700(庚辰) 10월 17일 도임, 목도(木島) 패표인(敗標人)을 곧 토
- 가선(嘉善) 이 행창(李行昌) 居京 1701(辛巳) 3월 1일 도임, 동년 12월 7일 왜정체귀(倭情遊歸)
- 절충(折衝) 한 이온(韓爾溫) 居京 1701(辛巳) 12월초 7일 도임, 1703(癸未) 퇴임
- 절충(折衝) 이 만웅(李晩雄) 居原州 1703(癸未) 6월초 5일 도임, 1705(乙酉) 10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 어모(禦侮) 김 석제(金錫悌) 居京 1706(丙戌) 5월 도임, 1707 (丁亥) 11월 상(喪)으로 귀임
- 어모(禦侮) 정 석도(鄭碩道) 居慶州 1708(戊子) 정월 22일 도임, 동년 6월 27일 확상불급(還上不給)으로 파귀(罷歸)
- 어모(禦侮) 류 정익(柳挺翼) 居忠州 1708(戊子) 7월 2일 도임, 1710(庚寅) 8월 3일 체귀 동년 정월 당상(堂上)에 오름

- 어모(禦侮) 윤 매(尹勱) 居京 1710(庚寅) 8월 2일 도임, 1712 (壬辰) 4월 파귀(罷歸)
- 가의(嘉義) 이 시번(李時蕃) 居江華 1712(壬辰) 4월8일 도임, 1714(甲午) 5월16일 경주영장(慶州營將) 이배(移拜)
- 절충(折衡) 이 처기(李天起)居京 1714(甲午) 7월27일 도임. 1716(丙申) 집으로 돌아감.
- 가선(嘉善) 이 홍매(李弘邁) 거경(居京) 1716(丙申) 9월 10일 도임, 1719(己亥) 2월 12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장군(將軍) 정 세흡(鄭世豫) 거경(居京) 1719(己亥) 2월 16일 도임, 1721(辛丑)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절충(折衡) 최 창기(崔昌箕) 거경(居京) 1721(辛丑) 7월 도임, 1722(壬寅) 7월 상(喪)으로 귀가
- 가의(嘉義) 곽 서적(郭庶績) 거경(居京) 1722(王寅) 8월 도임, 1724(甲辰) 6월 전최(殿最:관찰사의 수령실적조사)로 돌아감.
- 가선(嘉善) 이 밀(李謐) 1724 (甲辰) 9월 도임, 1726 (丙午) 6 月 어사(御史)의 파직으로 돌아감.
- 동중추(同中樞) 허 원(許遠) 1726(丙午) 6월20일 도임, 1728 (戊申) 12월19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권 순성(權順性) 거청풍(居淸風)
- 가선(嘉善) 홍 치영(洪致榮) 거여주(居驪州)
- 동중추(同中樞) 고 도성(高道成) 거경(居京) 1734(甲寅) 3월 도임, 1736(丙辰) 6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어모(禦侮) 강 상선(姜尙先) 거경(居京) 1736(丙辰) 6월 도임, 1738(戊午) 9월 체귀(遊歸)
- 절충(折衝) 박 도면(朴道勉) 거경(居京) 1738(戊午) 9월 도임, 1740(庚申) 6월 왜정체귀(倭情遊歸)
- 절충(折衝) 이 세회(李世晦) 거경(居京)

- 어모(禦侮) 이 보신(李輔臣) 거경(居京) 1742(壬戌) 10월 도 임. 1744(甲子) 8월 병이 있어 사양하고 돌아감(有病辭遊歸)
- 절충(折衝) 최 수기(崔壽基) 거경(居京) 1744(甲子) 9월 도임, 1746(丙寅) 3월 치적이 좋지 못한 문첩으로 파직되어 돌아감 (貶下狀罷遊歸)
- 가선(嘉善) 십 약회(沈若晦) 거경(居京) 1746(丙寅) 윤 3 월 2 일 도임, 1747(丁卯) 7 월 졸서(卒逝:죽음)
- 어모(禦侮) 이 해(李海) 거경(居京) 1747 (丁卯) 10월 27일 도임, 1750 (庚午) 3월 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절충(折衡) 이 천민(李天民) 거경(居京) 1750(庚午) 3월2일 도임, 동년 7월 상을 만나서 돌아감(遭喪歸)
- 자헌(資憲) 진 응회(秦應會) 거경(居京) 1750 (庚午) 10월 19일 도임, 1751 (辛未) 7월 자해조중고(自該曺中考)
- 절충(折衝) 구 정환(具鼎煥) 1751(辛未) 9월 금위 대장에서 부임(禁將來), 1754(甲戌) 4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瓜滿遊歸)
- 절충(折衝) 조 연복(趙衍福) 1754(甲戌) 4월 도임, 동년 6월 좋서(卒浙)
- 절충(折衡) 이 길유(李吉儒) 1754(甲戌) 8월 내송(內乘: 內司 僕寺)으로 옴,1755(乙亥) 8월 금군장으로 경관직(京官職)에 전임(禁軍將內遷)
- 절충(折衡) 이 한태(李漢泰) 1755(乙亥) 8월 우림장(羽林將: 禁軍廳)으로 옴, 동년 9월 어머니 상(喪)을 당함(遭內艱)
- 절충(折衝) 정 여증(鄭興會) 1755 (乙亥) 12월 우림장 (羽林將) 으로 옴, 1756 (丙子) 9월 아버지 상을 당함(遭外艱)
- 절충(折衡) 조 광진(趙光鎭) 1757(丁丑) 정월 금군장(禁軍將) 에서 옴, 1758(戊寅) 2월 금군장으로 경관진(京官職)에 전임(禁軍將內遷)

- 절충(折衝) 김 광적(金光迪) 1758(戊寅) 4월 내직금위대장(內禁將)에서 옴, 6월 모함으로 직이 좌천되어 마침
- 절충(折衝) 김 좌국(金佐國) 1758(戊寅) 12월 금장으로써 옴 (以禁將來), 1760(庚辰) 7월 목(牧)의 일을 맡음.
- 절충(折衝) 이 적(李樀) 1760 (庚辰) 6월25일전 방어사로(以前 防禦使)로써 7월27일 도임, 1762 (壬午) 12월13일 어머니 상(喪)을 당함(遭內艱)
- 가선(嘉善) 전 명좌(全命佐) 1762(壬午) 12월 도정(都政: 都目政事)으로써 전 부사에 복직되어(前府使復職) 1763(癸未) 정월 18일 도임, 1764(甲申) 10월 병으로 사양하고 직을 마침(以病辭適)
- 절충(折衝) 이 해문(李海文) 1764 (甲申) 11월11일 총융천총 (摠戎千摠)을 제수(除授)받아 1765 (乙酉) 정월1일 도임, 윤2월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統營)의 장계로 파하고,(以 瞭自統營狀罷), 특지(特旨)로 동년 12월22일 도정(都政)의 오위장(五衛將)으로 옮기고, 1766 (丙戌) 3월4일 교체되어 돌아감.
- 절충(折衝) 이 재형(李再馨) 1765 (乙酉) 12월 평양 중군(中軍)을 제수(除授)받고, 1766 (丙戌) 3월 4일 도임, 1767(丁亥) 5월 14일 오위장으로 옮겨 7월 8일 교체되어 돌아감
- 절충(折衝) 심 성(沈焰) 1767(丁亥) 5월 금군장(禁軍將) 제수, 1768(戊子) 5월2일 부학보(副學補)의 벼슬로 체귀
- 절충(折衝) 윤 시동(尹蓍東) 1768(戊子) 5월2일 부제학으로 특보(特輔) 8일 배도부임(倍道赴任) 동년 6월19일 병조서지 내직으로 옮기고(內移兵曺麥知)7월8일 교체되어 돌아감
- 절충(折衝) 이 은복(李殷福) 1768(戊子) 6월 도임, 1769 (乙 丑) 설달(臘月) 금장(禁將) 내직으로 옮김
- 절충(折衝) 신 욱(申旭) 1769(乙丑) 12월18일 영장(營將:鎮

- 營將)을 제수받아 1770 (庚寅) 1월19일 도임, 1771 (辛卯) 6월22일 오위장(五衛將)내직으로 옮기고 7월22일 교체됨 (交龜)
- 조 학신(曹學臣) 1771 (辛卯) 6월 제수, 1772 (壬辰) 6월 내 직으로 옮김(內移)
- 허 근(許近) 1772(壬辰) 7월 조정에서 제수받아, 1773 (癸巳) 3월 내직으로 옮김(內移)
- 구 재훈(具載勲) 1773 (癸巳) 윤 3 월 정(政)을 제수받아 1775(乙 未) 정월 내직으로 옮김
- 가선(嘉善) 권 한(權翰) 1774 (甲午) 12월 낙안군(樂安郡) 이배(移拜), 1775 (乙未) 이 전군사나취(以田郡事拿取)
 - 이 윤희(李潤禧) 1775 (乙未) 산정(散政) 제수로 동월 29일 도진(到 鎭)1776(丙申) 9월10일 내적으로 옮김
 - 전 문현(田文顯) 1776 (丙申) 9월 상주영장 이배(移拜) 1776 (丁酉) 정월 이미준동승영사정사득체(以未準嗣陞靈事呈辭得遼)
 - 이 역(李熤) 1777(丁酉) 2월 연점(年檢) 동년 9월 실상의 조치로 파면, 돌아감
 - 정 우붕(鄭字朋) 1777 (丁酉) 9월 정(政)제수, 10월 27일 도임,1779 (己亥) 사복사중고(司僕事中考)로 9월 1일 체귀
 - 오 재중(吳載重) 1779(己亥) 6월 내직 금장(禁將) 제수, 1781(辛 표) 2월 친년체귀(親年遊歸)
 - 이 홍원(李弘遠) 1781(辛丑) 1월 내승(內乘:內司僕寺)으로 이배 (移拜), 1782(壬寅) 12월 정사의 책망을 받아 강둥됨(分望事 貶下)
 - 이 문철(李文喆) 1782 (壬寅) 선달(臘) 금영손사행(禁營孫士行) 제수,1783 (癸卯) 1월 14일 도임, 동년 7월 어사의 병청체특(御史以病淸遊特)으로 특지를 받고,1785 (乙巳) 7월 임기를 채움.

- 김 후(金厚) 1785 (乙巳) 6월 영암현수(靈岩顯守) 이배, 7월29일 도임, 1785 (丙午) 3월 표인실료사나취(以漂人失瞭事拿就)
- 박 진양(朴晋陽) 1786(丙午) 1월 산정(散政) 통진부화(通津府火)이배, 3월2일 부임, 전임의 일로써 나거되어(以前任事拿) 12월10일 면직.
- 이 윤겸(李潤謙) 1786 (丙午) 설달(臘月) 임지에 와(來莅), 1787 (丁未) 설달 송전(松田)의 일로 파직(以松田事坐罷)
- 서 유룡(徐有龍) 1788 (戊申) 정월 도임, 1789 (乙酉) 4월 변정의 일로 파직(以邊情事坐罷)
- 이 달관(李達觀) 1789 (乙酉) 4월 4일 정(政) 제수, 동월 27일 도임, 1790 (庚戌) 7월 4일 내직으로 옮김·
- 임 태원(林泰遠) 1790 (庚戌) 7월 4일 도정(都政) 장영파총(壯營 把摠) 제수, 동월 그믐(晦日) 도임, 1791 (辛亥) 섣달(臘月) 내 직으로 옮김.
- 김 처승(金處升) 1791 (辛亥) 12월 23일 도정(都政) 제수, 1792(壬子) 정월 24일 도임, 12월 29일 내직으로 옮김.
- 조 의진(趙義鎭) 1792 (壬子) 12월 19일 정(政)제수, 1794 (甲寅) 12월 21일 도정내천(都政內遷)
- 윤 수민(尹壽民) 1794(甲寅) 12월22일 정(政)제수, 1795(乙卯) 일 도임, 1796(丙辰) 7월 부산으로 옮김.
- 정 혁 (鄭爀) 1796 (丙辰) 7월 28일 정 (政) 제수, 8월 17일 도임, 戊 1798 (戊午) 9일 펌체 (貶遆)
- 조 몽석(趙蒙錫) 1798 (戊午) 10월 옴(來), 1801 (辛酉) 정월 임 기를 채우고 돌아감.
- 신 광로(申光輅) 1801 (辛酉) 정월 22일 옴, 1803 (癸亥)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조 은석(趙恩錫) 1803 (癸亥) 7월 20일 음, 1804 (甲子) 2월 모친

상을 만남(遭內艱)

- 원 영인(元永麟) 1804(甲子) 2월 옴, 1806(丙寅)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민 종혁(閔宗爀) 1806(丙寅) 6월 도정(都政) 충주주영장(忠州州 營將) 제수, 7월14일 도임, 1809(己巳)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이 승운(李乘運) 1808(戊辰) 12월 도정(都政) 제수, 1809(己巳) 정월 19일 도임, 1811(辛未) 7월 부친상을 만남(遭外艱)
- 이 익(李榼) 1811 (辛未) 8월 도정(都政) 여산부사(礪山府使)이 배(移拜) 동년 9월 계체(啓證)
- 홍 순(洪栒) 1811 (辛未) 10월 산정(散政) 제수, 동년 11월 10일 도임, 1813 (癸酉) 12월 도정(都政) 임기를 채움(都政瓜運)
- 오 치수(吳致壽) 1814 (甲戌) 정월 도정제수,동년 2월2일 도임, 1816 (丙子) 윤6월 임기를 채움.
- 류 기상(柳基常) 1816 (丙子) 6월 도정제수, 동년 섣달(臘月) 파직 되어 돌아감(能歸)
- 남 전중(南建中) 1816 (丙子) 설달 도정제수 1817 (丁丑) 정월 10일 도임, 1819 (己卯) 7월 임기를 채움.
- 김 현필(金鉉弼) 1819 (己卯) 6월 도정제수, 1822 (壬午) 정월 임 기를 채우고 돌아감.
- 김 상우(金相字) 1821 (辛巳) 설달(臘月) 도정제수, 1822 (壬午) 정월 30일 도임, 1823 (癸未) 9월 병이 들어나 돌아감(呈病遊歸)
- 구 석붕(具錫朋) 1823(癸未) 9월 산정(散政)제수,동월 그믐(晦 日) 도임, 1826(丙戌) 정월 임기를 채움.
- 임 태순(任泰淳) 1825 (乙酉) 설달 도정제수, 1826 (丙戌) 2월 3일 도임, 1827 (丁亥) 3월 2일 친년체거 (以親年適去)
- 김 인종(金麟鍾) 1827(丁亥) 3월3일 도임, 1829(己丑) 7월27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김 이관(金履寬) 1829(己丑) 7월 27일 도임, 1831(辛卯) 12월 3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이 득형 (李得馨) 1831 (辛卯) 11월 산정(散政) 제수, 동년 12월 3일 도임.
- 이 경순(李景純) 1834 (甲午) 4월 산정(散政) 제수, 5월 도임, 1835 (乙未) 8월 계체(啓遊)
- 류 면겸(柳勉儉) 1835 (乙未) 7월 산정(散政) 제수, 1838 (戊戌)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윤 수열(尹秀烈) 1837(丁酉) 12월 도정(都政) 제수, 1840(庚子)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오 현우(吳顯佑) 1840(庚子) 6월 도정(都政) 제수, 1842(壬寅) 5월 친년서체(親年書遊)
- 이 동식(李東植) 1842(壬寅) 2월 상사첨사(上士僉使)로 이배(移 拜) 1844(甲辰)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이 용준(李容駿) 1844(甲辰) 6월 도정제수, 1847(丁未) 2월 임 기를 채우고 돌아감.
- 이 용희(李容熙) 1846 (丙午) 12월 도정제수, 1848 (戊申) 5월 수상 응피체(以水相應避遜)
- 이 형하(李亨夏)여회(汝會) 신미(辛未)완산인(完山人) 1848(戊申) 5월 산정(散政)제수, 동년 12월 도정(都政)동부승지에 오름(陞 拜同副承旨)
- 이 치회(李致廻) 1851 (辛亥)5월 산정(散政)제수,동월 도임, 1853 (癸丑) 10월 임기를 마치고 동짓달에 부신(符信)을 넘겨 줌(苽遊 至月日交龜)

- 이 창오(李昌五) 1853 (癸丑) 10월 산정(散政)제수 익월(翌月)도 임, 1856 (丙辰)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 이 희평(李熙平) 1855(乙卯) 섣달(臘月) 도정(都政) 제수, 1856 (丙辰) 2월 부임(赴任), 동년 11월 15일 졸서(卒逝)
- 임 홍모(任弘模) 1856(丙辰)설달 정(政) 제수, 1857(丁巳) 정월 26일 도임, 1858(戊午) 정월 직을 사양하고 물러감.
- 이 교헌(李教獻) 군필 임진 전의인(君巡壬辰全義人) 1858(戊午) 2 월 산정(散政)제수 3월 도임, 1859(己未) 6월 직을 사양함.
- 조 의직(趙義稷) 백형(伯亨) 신사(辛巳) 1859(己未)5월 산정 (散政) 제수,6월 도임,1860(庚申)10월 직을 사양함.
- 정 선용(鄭善容) 1860(庚申) 11월 정(政) 제수, 1861(辛酉) 정월 진에 도임(到鎭), 1863(癸亥) 3월 파직되어 돌아감(罷歸).외선(外孫) 정 인태(鄭寅台) 1881(辛巳) 12월 공이 진의 장군이 되어 옮겨 옴(公鎭將移來)
- 집 태욱(金泰郁) 치문(致文) 기축(己丑) 해풍인(海豐人) 1862(王戌) 12월 도정(都政)제수, 1863(癸亥) 3월10일 도임, 1864(甲子)12월 도목정사를 통하여 은대(銀臺:承政院)를 바라고(都政通銀臺望), 1865(乙丑) 정월 14일 앞에 바란 대로 동부승지의 벼슬에 오름(以前望陞拜同副承旨)
- 허 규(許奎) 단오(端五) 정묘(丁卯) 양천인(陽川人) 1865(乙丑) 정월 산정(散政)제수, 2월 24일 도임, 1867(丁卯) 6월 임기를 마침.
- 김 기혁(金箕赫) 성첨(聖瞻) 임진(壬辰) 광산인(光山人)1867(丁卯) 6월 산정(散政)제수, 7월 30일 도임. 1869(己巳) 정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 류 정로(柳鼎魯) 성구(聖九) 임진(壬辰) 진주(晋州人) 1869(己巳) 정월 산정(散政)제수, 2월 28일 도임. 1871(辛未) 6월 임기를

마침.

- 이 용익(李容益) 우삼(友三) 신묘(辛卯) 광주인(廣州人)1871(辛未) 5월 사정(散政)제수 7월 20일 도임, 1873(癸酉) 11월 임기를 마침.
- 이 종준(李鍾俊) 사영(士英) 병자(丙子) 완산인(完山人)1873(癸酉 11월 산정(散政)제수, 1874(甲戌) 정원 19인 도임 6월 24인 마침.
- 이 남즙(李南輯) 경안(景安) 계미(癸未) 완산인(完山人) 1874(甲 戌) 6월 구전제수(口傳除授) 1876(丙子) 7월 정세체(情勢適)
- 정 기택(鄭騏澤) 사영(士榮) 을사(乙巳) 정일인(廷日人) 1876 (丙子) 7월 도정(都政) 제수 1877(丁丑) 12월 도정으로써 어 영천총 내직으로 옮김(都政以御營千摠內移)
- 한 우섭(韓友燮) 사강(士强) 계유(癸酉) 청주인(淸州人) 1878(戊 寅) 정월 제수, 1879(己卯) 8월 파직으로 돌아감(罷歸)
- 김 기명(金沂明) 성오(聲五) 병출(丙戌) 김 해인(金海人) 1879(己 卯) 6월 도정(都政)제수, 1881(辛巳) 11월 임기를 마침.
- 정 인태(鄭寅台) 치정(致鼎) 병오(丙午) 초계인(草溪人) 1881(辛 巳) 10월 15일 정(政) 제수, 공주 영장에서 옴(公州營將來) 1883 (癸未) 정월 도정 내직으로 옮김(都政內移)
- 이 규용(李圭鏞) 윤생(允笙) 임진(壬辰) 경주인(慶州人) 1883(癸 未) 정월 도정(都政) 당상선전관으로 옴(都政以堂上宣傳官來) 동 년 5월 허용이력(許用履歷)
- 김 정근(金禎根) 성국(聖國) 임인(壬寅) 안동인(安東人) 이절영도 변지 이력 첨사인 복설본진사자(以絕影島邊地履歷僉使因復設本鎭事 自) 1885(乙酉) 12월 도임·자 정부초기구전단부본직감하영도지어 (自 政府草記口傳單付本職滅下影島之御) 1886(丙戌) 정월 도임· 합속절제복설수건재기공소빈첨상화(合屬節制復設修建材旣空疎鬓添霜花) 1887(丁亥) 6월정 별영기사장 내직으로 옮김(政別營騎士將內移)
- 변 기섭(邊基燮)익화(益化) 신해(辛亥) 원주인(原州人) 1887(丁

- 亥) 8월19일 정(政) 제수 1888(戊子) 8월 임기를 마치고돌아감.
- 이 상규(李庠珪) 덕로(德老) 기미(己未) 한산인(韓山人) 1888(戊 子) 6월 도정(都政) 군산첨사로써 옮겨 옴(以群山僉使移來)
- 이 장하(李莊夏) 완산인(完山人) 1889(乙丑) 정월 26일 정政 제배(除拜) 1890(庚寅) 윤 2월 26일 냉체(冷蒞)
- 강 운형(姜雲馨) 진주인(晋州人) 1890(庚寅) 정월 30일 정(政) 제수 8월 12일 졸서(卒逝)
- 정 제빈(鄭濟斌) 조천인(鳥川人) 1890(庚人) 10월 25일 정(政) 제수, 1891(辛卯) 7월 12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 민 건호(閔建鎬) 성로(星老) 계묘(癸卯) 여흥인(驪興人) 1891(辛卯) 4월 18일 정 부항방변으로 옴(政釜港幫辯來) 1893(癸巳) 4월 24일정 총어영기사장 내직으로 옮김(政摠禦營騎士將內移)
- 박 기종(朴琪琮) 형진(亨珍) 기해(己亥) 밀성인(密城人) 1893 (癸巳) 4월 25日 정(政) 부산항 경찰관으로 옴(釜港警察官來) 1894 (甲午) 2월 임기를 마침.
- 이 의정(李宜貞) 내진(乃珍) 신해(辛亥) 경주인(慶州人) 1893(癸巳) 12월 26일 정 이전내금장(政以前內禁將) 제수, 1894(甲午) 2월 16일 도임.
- 박 세혁(朴世赫) 상언(祥彦) 정미(丁未) 1894(甲午) 9월 11일 정고산리첨사(政高山里僉使)에서 옮겨 옴(移拜) 10월 9일 도입 1895 (乙未) 윤 5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6. 기 타(其他)

1) 에덴공원(公園)

o 총 류:체육공원(사설공원)

ㅇ 소재지 : 사하구 하단동 786

이 기념비: 청마시비, 시민헌장비

옛날에 에덴공원은 다대포의 몰운대를 비롯하여 팔선대 중의 하나로 강선대라고 불렀다.

고려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산세(山勢)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에덴공원 동쪽 맞은 편 산이 산세가 준엄하고 기세가 높 아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 하다고 하여 산의 이름을 승학산(乘鶴山)이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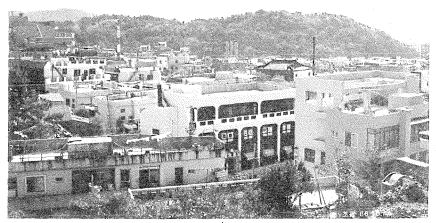
승학산에서 신선(神仙)이 학을 타고 에덴공원 산으로 내려왔다고 하여 강선대(降仙臺)라고 불렀다. 일제말기에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은 오끼나와 (沖繩)를 점령한 미군(美軍)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하에 부산에 병력 5만명을 배치하고 대륙전(大陸戰)의 병참기지인 부산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상아래 특히 부산지역의 전력강화에 힘썼다. 이른바 아까쯔끼(曉) 부대를 주력으로 영도를 비롯하여 적기(赤崎)에

이때 강선대 정상에 일본군이 깊이 굴을 파서 포를 묻고 포병부대가 주 등 하였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서 하단(下端)에 이르는 해안지대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해방후 일본군이 철수하자 이 부근에 살던 강모씨가 이 산을 소유하게되었다. 그러다가 6·25 사변 휴전 직전인 1953 년 7월경 부산중앙교회 백준호 장로(작고, 당세 42세)가 이 산을 사설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도로를 닦고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성경에 나온 아 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동산을 비유하여 1956년에 이곳 명칭을 에덴원이 라고 불렀다. 그 이후 도시의 소음에 지친 시민들이 찾아 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에덴공원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에덴공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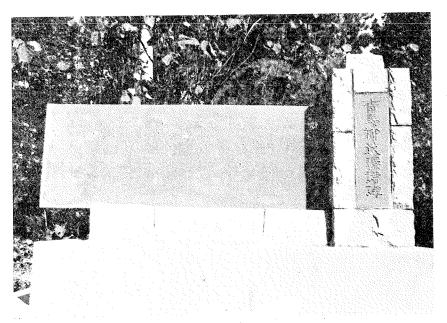
앞으로는 낙동강 하류를 끼고 뒤는 얕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강가운데는 철새 도래지로 이름난 을숙도가 갈대숲을 이루고 있어 퍽 낭만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젊은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장소로 이름나 있다. 숲길을 따라 가노라면 아늑하게 꾸며진 휴식처가 있고, 곳곳에 체육시설을 갖춰 놓고 있다.

이곳에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를 바라보는 전경은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산중턱에서 강을 환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청마(靑馬)유 치환(柳致環)의 시비(詩碑)를 1971년 1월에 세웠다.

깃 발

青馬 柳 致 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하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푯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白鷺)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닯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청마詩碑>

第五章 沙下區 有關機關 및 奉仕團體

- 1. 有關機關
- 2. 奉 仕 團 體

第五章 沙下區 有關機關 및 奉仕團體

1. 有關機關

2. 奉 仕 團 體

1. 유관기관(有關機關)

1)沙下區廳

○ 沙下區의 行政

사하는 지금으로부터 5,000 ~ 6,000 년전 신석기 시대부터 침식곡평지인 괴정지역과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소수의 원주민이 살아왔음이 다대포 몰 운대 입구의 다대동에서 발견된 패총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 후, 사회체제가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변천한 삼한 시대는 변한에 속하였고, 신라 개국과 더불어 거칠산국에 속하였으며 고려때는 울주의 변 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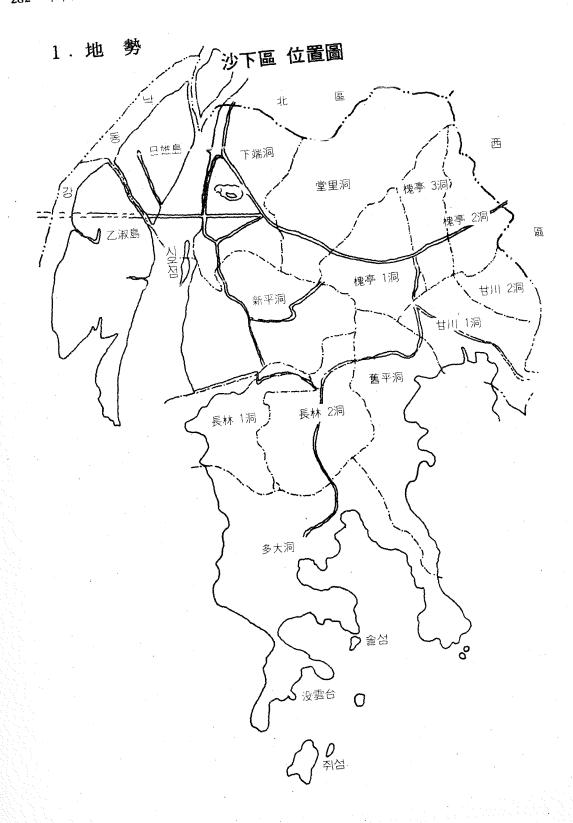
조선 시대로 넘어 오면서부터 사하지역은 일본과 대치하는 군사상 요새지로 탈바꿈하여 구봉산성(다대포), 구덕산성 등의 성곽과 세종 이후 다대**진이** 설치되었다.

1910.10.1. 조선총독부 관제실시로 부제 폐지와 더불어 경남 동래군 사하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25년 4월 19일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됨으로써 지방행정의 심장부가 되었다.

그후, 1942년 제 2차 시구역 확대 때 부산시로 편입하여 1951년 8월 31일 부산시출장소 설치조례에 의거 서부출장소 사하지소로 되었으며, 1957년 1월 1일 부산시 구제실시가 공포됨으로써 서구 사하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75년 8월 26일 부산시 시구 확장계획에 의거 시직할출장소로 승격, 동년 10월 1일 개소 되었다.

1983 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 11248호에 의거 사하구로 승격,동년 12월 15일 개청을 보아 지금은 10과 31계 13동에 이르고 있다.



○ 面 積

(단위: 🕅)

計	田	畓	林 野	垈 地	道路	河川	其他
34.12 (100%)	1.77 (5.2)	0.62	17.21 (50.4)	4.76 (14.0)	1.79 (5.2)	2.45 (7.2)	5.52 (16.2)

○ 道路

(단위:m)

距	· 分	總延長	鋪 裝 道	鋪 裝 率	(사리도) 未舗裝道	道路率
in the state of th	it .	94,825	53,149	56.0%	41,676	
國	道	5,550	5,550	100 %		區:11.59
市	道	89,275	47,599	53.3%	41,676	市:11.06

(2) 地域性格

- ㅇ 市의 西南端 洛東江 河口에 位置
- ㅇ 南쪽은 海岸線으로 甘川灣, 多大巷, 多大해수욕장 位置
- 72 槐亭 및 73 堂里 下端區劃 整理事業 地區
 - 農耕地에서 宅地化: 563,816 坪
- ㅇ 73 대티터널開通:國際港의 關門
- 新平長林工團을 主軸으로 한 法定 工業地域
 - 法定工團設立: 86.7월 (93萬 m²)

(3) 地域與件

가. 用途地域(土地利用)

(단위: km²)

<u></u>	住居地域	商業地域	綠地地域	準 工 業 地 域	専用工業 地 域
34.12 (100%)	4.80 (14.1)	0.17 (0.5)	23.45 (68.7)	4.30 (12.6)	1.40 (4.1)

나. 主要產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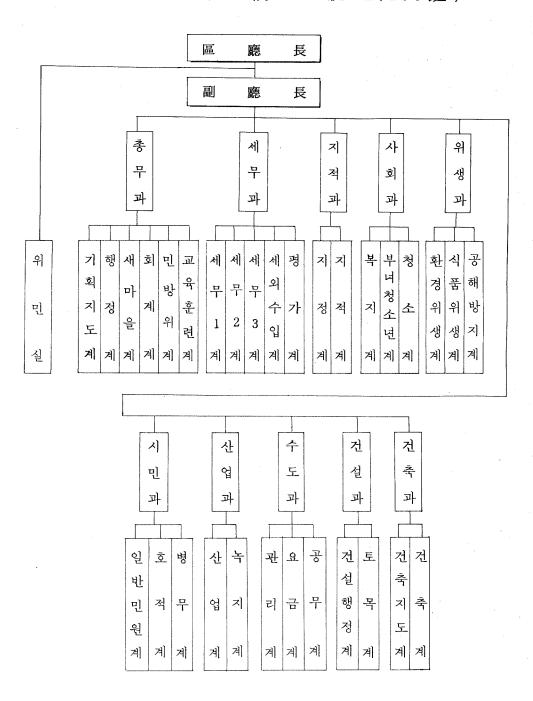
- 조립금속, 기계장비제조業體(業體의 27 %)
- ㅇ 화학 프라스틱제조業體(業體의 17%)
- 業種別 現況

구분	음식료품	섬유(위복 가죽제품	나 무	종이연쇄 출판 업	화학, <i>고</i> 무 프라스틱	비금속 철 물	제1차 금 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기타	계
업체수	82	58	46	23	81	35	17	140	35	517
종업원수	3,233	7,349	1,678	558	7,401	2,157	2,294	8,674	2,783	36,127

(4) 特殊與件(發展基盤 및 潛在與件)

- ㅇ 다대포를 중심으로한 연근해 어업 전진기지
- o 감천만 매립공사 착공 (79 91)
- 고철, 양곡, 시멘트 전용부두 및 종합조선단지화
- 。 觀光名所로서의 開發可能地域
 - 에덴공원, 다대해수욕장, 낙동강 철새도래지 등
- ㅇ 문화재 遺蹟地 保護地域
 - 몰운대, 다대포객사, 윤공단, 정운공순의비 등
- o 新平,長林工團에 新規轉入産業體誘置로 法定工業地區 造成

(5) 機 構 : 10課 31係 (13洞 391統 2,136班)



(6) 歷代出張所長

代數	職名	姓 名	在 任	期 間	備考
1 4 34	אויי ב	х ј ы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C. an
. 1	지방서기관	金性宗	75.10. 1	78. 8.16	
2	"	趙井來	78. 8.16	80. 7.15	
3	"	金重根	80. 8.21	83.12.15	

(7) 歷代區廳長

代數	職名	姓 名	在 任 就任年月日	期 間 離任年月日	備考
1	부이사관	金重根	83.12.15	85. 3.11	
2	. "	丁徹鎭	85. 3.11	現在	

2) 西部警察署

(1) 沿 革

1957. 7.26 1957. 7.26 자 大統領 令 第 1298 號 警察署 직제 개정 공포로 신설

> 釜山市 西區 西大新洞 2 街 36 番地 기독교 전도관을임 시 청사로 使用

1959. 4.13 釜山市 西區 西大新洞 2 街 288 番地 現廳舎에 入住

1973. 7.14 釜山西警察署가 西部警察署로 名稱變更 및 西區 西大新洞 2 街 271番地로 變更 (大統領 5764號, 73. 8.10釜山市 規則第 55號)

(2) 歷代機關長(署長)

代數	階級	姓名	在 任	期間	備考
1 4 364	re //x	XI. 11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уна <i>1</i> 5
初代	総警	鄭武壽	1957. 8. 7	1959. 7.18	•
2	"	李漢永	1959. 7.31	1960. 5.12	
3	"	朴勁仁	1960. 5.12	1960. 9.26	
4	"	李承估	1960. 9.26	1960.12.15	
5	"	郭 貴 童	1960.12.15	1961, 6.15	
6	警監	李居洛	1961. 6.10	1961.7.18	
7	總警	鄭成俊	1961. 7.18	1962, 5,31	
8	總警	李淳鎔	1962.5.31	1963. 6.25	
9	"	朴 永 鎬	1963.6.25	1964.11. 5	
10	"	咸 潤 海	1964.11. 5	1965.11. 9	
11	"	金鎭碩	1965.11. 9	1966. 5.12	
12	"	鄭水昌	1966. 5.12	1967.10.28	
13	"	李日夏	1967,10,28	1968.12.16	
14	"	金鎭碩	1968.12.16	1969, 8, 5	
. 15	"	李性儀	1969. 8. 5	1970.7.20	
16	"	金鳳錫	1970.7.20	1972 .10 .24	
17	"	鄭必櫓	1972.10.24	1975. 6.28	
18	"	河永筠	1975. 6.28	1976. 4.10	
19	"	李呈洙	1976. 4.10	. 1976 . 8. 9 .	
20	"	崔炳銀	1976. 8. 9	1979. 2.20	
21	"	朴英吉	1979. 2.20	1980.1.28	-

代數	階級	姓 名	在 任	期間	備考
1 \ 30	数件的极	好 11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加 专
22	總警	金湾星	1980. 1.28	1981.11.26	
23	"	金甲琇	1981.11.26	1982.12.27	
24	"	崔相基	1982.12.27	1985. 3. 4	Virginia de la constanta de la
25	"	金 榮 基	1985. 3. 4	1986. 1.28	
26	"	金京洙	1986. 1.28	現在	

(3) 管內派出所(沙下區)

派出所名	Ē	斤	在	地	設立年度	管 轄 洞
長林派出所	釜山市 社	少下區	長林洞	325-11	1974. 1.18	長林洞
新平 ″	"	" ,	新平洞	161-176	1969. 3. 1	新平洞
甘川1 "	"	"	甘川1	洞 453-1	1958. 2. 7	甘川1洞
甘川2 //	"	"	甘川2	洞 12-110	1980.10. 2	甘川2洞
大峙 //	"	"	槐亭 2	洞 199-1	1980. 9.20	槐亭 2 洞
槐 亭 //	<u>,"</u>	"	槐亭洞	262 - 3	1977. 9.30	槐亭 3 洞
沙下1 "	"	"	"	747 – 4	1933. 5. 8	槐亭 1 洞
沙下2 "	"	"	"	581 – 31	1980. 9.20	槐亭 4 洞
下端 "	"	"	下端洞	588-35	1979.10. 2	下端洞
堂里 "	"	"//	"	534-13	1980.10. 2	堂里 22 個統, 下端 6 個統
舊平 "	"	"	舊平洞	112-3	1980. 9.20	舊平洞
甘川檢問所	"	"	甘川1	洞 825	1975. 5. 7	

3) 西部教育區廳

(1) 연 혁

년 월 일		연 형	비 고
73. 2. 1	0	서부교육구청 개청	72.12.30 대통령
		초대 청장 서국선 장학관 취임	령 제 6439 호에 의
		편제 2 과 4 계 (학무과 3계 , 관리과	거 부산시교육위원
		4 계) 관할구역	회 직제개편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75.12. 1	0		75.12. 1 대통령
		부산시 남구를 편입	령 제 7868 호 의거
76. 6.12	0	제2대 청장 박지호 장학관 취임	
77. 3. 2	0	제 3 대 청장 손사인 서기관 취임	
78. 3.15	0	제4대 청장 노장연 서기관 취임	
79.7.6	0	학무과에 사회교육계 증설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규칙 제 137호
			에 의거
80. 3. 1	0	제5대 청장 양득우 장학관 취임	
81. 4.10	0	서부교육구청 관할구역 변경	81. 2.22 대통령
			령 제 10221
81.7.1	0	학무과에 학사계, 관리과에 기획	부 산직할시 교육위
		감사계 증설	원회 교육규칙 제 165
			호에 의거
83. 6.23	0	관리과에 관재계 증설	부산직할시교육위
			원회 교육규칙제
			197호에 의거
83.12. 9	0	부산직할시 서구 토성동 2 가 24 번	
		에서 서대신동 3 가 163 번지로 이전	
84. 3. 1	0	1 4 1 0 0 22 1 0 12 11	
86. 9. 1	0	제7대 청장 조병효 장학관 취임	·

(2) 관장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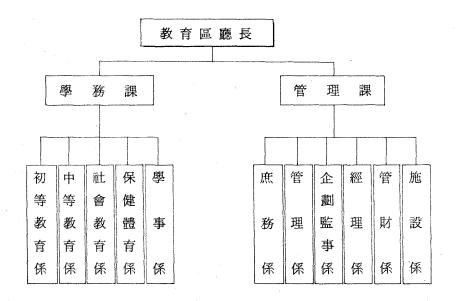
가. 교육구청장: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나 학 무 과 의무교육 중학교 이하의 교원의 인사 및 연수,교육과정,학사지도,장학,시청각교육, 학예환경정화,보건,체육,학교급식,성인교육, 청소년지도 및 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다. 관 리 과:인사(교원제외), 관인, 회계, 예산, 재산관리, 보안, 문서관리, 육성회 운영교육시설 및 공립 또 는 사립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 구 표

가. 기구: 2과 11개



(4) 역대교육구청장

서 며	재 임	기 간
්ර ් ර	취 임 년 월 일	이 임 년 월 일
서 국 선	73, 2, 1	76. 6.11
박 지 호	76. 6.12	77. 3. 1
손 사 인	77. 3. 2	78. 3.14
노 장 연	78. 3.15	80. 2.28
양 득 우	80.3.1	80. 2.28
신 진 숙	84. 3. 1	86. 8.31
조 병 효	86. 9. 1	
	박 지 호 손 사 인 노 장 연 양 두 우 신 진 숙	정 명 취임년월일 서 국 선 73. 2. 1 박 지 호 76. 6.12 손 사 인 77. 3. 2 노 장 연 78. 3.15 양 두 우 80. 3. 1 신 진 숙 84. 3. 1

(5) 사하지역 유치원 및 유아원 현황

가. 유치원현황

,		·				
연번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설립자명	학급수	학생수
1	무 궁 화	신평동 158-2	84. 8.13	김명숙	1	40
2	지 산	장림동 597	82 .12 .29	이판근	2	70
3	주 공	다대동 86-6	84.11.26	박영철	2	37
4	동 신	당리동 512	86, 1,13	계 안 식	3	79
5	라 보	괴정 2 동 175-1	86, 2, 5	곽 봉 일	1	30
6	은 하 수	괴정동 537-11	86, 2, 5	원승일	4	144
7	감천국교병설	감천 1 동 202	86, 2, 6	감천국교	2	80
8	진 성	괴정 2 동 2-36	86, 3,27	배명수	5	1 43

연 번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설립자명	학급수	학생수
9	괴 정 중 앙	괴정 3동 431-11	85,11,12	김기성	2	30
10	목 화	장림 2 동 606-2	85. 1.10	이순희	1	40
11	그 립	당리동 317-2	84. 3. 1	김현숙	1	30
12	햇 빗	괴정 1동 1066-1	71. 2. 1	천 주 교 부산교구	3	120
13	새 싹	당리동 317-28	82.12.8	하현 식	6	240
14	다 대 원 광	다대동 160	84. 9.11	재단법인 원불 교	1	30
15	동주여전부속	괴정동 240-52	81.11.11	학교법인 석 파	4	160
16	원 광	당리동 21	86. 2.25	김 환 열	1	23
17	햇 님	괴정 3 동 957=5	84.3.1	김명수	2	70
18	사 하	괴정 4 동 산 121	80.11.11	이희진	3	100
19	감정국교병설	감천 2 동 산 97	85. 3. 1	감정국교	1	40
20	호 산 나	다대 <u>동</u> 668-43	83. 5.16	김 경 봉	2	80
21	성 심	감천 1 동 530	85. 3. 1	노경호	2	49
22	구 평 제 일	구평동 109-1	85. 9. 2	박 승 기	1	40
23	에 덴	하단동 512-6	85.3.1	김형대	3	101

나. 유아원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칭	소유지	설립년월일	시설주	운영주체 정원/ 반수
1	시립	하단동 새마을유아원	하단 동 608	82.3.5	시	황 하 주 160/4
2	"	괴정 4 동 //	괴정 4 동 1075-2	82.12. 1	시	오 대 양 160/4
3	"	당리동 "	하단동 534-13	82.12.1		산양공업사 160/4

연번	구분	시설명칭	소 유 지	설립년월일	시설주	운영주체	정원/ 반수
4	시 립	감천 2 동 새마을유아원	감천 2 동 12-233	83. 7.14	시	생 세 대 육 영 회	120/3
5	"	감천 1 동 //	감천 1 동 654	81. 3.16	안나모자원	생 마 을 부 녀 회	120⁄3
6	"	괴정 2 동 //	괴정 2 동 3-1	82. 9.20	한나모자원	한나모자원	120/3
7	"	괴정 3 동 //	괴정 3 동 1238-78	82.11.15	협성실전	협성실전	80⁄2
8	"	장림 2 동 //	장림 2 동 349-2	82.12.10	장림교회	장림교회	120/3
9	민자보	장림1동#	장림 1 동산 173-4	83. 3. 4	시	김동윤	160⁄4
10	"	신평동 "	신평 동 214	83. 5.20	시	김수자	160/4
11	"	국 제 "	다대동 216	83.12.1	시	김면환	200⁄5
12	"	새세계 "	당리동 540-1	83.12.1	시	신연자	240⁄6
13	前 어린이집	괴 정 #	괴정 3 동 418	68. 2.27	시	이성옥	160/4
14	"	항 도 "	신평동 128-6	71. 5.20	김 만 곤	김성희	120/3
15	"	시립성광 //	감천 2 동 13-614	74.11.14	시	황경만	80⁄2
16	"	성 등 //	감천 1 동 199	65,11,19	법 인 (김경자)	김경자	80⁄2
17	"	방 울 "	괴정 1 동 493-23	75. 5.17	차정 자	차 정 자	80⁄2
18	//	천 혜 "	괴정 4 동 1082-57	71.12.10	김은자	김은 자	80/2
19	. //	에 덴 "	하단동 592-5	71. 2.18	화 단 중앙교회	홍성용	120/3
20	"	제 일 "	장림 1 동 853	76. 5.18	김영수	김정자	120⁄3
21	"	성 광 "	감천 1 동 8 5	68. 5.10	정춘자	정춘 자	120⁄3
22	"	감 천 "	감천 2 동 산 99 - 7	73. 1.29	박덕주	박덕주	80⁄2
23	민 간	천 사 "	당리동 182-16	82. 5.23	김태수	최송엽	80/2
24	"	길메리 "	하단동 503-16	83. 4.11	김숙자	김숙자	80/2
25	"	무궁화 "	하단동 487-6	83.10.6	김 옥 희	김 옥 희	80⁄2
26	민자보	코끼리 "	다대동 927-1	86.3.1	시	송춘선	160/4

(6) 사하지역 국민학교 현황

લ્વ મો	학 교 명	소 재 지	학급	교원	ब्	· 생	÷	설 립
연번	of m. 2	소 재 지	宁	宁	계	남	여	일 자
1	사남국교	괴정동 1206-75	24	27	1,134	636	498	83. 1.22
2	서천국교	감천 1 동 506-1	25	27	1,273	669	604	85.2.2
3	하단국교	하단동 593-1	45	50	2,468	1,299	1,169	83. 1.27
4	구평국교	구평동 산 9-1	17	19	761	288	373	81.12.29
5	옥천국교	감천 동 824	37	40	2,072	1,066	1,006	82.3.1
6	승학국교	과정 2동 354-111	39	42	2,024	1,022	1,002	81.3.2
7	감정국교	감천 2 동 산 9 7	25	28	1,184	596	588	79.12.31
8	괴정국교	괴정 2 동 315	44	50	2,209	1,141	1,068	69,10,12
9	신평국교	신평동 226	52	57	2,930	1,518	1,412	67.8.9
10	효림국교	장림 2 동 356-2	25	58	1,216	637	579	83. 1.31
11	장림국교	장림 2 동 182	58	63	3,181	1,651	1,530	65.11.20
12	당리국교	당리동 산 97-3	21	23	1,109	585	524	84. 1.25
13	낙동국교	당리동 361-1	63	68	3,485	1,797	1,688	66. 2.14
14	감천국교	감천 1 동 202	62	67	3,370	1,793	1,577	52.4.1
15	사하국교	괴정 1동 775	68	73	3,779	1,859	1,920	19.10.10
16	다대국교	다대동1140	30	33	1,691	858	833	43.4.1

(7) 사하지역 중학교 현황

_	l ul	줐	,	173	2		II	اد	학급	교원	학	생	수	설	립	비고
0	l번	۳ ۱	<u> 11</u>	명	소	,	재	지	宁	수	계.	남	여	일	자	1177
	1	사	히	중	괴정	4	동10	091–1	33	51	2,108	2,018		70.	1.13	공립
	2	장	평	중	감천	동	824	-11	29	46	1,857	1,857		81.1	2.28	"
	3	장	림	중	장림	동	39-	-3	8	18	498	124	365	86.	1.8	"

연번	학교 명	소 재 지	학급	교원	ক্	- 생 -	Ϋ́	설	il i	ນ]
21	4 -112 - 73	소 재 지	수	수	계	남	여	일 >	‹ }_	비고
4	부산서여중	당리동 438-1	34	51	2,162		2,162	67. 9.	8	공립
- 5	사하여중	하단동 502-1	34	51	2,167		2,167	81.1.	17	"
6	감천여중	감천동산 10	29	45	1,828		1,828	82.12.	27	"
7	건 국 중	하단동 산 40	24	36	1,528	1,528		49. 9.	1	사립
8	영 남 중	장림동 3	3 0	44	1,887	1,887	-	52.6.	1	"
9	삼 성 중	감천동 산 8-1	24	36	1,525	1,525		55, 4.	6	"
10	동주여중	괴정동 380-1	35	52	2,107		2,107	49.4.	26	. //

(8) 사하지역 고등학교 현황

연 번	학교명	소 재 지	학급	교원	학	생 -	宁	설	립	비고
2 1	7 14 3	소 재 지	宁	宁	계	남	여	일	자	미끄
1	부산여고	사하구하단통 495-1	36	68	2,124		2,124	45.	10.1	공립
2	해동고교	사하구괴정 1 동613	30	54	1,769	1,769		46.	4.8	사립
3	삼성여고	사하구감천동 598	36	63	2,131		2,131	74.	12.28	"
4	동아공고	사하구괴정 1동 619	33	55	1,841	1,841		63.	1.4	",
5	건국상고	사하구하단동산 41	27	47	1,585	1,585		55.	4. 9	"

(9) 기타학교

역	비	학교명	- イス	해 지	학급	교원	학	· 생 ·	수	설	립	धो त
=	- 11	7 0	11_ ^	11 -1	수	수	계	남	여	일	자	-1 -1-
	1	상록고등 기술학교	당리동	286-1	19	29	969	896	73	79.1	2.7	사립

4) 沙下消防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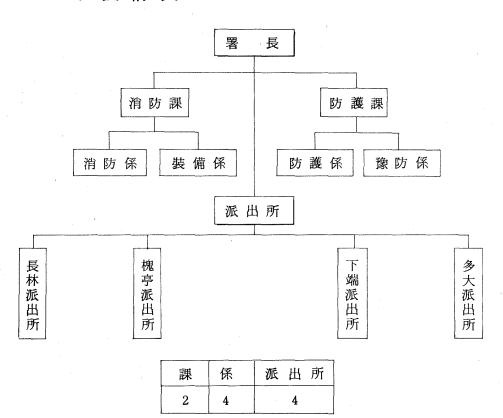
(1) 沿 革

- 1983. 7.23 中部消防署 長林派出所 新設 (釜山市 規則 第 1671 號)
- 1983. 9.17 中部消防署 長林派出所 開所
- o 1984.11.28 沙下消防署 新設承認

(釜山市 條例 第 2014 號)

1984.12.20沙下消防署 開署(長林,槐亭,下端,多大派出所)

(2) 機構表



(3) 역대기관장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 임 년 월 일
초 대	張 判 洙	84.12.20	1986.11. 4
2	成 泰 奉	86.11. 5	現在

(4) 관내소방파출소 현황

연번	명 칭	소 재 지	차량대수	직원수	설립년도	관할구역
1	長林派出所	沙下區 新平洞 544	16	32		長林 1, 2洞 新平洞 舊平洞
2	槐亭 //	沙下區 槐亭 1	2	15	77	槐亭 1,2,3,4 洞 甘川 1,2洞
3	下端 "	沙下區 下端洞 526-3	2	12	82	下端洞
4	多大 "	沙下區 多大洞 ·680-24	2	12	82	多大洞

5) 沙下區保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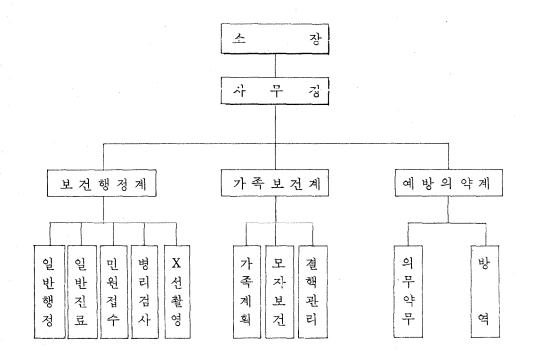
(1) 연 혁

1973. 2.15 서구보건소 사하보건지소 설치

ㅇ 1985. 6.20 사하구보건소 설치 및 직제공포

ㅇ 1985. 7. 1 사하구보건소 개소

(2) 기구표



ㅇ 인 력

子	분	계	의 무	행 정	보 건	간 호	약 무	의 사	고 용
정	원	37	2	4	10	10	2	1	8
현	원	35	. 2	4	11	9		1	8
증	감	2			+1	1	2		

(3) 역대기관장

m /	24	nia	재 임	기 간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 임 년 월 일
초 대	노 인	숙	1985. 9. 6	現 在

(4) 주요업무

- 인구증가억제시책의 추진(가족계획사업)
- 방역사업
- ㅇ 콜레라외 8종 예방접종
 - ㅇ 소독작업:차량연막외 4 종
- 의료보호
- 무료순회진료
- 만성병관리
- O 의약관리
- 성병관리
- 노인 및 영세민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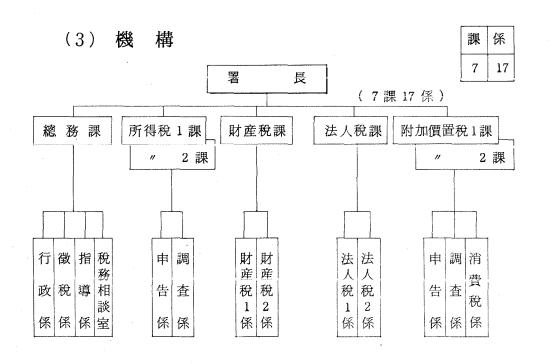
6) 西釜山稅務署

(1) 연 혁

년 월 일	근	거	내	8	관 할	구 역
1951. 5. 1	대통령령 제	475 호	영도세무시	러발 족	부산시 영	도구, 서구
1955. 9. 1	〃 제	960 ক্র	남부산세두	구서개칭	. "	
1979. 4. 2	〃 제 9	387호	서부산세두	구 서 개칭	부산시 서	구,사하구

(2) 주요업무

국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역대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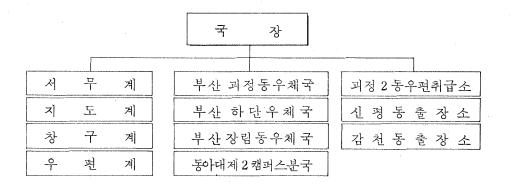
代數	姓	名	在任期間	代數	姓	名	在任期間
초대		승 룡 烈)	$66. \ 3.28$ $\sim 66. \ 9. \ 5$	9	박 (차	상 학 商 鶴)	$76. 7. 7$ $\sim 78. 8. 6$
2	(鄭)	인 기 寅 琪)	$66.9.6$ $\sim 68.4.30$	10	문 (文	상 구 相 九)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		종 석 鍾 錫)	$69.5.1$ $\sim 69.2.13$	11	최 (崔	문 환 文 焕)	$ \begin{array}{c} 80.8.19 \\ \sim 82.1.31 \end{array} $
4	-	テー 甘 求 範)	$69. \ 2.14$ $\sim 70. \ 1.31$	12	성 (成	희 웅 熙 雄)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5		병 원 秉 源)	$70.2.1$ $\sim 71.10.7$	13	송 (宋	子 범 龜 範)	$83. \ 2. \ 7$ $\sim 85. \ 3.17$
6	(朴耳	어 용 湍 用)	$71.10.8$ $\sim 74.2.11$	14	김 (金	순 규 淳 圭)	$83. \ 3.18$ $\sim 86. \ 2.26$
7		홍 인 共 仁)	$74.2.12$ $\sim 76.4.5$	15	이 (李	영 英 明)	86. 2.27 ~ 현 재
8		정 섭 E 燮)	$76.4.6$ $\sim 76.7.6$				

7) 釜山沙下郵遞局

(1) 沿 革

- ㅇ 1968.11.30 釜山 槐亭洞 우체국 개국
- ㅇ 1980.11.6 事務官局 승석
- ㅇ 1984.12.31 釜山 沙下우체국 局名개칭

(2) 機構表



(3) 取扱業務

가. 지방 체신관서 직제 제 11호 규정에 의거

- 1) 우 편
- 2) 우 편 환
- 3) 우편대체
- 4) 체신예금
- 5) 체신보험
- 6) 전신전화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나. 훈령제 767호 (85년 5월 24일)에 의거 소속국에 대한 감독업무

(4) 歷代機關長

在 敏	111	名	在 任	期間
代數	代 數) 姓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초 대	河	浩 璡	1980.11. 6	1984. 1.13
2	朴	千 根	1984. 1.13	1984. 7.12
3	尹	奎 鉉	1984. 7.12	

8) 韓國電力公社釜山火力發電所

(1) 沿 革

가. 第1.2號機

1961. 3.29 工 事 着 工

1962. 4.10 美國 I.G.E의 工事契約

1964. 3. 1 第1號機 商業運電

1964. 4.20 第2號機 商業運轉

1964. 8.20 竣工

1984. 3. 26 電氣集塵器增設工事 着工

1984. 12. 26 電氣集塵器增設工事 竣工

나. 第3. 4 號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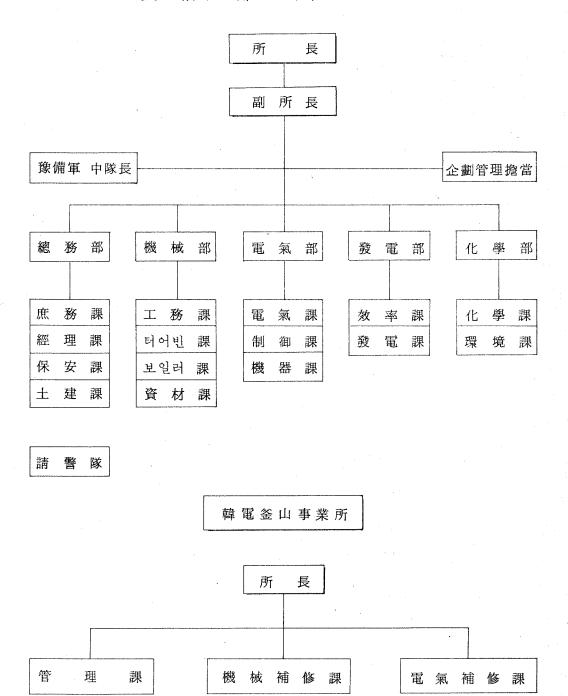
1966. 11. 18 西獨 SIEMENS社의 工事契約

1968. 11. 1 第3號機 商業運轉

1969. 4. 1 第 4 號機 商業運轉

1969. 6. 4 竣 工

(2) 機 構(5部15課)



(3) 任 務

- 1. 計 劃 發 電
- 2. 設備維持補修
- 3. 施 設 防 護
- 4. 教 育 訓 練

(4) 歷代所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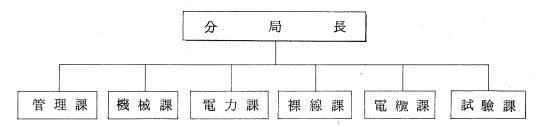
415	-5- F		4.1.		在 任	期間
代	數	姓		名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초	대	李	京	熙	·	1981. 6. 2
2	2	李	鍾	根	1981. 6. 2	1983. 9.15
3	3	李	萬	雨	1983. 9.15	1985. 2. 8
4	ļ.	許		淳	1985. 2. 8	1986. 7.18
5	5	宋	鍾	國	1986. 7.18	

9) 峨嵋電信電話局槐亭分局

(1) 沿 革

- 1978. 8.30 峨嵋電信電話局 槐亭分局 新設 (E.M.D 3,000回線)
- 1982.1.1 韓國電氣通信公社 峨帽電信電話局 轉換 (釜山支社 直營局)
- ㅇ 1984. 7. 1 釜山支社 直營局에서 峨嵋電信電話局 獨立

(2) 機構表



(3) 取扱業務

韓國電氣通信公社 法 第22條에 依據

- 電信電話의 營業
- 電信電話施設의 維持 및 補修

(4) 歷代機關長

•				
代數	姓	 名	在 任	期間
14 364	XE	-H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초 대	白 奉	基	78. 8.30	79. 3.20
2 代	金相	國	79. 3.20	81. 1.20
3 代	李樹	彩	81. 3. 9	82. 7.26
4 代	千 鍾	守	82.7.26	82.12.22
5 代	鄭英	鎬	83. 1. 1	-84. 7.10
6代	裵 仁	焕	84. 7.10	86. 5.29
7代	鄭 焕	永	86. 5.29	現在

10) 釜山直轄市立沙下圖書館

(1) 沿 革

- 1983.12.31 沙下圖書館 着工
- 1984.7.5 釜山直轄市立 沙下圖書館設立(釜山直轄市條例1993號)
- 1984. 7.27 釜山直轄市立 沙下圖書館竣工
- o 1984. 9.25 開 館

(2) 圖書館現況

명 칭	소 재 지	장서 량	좌 석 수	직원수	건	물
8 8	<u> </u>	78 71 6	771	7 6 1	대 지	건 평
釜山直轄市立	沙下區 槐亭	권	석	丏	4,927 m ²	$1342\frac{103}{m}$
沙下圖書館	洞 1040-3	9,600	600	24	(1.490.4평)	(406평)

(3) 歷代館長

A	代 數	灺		名	在	任	期	阻
		XI		- 1-4	就任年	月日	離任	年月日
初	代							
館	長	柳	在	基	84. 8.	1	現	在

11) 東 亞 大 學 校

(1) 教育目的 및 學訓

◎ 教育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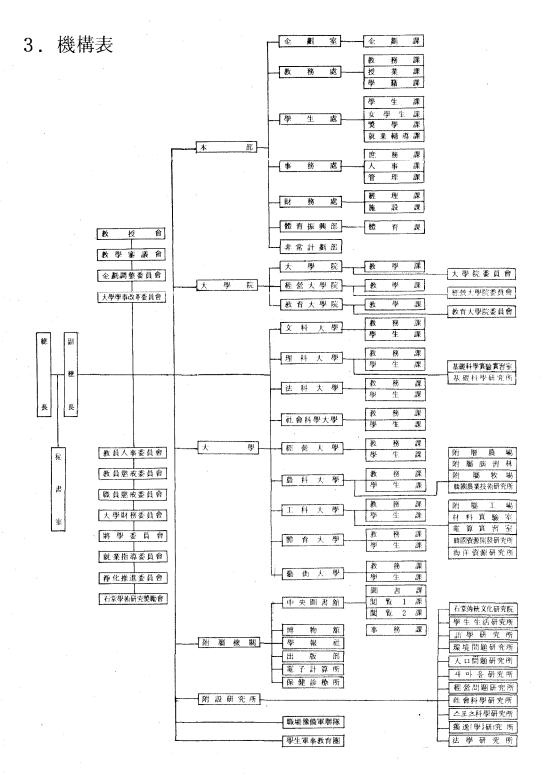
本 大學校는 大韓民國의 教育精神을 遵奉하여 人類文化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廣範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고 아울리 指導的 人格을 陶冶함을 目的으로 한다.

● 學訓(校是)

自由・眞理・正義

(2) 沿 革

1946年 11月 大學講坐 開設. 1947年 12月 財團法人 東亞學塾의 設立許可의 東亞大學의 設立認可로 2學部(法學部,文理學部)5學科를 設置. 1954年1月 農學部 設置. 1955年3月 工學部 設置. 1956年4月2部大學 設置. 1958年9月大學院 設置. 1959年2月綜合大學校 昇格.1959年4月 鄭在煥 初代總長 就任. 1969年2月經營大學院 設置. 1973年1月教育大學院 設置. 1975年6月 鄭樹鳳 第2代 總長 就任. 1979年4月 工科大學을 下端캠퍼스로 移轉. 1979年9月文理科大學을 文科大學과 理科大學으로,法經大學을 政法大學과 商經大學으로 分離改編. 1980年10月 政法大學을 法政大學으로 大學名稱 變更, 2部大學을 夜間講座開設學科로改編. 1981年8月 理科大學과 農科大學을 下端캠퍼스로 移轉. 1982年10月體育大學設置. 1983年9月 藝術大學 設置. 1984年10月 法政大學・商經大學을 法科大學・社會科學大學・經營大學으로 調整改編. 1985年8月 大學本部 및 文科大學을 下端캠퍼스로 移轉. 1986年10月醫科大學 設置.



(4) 教育課程 및 特殊性

가.大學別 教育課程(學科編成)및 卒業定員

大			學	學科	卒業定員	取	得	學	位	
				哲 學 科		文	學	士		
	*			國語國文學科			"			
				英語英文學科			"			
				史 學 科			″			
文	科	大	學	獨語獨文學科	630		"			
				日語日文學科			"			
				佛語佛文學科			"			
				中語中文學科			"			
				國民倫理學科			"	•		
				教 育 學 科	40		"			
				計	670					
				數 學 科		理	學	士		
				物理學科			".			
				化 學 科			"		•	
理	科	大	學	生物學科	400		//			
				家庭管理學科		家	政	學	士	
				食品營養學科		理	學	士		
				衣 類 學 科		家	政	學	士	
				醫 豫 科		-				
				計	400					
法	科	大	學	法 學 科	170	法	學	士		
				#	170					
				政治外交學科		政	治	學	士	
社	會	科		經 齊 學 科	300	經	湾	學	士	
大			學	行 政 學 科		行	政	學	土	
				社 會 學 科		文	學	士		
				計	300					
				經 營 學 科		經	營	學	士	
				觀光經營學科			"			
經	營	大	學	貿易學科	640		"			
				會 計 學 科			//			
				應用統計學科			//			
				經營情報學科			"			
				計	640					

大		學	學 科	卒業定員	取	得	學	位
-			農 學 科		農	學	士	
			園藝學科			"		
			畜 産 學 科			"		
農 科	大	學	3 絲 學 科	280		"		
			農生物學科			ii		
			農業經濟學科		經	濟	學	士
			造 景 學 科		農	學	土	
			計	280				
			建築工學科		工	學	士	
			土木工學科			″		
			機械工學科			″		
			都市計劃學科			"		
			環境工學科	•		"		
			産業工學科			/i	•	
工科	大	學	電子工學科	1,240		"		
			化學工學科			″		
			電氣工學科			"		
			金屬工學科			"		
			資源工學科			"		
			電算工學科			"		
			海洋工學科			//		
			計	1,240				
			體育學科		體	育	學	士
體育	大	學	舞踊學科	190		# -		
			競技指導學科			"		
			社會體育學科		-	"		
			計	190				
			繪畫科		美	術	學	士
			工藝科			"		
藝術	大	學	産業美術科	180		//		
			彫 塑 科			"		
			音樂學科		音	樂	學	<u>±</u>
			計	180				
			合 計	4,070			***************************************	

나. 特殊性

「세계속의 대학」을 志向하여 私學頂上의 자리로 굳히고 있는 本 大學校는 開校 40年의 歷史속에서 39,121名의 卒業生을 배출시켜 사회 자계 자층에서 國家發展에 寄與토록 하였으며, 특히 釜山體育의 기둥인 本校 體育活動은 史上初有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獲得하였고 그 底力은 LA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氣焰을 토하였다.

工科大學 環境工學科는 文教部에서 特別育成學科로 指定하여 各種支援을 받고 있으며, 地理的으로 西・沙下區에 位置한 本校는 區民 및 西部慶南地域 住民들에게 良質의 醫療施術을 目的으로 88年 開院의 目標 아래 大學附屬病院建立을 推進하고 있다.

(5) 歷代總長

115	, tra		2-4	任	期間
代	数	姓	名	就任年月日	離任年月日
初	代	鄭	在 煥	1959. 4. 1	1975. 6.25
2	代	鄭	樹鳳	1975. 6.26	現在

12) 東洲女子專門大學

(1) 교육목표 및 학훈

1) 교육목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함으로써 성실하고 유능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가)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재능 연마
- 나)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품성 함양
- 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창조적 직업인으로서의 능력배양

2) 교육방침

가) 직업기술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개선, 교육방법 개발, 실험실습 교육의 강화로 전문 기술의 철저한 습득에 진력을 경주한다.

- 나) 산학협동 체제의 확립
 - 산학협의회 조직, 산업체와 자매결연, 산학교수제 실시, 현장실습 교육의 강화로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한다
- 다)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실, 실험실습 시설 및 학생후생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단기 직업완 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라) 변천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지도력을 지닌 직업인으로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3) 학 훈:眞・正・純

(2) 연 혁

- 1977. 3. 30 학교법인 석파학원 설립인가 신청
- 1977. 6. 24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 설립계획 승인
- 1977. 7. 30 학교법인 석파학원 설립인가

초대 이사장 정종섭 취임

1978. 2.15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 설립인가

가정과, 보육과, 의상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과,

전자계산과(각과 정원 80명)

- 1978. 3. 20 제 2 대 이사장 이필영 취임
- 1978. 3. 25 본관 교사 준공 및 개교
- 1979. 1. 1 동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
- 1979. 3. 1 초대학장 정종섭 취임
- 1979. 9. 20 학칙변경 인가

식품영양과 신설(80명)

보육과 40명, 산업디자인과 40명 증원

- 1980. 3. 5 신관 교사 준공
- 1980. 9. 13 학칙변경인가

경영과 (80 명), 영어과 (80 명), 음악과 (40 명),

무용과 (40명) 신설

유아교육과 40명 증원

가정과 40명, 의상과 80명 감원

1981. 10, 16 학칙변경 인가 일어과(80명), 공예과(40명) 신설 무용과는 체육무용과로 개명 경영과 40명 증원

1982. 3. 12 부속유치원사 준공 및 개원, 신입생 입학식

1982. 6. 23 제 3 대 이사장 김종구 취임

1982. 10. 8 학칙변경 인가 유아교육과 (120명), 경영과 (80명) 증원 가정과 (40명), 응용미술과 (40명), 영어과 (40명), 일어과 (40명) 감원 공예과, 체육무용과 폐지

1983. 9.16 학칙변경 인가 세무회계과(80명), 관광통역과(40명) 신설 가정과(40명), 전자계산과(40명) 증원 가정과(40명), 경영과(40명), 유아교육과(40명), 응용미술과(40명) 감원 영어과, 일어과 폐지

1984. 10. 30 학칙변경 인가 관광통역과 (40명), 음악과 (40명) 증원 경영과 (40명), 세무회계과 (40명) 감원

1985. 3. 4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고오란여자 단기대학]과 자매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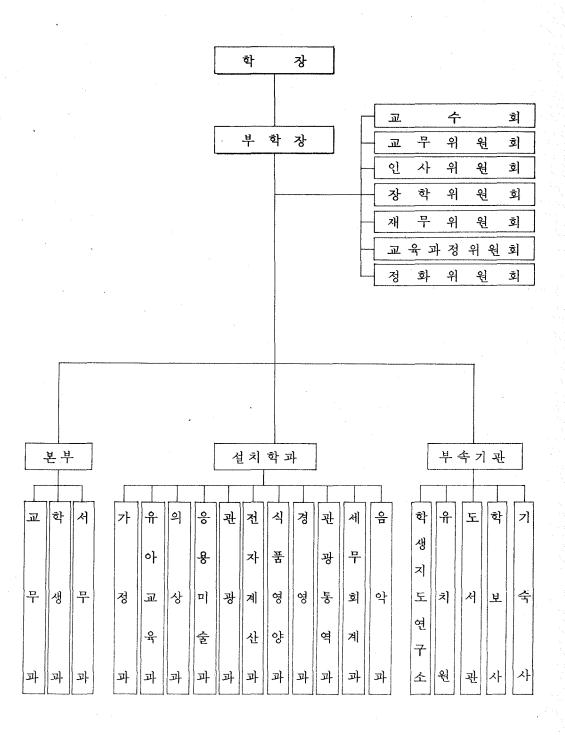
1985. 5. 5 제 1 기 '동주여성대학'개설

1986. 2. 1 제 6회 졸업식

1986. 2.14 제 3 호관 및 제 4 호관 준공

1986. 3. 4 전문대학 제 8회 신입생 입학식

3. 기구표



(4) 교육과정 및 특수성

1. 학과 및 졸업정원

학	과	모 집 인 원	졸 업 정 원
가	정 과	92 명	80 명
유 아	교 육 과	276명	240 명
의	상 과	138명	120 명
<u> </u>	미술 과	46명	40명
관	광 과	92 명	80 명
전 자	계 산 과	138 명	120 명
식 품	영 양 과	138 명	120 명
경	영 과	138 명	120 명
관 광	통 역 과	92명	80 명
세 무	회 계 과	46 명	40 명
음	악 과	92 명	80 명
	계	1,288 명	1,120 명

2 . 졸업후의 자격증 및 대우

과	자 격	취 업 분 야
가정 과	중동실기교사자격증(과목:가정) 의류기사2급 조 리 사1급	중등학교교사, 입시학원강사, 요 리학원강사, 의류관리사, 소비자 고발센터상담요원, 가족계획계몽 요원, 수공예점경영, 꽃꽂이강사.
의상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양, 한재) 의류기사2급	중등학교교사, 의상실, 의류판매 업, 학원강사, 봉재회사, 디자이 너, 의류제조업체
유 아 교육과	유치원 2 급정교사	유치원교사, 유아원교사, 미술학 원보육교사, 음악학원보육교사, 체육관보육교사.
응 용 미술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미술)	중등학교교사, 각업체홍보실, 광 고대행사, 가구회사, 미술학원강사, 설계사무소,기업체디자인실,실내장식가
전 자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전자 계산) 정보처리기사2급, 전자 계산기 조직기사2급	중등학교교사, 각기관전산실, 은 행원학원강사, 일반사무원
관광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타자)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 관광숙박 업종사원자격증,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원.	중등학교교사, 관광호텔, 국제공 항, 여행사, 항공기승무원, 외국 인 전용면세품판매점, 일반기업 체비서실 및 의전실。

과	자 격	취 업 분 야
식 품 영양과	영양사자격증, 조리사 1 급, 식품 가공제조기사 2 급	중등학교교사, 영양사, 학원강사 식품생산업체, 식품연구실, 자 영(식품계통).
음악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음악)	중등학교음악실기교사, 음악개 인교습소운영, 유치원성가반주 자 및 지휘자.
경영 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타자, 부기,상업계산) 공인감정사,세무 사,관세사,판매사.	중등학교교사, 학원강사, 기업 체사무원, 금융계.
세 무 회계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부기, 타자, 상업계산), 공인감정사, 세무사.	중등학교실기교사, 공인회계사, 일반기업체회계업무분야, 세무회 계사무소, 공기업회계업무분야.
관 광 통역과	중등실기교사자격증(과목:타자) 관광안내원(국내, 외)자격증 관광숙박업종사원 자격증	국제공항, 항공사, 여행사, 관광 호텔관광안내소, 관광협회, 외국 인전용면세품점, 토산품판매점, 각종회사비서실, 외국인기업체, 중등학교교사.

3 . 특 전

가. 장학제도

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및 출신교 추천장학금(신입생에 한함)
- ㅇ 성적우수장학금
- o 간부장학금

ㅇ 근로장학금

- o 특기자장학급
- ㅇ 학비보조장학금
- ㅇ 양영장학급
- ㅇ 교직원자녀장학금
- ㅇ 원호장학금
- ㅇ 동창회장학금
- ㅇ 관광재단장학금
- ㅇ 산학협동장학금
- ㅇ 석탄장학회장학금
- ㅇ 라이온스클럽장학금
- ㅇ 상업은행장학금
- ㅇ 부산시비장학금
- ㅇ 기타 각종외부장학금

나. 본 대학특성

- (1) 지방학생을 위한 현대식 기숙사 완비
- (2) 일본 고오란 여자단기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학생교류실시
- (3) 외국 각 대학에의 유학주선
- (4) 재단산하 각급기관에 우선 취업
- (5) 4년제 대학편입 기회부여
- (6) 재학중 아르바이트 및 졸업생취업 전담기구설치 운영
- (7) 최신 실험실습 및 어학실습실, 전산실 설치운영
- (8) 자과 자격증 의무취득

(5) 역대학장

			채 임		재 임	기 강	
대	个	성		평	취임년월일	· 이 임	 년 월 일
	ril	鄭	G	熔水	78. 3.23	 ઇવે	재
<u> </u>	Ч	(授	理	文	70, 3,23	7.1	21

2. 봉사단체 (奉仕團體)

1) 韓國反共聯盟 釜山直轄市 沙下區支部

(1) 목적 또는 취지

- 목 적: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제 민족과의 반공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반공연맹을 설립하여 반공활동의 지도적 역할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취 지:국민반공 사상계도와 각종 반공교육을 통하여 조직강화, 조직확대, 조직을 정예화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통일성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음.

(2) 사회봉사활동

- 1) 당지부 산하 신평, 당리동 지도위원회에서는 매일 아침 거리질서참여
- 2) 지부 직할청년, 부녀회에서는 향토부대위문, 고아원, 양노원위문 (83년부터 매년 1회이상)
- 3) 장림 2동 지도위원회의 5개지도위원회 경로잔치 및 동민위안잔치, 불 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의 낙도학교 자매결연

(3) 연 혁

1954. 6. 15 아세아 민주반공연맹창립

1956. 5. 30 한국 아세아 민주반공연맹설립

1963. 12. 5 한국반공연맹법(법률 제 1477호)에 의거 한국반공연맹창립

1964. 1. 15 한국반공연맹설립

1964. 11. 5 시 • 도지부 설립

1966. 12. 2 세계반공연맹창립

1983. 5. 25 한국반공연맹 제 3 조 및 1 조 정관 제 11 조에 의거 한 국반공연맹 사하구지부 설립

(4) 역대지부장

대 수	성 명	재 임 2	본	적	즈 O O 기		
41		' ৪ ব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	শ	주 요 업 적
ゑ	대	金玉珠	85. 5. 25	85. 5. 28	경북	김천	
2	대	姜宜祚	85. 5. 28	현 재	경남	진양	

2) 在鄉軍人會 沙下區 聯合分會

(1) 재향군인의 목적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나.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의 증진

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

(2) 주요사업

직업안정사업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수여 - 13명/90만원

회원생계보조금 지급 - 32회/9백3십만원

불우회원구호 - 15명/21만원(불우회원 합동결혼식 - 1회 13쌍

: 86. 5. 10)

국립묘지안장

향군지정병원이용 - 3회/15명

지역사회봉사 - 6회/160명

안보계도활동 - 42 회 / 36,853 명

(3) 연 혁

1983. 12. 29 구청승격에 의한 사하구 재향군인회 창립

(4) 역대회장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본 적 (출산지)	주 요 업 적
초	대	오기돈	83.12.29	85.12.26	부 산	회창립 및 회관입주
2	대	김신우	85.12.26 — 현재			

3) 大韓民國 釜山沙下八角會

(1) 目 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强力한 團結과 親睦으로 勝共 隊列에 앞장서며 自由平和 守護를 理念으로 하여 國家發展과 世界 人類共榮에 이바지한다.

(2) 信 條

- 1. 우리는 平和統一의 깃발이 된다.
- 2. 우리는 自由守護의 횃불이 된다.
- 3. 우리는 社會奉仕의 거름이 된다.

(3) 綱 領

- 1. 우리는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고 平和統一의 길로 前進한다.
- 2. 우리는 職業의 矜持를 가지고 勤勉誠實하여 他의 模範이 된다.
- 3. 우리는 相互尊敬과 信賴로서 相扶相助하여 友誼를 敦篤히 한다.
- 4. 우리는 猜忌와 分派를 止揚하고 善良한 市民으로서 大同團結한다.
- 5. 우리는 經濟, 文化, 社會 各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여 國家發展에 貢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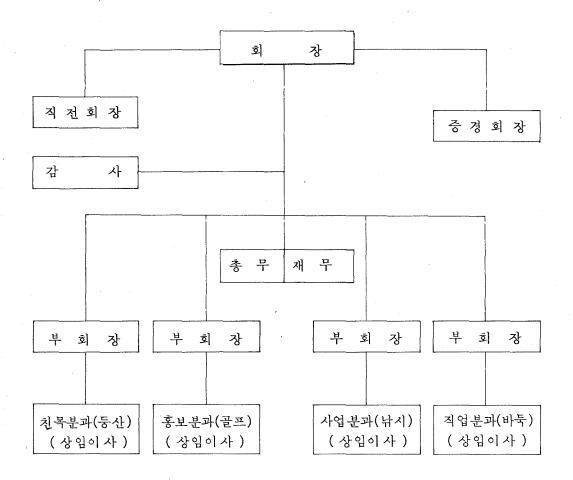
(4) 사회봉사활동

- 1. 장학금 지원확대 (팔각장학금 지급)
- 2. 일선, 군경장병 위문
- 3. 총력안보 계몽사업 (안보강연회)
- 4. 청소년 선도사업
- 5.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 6.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 7. 사회복지사업
- 8.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 9. 모범공무원표창(공무원 사기진작)
- 10. 사회단체 지원사업

(5) 연 혁

- 1966년 3월 1일 대한민국 팔각회 창립
- ㅇ 1980년 9월 5일 대한민국 부산사하팔각회 창립

(6) 機構表



(7) 역대회장

구분	성	명	재임기간	본적		주	ይ	업	적	ㅂ	고
초대 1대			1980.1月~ 1981.12 月	부산	2.	승공기	상학금	포마을 전달 기 등	자매결연	최외괴	한 기

구분	성 명	재임기간	본적	주 요 업 적	비고
2 대	이 용 남 李 勇 男	1982.1月~ 1982.12月	경남	 한문점시찰 승공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 	태광공업사 대 표
3 대	김 삼 현 金 三 顯	1983.1月~ 1983.12月	경남	1. 승공장학금 전달 2. 귀순용사 정착금 지원 3. 사하중학교 사이클부 결연 4. 팔각장학금 전달 5. 해안대대 위문	행 립 한 의 원 원 장
4 대	최 번 영 崔 繁 英	1984.1月~ 1984.12月	부산	 승공장학금 전달 해안대대 위문 팔각장학금 전달 식수사업 등 	최 번 영 법률사무소
5 대	최의 륭 崔義隆	1985.1月~1985.12月	경남	 1. 재해의연금 전달 2. 승공장학금 수여 3. 팔각장학금 전달 	동 신 약 국 대 표
6 대	최 용 수 崔 龍 洙	1986.1月 ~ 1986.10月 현 재	부산	 1. 판문점시찰 2. 승공장학금 전달 3. 팔각장학금 전달 	(주)대야케미칼 대 표

4)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1) 목 적

- 1) 회원간 긴밀한 친교를 맺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2)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향상 등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2) 연 혁

- 1) 83. 11. 15 부산오륙도 라이온스클럽 스폰서로 창림
- 2) 83. 12. 12 회원 35명으로 헌장전수식 거행 (309 비지구 52 번순)
- 3) 86. 10. 20 현재회원 58명

(본클럽 사무국은 당리동 324 - 1 번지에 위치)

(3) 역대회장

대수	성 명	재임기간	본적	주 요 업 적
초대	金三顯	83.12.12	경남	1) 사하구청 승격시 정문아치 설치
		84. 6.30		2)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지급
2 대	金信祐	84.7.1	부산	1) 사하시립도서관 칼라티브이기증
		85. 6.30		및 휴지통 설치
				2) 사하구청 청소인부 및 산화경방
				원 옷기증
3 대	金昌潤	85.7.1	경북	1) 부산시민헌장비건립 (에덴공원)
		86. 6.30		2) 국제자매결연(일본)
4 대	曹 圭 相	86. 7. 1	부산	1) 전투경찰 체육대회 격려금
		87. 6.30		2) 사하구관내 불우영세민에게 쌀지급

5) 釜山沙下青年會議所

(1) 제이씨 목적

- 가. 지도력개발
- 나. 지역사회개발
- 다. 세계와의 우정

(2) 사하제이씨 연혁(창립배경)

사하라는 지역은 부산직할시 서구에 속하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팽창하는 인구와 발전하는 지역으로 각광받아 감에 따라 1975년 10월 1일 직할출장소로 승격됨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특수한 지역성을 가진 이땅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를 꾸리며 새로운 뜻과 열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번영과 우의증진에 공헌하고자 청년지도자들의 공통된 광장을 마련키로 한바 제이씨 이념과 그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1977년 5월 13일 한국제이씨의 212번째로 부산사하청년회의소를 창립케 되었다.

(3) 역대회장

미수	성 명	재 임	기 간	본적	주 요 업 적
717	78 78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출신지)	기 표 집 건
초대	최한기	77. 5.13	77.12.31	부 산	1) 본회의소 창립
				사하구	2) 성화원 의료봉사(음성나환자촌)
2 대	성정웅	78. l. l	78.12.31	사하구	1) 성화원 의료봉사
			`		2) 천애보육원등 위문
3 대	박 홍 주	79. 1. 1	79.12.31	사하구	1) 괴정 1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2) 산청군에서 하계의료봉사
4 대	김 신 우	80.1.1	80.12.31	사하구	1) 괴정 4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2) 사하노인학교 설립운영
5 대	이승수	81. 1. 1	81,12,31	서 구	1) 제 2 회 노인학교운영 및 위안
					잔치
					2) 화명동 정화양노원위문(년 3회)
6 대	배종근	82. 1. 1	82,12,31	사하구	1) 일본근강팔번 제이씨와 자매결연
	-				2)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년2회)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본적	주 요 업 적
417	78 6 8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출신지)	주 요 업 적
7 대	김호룡	83. 1. 1	83.12.31	북 구	1) 농어촌후계자 지원금지급
					(산청군)
					2) 산청군에서 하계의료봉사
8 대	백성수	84. 1. 1	84.12.31	사하구	1) 하단동 교통센타설치 기증
					2) 자연보호캠페인 및 하계의료봉사
9 대	문 옥 민	85. 1. 1	85.12.31	사하구	1) 감천 2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				2)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년 2회)
					3) 괴정동소재 평화원위문(년 3회)
10 대	김 효 환	86. 1. 1	현 재	사하구	1)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
			·		(13 쌍)
					2) 하계의료봉사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
					3) 서부경찰서 전경위문
				Minimum of the factor of the f	(사발면 500개)

6) 社團法人 B.B.S 釜山市聯盟 西部地區會

(1) 목 적

B.B.S (The Big Brothers and Sisters : 형제자매결연운동) 운동은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 및 불우청소년들을 사회지도급 인사들과 결연주선 및 선도 보호하여 내일의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참신한 청소년으로 성장되게 지도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B.B.S 운동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 (1) 결손가정 청소년 결연사업
- (2) 무직, 무취학 청소년직업, 취학알선사업
- (3) 무의탁 청소년보호 관찰활동으로 비행예방사업
- (4) 문제비행청소년 원인연구 예방사업
- (5) 중, 고등학교 과정교육 학원운영사업
- (6) 각종 기술의탁교육사업
- (7) 청소년선도 보호사상고취운동 저개
- (8) 기타 본운동 목적을 위한 사업

(3) 연 혁

- (1) 1964 년 12월 2일 B.B.S 부산시연맹 서부지구회발족
- (2) 1966년 6월 8일 사단법인 B.B.S 부산시연맹 서부지구회 내무부장관 법인승인
- (3) 1966 년 8월 1일 직업청소년 중등과정학원 설치 (B.B.S 서부학원)
- (4) 1982 년 5월 30일 사무소 및 학원이전
 (부산서부경찰서 내에서 부산시 사하구 괴정
 1동 820 19 구 사하구청 청사)

(4) 역대회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주 요 업 적
초 대	金星坤	64.12. 2 69. 9.12	1. 중등과정 학원설립
			2 . 취학알선 : 22명
			3. 취업알선: 64명

대수	성 명	재 임 취임년월일	기 간 퇴임년월일		추	. 8.	업	적
				4.	생활자금	지원 일	선 : 1	,084 명
		\$			(3,570	,000 원	연지원]금)
	·			5.	무료교육	: 120 1	명 실시	
2 대	賓南戌	67. 9.12	70.12.31	1.	취업알선	: 16명	,	
				2.	취학알선	: 38명		
			-	3.	생활자금	지원 일	선 : 20	67명
					(1,335	,000 원	지원)	
				4.	무료교육	: 65명		
3 대	崔莫石	70.12.31	현 재	1.	중등과정	무료교	-육: 1	,087명
			·	2.	취업알선	: 276	명	·
		A		3.	취학알선	: 458	명	
				4.	생업자금	지원:	3,526 1	70
					(38,50	7,000 4	현 연지	원금)
				5.	장학금 >	지원등	기타 : :	87명

7)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釜山市聯合會 沙下區支部

(1) 目 的

우리는 急進的 社會構造의 變遷過程에서 우리 古來의 家庭倫理와 美風良俗이 송두리째 崩壞되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이러한 過渡的인 段階에서 惹起되는 老人待遇에 關한 諸般問題가 자못 深刻해지고 있어 時代潮流에 副應하는 새로운 制度的 保障이 뒤따라야 되겠음을 實感한다.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方法論的 差異는 있으나 人間은 生活能力이 없게되면 國家 또는 社會의 保護를 받게 된다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에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社會保障制度가 實施되기에 이르렀고 그 受惠領域은 漸次 擴大되고 있으며 새 秩序에 適應하는 老人問題 亦是 漸進的인 改善策이 模索打開되어야 할 時點에 到達했다고 보는 緑由가 바로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老人들의 問題를 嗤亂하게 社會에 提起하기에 앞서서 이 民族이 當面한 어려운 諸問題點들을 打開해 나가는 過程에서 率先垂範하는 姿勢를 取하는 同時에 우리가 體驗한 지난날의 貴中한 經驗實績 및 그 精神을 새 世代에 올바르게 傳達하는 先導者로서 또는 社會元老로서의 責務 를 誠實히 實踐해 나갈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2) 沿 革

1969年 1月 全國的으로 散在되어 있던 各種 老人親睦會를 總統合하여 老人團體聯合會를 組織하고 釜山市에서도 이에 따라 釜山市 老人會를 組 織完了하고 1969年 4月에 中央會에 登錄하였음.

1969年 4月 大韓老人會는 文化公報部의 設立 認可를 얻어 社團法人體 로 面 를 갖추었으며 釜山市 老人會는 支部로 區老人會는 支會로 發足하였음.

1975 年 8月 25日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定款을 制定하여 法人體許可官廳 變更으로 保建社會部에 再登錄하여 社會法人體로서 國內 誰一의團體로 發展하였음.

1977年 5月 1日 各級 老人會에 常緑奉仕會를 組織하여 社會奉仕活動을 展開하다가 1980年에 解散되고 大韓老人會로서 存續하게 되었음.

1981年 6月 1日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本道支部는 聯合會로 區郡支會 는 支部로 昇格되었음.

1981年 6月 5日 法律 第 3453 號로 老人福祉法이 制定公布되고, 1982年 2月 17日 老人福祉法 施行令이 大統領令으로 公布되어 老人福祉의 기틀이 確定되어 現在에 이르렀음.

(3) 奉仕活動

○ 期 間: 1983~1986年

○ 主要活動 : ○ 早起清掃 秩序運動 自然保護運動에 參與

○ 青少年善導,漢書堂 및 老人學校 運營

(4) 歷代會長

代	數	姓		名	在 任 就任年月日	期 間退任年月日
初	代	金	庚	述	77. 5. 1	82. 11. 17
	代	金	E	式	82. 11. 17	83. 6. 29
=	代	裵	有	福	83. 6. 29	現在

第六章 各級 委員會

- 1. 各級 委員會
- 2. 沙下區 歷代 國會議員
- 3. 沙下區 各 企業體
- 4. 沙下誌 發刊推進委員

平和統一政策 諮問委員 名單

직 위	성	· 명	주 소	직 업
부의 장	權五	. 賢	괴정 1 동. 740 자유APT101-1035	도시가스회 장
운영위원	崔龍	洙	괴정 1 동 545-19	(주) 대 야 대 표
회 장	金 玉	洙	신평동 127	참 성 약 국 대표
부 회 장	林 新	奎	신평동 260-4	대 림 부 동 산 대표
부회장	崔震	斗	감천 1 동 464-3	항 운 노 조 소 장
간 사	朴文	先	당리동 317-84	웅 변 학 원 원 장
위 원	高光	雄	괴정 2 동 379	천 지 탕 대 표
"	金 洞	潤	장림 1 동 산 173-4	유 아 원 원 장
"	金 三	顯	괴정 4 동 575-19	행립한의원원장
"	金 相	善	괴정 3 동 1019-1	부일금고괴정대라점
"	金 成	燁	하단동 528-14	삼 영 정 판 대 표
"	金 性	宗	당리동 354-2 대암APT	대흥인쇄대표
"	金 龍	珠	다대동 618	
"	朴 魯	炘	양산군 동면 여락리 377	
"	朴 商	旭	감천 2 동 105-6	
"	尹尚	岩	하단동 560	
"	李 元	善	감천 1 동 820	원 예 원 대 표
"	李 濟	民	감천 2 동 105	
"	李 種	祚	괴정 4 동 1228 금호맨숀	
"	崔一	永	감천 1 동 819-7	
"	姜國	平	당리동 345-2 대동아람맨숀	빙그레라면차 장
"	金 權	昊	감천 1 동 530	대학교교수
"	朴 松	竹	괴정 4 동 764	시 인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위 원	朴淑	鹵分	괴정 3 동 286 9			
"	朴 英	吉	괴정 1 동 740 자유AP7	Γ	행복예식	장 대 표
"	方慶	子	괴정 1 동 944-6		주	井
"	卞 魯	燮	하단동 529-8		부산일보시는	
"	宋洙	千	당리동 286		상록고등 학 교	- 기 술 교 장
"	梁能	子	당리동 317-14		~	부
"	嚴魯	美	감천 1 동 654		안 나 원	원 장
"	李 根	Œ	괴정 1 동 924-1		주	부
"	李 東	允	동래구 온천동 707		부산일보사	총무이사
"	鄭樹	鳳	다대동 329		동아대학	교총장
,,	鄭珠	永	괴정 2 동 101		자 유 건 설] 대 표
. "	趙貞	鈺	괴정 1 동 740 자유A	PT		

沙下區 區政 諮問 委員會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위 원 장	董 泰 烈	사하구 장림 1 동 1-1	부국금속대표
부위원장	張元南	당리동 431	㈜ 장 영 대 표
위 원	李 炳 九	당리동 342-12	덕성물산대표
"	李 元 善	감천 1 동 820-9	평 통 위 원
"	金性宗	당리동 354-2	대흥인쇄소대표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위 원	鄭鶴和	사하구 당리동 325-6	삼 화 식 품 대 표
. "	姜宜酢	영도구 동삼동 317-12	한국도량기대표
"	金東珍	사하구 괴정 3 동 389	㈜젯트스포츠대표
"	黄承榮	〃 괴정 3 동 1018-15	구 의 사 회 장
"	韓宗麟	서구 남부민동 225	한 창 운 수 대 표
"	李 一 永	남구 대연동 298-2	제 일 여 객 대 표
"	李根正	사하구 괴정 1 동 924-1	정 화 위 원
"	鄭鎬岩		후 생 의 원 장
. "	金容冠		영남대표이 사
"	柳又秀	서구 서대 2 가 394-8	동아대학교교수
"	韓在昌	사하구 장림 2 동 333-2	㈜한국이연진대 표
"	金 洪 潤	" 장림 1 동 733	시 수 협 조 합 장
"	李鍾遊	ッ ·당리동 311-21	형제블록공업사대표
" .	李鍾元	〃 신평동 552	㈜청산전무이사
"	林 新 奎	∥ 신평동 260-4	평 통 위 원
"	全 永 洙	〃 감천 1 동 740	(주) 국 제 대 표
"	宋泰奇	" 장림 2 동 349-14	새마을구협의회 장
"	嚴魯美	〃 감천 1 동 654	구 부 녀 회 장
"	李 在 文	〃 괴정 1 동 자유APT	대동상호신용금 고이 사 장
"	全 圭 湖	〃 괴정 1 동 532-8	대원물산㈜대표
"	金成燁	″ 하단동 528-14	삼영 정 판 대 표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위 원	金三顯	사하구	괴정 4동 575-19	평통의원구협의회장
"	柳次烈	"	괴정 1동 자유APT	새마을구지회장
"	韓炳玉	"	괴정 4 동 551 — 12	제일교회목사
"	金玉洙	. "	신평동 127	평통구협의회장
"	鄭鎭大	"	당리동 39-2	관음 사주 지
, "	金信祐	"	괴정 3 동 286-4	구정화협의회장
"	孫祥暎	"	당리동 116	부 산 여 전 교 수 (자갈치아지매 담당)
"	金 成 喜	"	장림 1 동 328-6	동인의원원 장
"	李 勇 男	"	괴정 1 동 533-11	구의용소방대장

沙下區 淨化推進協議會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회 장	金(言祐	사하구	괴정 3 동 268-9	신경외과원장
부 회 장	白星	盛守		괴정 l 동 자유 APT	삼성화이바 그라스대표
"	裵	基 —	"	장림동 675	세화수산대표
"	文系	龙 祿	"	하단동 505-12	반석교회목사
"	宋	朱 千	` "	당리동 286	상록기술학교교감
사무국장	金	貴貞	"	장림동 725-1	웅변학원원장
기 획 조 성 분과위원장	金 i	道 東	" .	괴정 1동 555-17	모범약국대표
연구평가분 과 위원장	李石	在 道	"	하단동 산 51 - 3	한 일 운 수 대 표
교육홍보 분과위원장	崔	金東	"	당리동 498-5	평 화 산 업 대 표

직	위	성		명	주		<u></u>	직	쉅
종 1	卫	韓	炳	玉	사하구	괴정 4 동			 회 목 사
종 분과우 청 <i>소</i> 분과우	l원장 - 년	丁	孝	權	"	괴 정동	547-24	협성택시	
문과수 여 분과우	원상 성	李	根	īΕ	- //	괴정동	924-1	주	- 早
이	현상 사	李	誠	浩	"	괴정동	171-2	재덕수	
. ,,		趙	永	東	"	괴정동	1230-1	동광택시	
"		朴	今	福	"	괴정동	654-5	남도개	발이 사
"		鄭	鎬	岩	"	감천동	541	후 생 의	원 원 장
감	사	金	Ŧ	萬	"	감천동	20-23	상	업
위	원	金	炳	華	"	하단동	620	하단교	회 목 사
, ,,		金	鍾	仁	//-	장림 동	349-2	장림교	회 목 사
"		金	亨	經	"	괴정동	221-6	대 영 급	속 대 표
"		文	秀	明	. //	괴정동	477-1	별궁장여	관대표
"		裵	_	洪	"	다대동	623	상	업
"		徐	丁	子	"	하단동	617-9	주	十
."		辛	榮	玉	"	하단동	484-8	"	
"	on the state of th	李	均	漢	"	당리동	353-2	정 동 건	설 대 표
"		李	渭	滿	"	괴정동	551-8	우 성 주	택 대 표
"		李	出	子	"	하단동	517-17	주	부
"		鄭	玉	子	"	괴정 1 동	국제 APT 1-702	"	
<i>#</i>		曺	圭	相	"	괴정동	28-12	극 동 통	운 대 표
"		鄭	圭	植	"	하단동	494-3	제일유기	총무이사
"		鄭	奌	弼	"	감천동	645-4	주	牛
"		車	永	澤	" ,	구평동	127-3	화성운	수 대 표
"		黃	富	任	"	괴정1동	970-2	주	毕

沙下區 새마을 組織 회장단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지 역	사하구지회장	柳次烈	사하구 괴정 1 동 740 자유아파트 103 동 3031 호 회 사 대 표
. ,,	사하구새마을 협 의 회 장	宋秉奇	사하구 창립 2 동 349-14 약 국
"	괴 정 1 동 협 의 회 장	徐昌玉	" 괴정1동 493-6 회사대표
"	괴 정 2 동 협 의 회 장	呂煥 珏	" 괴정 2 동 98 상 업
"	괴 정 3 동 협 의 회 장	車實	" 괴정3동 297 목 공 업
. "	괴 정 4 동 협 의 회 장	尹貴斗	" 괴정4동 553-22 소 개 업
"	당 리 동 협 의 회 장	安貴男	# 당리동 373-4 상 업
"		李 永 浩	" 하단동 605 농 업
"	하 단 동 형 의 평 진 평 형 의 회	朴英憲	〃 신평동 111-379 상 업
"	장 림 1 동 협 의 회 장	李 勇	" 장립 1 동 727 . "
"	장 림 2 동 협 의 회 장	申鍾植	" 장림 2 동 615-176 "
"	장림 2 동 협의회 장 다 대 동 협의 장	鄭英守	# 다대동 857 약 국
"	구 평 동 협 의 회 장	李 秀 郷	
"	감 천 1 동 협 의 회 장	崔震斗	" 감천 1 동 463-3 노조지부장
"	감 천 2 동 협 의 회 장	崔根出	" 감천 2 동 15-29 상 업
직 장	변 기 기 · 3 직	金昌潤	ル 하단동 497-12 한창주유소 대 표
문 고	내 마을문 고 사하구지부장	徐 燁	서구 서대신동 1가 54-16 회사대표
금 고	재마을금 고 협 의 회 장	金 成 燁	사하구 감천 1 동 228 금고이사장
부녀	사하구새마을 부녀회회장	嚴魯美	" 감천 1 동 654 사회사업
"	구덕되되장 괴정1동회장	李 信 江	〃 괴정1동 944 주 부
"	괴 정 2 동회장	李 大 順	ル 괴정2동 358 ル
"	괴정3동회장	康貞順	ル 괴정3동 287 ル

구 분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부녀	괴정 4 동회장	金乙賢	사하구 괴	정 4 동 656-19	주	부
. "	당리동회 장	金 英 淑	" 당	리동 312-12		<i>"</i>
"	하 단동회장	辛榮玉	" 하	단동 484		<i>"</i>
"	신 평 동회장	李相日	" 신	평동 164-1		<i>"</i>
"	장림 1 동회장	金仙点	·〃 장	림 1 동 641-331		"
"	장립 2 동회장	姜占秀	" 장	림 2 동 332-8		"
"	다대동회장	李奉學	# 다	대동 357		"
"	구평동회장	全 姫 錫	// 子	평동 109-1		<i>"</i>
"	감천 1 동회장	徐星子	# 감	천 1 동 30-18	WY CONTROL OF THE CON	"
"	감천 2 동회장	諸順子	〃 감	천 2 동 12-10		"

새마을 운동 서훈자 명단

연 번	소속	성 명	!	<u>ㅎ</u> 긴		격	수 상 일
1	사하구 구평동	전 종 열	1	새 미	을 포	드장	74.12.18
2	사하구 장림 1 동	김 귀 정	1	협.	동.	장	78.12. 6
3	급호산업 (한보철강)	김 영 수	≥	노	력	장	79.12.28
4	사하구 감천1동	이 원 선	1	협	동	장	80.12.10
5	" 감천 2 동 (금고)	이 제 민	1	새 미	을 포	도장 .	81.12. 9
6	" 감천1동	엄 노미	1	근	면	장	84. 4.19
7	대 원 택 시	이 임선	<u> </u>		"		84. 7.19
8	사하구 장림 2 동	송 병 7	1	협	동	장	84.10.24
9	<pre>" 신평동(금고)</pre>	김 종 권	4	노	력	장	85. 4. 4
10	" 괴정3동	강 정 순	<u> </u>	자	조	장	85.10.25
11	" "	변 재 호	<u>:</u>	노	력	장	
12	(주) 국 제	전 영수	<u>_</u>	협	동	장	85.11. 1
13	사하구 구평동	김 인 수	-	근	면	장	86.10.30

沙下區 防衛 協議會

직 위	성 명	업체명및직위	직 위	성 명	업체명및직위
의 장	丁徹鎭	사 하 구 청 장	위 원	金基鍾	동아건설산업(주) 상 무 이 사
위 원	李程淑	동산유지공업(<u>주)</u> 관 리 인	<i>"</i>	崔七官	산양사리공업사 대 표
"	金東寛	한 보 철 강	"	車相九	동 양 제 강 대 표
"	鄭然友	반도목재(주)대표	"	趙容俊	한국화이바(주)대표
"	朴鉉祐	한 국 주 철 관 공 업 ㈜ 대 표	"	鄭重煥	강 남조 선 상무
. "	孫晋昶	(주) 명 성 대 표	"	曺綱鎬	삼호물산(주)대표
"	姜鍾泰	제 일 유 기 화 학공업(주) 대 표	"	呉 完 洙	(주) 대 한 상 사 신 평 공 장 대 표
"	金福千	대성실업(주)대표	//	蔡東雨	오성식품(주)대표
"	朴道元	(주)은성사회장			

沙下區 體育會 理事

직	위	성		명	주	<u></u>	직	업
회	장	丁	徹	鎭	남구 대연동 18	08	사 하 구	청 장
명예3	회장	鄭	珠	永	사하구 괴정2동	101	자유건설	(주)대표
부호] 장	崔	龍	洙	" 괴정1동	545-19	(주) 대 야	대 표
"		張	元	南	" 당리동	431	(주) 장 영	대 표
, "	•	姜	政	男	" 괴정1동	740(자유APT)	동일수	산 대표
감	사	金	昌	龍	" 괴정2동	374-16 8/5	덕성물산(주)	상무아사
"	•	鄭	然	友	" 괴정동	740 (자유APT)	반도목재	㈜대표
0]	사	申	德	均	중구 대청동 12	가 23	고려산업	㈜대표

				-				
직	위	성	der Scholansen der son	명	주	소 	직	업
ा	사	董	泰	烈	사하구 장림 1 동	1-1	부국금속공(업사대표
"		黃.	鶴	九	진구 가야동 588		㈜ 강 남 조	
"		曺	嗚	鎬	사하구 감천 1동	783-9	삼호물산 주 섭 외	
"		朴	相	鎰	서 구 남부민동 1	가 46	풍광제작	소대 표
"		金	東	珍	사하구 괴정1동	491	젯 트 스 포 츠	(주) 대표
"		全	永	洙	사하구 감천 1 동	682	㈜ 국 제	대 표
"		白	濟	甲	부산진구 가야동	151-1	동성화학	공업(㈜
"		孫	出	昶	서구 부민동1가	30-1	 ㈜ 명 성	대 표
"		李	昌	英	사하구 괴정1동	740	대광택시	㈜ 대 표
, "	·	李	鍾	萬	부산진구 당감동	87-10	동아전기공역	업㈜대표
"		尹	鍾	奎	부산진구 초읍동	249-17	태광밴드	공업 ㈜
"	İ	金	基	鍾	동래구 두구동 2:	9	동 아 건 설 부 산 공	산업㈜ 장 장
"		趙	容	俊	사하구 괴정 1 동	740	㈜한국화이	
"		朴	鉉	祐	동래구 온천 2 동	1039-12	한국주철관	·(주) 대 표
"		崔	金	東	사하구 당리동 34	4-4	㈜평화산	업 대 표
"		韓	在	昌	사하구 괴정1동	733	한국이연진- 대	공공업㈜ 표
"		姜	鍾	泰	서구 서대신동 10	56-7	제일유기화*	학공업(주)표
"		金	泰	敬	서울 성북구 정능	동 266-25	(주) 대 흥	대 표
"		車	相	九	중구 동광동 2가	11	동양제강(쥐 대 표
"		施	明	善	동래구 온천 3 동	1461	㈜ 강림기	연대 표
"		全	亨	根	부산진구 초읍동	206-115	해 강공업(쥐 대 표
"		鄭	泰	文	사하구 괴정3동	산 1-55	삼신산업-	사 대 표
"		李	在	道	사하구 괴정2동	331-25	한 일 운 수 (쥐 대 표
L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이 사	崔	七	官	남구 망미동 798-9	산양공업사대	<u>21</u>
"	李	龍	男	서구 동대신동2가 삼익맨션	한보철강공업주공	장
"	沈	在	允	북구 구포동 741	삼 원 공 업 ㈜ 대	丑
"	朴	保	或	서구 서대신동3가 61-4	㈜ 은 성 사 대	끂
"	鄭	弘	德	서울 강남구 대치 1 동 선경 APT (7 동 501 호)	㈜ 청 산 대	丑
"	노	재	용	동구 수정1동 1043-22	한국운반기계대	丑
"	洪	英	七	사하구 하단동 125-3	삼중물산㈜대	쬬
사무국장	金	貴	貞		송암웅변학원원] 장

洞 開 發 委 員

○ 槐亭1洞

직 위	성 명	작 업	직 위	성명	직 업.
위원장	徐萬根	동 장	위 원	白鉉祚	상 업
위 원	黃璡喆	상 업	"	徐秀吉	성도주택대표
"	文秀明	상 업	"	徐昌玉	보 광 산 업 대 표
<i>"</i>	崔龍洙	대야케미칼대표	"	柳次烈	한국후직대표
"	張載洙	풍진상사대 표	"	車永澤	운 수 업
"	全圭淅	대 원물산대 표	"	李秀男	건 축 업
"	千明浩	해동철강대표	"	洪正雄	상 업
"	金在云	동 원 냉 장	"	朴清九	극동가구대 표
"	全鎣玉	목욕협회조합장	"	金文燮	한국화이바전무
"	徐正雄	더 벨즈상사 대표	"	李相震	대우화학대표
. "	李鍾植	건 축 업			

○ 槐亭 2 洞

직 위	성 명	주	仝	직	위	성	時の	주		2	丘 ,
위원장	權 重 煥	동	장	위	원	韓鳫	萬	서	ア 연	료 대	표
위 원	申俊植	대 학 병 관리사무	원 소 장	"	,	崔禕	高壽	상			업
"	徐炳欣	한국산업사		. "		李成	法浩		//		
"	李在道	한일운수	대 표	"		姜銈	直吉	제일	<u>]</u> 유フ	부시	} 장
"	裵 命 壽	진성유치원	대표	. "	,	朴廷	€碩	가	내	37	업
"	金昌麟	금창산업사	·대장	"	,	金炒	善	화민	한으	원원] 장
, '	金清秀	신림합판	대 표	."	,	李福	ቕ 洙	상			업
"	姜春基	신 진 산업사	대표	"	,	金英	き銓	농	장	경	영
"	金 洪 來	제일색소	대 표	"	,	朴月	〈澤				
"	河鳳興	신흥공업사	대 표	"	,	崔荀	女子	상			업
"	孫忠鉉	당 지 도	장	/	,	朴領	東文 .	가	내	7	업
"	崔泰孝	마을금고이	사장			金力	〈沅	개	인	사	업

○ 槐亭 3 洞

직 위	성 명	직	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孫擇鉉	동	장	위	원	鄭冶	纺錫	동양수	슈퍼 대 표
위 원	郭松緑	유진공업	사대표	//		安同	刺根		속기공 대 표
"	鄭鎭元	동선장여	관대표	//		孫富	弘	손부홍 워	-정형외과 장 통 운 ㈜ E 이 사
"	金基聖	중앙교회	회장 로	11		曹圭	€相	즉 동 대 표	통 운 ㈜ 트 이 사
"	金承國	영 창 부	동 산	"		朴昭	3男	한국 5	토자기 ㈜
//	崔斗碩	최내과의	원원장	11		呉 夏	[永	한 진 :	물 산 대 표
"	南浩仁	영 광 사	대 표	"		安英	连俊	1	업사대표
"	鄭泰文	삼신산업		//		呉 鍓	宇	한 일 대 표	수 산 ㈜ - 이 사
"	王漢均	대양노트 대	공업사 표	"					

○ 槐亭 4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裵 範 壽	동	장	위	원	白奉	道	신화공	·업사대표
위 원	李壽源	금성상사	대 표	"		金 範	斗	순주	기계 대표
"	朴今福	반도개 발	이 사	"		李 珠	衡	건	축 업
"	徐奉泰	유진주택	대 표	"		田炯	貴	원 공	사 대 표
"	鄭煥秀	한일화학	대 표	"		廉相	周	열 약	국대 표
"	金昌守	대신케이스	느대표	"	•	金岩	雄		네오가 구
"	李文浩	동일화학전	무이사	"	,	金永	善	일 광	교역 대표
"	郭大仁	일흥경금속	- 대표	"	•	白永	右	경 진	수산대표
"	李承夫	새 한 노 트	대 표						,

○ 堂 理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金殷圭	동 .	장	위	원	李冶	句 錫	태 림 무	'역소장
위 원	金文弘	문교상사다	<u>개</u>	"	•	朴成	支泰	남도건	L 재 대 표
"	梁昌鎬	삼보산업디	进	,	,	崔元	一甲		생산기술 연 사조사 실장
"	康泰三	올림픽추진	위원		,	金正	E 煥	새마을	l·고이사장
"	李泌 雨	동양공업사다	开压	,	,	權す	逐述	성 모	병 원 장
"	梁昌石	건 축	업	/	,	金順	負從	시대건축	·설계소장
"	尹正孝	. "		/.	,	尹又	7.浩	우 성 건	입대표

○ 下 端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元喆昊	동 장	위 원	金昌潤	한창주유소대표
위 원	孫鎬睦	한 영 상 운 대 표	"	鄭漢基	동림목재상사대표
"	朴丁守	그린하우스제과점 대 표	"	李榮鍵	극동하서너대표
".	白盛守	사 하 구 요식업조합장	"	黃應律	동 아 섬 유 대 표
".	尹尚岩	대암주택대표	"	柳尚永	대호유조사장
"	崔鍾云	대평주택대표	· "	韓秉完	동신섬유대표
"	張泰鍊	현대정화사대표	"	徐富源	건 축 업
"	高錫萬	주식회사코숀대표	"	徐炳泰	새마을금고이사장

○ 新 平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李泰文	동 · 장	위 원	朴炳 洙	신흥기구사대표
위 원	金三植	무	"	柳光模	신 천 탕 대 표
"	金 秉 世	청 산금속대표	"	金鍾 濤	우성 공업 사 대 표
"	金熇 振	남 영 사 대 표	"	李鍾賢	경일약국대표
"	李國熙	경 주 상 회 대 표	"	宋在鳳	광명전구대표
"	金正禹	경주상회 대표	"	金清一	대방공예사대표
"	沈賢澤	스페인악기사 대표	"	金文坤	금실가구사대표
"	宋正浩	애 완 사 대 표	"	具日根	부산부동산소개 소 대 표
"	金玉洙	삼성약국대표	"	金永同	세광식품대표
"	白亨基	엉 터리상회대표	"	李石來	신평유선TV방송 대 표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 원	全順兒	신 일 사 대 표	위 원	林吉浩	건 축 업
"	李賢哲	동남식품대표	11	李副甲	부동산중개업
"	鄭炳泰	용마공업사대표	"	朴永一	일상식품대표
"	金潤漢	영흥공업사대표	"	林永奎	남광개발㈜대표
"	金連煥	장림상회대표	"	金明用	우 성 식 품 대 표
"	金今洙	한 식 정 업	"	孔周煥	광성공업사대표

長林1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林鍾哲	동 장	위 원	都佳弘	도가홍정형외과 의 원 원 장
위 원	金成 喜	동인의원원장	"	姜承國	부산은행장림동 지 점 장
"	金貴貞	송암웅변학원장	"	金彰植	오성식품공업 사
"	申元鎬	대한정밀공업사 사 장	"	金忠來	사 장 김충래소아 과 의 원 원 장
"	申武松	호남상회대표	"	薛鍾善	동신기업사대표
"	河洪根	남부복음외과 의 원 원 장	"	張琪泰	
"	孫永杓	연희횟집대표	"	裵 基 一	㈜세화수산사장

○ 長林 2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黃相潤	동 장	위 원	金鍾 漢	회 사 원
위 원	宋秉奇	상 업	"	趙柄孝	마을금고이사장
"	白攸欽	서 비 스 업	"	朴錫根	사 업
"	趙慶一	상 업	"	呉壬世	"
"	孟在東	"	"	金宗燮	"
"	金和權	, , , , ,	"	李炫九	운 수 업
"	金正道	"	"	金允學	건 축 업
"	朴榮信	사 업			

○ 多 大 洞

직 위	성 명	직	쉌	직 위	성 명	직	겁
위원장	朴泳 浩	동	장	위 원	尹翁貴		
위 원	崔龍石	상	업	"	李春一	 목 계	내 업
"	康昌石	어	업	"	朴鍾周	광성여	객부 장
"	韓 杭 杓	2	수 업	"	劉在東	횟 집	경 영
"	金性榮	마을금	고이사장	"	柳斗成	상	업

○ 舊 平 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장	金喜正	동 장	위 원	金寅洙	성 화 원 회 장
위 원	趙瑛晧		"	朴永吉	
"	李秀 郷	양 공 상	"	金鍾熙	상 업
"	崔武成	새 마 을 금 고이 사장	"	金在滿	동남유리 사장
"	林秀茂	남성상사이 사	"	徐榮一	해 강 통 상 사장
"	金精柱	상 업	"	金源 植	
"	柳寅燮	부동산중계 인	"	尹三孝	새 희 망 정 신 요 양 원 회 장

○ 甘川1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정교
위원장	鄭順德	동	장	위 원	金錫泰	삼 성	사 대 표
위 원	崔寅洪	전.국민] 대의원	"	朴斗榮	대 신 정	비 대 표
"	洪性國	고려당산	업시대표	"	徐 燁	환공 식	품 대 표
"	李元根	감천 약	국 대 표	"	朱寧杰	대 동 물	산대 표
"	金善甲	상	쉅	"	南武秉	은 성	사 부 장
"	崔秀三	청 과 조	- 합 장	. #	李鍾喆	천일전기	통신대 표
, "	崔震斗	평통자	문위 원	"	朴洙源	경동장	여관대표
• //	鄭鎬岩	후 생 병	원원 장	"	曺光 鉉	성방ス] 거 대표
"	韓相男	동신화	학 대 표	"	金喆守	시민안	경원대표
"	呉台煥	화 랑 화	학 대 표	"	金秀吉	신광기	업 대표

〇 甘川2洞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Q	1
위원장	金尚錫	동	장	위 원	孫判岩	건	축	업
위 원	金光郁	의	사	"	金榮默	오 성	사 대	쬬
"	姜長福	건	축 업	"	金邦漢	상		업
"	柳大衡	종	<u>ন</u> থূ	"	朴進葉	약		사
" "	崔根出	상	업	"	孫大榮	상		업
"	趙容載		"	"	金榮祚	약		사
"	黄昌宙		"	"	李圭珍	제	조	업
"	劉永俊	새 마을	금고이사장	"	金千萬		무	
"	趙成英	사	원	"	諸順子	상		업
"	河 基 鉉	상	걸	<i>"</i>	明魯喆	상		업

沙下區 歷代 國會議員

代數	姓名	黨 籍	略 歷
1	韓 錫 範	韓國民主黨	공업
2	鄭基元	無 所 屬	경남군정장관고문, 대학장
3	金 東 郁	"	言論人, 자유당 정책위원
4	(甲)李相龍 (乙)金東郁	自 由 黨 民 主 黨	경남지사, 내무차관 민주당 정책위워
5	(甲)金泳三 (乙)金東郁	民 主 黨	3 代 民議員 3,4 代 民議員
6	金泳三	民 政 黨	3,5 代 民議員
7	金 泳 三	新 民 黨	3,5,6 代 議 員
8	金 泳 三	<i>"</i>	3,5,6,7 代 議 員
9	朴 燦 鍾	民 主 共 和黨	변 호 사
9	金 泳 三	新 民 黨	3,5,6,7,8 代 議 員
10	朴 燦 鍾	民主共和黨	변 호 사
10	金 泳 三	新 民 黨	신민당 총재
11	郭正出	民主正義黨	㈜ 미디어 대표이사
11	徐錫宰	民主韓 國黨	신민당총재 비서관
12	郭正出	民主正義黨	11 대 의원
12	徐錫宰	新韓民主黨	11 대 의원

沙下區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區分	姓		名		住	所	
1代	陳	殷	錫		槐亭 4 洞	570 — 16	
	李	元	善	"	甘川1洞	820 — 9	

區分	姓	± :	名		住		所
1代	李	鍾	烈	沙下區	多大洞	1124	
	河	在	潤	"	槐亭 3 洞	436	
	河	焌	鎬		"	959	
2代	陳	殷	錫	沙下區	槐亭 4 洞	570 - 16	
	李	元	善	"	甘川1洞	820 - 9	
	崔	龍	洙	"	槐亭 1 洞	545 - 19	
	韓	奎	哲	"	″	933 - 3	
	李	斗	天	"	長林 1 洞	4 - 41	

新平.長林工業團地管理 協議會

職位	姓名	ጟ	企業體名	所	在 地	生産제품
會長	白 齊	甲	東成化學工業㈱	新平	472	접 착 제
副 會長	朴 鉉	祐	韓國鑄錢管工業㈱	. //	370 - 19	주 철 관
"	윤 만	균	㈱ 미 화 당	長林	1072	·
監事	董泰	烈	富國金屬工業社	新平	370 - 43	동 판
"	施明	善	㈱ 江 林 枝 研	"	505	선박의장품
理事	南致	浩	瑞興化學工業㈱	"	370 - 92	도 금
"	呉 完	洙	㈱ 大 韓 商 社	"	370 - 16	철 강
"	楊鳳	雄	高麗産業開發㈱	"	370	레 미 콘
"	林 元	洙	東亞建設産業㈱	, ,,,,	370 - 37	"
"	姜鍾	泰	第一有機化學工業機	"	370 - 31	소 켓
"	魯 在	容	韓國運搬機械	<i>"</i>	493	콘베이 어
"	安 甲	元	株 聖 光 地 드	"	520	이 음 쇠
"	尹鍾	奎	泰光型드工業㈱	" "	534	"

職位	姓名	名	企 業 體 名	所	 在 地	生産제품
理事		德	棚 青 山	新平	552	핸 드 백
生事				10/11		
"	許南	珏	三洋通商㈱	"	569	운동화
"	이 남	석	동광화학공업사	"	470	프라스틱
"	趙客	戜	明進ユ무工業社	"	487	고무제품
"	金 英	達	韓英機電工業社	"	5 30	선박부품
"	박 근	보	부 산 화 학 ㈜	"	557	기 계

沙下區 各企業體

(등록업체 20 인이 상)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	㈜ 대 원 물 산	전 규 석	괴정 1 동	535 - 7	86	양 초
2	오복전기제작소	김 두 상	ï	912	36	전기부품
3	한보정밀공업사,	강부 민	<i>"</i>	950 - 2	37	면도기
4	태 창 산 업 사	배 중 민	"	486 - 4	20	소형전구
5	우 일 지 기	강 윤 식	"	912	36	전기부품
6	㈜ 신 동	김 영 호	괴정 2 동	358 - 1	481	자 켙
7	대 일 산 업 사	김 인 수	"	341	141	의 류
8	豆 호 "	이용태	"	342	124	"
9	일신 화 학공업사	이 종 민	"	181	40	식 기 류
10	㈜ 천 야 제 면	정 두 천	"	334 - 3	37	. 솜
11	젯트스포츠 A	김 동 진	괴정3동	389	135	야 구 공
12	㈜ 광 동 실 업	강 성 환	"	956	185	Y 샤 스

० वं	-3 -3 -3			종업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원수	주 업 종
13	대 양 노 트 사	왕 한 균	괴정 3 동 298 - 10	22	노 트
14	남일식품공업사	이 길 성	284 - 1	25	통 조 림
15	년 정 물 산 ㈜	이병구	ᆈ정 4 동 1108	289	Y 샤 스
16	㈜ 대 야	최 용 수	1120 - 1	131	신 발
17	㈜ 삼 창 실 업	이 진 옥	1120 - 19	60	수은등안정기
18	새 한노트공업사	이 용부	563 - 4	36	노 트
19	산양사리 "	최 칠 관	당리동 산 25	81	골 재
20	동 양 공 업 사	이 필 우	340 - 4	45	무 늬 목
21	경성전기 "	강 우 희	60 - 16	35	테스트코드
22	동산유지 공업㈜	박 영 태	하단동 845 - 1	673	비누외
23	㈜ 평 화 산 업	최 금 동	623 - 21	140	로 프
24	삼화제망공업사	김 봉 두	83	76	어 망
25	삼영정판인쇄사	김 성 엽	692 - 3	25	인 쇄
26	A 豆 在	고정곤	810 - 2	42	어 깨 끈
27	㈜ 한국화이 바	조용준	신평동 411	407	유 리 섬유
28	동아 전기 공업 ㈜	이 종 만	38	350	소 켓
29	대 성 실 업 ㈜	정 호 연	370 - 32	434	스텐식기
30	한국주철관 (귀	박 현 우	- 19	747	주 철 관
31	쥐 대 흥	김 태 경	- 53	1,000	신 발
32	㈜ 청 산	정 홍 덕	552	390	핸 드 백
33	삼 양 통 상 ㈜	허 남 각	569	556	운 동 화
34	㈜화승장림공장	현 승훈	321 - 3	688	"
35	㈜청산 "	정 홍 덕	316 - 26	306	핸 드 백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구 업 종
36	㈜ 장 영	장 원 남	신평동 452 - 1	260	화장품용기
37	제일유기화학공업(주)	강 종 태	370 - 31	290	스 위 치
38	(귀 성 광 벤 드	안 갑 원	520	280	이 음 쇠
39	동 신 기 업 (쥬	이 영 완	553	229	의 류
40	동성화학공업㈜	백 제 갑	472	285	접 착 제
41	동 성 기 업 사	최 승 열	553	270	자 켙
42	남영 전광부산 공장	오기 영	370 - 50	160	전 구
43	동아건설산업㈜	임 원 수	- 37	191	레미콘
44	㈜대한상사	오 완 수	- 16	130	철 강
45	진양기계(쥐	김 석 규	- 6	123	베 아 링
46	(주) 고 려	윤 석 영	- 46	109	쥬 브
47	동방유량㈜	신명수	- 27	120	식 용 유
48	오복스텐레스공업사	안 영 근	- 76	101	스 텐 식 기
49	고성산업사	정 순 태	- 12	112	수도용품
50	고려산업주	신 덕 균	- 28	151	P.P 공병
51	대양전기제작소	서 승정	503	107	배 전 판
52	한국운반기 계	노 재 용	493	157	철판제품
53	(주) 강림기연	시 명 선	505	133	선박의장품
54	태광벤드공업㈜	윤 종 규	534 - 5	155	이 음 쇠
55	대영금속공업 ㈜	이 수용	495	104	"
56	신 왕 실 업 ㈜	김 옥 겸	563	160	Y 샤 스
57	대 일 산 업 사	김 인 수	553	145	자 퀱
58	태원 섬유공업 사	이 정 호	. "	180	Y 샤 스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업종
59	대 연 실 업 사	김중호	<u></u> 신평동 553	161	자 켙
60	[취장미상사				4.0
		김 명 수	343 - 2	102	,
61	부국금속공업사	동 태 열	370 - 43	7 0	동 판
62	유 협 신 기 업	윤 춘 경	- 91	97	용 접 기
63	쌍용양회공업㈜	김 채 겸	- 5	8 3	레미콘
64	㈜오리엔탈휘팅	서 종 석	- 11,	92	후 렌 지
65	유 명 산 업 사	서 재 중	<i>"</i>	64	선박기자재
66	신라금속공업사	김 일 웅	- 55	64	"
67	현 진 공 업 ㈜	이 상 종	·501	59	"
68	월 성 공 업 사	이 종 섭	84 - 109	62	전기용품
69	(주) 영 성	장 원 남	452 - 11	75	연지용기
70	고려산업개발㈜	양 봉 웅	370 - 95	70	레미콘
71	신 일 건 구 사	김 종 정	479	62	가 구
72	위 금 용	이 원 근	370 - 57	67	합 관
73	삼 신 산 업 사	정 태 문	577	69	양 화
7.4	남양산업㈜	박 윤 소	497	58	압력용기
75	신 아 기 업 ㈜	곽 건 석	508	58	무선송수신기
76	성광식품공업사	박 재 용	482	51	쥐 포
77	일진정기 "	최 천 수	554	69	피 스 톤
78	삼화 어 구 사	장 홍 의	488	52	부 자
79	해 강 공 업 ㈜	전 형 근	518	69	SHOF BASL
80	[[주 현 대 유 압 기 계	"	"	59	유압삭키
81	부 산지 기 공업 사	권 창 현	370 - 61	80	지 함

্ব	⇒ो ा ।	~J] 25 ~J	소 재 지	종업 원 수	주 업 종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원수	T % 6
82	대 성 기 공	이 재 옥	신평동 504	98	선박부품
83	대진기계공업㈜	하두호	543	91	<i>"</i>
84	대우약품공업사	지 현 석	579	80	야
85	우일 산업 ㈜	이 민 웅	502	65	유압기계
86	건 우 산 업 ㈜	김 정 무	370 - 58	78	운동화
87	동광화 학공업사	이남석	470	87	요 소
88	㈜ 서 일	허현도	561	94	화학기계
89	서 한 공 업 (쥬	김 광 규	524	90	선박의장품
90	대 림 기 업 사	장 성 길	79 - 22	35	마 대
91	㈜ 경 기 색 소	황 경기	370 - 39	3 3	안 표
92	이화유지공업㈜	정 수 민	- 7	28	식 용 유
93	동양야금공업㈜	이 원 심	- 54	20	마그네슘
94	삼 창 목 재 ㈜	석 효 경	- 41	41	제 제
95	동신화학공업사	한 상 남	84 - 92	25	완 구
96	자유초자구 "	정 희 식	370 - 47	30	컵
97	동남화학공업㈜	박 해 조	- 62	25	페 인 트
98	안성 "	안 상훈	- 72	24	포로마린
99	서흥 "	남치호	- 92	38	도 금
100	대 홍 산 업 사	안 영 준	478	46	책 상
101	명 윤 실 업 (쥬	서 천 명	370 - 49	25	피 형
102	정 공 사	유 동 열	- 47	20	선박의장품
103	동국전기제작소	오명공	233 - 1	25	전기기기
104	유 창 실 업 ㈜	장 재 영	542	25	제 관

연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05	동화기공(쥐	이 병 철	신평동	496	46	플 랜 지
106	범 양 사	이 희 상		540	35	볼 트
107	유 신 기 엄	신 은 식		516	23	베 트
108	백 경 공 업 사	박 경 현		"	21	모타보드
109	㈜ 신 화 유 리	박 영 진		370 - 58	40	유리그 릇
110	세원전기산업 (주)	손 상 규		- 82	34	크 레 인
111	동 진 철 강 ㈜	이병태		- 59	37	평 철
112	위 한 국 이 기	박 용 일		528	36	FRP
113	유창정밀강 관공업 사	정 윤 조		525	22	시 린 다
114	성 일 기 계공 업 사	우양호		523	45	기 계
115	㈜ 한국야마야	산본수웅		475	42	명 란맛 젖
116	대우화학공업사	이 상 진		473	30	프라스틱
117	AP 한국카본	조 문 수		370 - 69	3 6	탄소섬 유
118	영남화학공업사	김 석 종		489	47	페 인 트
119	삼 원 산 업 ㈜	심 재 윤		512	48	. LPG 용기
120	보성기계공업사	전 호 영		516	26	선박의장품
121	영남정화 〃	최 삼 주		370 - 67	25	정 화 조
122	한국로타리스크린"	이 성 택		- 83	31	인쇄로라
123	광 성 공 업 사	강 복 석		- 58	26	개 줄
124	금 성 목 재 상사	유 재 특		- 63	23	제 재 목
125	동명라이닝	백 헌 창		527	31	브레이크
126	창 덕 제 강	김 영 기		55 7	20	강 관
127	동양금속공업사	오 천 석		529	46	나 사

연 번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28	동 화 사 료	이경희	신평동 370-99	36	어 분
129	태 창 산 업 사	박 원 백	469-1	49	전 구
130	대진기계 공업사	김 종 윤	370 -58	23	철구조물
131	영 진 공 업 사	안 몽 중	469	24	급 형
132	유성특수기업사	김 세 헌	441	44	키타
133	코리아낲코산업 사	이 일 성	519	23	밸 브
134	명진고무공업사	조용국	487	47	고 무
135	제 일 유 압	정 춘 국	526	22	유 압기 기
136	㈜ 삼 진	한 규 안	370-30	33	아 연 화
137	협 신 금 속	이태복	516	45	볼 트
138	경 덕 산 업	이병구	장림 1 동 316-8	276	Y 샤 스
139	우 영 양 행	최성 만	- 20	200	"
140	남 양 산 업 사	홍 삼 용	198-2	35	합 판
141	성 신 수 산 ㈜	김 용 섭	316-15	30	냉 동
142	대 영 물 산 ㈜	김 현 수	-16	33	수 산 물
143	삼양선용계기㈜	권청 량	-23	28	선박기자재
144	제일열기공업사	송 민 석	727-11	34	보 일 러
145	동우선기 "	정 병 림	316-6	37	선박의장품
146	쥐 남 양 사	이민호	91	41	수 산 물
147	정 공 산 업	김 경일	317-6	23	선박의장품
148	㈜ 조 영 상 사	송 철 근	장림 2 동 341-2	621	Y 샤 스
149	대 신 교 역 ㈜	정 환 일	325-66	530	신 발
150	쥐 경 방	김 각 중	341-3	276	Y 샤스

연 번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51	동 양 제 강 ㈜	차 상 구	장림 2 동 333-1	225	로 프
152	㈜ 부 민	권 영 근	496	218	의 류
153	아 주 물 산 ㈜	남 필 원	335-1	217	냉 동
154	일 성 산 업 사	이 성 만	16	212	수 지
155	쥐 순천 당제약	이백천	480-2	105	<u>o</u> }
156	合 호 산	배 종 언	435	196	유 리 판
157	한국이 연진공공업(주)	강계수	333-2	104	전 구
158	삼호물산㈜	조 강 호	783-9	196	냉 동
159	대 흥 실 업	김 태 식	771-3	169	Y 샤 스
160	위 한국도량	강 의 조	575	84	줄 자
161	정 우 실 업	임 정 웅	338-9	56	연 사
162	한국후직공업사	류 차 열	404-1	79	방탄후직물
163	현 대철 강공업 ㈜	이 성 주	367	52	철 근
164	피아레스현악기 🖰	이 종 형	484-1	68	키 타
165	미양양산공업사	김 재 용	3 49 - 2 3	52	우 산
166	위 협 동 금 속	문영훈	351-2	59	이 음 쇠
167	㈜ 일 성 실 업	이홍식	16	53	P.P 포대
168	(?) 성 림 상 사	임 성 주	476	51	실 내 화
169	쥐 미 화 당	윤 만 균	1073	92	우.돈 육
170	아 남 산 업 사	서 수 남	467	50	전 구
171	풍 광 제 작 소	박 상 일	281-4	50	안 전 망
172	부산합동탁주제조장	서 상 기	437-1	77	탁 주
173	신동양산업 주	장 무 웅	1072	92	어 망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74	위 다 신	변 병 생	장림 2 동 457-68	53	효 소
175	고 려 냉 장 ㈜	김 병 주	432	29	냉 동
176	경남초자공업사	박 종 범	368-3	45	유리제품
177	마린기업유	이 수 명	340-5	47	수 산 물
178	한국미부㈜	홍 갑 식	312	3 4	갑판피 복제
179	한일석면 공업(쥬	박 상 은	415-2	25	석 면
180	대 창목재 공업사	박 창수	317-9	20	합 판
181	쥐 삼 화 물 산	정 확 화	562	24	건 포 류
182	한 진 물 산	오 하 영	463-4	32	양장세 척
183	위 강 원 냉 장	이 순천	산 2	40	냉 동
184	위 다 신	변 병 생	344-3	29	의 약 품
185	쥐 대 진 기 업	박 윤 소	340-3	35	선박기 자재
186	해덕선박의장공업사	구 재 고	339-10	2.9	"
187	대 성 화 학	최 병 번	460-3	22	P.V.C
188	하 강 산 업 사	박 정 대	574	35	양 파 망
189	두 리 화 학 ㈜	김 이 현	463-3	32	합성 수지 pi pe
190	[주정 아선용품제작소	염성 민	339-9	28	AL 사다리
191	대화냉열공업㈜	박 용 현	341-6	27	냉 각 탑
192	쥐 금 승	강 수 환	339-6	40	냉동붕장어
193	남 영 산 업 사	박 중 호	457-2	47	유 압 기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업 원수	주 업 종
194	우협종합기계(취	강 세 욱	장림 2 동 556	21	진공펌프
195	남 경 산 업	박석 근	475	40	샷 터
196	현 대 사	박 원 백	349-23	30	의 류
197	한국치 공구공업 ㈜	하 영 수	287-1	48	치 르 구
198	㈜ 대 성 철 강	박 채 병	443	49	철 근
199	반 도 목 재 ㈜	정 연 우	다대동 380	930	합 판
200	쥐대한조선공사	남 궁 호	370-6	507	조선기자재
201	삼 미 조 선	강 신 웅	120-6	56	PRP 선
202	반도조선공업(주	권 오 민	375	49	보 트
203	동 성 금 속	유 춘 배	120-1	26	선박의장품
204	㈜ 삼 화 유 리	정 삼 화	구평동 41-7	514	식 기
205	㈜ 명 성	손 진 창	19	472	라이타
206	한보철강공업(큐	김 동 관	90	955	철 근
207	A 강 남 조 선	황 학 구	399	242	조 선
208	세 창 기 업 사	손 진 창	9	95	완 구
209	모 든 석 유 ㈜	안 영 철	418-1	60	방카 C 유
210	㈜ 세 전 사	정 태 윤	20-3	60	안 정 기
211	제 일 실 업	이 선 동	772-1	67	주 방용 품
212	동남크리스탈	김 재 만	125-5	45	식 기 류
213	은 성 사	박 도 원	감천 1 동 808	659	낚 시 대

연 번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기	종업 원수	주 업 종
214	㈜ 국 제	전 영 수	감천 1 동 682	441	브라우스
215	㈜ 남 성 조 선	강 동 근	391-1	277	조선수 리
216	A 만 진	김 수 야	771-3	279	Y샤스
217	세 화 수 산 ㈜	윤 화엽	695	57	수 산 물
218	송 림 공 업 사	임 철 왕	808	60	완 구
219	오 성 식 품 ㈜	채 동 근	771-5	66	장 류
220	한일정 유공업㈜	김 영 보	648	50	윤 활 유
221	원 진 수 산 ㈜	이건 영	405-3	55	수 산 물
222	쥐 적 고	안 영 구	702	87	시 계
223	신 서 공 업 ㈜	정 귀 두	181-1	76	기계공구
224	신 광 기 업 사	김 수 길	685-1	56	천 정 판
225	㈜ 서 진 포 장	손용모	649-5	40	지 함
226	환공식품공업사	서 엽	783-4	34	소 세 지
227	㈜은성사 2 공장	박 도 원	399	31	낚 시 릴
228	성 광 공 업 사	박 영 선	797-5	47	"
229	서 한 실 업	강재희	370	27	여 과 기
230	고려 당공예사	홍 성 국	29-19	32	복 각
231	대 지 공 업 사	서 수 도	510-1	20	완 구
232	신동정 판인쇄사	강 원 석	814-6	29	박 스
233	오 성 사	김영 묵	감천 2 동 12-118	85	낚 시 대
234	광명코팅산업사	이호노	105	22	고무장갑

○ 범민족 올림픽추진사하구 협의회 대의원

_ 구 	분	성		巴巴	주 소	직위 및 직업
회	장	崔	龍	洙	괴정 1 동 545-19	㈜ 대 야 대표
부	회 장	金	玉	洙	신평동 127	삼성약국대표
	"	柳	次	烈	괴정 1 동 740 자유APT	새 마을구지회 장
	"	趙	貞	鈺	괴정 1 동 740 자유APT 106-6073	Y.M.C.A 이 사
대	의 원	董	泰	烈	장림 1 동 1-1	부국금속대표
	<i>"</i>	張	元	南	당리동 431	㈜ 장 영 대 표
	"	宋	秉	奇	장림 2 동 349-14	새 마을구협의 회장
3	"	嚴	魯	美	감천 1 동 654	구 부 녀회 장
	"	金	昌	潤	하단동 497-12	한창주유소 대표
	"	徐		燁	감천 1 동 783	새마을 문고구지부장
	<i>"</i>	金	信	祐	괴정 3 동 286-9	구정화협의 회장
	"	白	盛	守	괴정 1 동 740 자유APT 102-2093	구 정 화 협 의 회 부 회 장
	<i>"</i>	金	昌	龍	괴정 2 동 374-16	구 체 육 회 감사
	"	裵	有	福	괴정 2 동 27-23	노 인 회회 장
	"	姜	宜	祚	감천 1 동 500-102	반공연맹 구지부장
	"	黃	承	榮	괴정 3 동 1018-15	구 의 사 회 장
	"	曺	圭	相	괴정 3 동 285-1	극동운수 대표
	"	金	孝	煥	괴정 4 동 1100-3 (4/7)	모드니가구대 표
	"	李	再	道	괴정 2 동 381-25	한 일운수 대표
	<i>"</i>	韓	在	昌	장림 2 동 333-2 (18/1)	한국이연진대표
	"	李	根	Œ	괴정 1 동 924 (5/2)	주 부
L	J	L			L	L

<u> </u>	·			
구 분	성	명	주 소	직위 및 직업
대 의 원	金	性宗	당리동 354-2	대흥인쇄사대표
"	金	成 燁	하 단동 528-14	삼 영 정 판 대 표
"	金 :	三顯	괴정 4 동 575-19	행 림한 의원 장
"	李!	勇 男	괴정 1 동 533-11	구의용소방대장
"	李	炳 九	당리동 342-12	덕 성 물 산 대 표
"	韓	宗 麟	장림 2 동	한창운수대표
"	金	東珍	괴정 3 동 389	㈜젯트스포츠대표
"	韓	炳 玉	괴정 4 동 551-12	제 일 교회 목 사
"	鄭	鎭 大	당리동 39-2	관 음 사 주 지
"	孫	祥 暎	당리동 116	부 산여 전 교수
"	金	成喜	장림 1 동 328-6	동인의원원장
"	鄭	鎬 岩	감천 1 동 541	후 생 의 원 장
"	李	在 文	괴정 1 동 740	대 동 상 호 신용금고이사장
"	全	永 洙	감천 1 동 682	(주) 국 제 대 표
"	全	圭 淅	괴정 1 동 532-8	대원물산㈜대표
"	柳	又 秀	하단동 840	동아대학교공과 대 학 교 수
"	金	洪 潤	장림 1 동 733 (5/1)	부산수산업협동 조 합 장
"	李	鍾 元	신평동 552	㈜청산전무이사
"	李	鍾 述	당리동 311-21	형제블록공업사 대 표
"	俞	二 燮	괴정 1 동 544 14-4	상 업
"	盧	仁 鉉	괴정 1 동 539-6 9-2	대 성 회 사
"	呉	基墩	괴정 1 동 740 자유APT	칫 과 의 사
"	徐	昌玉	괴정 1 동 493-6 7-7	보광산업대표
L.,		~		

子	분	성		명	주	仝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權	永	埰	괴정 1 동	740 101-1115	권영채 피닉	부과의사
	"	崔	光	雄	"	970-6 10-1	이광웅내.	과의 사
	"	金	容	泰	"	878 11-1	괴정 1동새	가 을급 고
	"	呉		燮	"	499-22 23-2	상	업
	"	金		勳	"	1065-55 2-2	상	업
	"	崔	慶	順	. "	894-3 12-1	상	업
	"	黃	瑱	喆	"	554-3 (1/5)	상	업
	//	鄭	容	謨	"	530-5 8-1	상	업
	"	朴	泳	澤	괴정 2 동	136 (4/1)		
	"	孫	忠	鉉	"	106-2 (18/3)	상	업
	"	李.	福	洙	"	216 (20/1)	상	업
	"	李	鎬	範	"	193 (2/2)	"	
	"	劉	永	旭	"	213-2 (16/1)	. "	
	"	李	元	鈺	"	213-6 (17/2)	부동산 충	중 개 업
	"	鄭	相	任	"	364-6 (37/5)	상	업
	"	蔣	昭	南	"	15 (31/3)	상	업
	"	鄭	榮	秀	"	378 (3/3)		
	"	李	平	淑	"	131 (4/2)		
	"	李	大	順	"	350-6 (24/4)		
	"	郭	松	緑	괴정 3 동	438-32	제 조	업
	″	金	永	郁	"	265	상	업
	<i>"</i>	申		實	"	297-3	가 구	업
	"	姜	春	雄	"	966-1	상	쉅

구 분	성		명	주	<u>소</u>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金	永	煥	괴정 3 동	1016-1	상		업
"	咸	貴	童	"	1015	마을	금고이	사장
"	曺	有	根	"	425-5	부 동	·산 소	개 소
"	康	貞	順	"	1230-44			
"	梁	承	樂	"	427-107	공		장
"	卞	世	民	"	437-64	상		업
"	韓	基	元	"	958	oj:	7	장
"	鄭	日	成	"	483-7	숙	叶	쉅
"	許	逸	秀	괴정 4 동	576-1 (2/4)	마을	급고이	사장
"	金	鎭	湘	"	1077-14 (3/1)	상		업
"	金	忠	孝	"	584-21 (13/3)		"	
"	尹	貴	斗	"	553-22 (10/4)		, "	
"	姜	鍾	琓	"	1230-1 (14/6)	세	탁	업
" .	林	敞	彦	<i>"</i>	1074-7 (20/1)	금	은	바
"	朴	瑢	煜	"	1210-11 (16/3)			-
"	朴	在	漢	"	1126 (6/1)	공 ·		업
"	鄭	鎭	斗	"	576-1 (2/5)	상		업
"	朴	惠	子	"	576-1 (2/5)		"	
"	張	光	愛	"	1082-69 (1/4)		"	
"	朴	判	世	"	550-12 (9/5)		"	
"	姜	泰	=	괴정 3 동	432-8	숙	박	업
"	崔	金	東	당리동 3	44-4(8-1)	사		업
"	全	秉	學	<i>"</i> 3	19-16 (10/4)			

구 분	성	명	주	소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金	亨 滿	당리동	343-5 (8/2)	상 업
"	安	貴 南	. "	373-4 (8/4)	"
"	池	根 壽	"	234-16 (33/3)	"
"	韓	英 洙	"	327-10 (17/1)	. "
"	梁	昌鎬	"	325-10 (32/5)	"
"	金	順從	"	317-81 (51)	설계사무소
"	尹	正孝	"	326-4 (14/4)	건 축 업
"	金	正煥	"	337-35 (7/5)	마을금고이사장
"	俞	鎭 旭	"	341-21 (6/3)	사 업
"	崔	鍾 云	하단동	590 (18-5)	건 축 업
"	朴	丁 守	"	506 (6/4)	상 업
"	高	錫萬	"	810-2 (35/4)	사 업 ㈜ 코숀대표이사
"	辛	榮 玉	"	484-401	주 부
"	李	容植	"	144-6 (27/1)	상 업
"	梁	熙 元	"	416-3 (25/1)	상업(광성상회)
"	鄭	宗 完	"	159-2 (2/5)	상 업
"	吉	春 成	"	608-50(31/1)	재단사(길양복점)
"	高	善愛	// .	555 (8/4)	주 부
"	崔	富 雄	"	384 (10/1)	농 업
"	†	英子	"	514-2 (16/4)	주 부
"	李	永 浩	"	605 (23/3)	농 업
"	朴	相大	"	609-21 (10/2)	상 업
"	金	三植	신평동	272 (3/6)	-

구 분	성		명	주	소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白	亨	基	신평동 111-164	(18/3)	엉터리상회대	게 표
"	具	日	根	" 82–150	(18/3)	부 산부 동 소 개 소 대	· 산 표
"	金	秉	世	" 41 - 19 (27/3)	정 산금속다	1
"	林	新	奎	<i>"</i> 260–4 (3/3)	대립부동산대	게 표
"	金	南	柱	" 93 (24/	2)	건 축	업
"	李	石	來	" 111 (21	/6)	신 평 유 티브이방송	선 대 표
"	朴	英	憲	<i>"</i> 111–379	(20/3)	광학식품대	게 표
"	諸	台	午	<i>"</i> 111–607	(19/2)	평화상회 대	표 [
"	趙	學	祚	" 161–174	(4/4)	대 명 당 다	<u> </u> 표
"	李	相	B	" 164-1 (3/5)		
"	林	良	雄	" 165–3 (1/5)	신평다방 다	
"	金	洞	潤	장림 1 동 산 173-	-4 (19/1)	제 일 종 고 등 학 교	합 . 장
"	金	貴	貞	725–1	(3/1)	웅변학원 >	형 영
"	李	相	喆	641-2	00 (9/4)	상	업
"	盧	鴻		<i>"</i> 325–2	4 (4/5)	의	사
"	成	任	奎	" 641-2	69 (9/3)	중 매	인
"	卓	珣	信	" 731 (5/3)	어	업
"	李		勇	" 727 (4/3)	상	업
"	申	元	鎬	<i>"</i> 815–1	(18/1)	70	업
"	金	彰	植	<i>"</i> 782–8	(13/5)	고	업
"	金	景	植	<i>"</i> 747 (5/4)	·	
"	韓	勝	男	<i>"</i> 77 (3,	/ 5)	7	업
<i>//</i>	都	龍	模	" 산 175	5 (19/2)		-

구 분	성	명	주	소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趙 担	뭁	장림 2 동 254		상	업
"	白竹	欽	349-13		장 림 당	대 표
"	金永	: 玉	<i>"</i> 615–139		상	업
"	魯鍾	i 烈	<i>"</i> 615–117		"	
"	姜小	筍	<i>"</i> 348–8			
"	閔 德	基	" 625 - 5			
"	申 磬	下雨	" 241 - 9		상	업
"	金力	古言	<i>"</i> 604–58		. "	
"	金原	翼	" 615 -328		"	
"	申 鑓	植	" 615 - 176		"	
"	洪	建	" 604-16		"	,
"	沈明	水	<i>"</i> 600–3		"	
"	崔前	石	다대동 1128 (9/2)		회 사	원
"	鄭,英	专守	" 857 (9/5)		약	사
"	韓板	1、杓	" 857 - 7 (9/2)		육 성	회 장
"	金性	E 榮	" 234 (2/5)		급 고 이	사 장
"	尹翁	貴	" 856-1 (9/1)		상	업
"	李春	₹ —	" 652-2 (15/3))	기 업 기	경 영
"	朴 鍹	唐	" 1160-5 (8/4))	회 사	원
"	柳三	成	" 652-5 (15/3))	회 사 :	간 부
"	韓敬	女 植	" 195 (9/1)		사	업
"	韓丁	東	" 878 (4/2)		수 산	업
"	金台	沧	" 789 (10/3)		써 비 스	스 업

구 분	성		명	주 소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李	奉	學	다대동 1128 (9/2)	주 부
"	林	秀	茂	구평동 233 (1-1)	회 사 원
"	崔	武	成	" 127-2 (8/2)	새 마 <u>을</u> 금고 이 사장
"	柳	寅	燮	" 226-3 (8/1)	부 동 산
"	金	寅	洙	" 111 (3 - 1)	성 화 원 원 장
"	李	秀	郷	" 125-9 (5/1)	양 곡 장
"	李	宗	甲	" 192 (1/4)	식 당 업
"	金	Ξ	道	"	상 업
"	朴	永	吉	" 125-9 (6/5)	
"	朴	石	圭	" 104-1 (6/5)	부 동 산 중 개 업
"	裵	榮	煥	" 115 (8/6)	상 업고 물 상
"	孫	永	祚	" 324 (2/4)	부동산 중개업
"	崔	善	竜	" 214 (1/2)	고 물 상
"	金	炅	鮮	감전 1 동 479-1 (14/3)	상 업
"	鄭	點	弼	<i>"</i> 75−2 (7∕6)	
. "	崔	廷	浩	" 296-22 (37/2)	회 사 원
"	金	盐	守	" 828-28 (37/2)	상 업
"	崔	文	憲	" 325-1 (21/4)	
"	徐	星	子	" 30 - 8 (28/4)	상 업
"	張	星	分	" 127 (7/5)	회 사 원
"	金	順	子	" 143 (4/2)	
"	尹	錫	天	" 502-12 (22/5)	목 사
"	金	富	平	471 (12/3)	상 업

구 분	성	問	주	소.	직	위 및 직	업
대 의 원	崔仁	洪	감전 1 동 34-2 (10/2)			
"	崔震	斗	" 464 -3	(12/4)	회	사	원
"	金 福	有	<i>"</i> 30–67	(11/4)	농		업
. "	柳大	衡	감전 2 동 16/3		종	교 단	괴
"	金 榮	默	<i>"</i> 16–91	(32/1)			업
"	劉永	俊	" 16 - 568	(2/3)	마을	월급고이.	사장
"	金 榮	祚	″ 16–51	(13/4)	약		사
"	朴 進	葉	" 13–13	(13/3)		"	
"	崔根	出	″ 15–29	(3/5)	상 .		업
"	金 邦	漢	" 13 -8 36	(8/2)		"	
"	金千	萬	″ 20-67	(35/4)			
"	李圭	珍	" 13-110	5 (32/5)	공		업
"	姜長	福	" 12-268	3 (19/2)	건	축	업
"	朴 喆	煕	″ 13–14	(13/3)	공		업
"	孫判	岩	// 19–19	(4/1)	건	축	업

沙下區廳 幹部名單

職 位 姓 名 職 品 長 廳 徹 生 丁 鎭 衛 副 廳 長 金 洪 淳 總 務 課 長 東 金 煥 企劃指導係長 相 裵 浩 政係長 行 金 胤 煥 民 市 새마을係長 鄭 炯 鎭 會 計 係 長 祥 金 洙 戸 民防衛係長 重 尹 淵 兵 教育訓練係長 李 茂 産 業 爲 民 室 長 尹 鍾 大 産 税 務 課 長 錫 愼 揆 緑 税 務1係 長 李 點 浩 水 道 務2係 税 長 金 戊 相 管 税 務3係 長 韓 秉 權 料 評 價係 長 朴 正 汶 Ι 設 税外收入係長 芳 建 金 玉 地 籍 課 長 金 東 胤 地 政 係 長 宋 勇 地 籍 係 長 愼 鏞 銀 築 建 社 會 課 長 元 金 圭 福 祉 係 長 閔 丙 九 建 清 掃 係 長 金 貞 坤 婦女青少年係長 李 昌 順

名 位 姓 課 튽 允 範 愼 環境衛生係長 泳 金 在 佑 食品衛生係長 韓 鍾 公害防止係長 林 長 根 課 腹 長 遺 崔 淳 一般民願係長 金 鍾 籍 係 長 李 世 銀 昱 務 係 長 高 昌 課 톥 浩 金 宗 榮 業 係 長 許 俊 燮 地 係 長 金 蒼 課 É 卓 李 義 理 係 長 安 秀 鳳 述 金 係 長 韓 福 務 係 長 鄭 敬 明 課 長 大 炫 金 建設行政係長 安 秉 土木係 長 權 奇 玉 號 課 툰 成 相 敬 建築指導係長 李 泰 祥 築 係 長 朴 正

發刊協賛者(無順)

烈 孔 周 趙 容 英 喆 朴 永 金 朴 海 光 雄 茂 白 永 佑 金 岩 李 潤 東 崔 金 崔 泰 盛 張 白 玉 洙 張 元 趙 良 金 洪 趙 士 默 朴 鍾 武 善 巃 成 洪 鎭 泰 Œ 李 永 來

<u>沙 下 誌</u>

 印刷
 1986年
 12月
 1日

 發行處
 1986年
 12月
 15日

 發行處
 沙下誌發刊推進委員會

 印刷處
 日光印刷<</td>
 社26-1621·1073

題字: 黙 海 金 容 玉

